충청남도 소방본부

충남소방 117년, 시간을 담다

1904 ~ 2021

The History of Chungnam Fire Services

충남소방행정사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발 간 사



조 선 호
충남소방본부장

지난 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스승과 같다는 '온고이지신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옛일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바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도 말합니다.

지나온 길을 되새겨보는 것은 반복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활동이므로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 당 태종 이세민이 명군이 된 것은 세 개의 거울인 삼감(三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중의 하나인 역사거울(史鑑)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었기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정치의 이정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특히, 화재를 비롯한 재난관리행정은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핵심적입니다. 예방부터 복구까지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사고와 대응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소방행정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소방을 비롯한 재난관리행정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난관리행정에서 역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 소방의 역사를 정리하는 활동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한 기록과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대단히 고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충남 소방가족 모두가 1년 동안 애써서 충남소방행정사 초판을 발간하는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 옛일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며
>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바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물론 처음 하는 작업이다 보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세상사 이치에 맞게 판을 거듭하면서 더욱 가치 있는 역사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소방유물을 발굴해 보존방안을 세우고 관련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유물복원과 사진전시 등 실로 적지 않은 성과도 함께 있었기에 더욱 벅찬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책자를 넘어서 조직의 정체성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남을 사랑하며 도민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자료수집과 정리에 애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충남소방 행정사〉 발간을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자문에 지과필개(知過必改) 득능막망(得能莫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것을 알면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능히 알아야 할 것을 안 후에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904년 논산 강경소방조가 최초 창설된 이후 충남의 소방 역사를 재조명한 최초의 역사책인 〈충남소방 행정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왔고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 충남소방은 1950년, 대전을 제외한 도내 모든 소방서가 폐지되는 등 어려운 시기도 이겨내며 현재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직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저는 충남소방이 우리 '충청남도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으로 뭉친 우리의 4천여 소방공무원, 1만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도민 안전을 위한 임산부 · 중증장애인 119이송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소방호스배낭 · 갯보드와 같은 신규 장비를 개발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소방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소방 행정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담아둘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소방공무원은 물론, 앞으로 소방에 몸을 의탁하게 될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역사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소방 행정사〉 집필과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편집위원과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모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언제나 여러분과 220만 충남도민께 안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격 려 사



이 계 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남 소방가족 여러분!

충남소방의 110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충남소방 행정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충남소방의 첫 역사서와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명심보감에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알아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전국 최고 충남소방이 있기까지 충남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께서는 각종 재난에 맞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전 소방의 여건은 제대로 된 소방장비와 훈련법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었지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투철한 사명감 하나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고, 지금의 소방인들은 그 정신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동안 충남은 전국 최초로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소방복합시설 내 유물전시관과 서천군 판교면 소방 사이렌 공원'을 조성하는 등 충남소방의 역사와 기록 보존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남소방의 노력은 향후 더욱 발전된 선진 소방이 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충남소방 행정사〉 발간을 통해 더욱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우리 충남소방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고, 동시에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소방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충남도의회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소방 행정사〉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격 려 사



먼저 〈충남소방 행정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는 단편적인 사실들의 기록으로서가 아닌 그 역사를 통해 배울 점과 잘못된 점을 바로 알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수반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의 발간을 기점으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충남소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전 익 현**



자랑스러운 충남소방의 첫 역사서인 〈충남소방 행정사〉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충남소방은 그동안 도민의 안전지킴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충남소방 공무원들의 영웅적인 헌신을 기록한 〈충남소방 행정사〉는 도민들에게 더 큰 믿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지 정 근**



〈충남소방 행정사〉 발간을 위해 애쓰신 조선호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충남소방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충남소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김 복 만**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지 누구도 정확한 충남소방의 활동들을 기억하진 못합니다. 이 역사서는 현재 진행형의 책이고 남아있는 빈 페이지가 아직 무수히 많습니다. 남은 빈 페이지들은 지금껏 해온 것처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우리 충남소방가족 여러분의 눈부신 업적으로 채워질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김 대 영**



도민 행복의 바탕에는 소방의 값진 땀방울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간한 〈충남소방 행정사〉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책으로 인해 우리 도민들은 충남소방의 자랑스러운 모든 활동들을 확실하게 기억할 것이고 여타 다른 조직에게도 적극행정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남소방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최 훈**

격 려 사



충청남도 모든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충남소방 행정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방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크고 작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했던 훌륭한 역사를 가진 충남소방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역사를 담아낸 〈충남소방 행정사〉 발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동반자로서 몸을 사리지 않는 소방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 역사의 숭고한 뜻을 바탕으로 충남소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용소방대원 모두가 한뜻을 모아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소방 행정사〉 편집과 발간에 힘써주신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1만여 명의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단체가 될 것임을 모든 소방가족과 도민에게 함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류 석 만**



117년의 충남소방의 역사를 담은 〈충남소방 행정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충남소방이 굳건한 조직으로 어떠한 재난과도 맞설 수 있게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배 소방인들의 무한한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소방 행정사〉는 우리 충남소방의 귀중한 역사이자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여야 할 자료입니다. 이를 통하여 소방역사에 대한 의식과 정체성을 다져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각종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집필과 발간, 자료수집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여성회장 **박 효 숙**

CONTENTS

발간사 2
격려사 4

사진으로 보는 충남소방 10

제1장 충남의 역사 **50**

제2장 충남소방의 역사 **70**

제1절 시대별 발전사 72
- **01.** 고려 · 조선시대 73
- **0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 76
- **03.** 정부수립과 경찰제도 속의 소방(1948~1970년) 82
- **04.** 시 · 군 소속의 소방(1971~1991년) 84
- **05.** 광역자치체제의 소방(1992~1999년) 86
- **06.** 충남소방의 성장과 발전(2000년~) 88

제2절 기관별 발전사 92
- **01.** 소방본부 93
- **02.** 충청소방학교 96
- **03.** 천안동남소방서 98
- **04.** 천안서북소방서 103
- **05.** 공주소방서 110
- **06.** 보령소방서 115
- **07.** 아산소방서 121
- **08.** 서산소방서 125
- **09.** 논산소방서 130
- **10.** 계룡소방서 136
- **11.** 당진소방서 141
- **12.** 금산소방서 148
- **13.** 부여소방서 152

14. 서천소방서 158
15. 청양소방서 164
16. 홍성소방서 168
17. 예산소방서 172
18. 태안소방서 176

제3절 의용소방대 발전사 181
01. 의용소방대 기원 182
02. 충남 의용소방대 발전 183
03. 지역별 의용소방대 성장과 발전 188

제3장 소방행정분야별 발전사 237

제1절 소방행정 238
제2절 소방장비 251
제3절 예방홍보 268
제4절 화재대응 278
제5절 구조대응 299
제6절 구급대응 307
제7절 특수구조 313
제8절 상황관리 330
제9절 화재조사 및 소방사법 340

부 록 354
1. 충남소방연표 356
2. 충청남도 소방유물 387
3. 충남소방본부 선정 10대 주요사 391
4. 한발 앞선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의 모습 402
5. 소방관서 설치 현황 416
6. 역대 소방관서장 470

사진으로 보는 충남소방 117년사



1904

~1948
(미군정시기)

~1945
(일제강점기)



~1970
(대한민국)















~1991
시 · 군 소속의
소방

2017~
소방청 설립과
국가직 전환 이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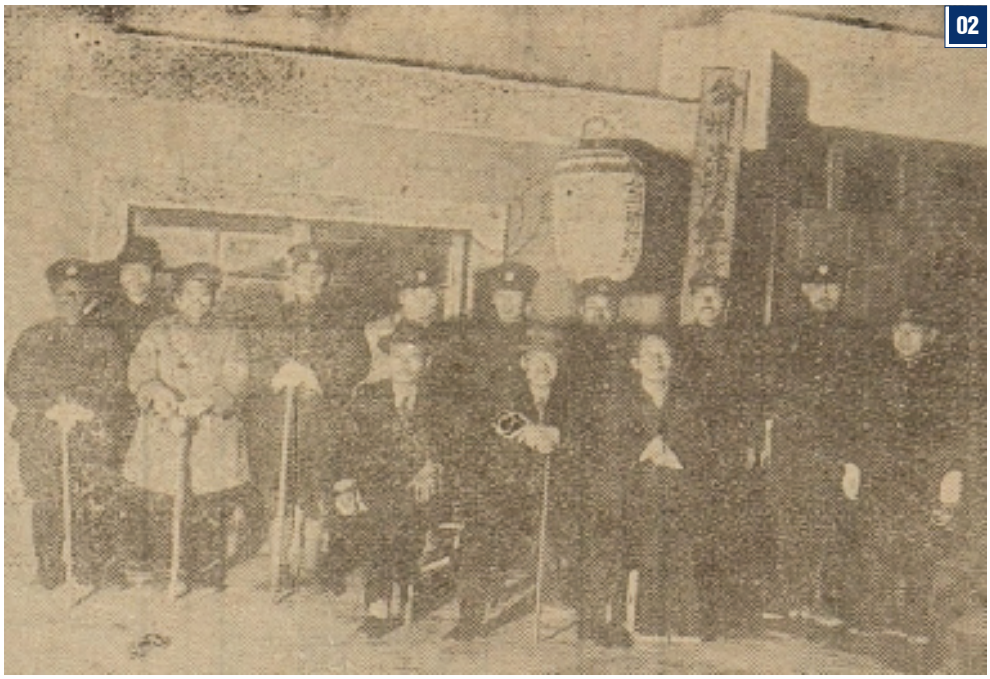
~ 2016
충남소방본부
발족 이후





1910~1945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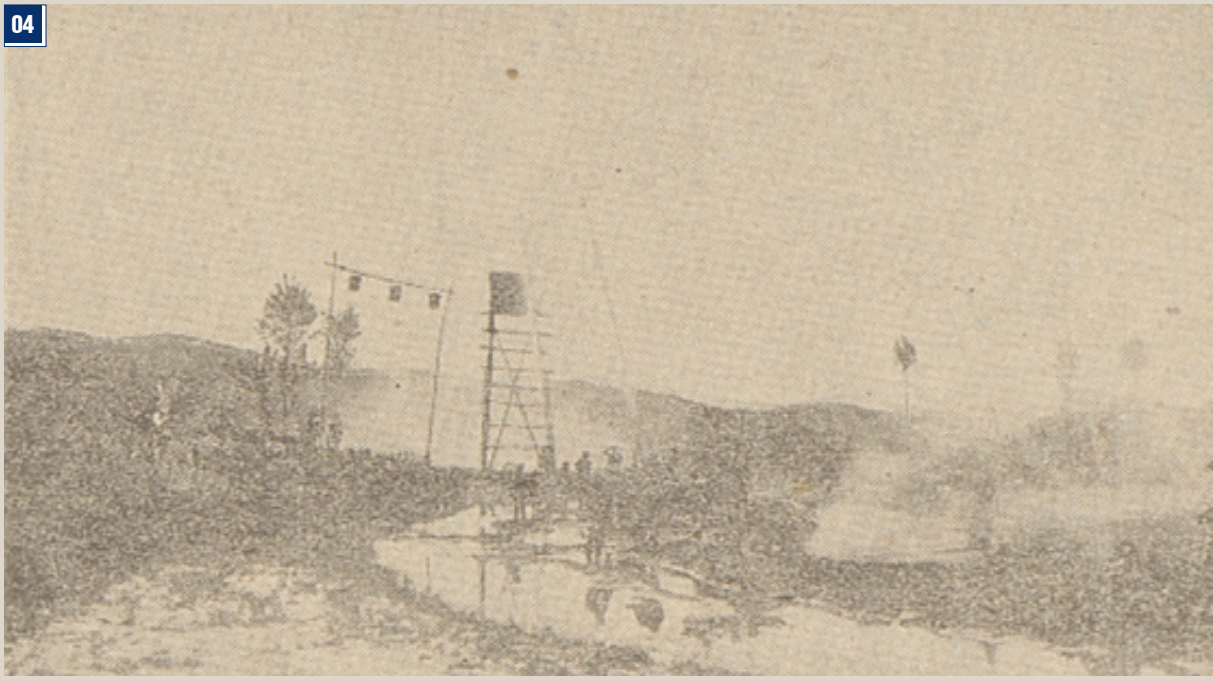

01


02


湖南
春空に五彩の水柱
江景消防二十五周年を祝ふ春季大演習の壯觀
江景にも幼稚園が
全北砂防
役員
公會堂
の私域
米田稔一

03

04



01. 1926년 공주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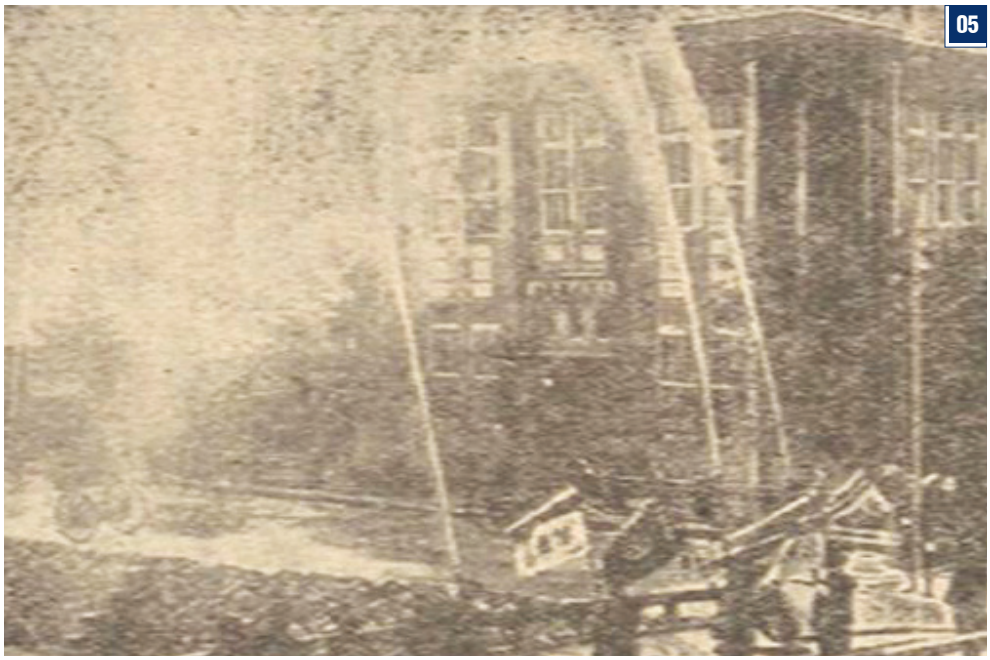
02. 공주소방조 야간 경계근무 후 기념사진

03. 1929년 4월 강경소방조 창설 25주년 춘계 소방훈련 대연습(동아일보 기사 발췌) 충남소방 최초의 근대소방대인 논산 강경소방조는 1904년에 창설된 것으로 추정

04. 1932년 천안소방조 창설 20주년 기념 추계 소방연습

05. 1935년 공주소방조 춘계 소방훈련

06. 1940년 천안경방단 육상대회 우승 기념





1945~1948
미군정시기

01



01. 1945년 미군정장관 천안소방대 방문 기념



02



03



04

02. 1945년 천안소방대 결성식

03. 미군정기 주한미군 소방대가 사용하던 중고 소방차를 무상으로 인수 받아 사용

04. 1946년 대산의용소방대 분열식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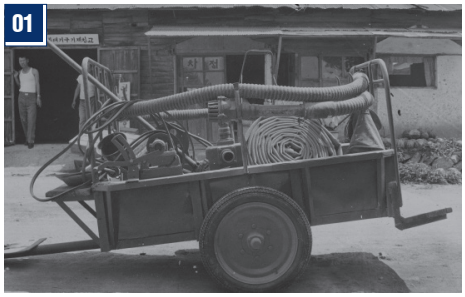
01. 1950년대 농촌지역에서 자치적으로 기금 마련. 경운기에 양수펌프와 소방호스를 싣고 출동

02. 1950년대 아산소방대가 미군으로부터 양여 받은 군용지프 개조(출동시간 단축)

03. 1950년대 소방차가 없던 태안 원북의용소방대. 드럼통을 개조해 자체 제작한 리어카 소방차

대한민국 정부수립 ~1970 이후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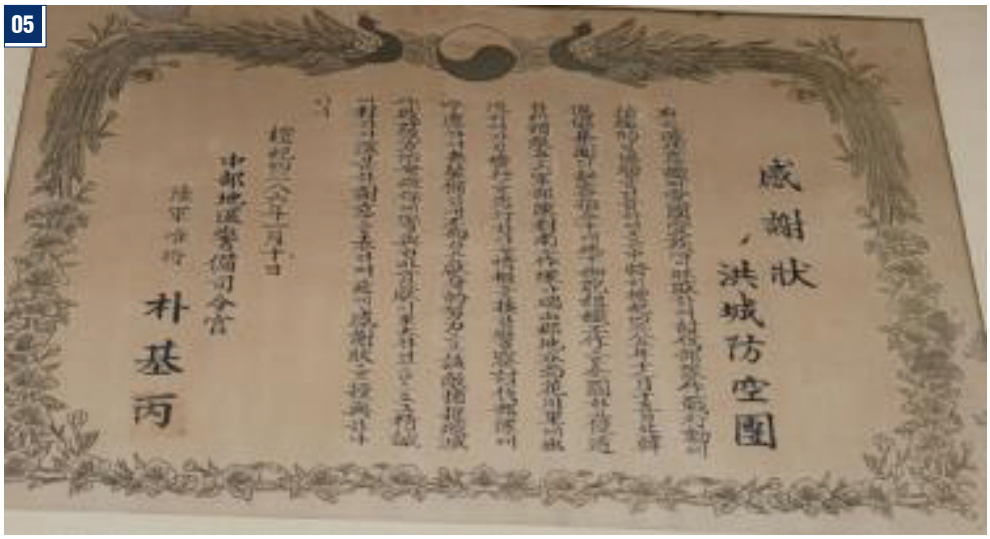


04. 1950년대 천안소방대 화재진압 시범 모습 (소방호스가 낡아 여기저기 분수처럼 솟아 오름)

05. 1952년 12월 15일 서산시 지곡면에 출몰한 북한군 퇴치 공헌에 대한 당시 국군중부지역사령관(박기병)이 홍성의용소방대에 수여한 감사장

06. 1960년대 예산 덕산소방대 지프소방차로 방수 시연하는 모습

07. 1960년대 서산 부석면 중학생들이 양동이를 전달해 불을 끄는 소방훈련을 하는 모습









08



09

08. 1960년대 아산 온양소방대 겨울철 화재예방홍보 가두행진 모습

09. 1960년대 덕산의용소방대 군용지프 탑승 출동하는 모습

10. 1960년대 예산의용소방대 완용펌프 이용 화재진압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11. 1965년 서산의용소방대 밧줄 이용 긴급탈출훈련 모습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 1969년 1월 31일 천안역 경부선 열차 충돌사고 (사망 42명, 부상 131명)

13. 1969년 서산의용소방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홍보 가두행진 모습

14. 1970년 온양의용소방대 사다리 활용 화재진압 방수시연 모습

15. 1970년대 군용지프 차에 펌프를 장착하고 트레일러에 호스릴을 장착해 소방차로 사용

16. 1970년대 금산의용소방대 불조심 홍보 가두행진 (소방차, 오토바이, 도보로 대열하여 가두행진 하는 모습)

17. 1970년대 서산 대산의용소방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지프소방차를 대열하여 가두행진 하는 모습

18. 1970년대 금산 불조심 캠페인에 취주악을 하는 초등학생 음악대와 주민이 참여한 대규모 행진 모습

19. 1970년 5월 13일 천안소방서 개서식 (당시 충남지역에 최초로 설치된 소방서)

1971~1991

시 · 군 소속의 소방

01



02



03





04



05



06

01. 1971년 조치원소방대 소방훈련 모습

02. 1977년 천안의용소방대 소방훈련 모습 (천안역 광장)

03. 1977년 9월 태안의용소방대 소방훈련 모습

04. 1978년 태안의용소방대 장비검열 및 소방훈련 모습

05. 1980년 소방차에 불조심 장식을 설치하고 짚더미에 불을 피워 화재예방 홍보하는 모습

06. 1980년 불조심 강조기간 오토바이 소방대를 선두로 가두행진 하는 모습



07


08



09


10


11

07. 1982년 예산 덕산의용소방대가 국산 소방차를 첫 도입하여 안전 기원 고사 및 시동식 모습

08. 1982년 사다리 전개 소방훈련 모습

09. 1983년 충남 대전소방서 119구급대 활동 모습 (1980년 10월 2일부터 충남 최초 구급업무 시작)

10. 1984년 천안의용소방대 전국소방왕 선발 예선대회 모습

11. 1985년 완용펌프를 리어카에 실어 하천으로 물을 길으러 이동하는 모습

12. 1985년 전국소방왕 선발 충남 예선대회 호스매고 달리기 경연대회 모습


12



13

14





13. 1985년 불조심 강조의 날 기념 가두행진 (천안역 일원)

14. 1986년 8월 4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화재(재산피해 20억원 추정)

15. 1990년 4월 17일 천안 송유관 폭발 휘발유 유출 화재(재산피해 3,000만원 / 주민 500여 명 긴급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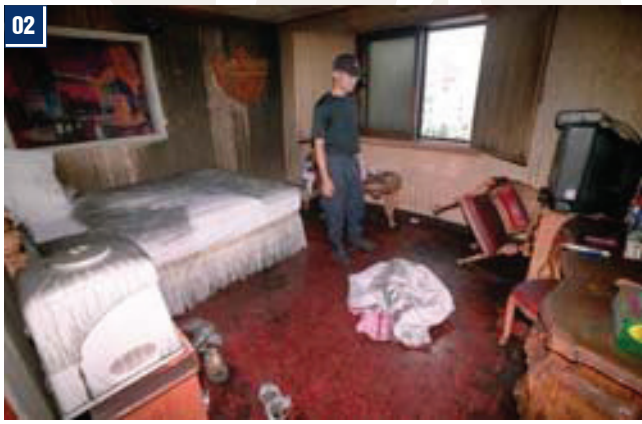
1992~2016

충남소방본부 발족 이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1. 1993년 4월 19일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사망 34명, 부상 2명)

02. 2001년 8월 3일 천안 꿈의궁전 여관 화재(사망 6명, 부상 2명)

03. 2002년 3월 11일 금산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부상 1명, 재산피해 3억원)

04. 2002년 12월 10일 서천 금매복지원 노인요양시설 화재(사망 9명)

05. 2003년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망 8명, 부상 17명)

06. 2003년 7월 6일 당진 가원다방 화재(사망 5명, 재산피해 9,700만원)

07. 2006년 2월 14일 아산 휴대용 부탄가스 생산 공장 폭발 화재(재산피해 1억9,800만원)

08. 2006년 10월 3일 당진 서해대교 교통사고 참사(차량 29대 연쇄 추돌로 사망 12명, 부상 45명)

09. 2006년 10월 20일 공주 원희정신과의원 화재(사망 5명, 부상 12명)

10. 2007년 1월 27일 예산 법륜사 대웅전 화재(재산피해 1억원)





11



12

11.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7만8,918배럴 원유 유출)

12. 2011년 3월 18일 서산 가야산 산불진화(저수지 담수) 중 추락한 충남소방헬기(정비사 1명 순직)

13. 2011년 3월 21일 산불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충남소방헬기 정비사) 영결식

14. 2012년 3월 15일 보령화력발전소 1 · 2호기 지하 전력공급 케이블 화재(재산피해 9,568만원)



13

14



15



16



17

15. 2012년 4월 25일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 보일러실 붕괴사고(사망 1명, 부상 3명)

16. 2013년 도서지역 등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호스릴소화전

17. 보령 삽시도(섬)에서 주민이 호스릴소화전을 활용하여 옆집 주택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18. 2013년 7월 18일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공주사대부고 학생 수난사고 참사(익사 5명)

19. 2014년 6월 전국 최초 의용소방대 생활안전구조대 발대식



18



19



20



21



22

20. 2014년 8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대비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자전거구급대
발대식

21. 2015년 1월 18일 천안
부탄가스 제조공장
태양산업 화재(재산피해
19억6,580만원)

22. 2016년 10월 8일
공주 계룡산 산악사고
요구조자를 소방헬기로
이송하려는 모습

2017~ 현재

소방청 설립과 국가직 전환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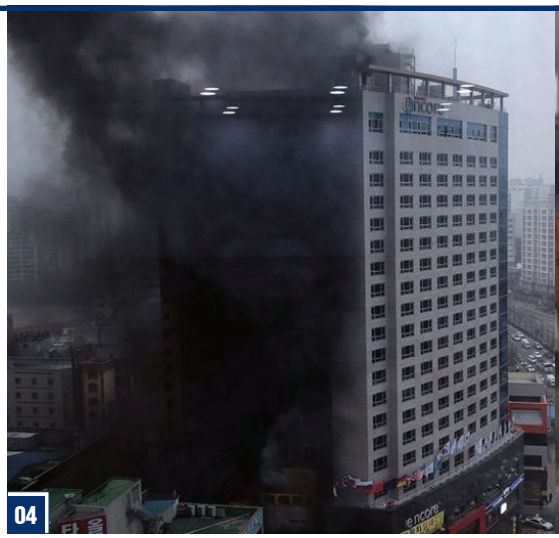


01


02



03



04



05





01. 2017년 4월 21일 예산 신암면 리튬전지 생산 공장 비츠로셀 화재(재산피해 45억117만원)

02. 2018년 3월 30일 아산 둔포면 도로상 개 포획 출동 소방차량 교통사고(소방공무원 3명 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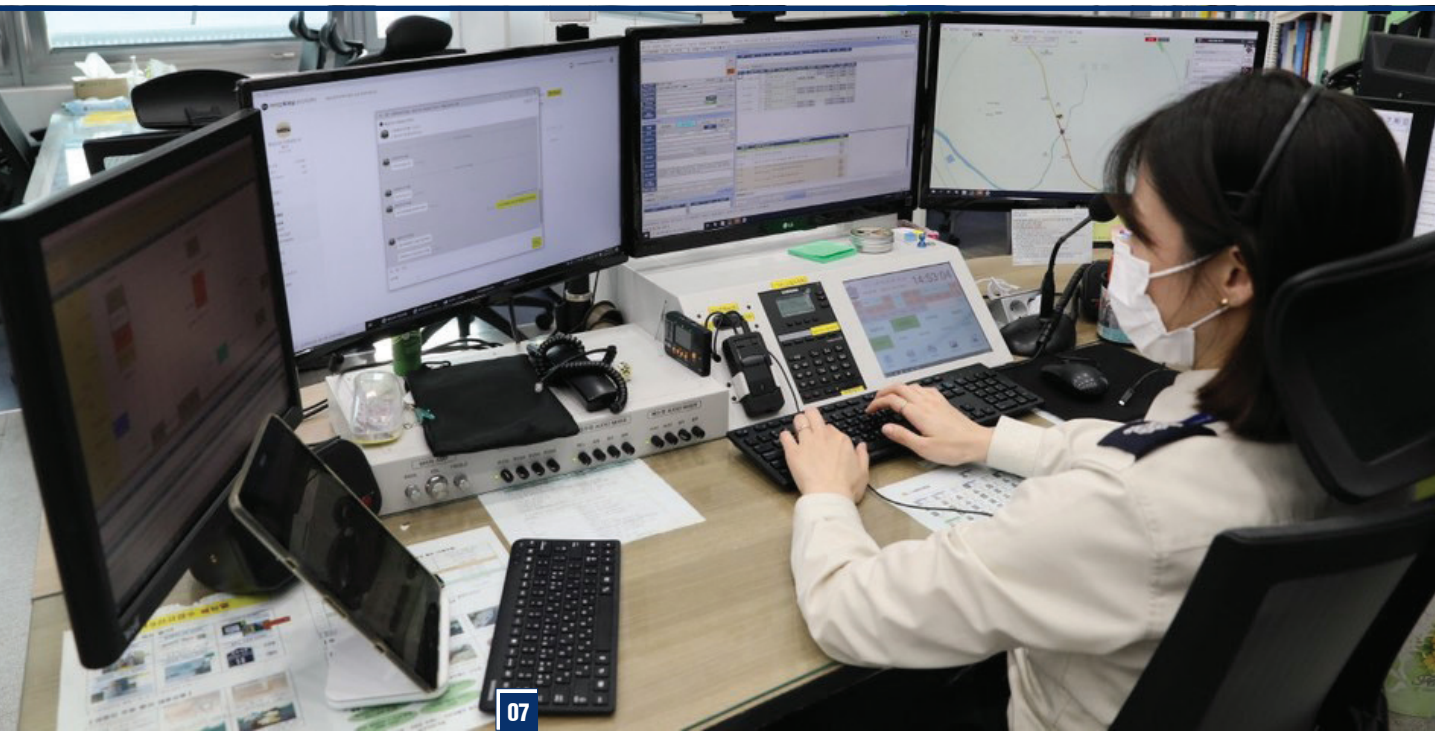
03. 2018년 4월 2일 아산 둔포면 교통사고 순직 소방공무원(교육생 2명 포함) 합동 영결식

04. 2019년 1월 14일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사망 1명, 부상 2명, 재산피해 5억1,054만원)

05. 2020년 2월 3일 도내 처음 도입한 코로나19 감염병환자 이송 119음압구급차(장비)

06. 2020년 8월 21일 임산부 및 감염방지 전문 119구급대 발대





07



08



09

07. 카카오톡 구급상담서비스 운영 장면

08. 양승조 도지사 참석 119수어통역 서비스 시연

09. 그림으로 보는 119응급환자 문진표 운영 장면

10. 2021년 1월 충남소방본부가 최초로 시행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병원 이송 119구급서비스 모습

11. 2021년 2월 15일 논산 구조대원이 축구 골대 그물망에 걸려 의식이 없는 고양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

12. 2021년 3월 18일 논산 타코마테크놀러지공장 화재(사망 1명, 폭발로 구급대원 3명 등 9명 부상)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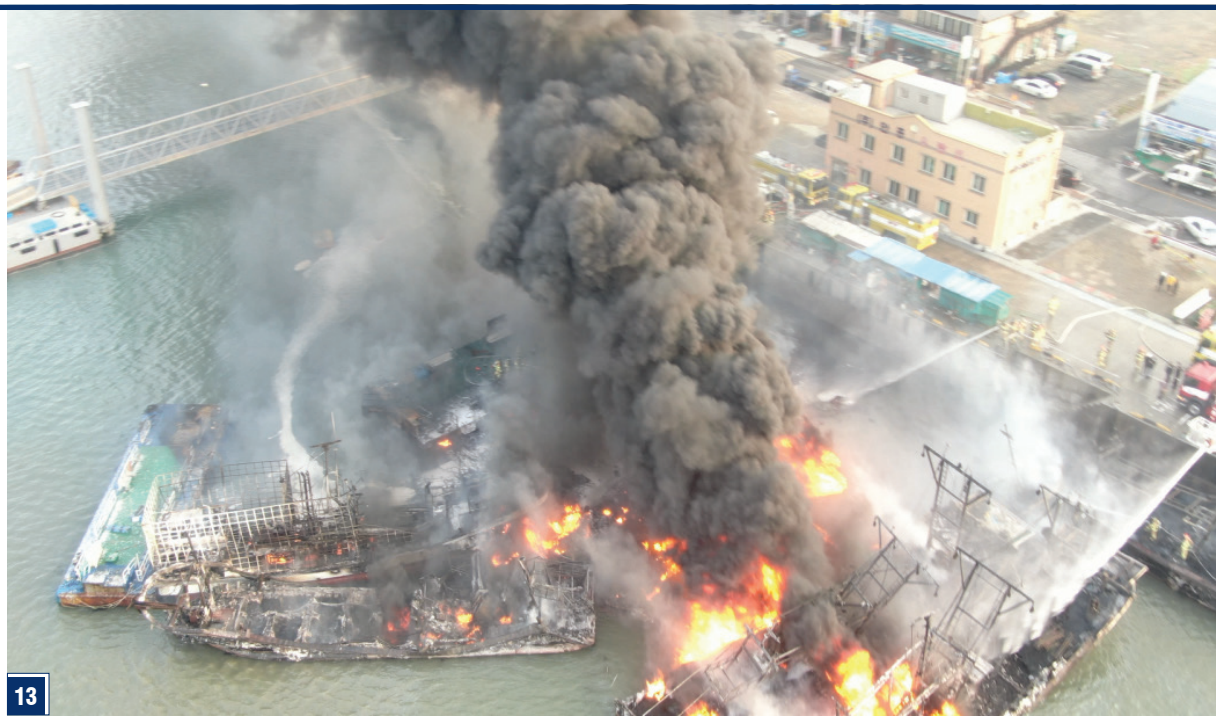




11



12



13





14

13. 2021년 3월 23일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28척 소실, 재산피해 49억3,60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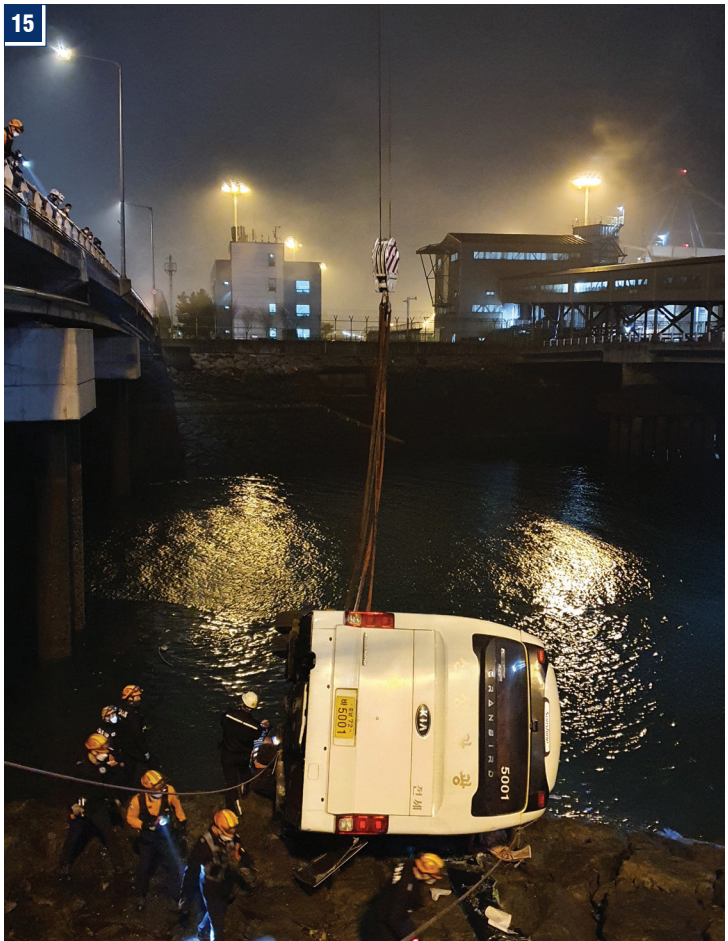
14. 2021년 3월 23일 천안 해태제과 화재(재산피해 38억2,718만원)

15. 2021년 3월 28일 당진 현대제철 통근버스가 8m 아래 바다 제방으로 추락한 사고(사망 2명)

16. 2021년 4월 12일 충남소방헬기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이송 훈련 모습(음압캡슐 활용)



15



16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임산부 전용 119구급대와 함께!
충남 임산부 전용 119 구급차 출고식
2021. 6. 17.(목) 충청남도
17


소방호스배낭
충남 119
18


소방호스배낭
충남 119


19


구조대 발대식
계룡산 산악 전문
20



21

17. 2021년 6월 17일 충남 임산부 전문 119구급차 출고식

18. 2021년 6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소방호스 자동 전개 특수배낭 시연 및 산불현장 진화 모습

19. 2021년 7월 19일 화재 · 구조 · 구급 분야별 '출동왕' 선발 시상

20. 2021년 7월 28일 도내 최초 계룡산 '산악 전문 구조대' 발대

21. 2021년 7월 26일 전국 최초 갯벌 인명구조대 발대 및 갯벌구조전술 대회



22

23







24

22. 2021년 8월 11일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출장세차 중 화재(부상 1명, 재산피해 15억2,039만원)

23. 2021년 8월 12일 충남소방본부 '가치가유119' 아산 화재피해주택 행복하우스 제1호 헌정식

24. 2021년 9월 6일 충남소방본부는 홍성 서부면에서 실종된 치매노인을 지켜 생명을 구한 백구에게 세계 최초로 '제1호 명예119구조견(소방교)'으로 임명하고 개집, 명패, 개사료, 꽃다발 등을 수여

25. 2021년 9월 9일 고층화재진압용 군집드론 시범훈련(충청소방학교)

25




소방헬기 119 지화대 운영
119 Helicopter Operations in Aerial Fire-fighting

26


-도서지역(유부도) 소방력 신설-
우리 섬, 안전지킴이 발대식
충청남도서천소방서
충청남도

27


28



26. 2021년 10월 5일 도내 최초 '소방헬기 119진화대' 운영

27. 2021년 10월 7일 도내 최초 우리 섬, 안전지킴이 발대(서천 유부도)

28. 2021년 11월 5일 소방장비 기증식 모습(온두라스에 소방차 4대와 소방장비 20세트 기증)

29. 2021년 11월 5일 소방유물 · 사진 전시 및 리어카 소방차 방수 시연 모습


29













충남소방행정사

제1장

충남의 역사

제1장
충남의 역사

01. 충남의 지명 유래와 변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충청(忠淸)'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제(道制)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성종 14년(995)의 10도제에서 충남지역에는 하남도(河南道)가 설정되었다. 그 후 5도 양계 체제로 바뀌면서 5도는 도 경역 내 계수관(界首官)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도명을 만들었고, 고려후기 충청 지역의 도명은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 양광(주)도(楊廣州道), 충청(주)도(忠淸州道) 등이 사용되다가, 충숙왕 원년(1314)부터는 양광도라는 도명으로 굳어져 조선 건국초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의 충청도는 조선초기인 1395년(태조 4)에 종전의 양광도가 바뀐 것이다. 양광도가 충청도로 개칭된 이유는 태조 4년에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양주(楊州) · 광주(廣州) 관할 고을을 양광도에서 갈라 경기(京畿)에 옮겨 붙이게 되자, 더 이상 양광도라는 도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충청도의 권역은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다.

조선시대 충청도의 도명은 일시적인 명칭 변경이 8도 가운데 가장 자주 있었다. 이는 종2품의 부윤이 부임한 경상도의 경주, 전라도의 전주와는 달리 충청도의 경우에는 도내의 계수관 고을인 충주 · 청주 · 공주 · 홍주가 모두 동등하게 정3품 목사가 수령으로 부임하다 보니 계수관 고을의 승강(昇降)에 따른 도명 변경이 자주 있게 된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충공도(忠公道) · 청공도(淸公道) · 청홍도(淸洪道)라는 도명이, 조선후기에는 충홍도(忠洪道) · 공홍도(公洪道) · 공청도(公淸道) · 홍청도(洪淸道) · 충공도(忠公道) · 공충도(公忠道) · 홍충도(洪忠道) 등의 도명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강등되었던 고을 명칭은 대체로 10년이 지나면 원래의 명칭으로 복구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다시 충청도라는 도명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경상도의 영남, 전라도의 호남처럼 충청도를 호서(湖西)라고도 불렀다. 흔히 호서는 제천의 의림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서쪽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 의림지는 우리 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저수지로 손꼽힌다. 제방의 축조 시기는 서력 기원 전후까지 소급되며, 삼국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보수하여 사용했던 큰 저수지이다. 이같은 의림지의 위치로 보아 호서의 '호(湖)'는 의림지를 지칭한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한편, 호서라는 명칭이 금강 이남을 지칭하는 호남의 대칭으로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즉 충청도의 별칭인 호서라는 명칭은 전라도 호남이란 별칭이 널리 사용된 이후 생긴 명칭이고, 호남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다분히 금강 이남이라는 데서 연유하기 때문에, 충청도도 의림지의 서쪽이라는 견해보다는 호남과 대칭적으로 짝지어진 데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튼 조선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호서라는 표현은 조선후기에 이르면 보편화 되어 널리 사용된다. 이는 이 때에 이르러 명실상부하게 충청도 전체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는 예증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충청도에는 관찰사가 한 사람만 파견되어 통치하였으나, 행정상 편의에 의하여 충주 · 청주 관할권은 충청좌도, 공주 · 홍주 관할권은 충청우도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였다. 당시 좌우의 위치는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국왕의 입장에서 정해졌는데, 유교문화권의 국왕 자리는 항상 상징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기 때문에 방위상으로 동쪽이 좌도, 서쪽이 우도에 해당했다. 그런데 1895년 5월에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충청도는 충주부(20군) · 홍주부(22군) · 공주부(27군)로 나뉘었고, 다시 1896년 8월 13도 체제로 바뀔 때 종전의 충청좌도 지역을 충청북도로, 충청우도 지역을 충청남도로 공식적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충청남 · 북도가 완전히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충청남도가 등장한 것은 125년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당시 충청남도는 37개군으로 구성되었고 수부(首府)의 위치는 공주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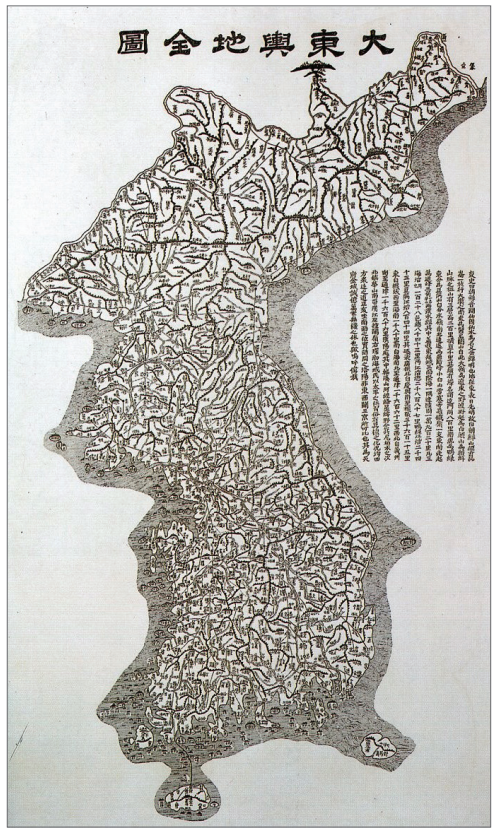


사진 1. 김정호 대동여지도

1896년 충청남도 고을의 명칭과 등급		
등급	군명 (고을수)	전결면적
1등군	공주군 (1)	1만결 이하
2등군	홍주군 (1)	7천결 이하
3등군	한산군 · 서천군 · 면천군 · 서산군 · 덕산군 · 임천군 · 홍산군 · 은진군 (8)	4천결 이하
4등군	태안군 · 온양군 · 대흥군 · 평택군 · 정산군 · 청양군 · 회덕군 · 진잠군 · 연산군 · 노성군 · 부여군 · 석성군 · 비인군 · 남포군 · 결성군 · 보령군 · 해미군 · 당진군 · 신창군 · 예산군 · 전의군 · 연기군 · 아산군 · 직산군 · 천안군 · 문의군 · 목천군 (27)	2천결 이하

일제는 1914년에 행정구역 통 · 폐합을 실시하였는데, 4월 1일자로 전국의 군은 317개에서 220개로, 면은 4,336개에서 2,522개로, 동리는 61,473개에서 58,467개로 줄어들었다. 충청남도는 종전의 37개 군에서 평택군은 경기도로 이속되고, 36개 군이 통 · 폐합되어 공주군 · 연기군 · 대전군 · 논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보령군 · 홍성군 · 청양군 · 서산군 · 당진군 · 예산군 · 아산군 · 천안군 등의 14개군으로 편제되었다. 군의 명칭으로 대전군 · 논산군 · 홍성군(홍주+결성) 등의 지명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932년에는 충남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겼다.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은 일제가 착취를 하기 위한 식민지 개발정책의 일환이었다. 한반도 강점 이후 일제는 경성을 중심으로 X자형의 철도망을 구축한 뒤, 이를 골간으로 식민지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청을 수원에서 경성으로(1910), 함북도청을 원산에서 나남으로(1920), 평북도청을 의주에서 신의주로(1923), 경남도청을 진주에서 부산으로(1925), 충남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1932) 옮기고, X축의 철도망 가까이로 옮긴 도청을 통해 착취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963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산군이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되었고, 1989년에는 대전시가 직할시[1995년에 광역시로 변경]로 승격되어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었으며, 2012년에는 연기군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면서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었다. 2021년 현재의 충청남도는 8개 시, 7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2년 12월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에 내포 신청사가 완공됨으로써, 대전광역시에 있던 충청남도청이 내포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사진 2. (구)충남도청(공주, 1896~1932)



사진 3. (구)충남도청(공주, 1932~2012)



사진 4. (현)충남도청-내포(2013~)

02. 내포문화권과 금강문화권

충청도 내부의 전통 문화권은 크게 서해안의 내포지역, 금강 유역, 남한강 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을 깎아내고 터널을 뚫어 도로를 내는 오늘날의 육로 교통 시대와는 달리 전통시대에는 흔히 물길은 서로를 이어주고 높은 산은 소통을 가로막았다. 따라서 남한강 유역인 충주지역과 금강 유역인 청주지역은 한남금북정맥으로 격리되고, 금강유역과 내포지역은 금북정맥으로 나뉘며, 금남정맥은 금강이 계룡산을 휘감아 흐르면서 동서 지역이 모두 금강 유역권에 포함되었다.

조선시대에 주로 충청우도에 해당했던 충청남도는 공주목과 홍주목이 이 지역 행정의 중심지였다. 공주목과 홍주목은 고려시대부터 계수관 고을이었는데, 이와 같은 계수관 고을은 각기 지역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충남지역은 크게 계수관 고을이었던 홍주를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가야산문화권]'과 공주를 중심으로 한 '금강문화권[계룡산문화권]'으로 크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내포(內浦)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후미진 부분'을 뜻하며, 순수한 우리말로는 '안-개'라고 한다. '안개'라는 지명은 오늘날에도 서해안 해안가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명사 내포가 고려시대부터 이미 충청도[호서]의 서북부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역사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면 내포라는 지명은 고려 공민왕대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며, 전라도 조운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청도 서해안 지역을 지칭하고 있다.

조선후기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금북정맥의 중심 산인 가야산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내포라고 지칭했으며, 이 중에서도 내포 중의 내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삽교천 유역이라고 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이 내포지역의 중심고을인 홍주목이 관할하던 영역인 서천에서 평택까지의 20여 고을[홍주진관(洪州鎭管) 소관]을 일컫기도 했다. 아무튼 내포지역은 충청도 지역 중 서해안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지리학자들이 금강유역을 내포지방이라 부르고, 대전 · 논산 · 강경을 연하는 내포평야(內浦平野)라고 잘못 설명하고, 금강중류를 내포평야, 하류를 전북평야(호남평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금강유역을 내포, 내포평야라고 일컫는 왜곡된 지명의 사용이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져, 우리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천주교에서는 아산 · 온양 · 신창 · 예산 · 대흥 · 면천 · 당진 · 덕산 · 해미 · 홍주 등지를 상부내포(上部內浦)라고 하고, 태안 · 서산 · 결성 · 보령 · 청양 · 남포 · 비인 · 서천 · 한산 · 홍산 등지를 하부내포(下部內浦)라고 부르며, 심지어는 금강가에 위치한 공주까지도 내포교회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내포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다. 처음 내포지방에 전래된 천주교가 점차 공주를 비롯한 내륙으로 확산된 상황의 반영으로 추측된다.

내포 지방 비산비야(非山非野)의 넓은 들판 가운데 우뚝 솟은 가야산은 우리나라의 전통지리인식에 의하면, 백두대간을 근원으로 하여 갈라져 나온 금북정맥의 정기가 모여 있는 곳이다. 내포지역은 동으로는 죽산의 칠현산에서 남쪽으로 치달리는 금북정맥의 본줄기에 가로막혀 충청도의 내륙지방과 격리되어 있었고, 남으로는 오서산에서 보령의 진당산으로 갈라지는 금북정맥의 작은 갈래에 의해 구분된다. 내포는 지형이 대체로 완만하고 해안의 굴곡이 심한데다가, 바다의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곳곳에 안개[內浦]가 형성되는데, 그 가운데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삽교천 주위가 가장 크게 발달하였다. 내포의 교통로는 곳곳에 발달한 포구를 이용한 수로가 중심이었다. 조선시대 역로의 주요간선로에서 비켜 있었던 내포지역의 육로는, 서울에서 충청수영에 이르는 도로망과 함께, 서울로 가는 지름길인 대진나루, 충청도의 행정중심지였던 공주와 통하는 차령(차동)고개가 중요하였다.

내포의 지리적 조건은 내포의 독특한 역사적 특징을 지니게 하였다.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외국문물 수용의 창구역할을 하였으니, 고대 불교문화의 전래, 안흥과 당진항의 발달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잦은 외국 세력의 침투가 이루어졌으니, 여말선초 왜구의 출몰과 조선후기 이양선의 출몰 등이 그것이다. 내포지역에서는 고려말에 성리학의 수용에 앞장섰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선시대 성리학적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았으며, 조선후기에는 실학자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하였다. 내포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다를 이용할 줄 알았다. 생선과 소금을 만들어 서울과 내륙을 드나들며 팔았으므로 이 지역에 상업이 발달하였고, 구릉지 개발과 해만간척을 통해 확보한 농경지는 사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사진 5. 조선후기 호서지도

금강은 총 유로 연장 401.4㎞, 총 유역 면적 9885.8㎢로서,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다.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북서 방향으로 초강 송천 보청천 등의 지류를 받아들이며 흐르다가, 신탄진에서 갑천과 합류하고 다시 청원군 부강에서 미호천과 합류한다. 이곳에서 금강은 물줄기의 방향을 서남방으로 틀어 정안천 은산천 논산천 등을 모아 군산만에서 서해로 유입된다.

그런데 오늘날의 금강(錦江)이 전통시대에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었다. 중국의 『당서(唐書)』에는 금강이 웅진강(熊津江)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백제에서도 웅진(熊津) · 사비(泗沘) · 백강(白江) 등으로 불리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웅천하(熊川河), 사비하(泗沘河) 등의 명칭이 보이며,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에서도 오늘날의 금강은 금강이 아닌 '공주강'이라는 표현[車峴以南公州江外]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고려시대에 금강은 금성산(錦城山)이 있는 전라도 나주에 있었다. 전라도의 금강(錦江)은 나주의 동남쪽을 경유하여 흘러 회진현 남서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갔다. 따라서 조선초기까지도 오늘날의 목포가 금강진(錦江津)이라고 불리웠다. 이 전라도의 금강은 지금의 영산강이다. 오늘날의 충청도 금강이 '금강(錦江)'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의 일이다. 웅진(熊津), 곰나루와 관련하여 '곰강'이라고 불리우던 명칭이 아름다운 한자어로 표기되면서 '금강(錦江)'이라고 일컫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도 처음에는 수역(水域)의 일정 지역을 지칭하던 명칭 [부분칭(部分稱)]이 후에 강 전체를 지칭하는 것[전칭(全稱)]으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 사실 조선초기 기록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강 전체를 지칭할 때 '錦江(금강)'이 아닌 '熊津(웅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충남의 내륙에 있는 계룡산은 금남정맥의 중심 산이다. 금남정맥(錦南正脈)은 전주 동쪽 마이산에서 북으로 치달아 대둔산, 계룡산을 거친 후 서쪽으로 망월산을 지나 부여의 부소산과 조룡대에 닿는다. 육로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과는 달리 수로 교통이 중요했던 전통시대에는, 산은 길을 막고 물은 길을 이어 주었다. 전통시대에 이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는 계룡산을 휘감아 흐르는 금강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금강문화권'으로 부를 수 있다. 바로 이 금강변의 공주와 부여에서는 일찍이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피었다. 내포문화권이 고대 중국의 선진문물이 들어오는 관문이었다고 한다면, 금강문화권은 이를 꽃피운 지역이었다. 또한 어진이는 산을 좋아한다고 했듯이[仁者樂山], 계룡산 자락과 가야산 자락에서는 조선시대 기호학맥의 기라성 같은 중심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03. 찬란한 백제문화의 터전

서해안을 끼고 있는 내포지역과 충청의 젖줄 역할을 해온 금강을 포함하고 있는 충남지역은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 금강 유역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동기 유적은 부여 송국리 유적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사진 6.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사진 7. 부여 송국리 청동기 유적지

충청 지역의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곳이 찬란한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점이다. 백제사, 백제문화를 거론하면, 혹자는 망국의 역사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지구상에 등장했던 나라 가운데 유사 이래 도대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었던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제국도 망했고, 당대에 인간 거주지역으로 알려졌던 영역의 절반을 지배했던 몽고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와 같이 명멸했던 무수히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처럼 백제도 망한 것에 불과하다. 고구려도 망하고 신라도 망하고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는데, 우리는 유독 백제가 망한 것에 대해 강한 미련과 아쉬움을 갖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여에서 중흥하던 백제는 전쟁다운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나당연합군의 기습공격에 갑자기 망하고 말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백제의 멸망에 대해 강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지니게 되었다.

찬란한 백제문화는 서해안을 따라 발달한 '바닷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바닷길은 흡사 오늘날의 철도 교통이나 고속도로망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만큼 정치 · 경제 · 문화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내륙의 깊숙한 골짜기와 평야지대보다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화전파 루트였고, 한반도의 서해안을 경유하는 이 해로는 중국이나 일본을 연결하는 대외 교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일찍이 이 해로는 선사시대 한강유역의 문물과 통하는 통로였고, 그에 연한 포구들은 백제시대에는 중국문화와 처음으로 만나는 현관이기도 하였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마애불은 이곳이 고대에 중국 선진문화 수용의 창구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애불은 자연 암벽에 조각한 불상을 말한다. 마애불의 기원은 서기전 3~2세기 경의 인도 아잔타나 엘로라 등의 석굴사원에서 볼 수 있고, 중국의 윈깡 · 룽먼 등의 석굴사원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백제는 태안의 백화산 중턱에 있는 태안마애삼존불을 통해 마애석상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인접한 서산마애삼존불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서산마애삼존불은 중국의 불교문화가 태안반도를 거쳐 부여로 가던 행로상



사진 8. **인도 아잔타나 석굴사원**
(출처:미술대사전)



사진 9. **중국 윈강 석굴사원**
(출처:유네스코 세계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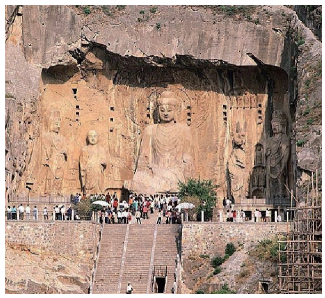


사진 10. **중국 룽먼 석굴사원**
(출처:이미지월드)

에 위치하고 있다. 즉 태안반도에서 서산마애불이 있는 가야산 계곡을 따라 계속 전진하면 부여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데, 이 길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통하던 옛길이었다. 이 옛길의 어귀가 되는 서산마애불 인근은 산세가 유수하고 천하의 경승지여서 7세기 초에 중국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느 고고학자는 이 서산마애삼존불의 신비한 미소를 '백제의 미소'라고 명명한 바 있다. 또한 예산에도 화전리사면석불이 있는데, 이는 백제시대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석조사방불로, 세련미에서도 서산마애불에 버금갈 만하다. 이와 같은 내포문화권의 마애불 전통은, 이후 경북 봉화의 마애석불상을 거쳐 경주 남산의 여러 마애석상에까지 이어졌고, 드디어 신라하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니, 실로 우리나라 마애불 조상(彫像)의 선구가 되는 셈이다.



사진 11. **서산 마애삼존불상**



사진 12.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서해안을 통해 수용된 중국의 선진 문화는 백제후기의 수도였던 금강문화권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공주는 475년(문주왕 1)부터 538년(성왕 16)까지 5대 64년간, 부여는 538년부터 660년에 백제가 망할 때까지 6대 123년간 각각 백제의 수도였다. 현재 공주에는 백제의 왕궁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특히 고고학계의 10대 발굴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무령왕릉이 있으며,



사진 13. **공주 공산성**



사진 14. **공주 송산리고분군**



사진 15. **공주 무령왕릉**



사진 16.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사진 17. **부여 부소산성**



사진 18. **부여 궁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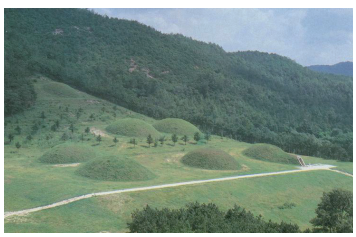


사진 19. **부여 능산리고분군**

부여에는 부소산성과 낙화암, 정림사지 5층석탑, 궁남지, 능산리고분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찬란한 백제의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1993년에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는 백제인들의 정신세계와 예술적 역량이 함축되어 이루어진 백제 공예품의 진수(眞髓)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는 바로 금강을 끼고 발달한 것이다.

공주와 부여가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시대, 사비시대에 주목되는 백제의 왕으로는 동성왕, 무령왕, 성왕, 무왕, 의자왕 등을 들 수 있다. 동성왕(東城王, 재위 479~501)은 백제 제24대 왕으로 금강 유역권을 지배기반으로 한 신진세력 등용, 신라와의 혼인동맹, 중국 남제에

사신 파견, 궁궐의 중수와 수도 방어망 정비 등을 통해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초기의 정치적 불안을 종식시키고,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였다. 비록 새로 부각한 신진세력과의 갈등으로 인해 암살당했으나, 그는 무령왕 · 성왕대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71년에 발굴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령왕릉의 주인공 무령왕(武寧王, 재위 501~523)은 백제 제25대 왕으로 40세인 501년에 즉위하여 23년간 재위하다가 62세인 523년에 돌아갔다. 키는 8척이요,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성품은 인자하고 관대하여 민심이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무령왕은 대내적으로 즉위 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왕권의 강화를 비롯하여 사회 ·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에 의해 상실한 한강 유역을 되찾는데 전력을 기울여 백제가 예전의 국력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26대 성왕(聖王, 재위 523~554)은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에 결단성이 있었다. 그는 북으로 고구려에 침탈당한 영토를 회복하는가 하면, 제2의 도약을 위해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는 대역사를 단행하였고, 국가의 통치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백제가 명실상부한 국가체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불교에 대한 돈독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사찰 창건과 불경 번역, 불교의 교류에 앞장섰고, 이로써 백제가 나름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군주이기도 하다.

서동요로 우리에게 친숙한 제30대 무왕(武王)은 600년부터 641년까지 42년간이란 오랜 기간 재위하면서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 무왕은 재위 기간 중 활발한 신라와의 전쟁 수행과 더불어 사비궁의 중수, 왕흥사와 미륵사의 창건과 같은 대규모 역사(役事)를 단행할 정도로 전제왕권이 강화되었고, 대외적 팽창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무왕의 재위 시기는 사비시대 정치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시기였으며, 정치적 안정기였다.

의자왕(義慈王, 재위 641~660)은 태자 당시 부모를 효로써 섬기고 형제와 우애하여 '해동증자(海東曾子)'로 불리었다. 이러한 평에 걸맞게 의자왕은 유교 정치사상을 강조하여 취약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의자왕은 즉위 초 국내를 시찰하고 죄수들을 재심사하여 사형수 외에는 모두 방면(放免)하여 민심 수습에 적극 나섰다. 신라 대야성 등 40여성을 회복하였으나, 나당군을 막지 못해 결국 항복하고 당에서 사망하였다. 최근 의자왕에 대해서는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의자(義慈)'라는 호칭도 의미심장하다.

백제의 충절인으로는 계백과 성충 · 흥수 등이 있다. 계백(階伯, ?~660)은 백제의 장군으로 신라군에 맞서 결사대 5천명과 함께 황산벌에서 전사하였다. 부여 팔충리가 태생지로 알려져 있으며, 논산 충곡리에 그의 묘소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부여의 삼충사 · 의열사와 논산의 충곡서원에 그의 위패가 배향되었다. 성충(成忠, ?~656)과 흥수(興首)는 의자왕에게 직간을 하다가 옥사하거나 귀양갔다.

04. 중세 충남지역의 다양성



사진 20. 예산 임존성

660년에 백제가 망하자 충남지역의 임존성, 주류성, 가림성 등지에서는 백제 왕실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부여풍(扶餘豊)은 의자왕의 아들로 왜에 파견되었다가, 사비성이 함락된 후 귀국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실상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다. 백제의 장군 흑치상지(黑齒常之)는 예산의 임존성에서 최초로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며, 후에는 당에서 위명을 떨쳤다. 백제의 왕족인 복신과 승려 도침도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복신(福信, ?~663)은 의자왕의 사촌 동생으로 무왕대에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했는데, 사비도성이 함락된 후 부흥군을 지휘하였다. 도침(道琛, ?~661)은 주류성을 근거로 부흥운동을 전개하여 사비성을 포위할 정도로 위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복신과 도침은 은산 별신당에 모셔져 있다.

신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백제 유민은 신라인에 비해 차별을 받아야 했는데, 9세기초 금강 일대를 관할한 웅천주 도독 김헌창(金憲昌, ?~822)은 백제인의 정서를 이용하여 신라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그가 웅천주 도독으로 부임한 지 채 1년도 안되는 짧은 동안에 국가 형식을 취하여 신라에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이면에는 웅천주가 백제의 옛 영토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백제 유민의 정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가 세운 장안국은 한때 신라의 9주 가운데 4주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충청도 전라도의 전 지역과 경상도의 서부와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장악하는 기세를 올렸다.

백제 부흥의 염원은 신라의 국내 정세가 극도로 혼란해지던 9세기 말 견훤의 후백제로 계승되었다. 견훤(甄萱, 867~935, 재위 892~935)은 의자왕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호도 '백제(百濟)'라 칭하면서 백제 유민들을 포섭해 감으로써, 한때 후삼국 가운데 가장 크게 세력을 떨쳤다. 그러나 930년의 고창(안동) 전투에서 패배한 후 수세로 몰리고, 934년 웅진(熊津) 이북의 30여 성을 빼앗기면서부터 대세는 고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열이 일어났다. 결국 아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감금되었던 견훤이 고려로 탈출하고, 신검이 황산벌에서 왕건에게 패하면서 백제부흥의 꿈은 무산되었다.

후삼국 시대에 오늘날의 충남 지역은 후백제와 후고구려 사이의 경계상에 위치했으며, 왕건의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의 혼란기에 호족 세력들은 각자 생존의 길을 선택했다. 해안 지역에서 새로

운 세력으로 성장한 면천의 복지겸(卜智謙), 박술희(朴述熙) 등은 일찍이 해상활동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왕건의 세력에 합류하여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여 양국의 쟁패지였던 충남지역은 위치에 따라 세력의 변동이 심하였다.

백제의 왕도였던 웅진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웅천주(熊川州), 웅주(熊州)가 설치되었는데, 이곳이 905년에 궁예의 후고구려 영역이었으나 918년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자 후백제로 전향하였다. 그러나 다시 934년 고려 왕건이 운주(후의 홍주, 홍성)를 점거한 후에는 고려 왕건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오늘날의 홍성에 있던 운주(運州)는 처음에 궁예의 수중에 있다가 후백제로 넘어갔으나, 934년(태조 17) 태조 왕건이 예산진에 행차하여 조서를 내리고 이어 운주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하자 후백제 영역에 있던 웅진 이북 30여성이 고려에 항복하였다. 당시 운주에는 긍준(兢俊)이라는 호족이 웅거하고 있었는데, 그는 왕건에게 딸[흥복원부인(興福院夫人)]을 시집보낸 홍주인 홍규(洪規)와 동일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웅주라는 지명은 940년(태조 23)에 공주(公州)로 개칭되었고, 운주도 후에 홍주(洪州)로 개칭되었다.

천안(天安)은 태조 13년(930) 왕건이 후백제 공격의 전진기지로 창설한 군사적 거점이다. 태조의 후비 가운데에는 천안부원부인(天安府院夫人)이 존재하고, 오늘날의 천안에는 태조산을 비롯하여 태조와 관련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천흥사를 비롯한 다수의 고려시대 절터가 남아 있는 것도 고려시대 천안의 독특한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논산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후백제와의 최후의 결전장이었다. 936년(태조 19) 9월 천안에 집결한 왕건의 고려군은 선산에서의 일리천 전투를 거쳐 연산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루었으며, 여기에서 신검의 후백제를 항복시키고 오랜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고려 통일의 위업을 기려서 최후 결전의 현장에 개태사를 지었다. 이와 같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충남지역은 다양한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군사적 거점이었던 홍주, 천안 등이 이후 고려 시대 역사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05. 충절과 선비정신의 발현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피었던 충청 지역이 조선시대에 이르면 선비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된다. 충청도는 흔히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이는 일찍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양반, 선비, 충신 · 열사가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선비는 한자어가 아닌 순수한 우리말이다. 따라서 '선비'라는 어휘의 용례에 대해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으로 소급하기 어렵다. 선비가 언제부터 사용되던 용어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인 조선초기의 기록에서는 선비의 고어가 '선ᄇᆡ'로 유사(儒士) · 유생(儒生)을 뜻하였다. 이 선비는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변해왔는데, 조선초기에는 고려 이후 유학을 공부하여 문한(文翰)을 전업으로 하는 문사를 지칭한 것으로, 유학을 공부하여 관리가 되려는 사람이나 관리가 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즉 유자(儒者)의 의미가 강하였다.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에서도 '儒'가 '선비 유'로 풀이되어 있고, 그 뜻은 '도덕을 지키고 학문을 힘쓰는 사람'으로 설명되어 있다. 반면에 조선전기의 '士'는 유학과 관련된 경우에만 선비로 풀이되고, 사(士)의 일반적 개념은 조사(朝士), 즉 벼슬아치였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이르면 '士'가 선비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士)가 조사(朝士)에서 유학지사(儒學之士)의 개념으로 확대된 것은 16세기 이후의 조정이 성리학을 수학한 사림(士林)들의 무대가 된 역사적 맥락과 관련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선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벼슬하지 못한 이들이 선비의 대종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讀書曰士(독서왈사)'라고 하여 사(士)의 훈인 선비도 관직에 관계없이 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조선말기의 선비상은 벼슬하지 못한 자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벼슬하지 못한 선비가 증가함에 따라 '士'의 본래적 의미, 즉 벼슬로서의 의미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교 교양인을 관료로 선출하던 전통시대의 인재등용 시험인 과거제도가 폐지되고(1894년),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나아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자, 더 이상 선비는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일제시대에 식민지 관료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학문을 공부해야만 될 수 있었다. 반면에 참된 선비는 식민지 관료가 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여 벼슬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포의(布衣)로 남게 되었다. 이제 선비는 '학식이 있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오늘날 일부 국어사전에서는 선비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우리가 선비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이와 같은 선비의 말기적 모습에 기인한다.

오히려 조선시대 대부분의 선비들은 같은 시기 세계 다른 지역의 지배층에 비해 건강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조선 선비에 대하여 갖고 있는 꼬장꼬장하고 깐깐하다거나 꽁생원같다는 표현은 조선말 망국대부(亡國大夫)가 된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기방어적으로 편향된 지식인상에 불과하다. 사림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의 선비들은 오히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인물이라 보수 세력의 강한 견제를 받기도 하였다.

선비문화의 전성기는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충청도는 선비문화의 중심지였다. 일찍이 여말선초 성리학이 수용되던 시기에 충남 출신 학자들은 성리학 수용과 연구에 앞장섰으니, 보령 남포의 이재 백이정(白頤正, 1247~1323)과 서천 한산의 가정 이곡(李穀, 1298~1351) · 목은 이색(李穡, 1328~1396) 부자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석탄 이존오(李存吾, 1341~1371)는 말년에 공주 석탄(현재의 부여 저석리)에 은거했으며, 야은 길재(吉再, 1353~1419)는 전라도 금주(錦州, 지금의 충남 금산)와 인연이 있다.

선초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이개(李塏, 1417~1456)는 이색의 증손자요, 성삼문(成三問, 1418~1456, 홍주)과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연기 · 회덕)도 충남과 연고가 있으며, 생육신인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부여 홍산 무량사에 부도와 영정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 한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었던 문무를 겸비한 진정한 선비 절재 김종서(金宗瑞, 1383~1453)도 공주 출신이었다.

한국의 유교는 16세기에 이르면 '조선적 성리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독자성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특히 16세기 기호유학은 화담계열(花潭系列)이 중심이었다. 화담 서경덕(徐敬德)은 무인 집안 출신으로, 제자를 받아들일 때 문호를 개방하여 양반뿐 아니라 양인 · 천인에게까지 문하에 출입하게 했다. 이중 충남의 내포지방에 살던 인물로 이지함 · 서기 · 홍가신 등이 있다. 『토정비결』의 작자로 널리 알려진 토정 이지함(李之函, 1517~1578)은 한산이씨로 보령사람이며 묘소는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있고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고청 서기(徐起, 1523~1591)는 천인으로서 서자인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으로 화담문하에 출입했다. 고청 서기는 공주의 공암에 충남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인물로, 원래 홍주의 상전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홍주에서 살았으나, 만년에 20여년간 계룡산 자락 고청봉 아래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그곳에 묻힘으로써 '계룡산문화권[금강문화권]'에 성리학적 학풍을 배태시킨 인물로 이해된다. 아산의 향현으로 홍주목사를 지낸바 있는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은 화담 서경덕의 제자인 민순(閔純, 1519~1591)의 제자이다.

한편, 16세기에 호서의 내륙지방에서도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유학자들이 활동했다. 계룡산의 처사 박증(朴增, 1461~1517, 노성), 후기 사림파 김정(1486~1520, 보은 · 회덕), 기묘명현록에 올라있는 이자(李耔, 1466~1524, 한산), 김안로를 탄핵했던 송인수(宋麟壽, 1499~1547, 청주 · 회덕), 유성과 연고가 있는 박순(朴淳, 1523~1589) 등이 금강유역의 대표적 인물이다.

06. 기호유학의 중심지

충청도는 조선시대 유학의 중심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유학이 크게 영남유학과 기호유학으로 대별되는데, 기호유학의 중심이 바로 충청도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학문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조선 후기 300년간의 중앙 정계는 대체로 기호세력이 주도하였다. 문신관료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던 조선시대에는 끊임없이 정치 운영 원리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조선후기 여당에 해당하던 기호학파의 유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기호학파의 기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방[畿內]과 충청지역에 해당하는 호서(湖西)를 가리킨다. 그런데 기호학파의 중심인물들은 호서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기호학파 가운데 율곡 이이의 적통을 계승하는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연산)과 그의 제자 신독재 김집(金集, 1574~1656, 연산),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 회덕),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 회덕), 초려 이유태(李惟泰, 1607~1684, 금산 · 공주), 송애 김경여(金慶餘, 1596~1653, 회덕), 그리고 김집 문하의 시남 유계(俞棨, 1607~1664, 임천 · 금산), 미촌 윤선거(尹宣擧, 1610~1669, 노성) 등이 호서의 금강유역 인물이다. 김장생 · 김집 부자가 연산을 중심으로 한 강학활동은 이 지역에 많은 선비들이 운집하게 하였으며, 이후 논산지역(연산, 노성)을 17세기 조선 예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들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다섯 사람(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유계, 윤선거)을 충청오현이라 했는데, 이들이 모두 금강 유역의 인물이다.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난숙기는 17세기인데, 이 시기의 주도적인 위상에 있던 유학자들은 기호, 그 중에서도 호서출신이 절대 다수였으니, 이는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산림도 예외가 아니었다. '산림(山林)'은 조선시대 산곡임하(山谷林下)에 은거해 있으며 학덕을 겸비하여 국가로부터 징소를 받은 인물로 산림지사(山林之士),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산림독서지사(山林讀書之士)의 약칭으로 임하지인(林下之人), 임하독서지인(林下讀書之人) 등으로도 불리었다. 산림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유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정계를 떠나 있어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정계에 진출해 있다 해도 항상 산림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후기 특유의 존재로서, 이들의 명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므로, 과거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과거를 거친 관료보다 더 존중되는 선비였다.

17세기 산림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현재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京畿)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 · 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 충청도 출신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김장생(연산), 박지계(신창 · 아산), 강학년(姜鶴年, 1585~1647, 연기 · 회덕), 김집(연산), 조극선(趙克善, 1595~1658, 덕산), 송준길(회덕), 송시열(회덕), 권시(權諰, 1604~1672, 유성), 윤순거(尹舜擧, 1596~1668, 노성), 이유태(금산 · 공주), 윤선거(노성), 윤원거(尹元擧, 1601~1672, 노성), 송기후(宋基厚, 1621~1674, 회덕), 이상(李翔, 1620~1690, 전의), 윤증(尹拯, 1629~1714, 노성), 권상하(權尙夏, 1641~1721, 청풍), 이기홍(李箕洪, 1641~1708, 연풍) 등이다.

17세기의 호서유학이 연산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인 회덕, 노성, 금산, 보은, 옥천 등지로 확산되었다고 한다면, 18세기의 호서유학은 금강 유역에 머물지 않고 남한강 유역과 내포 지역에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송시열의 적전은 수암 권상하(남한강 유역의 청풍)가 이었으며, 권상하의 문하에서는 이기론, 예론과 함께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3대 논변 중 하나였던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 일명 湖洛論爭)이 전개되었다. 이는 율곡의 주기론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 洛論)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 湖


사진 21. 아산 외암마을

論)으로 갈리었다. 호론의 중심 인물인 남당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내포의 결성현 남당[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 출신이며, 그의 지지자들은 예산의 병계 윤봉구(尹鳳九, 1681~1767), 매봉 최징후, 서산의 한간 김한록(金漢祿), 봉암 채지홍(蔡之洪, 1683~1741) 등이 있다. 낙론의 지지자들은 주로 경기에 살았지만, 중심 인물인 외암 이간(李柬, 1677~1727)은 온양의 외암[현재의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외암민속마을] 출신이다. 한원진의 적통이면서 기 철학자로 유명한 녹문 임성주(任聖周, 1711~1788) 또한 말년에 공주에 머물지만 원래는 청풍 출신이다.

이 외에도 토정 이지함의 조카로 대북의 영수이면서 영의정까지 지낸 아계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위치), 인조초 김장생 · 장현광과 함께 조정에 징소된 3대사림으로 예학에 뛰어났던 박지계(신창,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 효종때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의 억울함을 논하다가 죽임을 당한 학주 김홍욱((金弘郁, 1602~1654, 정조대의 벽파 김구주의 조상으로 서산사람, 성암서원 배향, 묘소는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 1611년(광해군 3)에 조광조 · 김굉필 · 정여창 · 이언적 등 4현(四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천되었고, 김육이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기여한 유명한 학자관료요 교육이론가였던 포저 조익(趙翼, 1579~1655), 권필 · 윤근수 · 이호민 등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글씨도 잘 썼던 동악 이안눌(李安訥, 1571~1637), 박지계와 조익의 문인이며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던 야곡 조극선, 숙종 때 오래 동안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로, 결성에 우거(寓居)했던 약천 남구만(南九萬, 1629~1711)), 홍주의 구봉산 아래 어재동(현재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해서 정조대에 10년 독상(獨相)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 남인의 영수 번암 채제공(蔡濟恭, 1720~1799), 추사체로 잘 알려진 완당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예산) 등이 내포의 인물이며, 주자학적 경전해석에 반기를 들고 자주적 학풍을 열었던 백호 윤휴(尹鑴, 1617~1680, 공주우거), 구운몽의 저자인 서포 김만중(金萬重, 1637~1692, 연산), 인문지리학자이며 『택리지』의 저자인 청담 이중환(李重煥, 1690~1752, 공주), 주역을 연구하여 독창적인 정역의 이론체계를 세운 일부 김항(金恒, 1826~1898, 연산) 등이 금강 유역에서 활동하였다. 이 외에 북학파 실학의 선구자였던 담헌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이 천안지역에 연고를 갖고 활동한 바 있으며, 면암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화서 이항로의 문인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에 앞장섰던 한말의 큰 유학자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유학사에서 충청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고,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지라고 자부해도 좋을 듯 하다.

흔히 선비문화를 논하면 문약을 들먹이곤 한다. 문치주의 사회를 지향했던 조선시대의 사림정치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비 개개인은 결코 나약하지만은 않았다. 선비들의 현실 비판과 개혁정신은 종종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선비정신은 오늘날의 나약한 현대인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충남의 선비들은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외적의 침략 앞에서는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앞장서 싸웠다. 일찍이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에는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아산), 김시민(金時敏, 1554~1592, 천안), 영규(靈圭, ?~1592, 공주) 등 충남의 명장과 의병이 큰 역할을 했다. 중봉 조헌(趙憲, 1544~1592)은 충남출생은 아니지만, 일찍이 홍주목 교수, 보은현감, 공주목 제독관 등을 역임하였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옥천군 안읍밤티(安邑栗峙)로 들어가 후율정사(後栗精舍)라는 서실을 짓고 제자 양성과 학문을 닦는 데 전념하여 충청도의 선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므로, 의병을 일으켜 금산전투에서 순절할 때에 충청도의 선비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전통시대 대부분의 의병들은 원래 창칼을 들고 싸움을 하던 무인이 아니라, 서책을 갖고 글을 읽던 문인이었다. 단지 외적의 침략에 맞서 붓을 내던지고 정신력을 바탕으로 기병한 것이다.

조선시대 강건(剛健)한 선비문화의 전통은 근대에 이르러 항일 구국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선말 일제강점기에 호국에 온몸을 던졌던 의병장이나 독립운동가로 민종식(閔宗植, 1861~1917), 이남규(李南珪, 1855~1907), 김복한(金福漢, 1860~1924),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이상재(李商在, 1850~1927), 이종일(李鍾一, 1858~1925), 유관순(柳寬順, 1902~1920?), 이동녕(李東寧, 1869~1940), 김좌진(金佐鎭, 1889~1930),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윤봉길(尹奉吉, 1908~1932) 등이 충남출생이거나 충남과 연고를 지니고 있다.

임선빈
문학박사(한국사 전공),
現 경기도문화재위원장. 前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천안소방서 개서


119 구급대




Chungnam



忠南消防行政史

제2장

충남소방의 역사

제1절
시대별 발전사

제2절
기관별 발전사

제3절
의용소방대 발전사

제2장
충남소방의 역사

제1절 시대별 발전사

1

01. 고려 · 조선시대

0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

03. 정부수립과 경찰제도 속의 소방(1948~1970년)

04. 시 · 군 소속의 소방(1971~1991년)

05. 광역자치체제의 소방(1992~1999년)

06. 충남소방의 성장과 발전(2000년~)

01
고려·조선시대

01. 고려시대

신라말기 분열되어 있던 한반도를 통일하고 본격적으로 국가로서의 기틀이 다져지기 시작하는 다소 안정적인 시기로 인구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화재의 발생빈도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금화제도'라는 명칭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에 관한 제도가 처음 마련되었지만 별도의 전문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각 관아의 당직자나 책임자들은 화재를 예방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되었고 관리가 화재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 면직시키기까지 하였다. 또한 민간인이 실수로 불을 내거나 고의로 불을 낸 경우에는 불을 낸 장소에 따라 차등하여 벌을 주기도 하였다. 1066년(문종 20년) 발생한 운여창(양곡창고) 화재 이후에는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금화관리자를 창고에 배치하였고 어사대 또한 수시로 화재예방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금화원(금화관리자) 제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왕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오히려 통일신라시대 보다 증가하였는데, 당시 도읍지였던 개경은 지역이 협소하고 건물들이 밀집하여 한 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민가 및 상가로 확대되어 수백 동씩 연소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왜구의 방화와 약탈이 심해진 고려말기에는 각 궁전과 창고의 대형화재가 많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02. 조선시대

1426년(세종 8년)에 들어서는 이상하게도 도성 내부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당시 하룻밤 사이에 2~3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하곤 하였는데 대부분이 실화였지만 간혹 도둑질을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저지른 것 같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각 가호에 '시상제도'라 하는 령을 내리기에 이르는데 그 령의 내용은 만약 방화를 저지르려는 범인을 붙잡으면 범인의 가산을 몰수하여 범인을 붙잡은 자에게 상으로 내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령을 내린 후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큰 사달이 났다. 서북풍이 크게 불어오던 어느 날, 남부에 사는 노장용이라는 자의 집에서 처음 시작 된 불이 거센 바람을 타고 파죽지세로 주변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행랑 116칸, 중부의 인가 1,630호, 남부의 인가 350호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 날에도 역시 세찬 바람이 부는 가운데 서편에 있는 한 민가에서 불이 나고 말았다. 이 불 또한 민가 약 200여 호를 불태워 버린 후에야 겨우 사그라졌다.

불과 이틀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생한 단 두건의 화재로 인하여 당시 도성 내부 전 가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400호 정도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다. 게다가 그 피해 건물들 대다수가 한양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기에 도성 안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며, 민심은 흉흉해져만 갔다. 갑작스레 발생한 수많은 이재민의 구호 또한 시급한 과제였고 혼란을 틈타 이곳저곳에서 날뛰는 도둑들 또한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전란을 방불케 하는 아비규환이었다.

이후 가까스로 상황을 수습한 조정에서는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종전과는 사뭇 다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서둘러 마을 공동방화시설을 설치하였고 화재 발생 시 소화 작업의 담당구역까지 가호 별로 설정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종국에는 금화 · 소화를 책임지는 책임관서까지 설치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금화제도'가 비로소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소방제도는「조선경국전」에서 정비되어 한반도 최초의 소방전문조직인 금화도감이 병조 아래에 설치되어 방화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고, 하천을 관리하는 일을 겸하게 했다가 수성금화도감으로 합하여 공조 산하로 설치되었다.

당시 수도 한양은 목조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때문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 또한 남달랐다. 때문에 소방제도가 빠르게 확립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큰 변화 없이 계승되어 내려왔다. 또한 화재 시 연소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건물이나 곡물창고 등은 일정한 간격을 두어 건축하고 곡물창고 근처에는 민가의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등 화재가 났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세부적인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자연부락 단위의 자위소방 활동이 자생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세종 19년(1437년) 1월에 이르러는 경상감사의 주청으로 주민들의 자위활동(무기소지 및 사용)이 허락되면서 '지방의용금화조직'이 공인되어 각 동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청장년들이 자력으로 방재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의용소방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460년(세조 6년)에 금화도감이 한성부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가「경국대전」반포 이후인 1481년(성종 12년)에는 수성금화사로 다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수성금화사 또



사진 1. 조선시대 궁중소방대 훈련 장면

한 폐지되어 병조와 한성부가 필요에 따라 금화 업무를 담당하였고, 1894년(고종 31년)에는 경무청 관제를 확정하면서 경무청이 화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 기계식 소방장비와 조직을 갖춘 근대적인 의미의 소방대 창설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부산, 원산, 인천 3개항의 개황과 연관되어 있다. 개항지역에 일본인 거류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자치적인 차원의 소방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소방대의 이름은 통상적으로 조합으로 결성하였다는 의미에서 지역명칭에 소방조(消防組)를 결합하여 지었다. 소방대원은 특이하게도 다국적으로 편성되어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청)으로 구성되었다.

소방조는 지금의 소방서와 같은 독립된 기관이 아닌 의용적(義勇的) 조직체로서 불이 나면 경종을 난타하여 화재 소식을 전하고, 각 처에서 종소리를 들은 소방대원들은 한데 모여 불이 난 장소로 가서 불을 끄고 다시 돌아가는 구조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방대는 1877년 창설한 부산소방조가 최초이다. 이어서 1884년에는 인천소방조, 1899년에는 경성, 목포, 군산, 원산소방조가 연이어 창설되었다. 이후 소방조 창설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1930년대까지 거의 모든 읍 · 면에 설치되었다.

우리 충청지역 최초의 근대적 소방대로 1904년에 충남 논산의 강경소방조가 창설되었다. 당시 소방조가 운영된 지역 중에서 강경이 다른 지역들보다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대가 가장 먼저 설치된 이유는 강경이 조선 후기 전국의 2대 포구, 3대 시장으로 꼽히며 번창하던 곳으로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시가지가 크게 발달했던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강경에 근대문물이 도입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거주민이나 이동인구가 크게 늘어나 소방대의 필요성도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면 강경소방조는 완용소방펌프와 가솔린소방펌프 같은 근대식 장비와 모터사이렌이 달린 경종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대규모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이후 1911년 공주와 예산소방조, 1912년 천안소방조, 1914년 홍주소방조가 그 뒤를 이어 창설되었다.

0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

01. 일제강점기

1910년 주권상실과 더불어 식민통치의 중심인 조선총독부에서 소방조직을 관할하게 되었다. 먼저 중앙기구로서 소방기구를 본다면 1910년 6월에 설치된 경무총감부를 총독부의 외청으로 존속시켜 무단정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때 경무총감부에는 경무총장을 두고 독자적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주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무총감부에는 총장관방 외에 기밀과, 경무과, 보안과를 두었는데 이때 소방업무는 보안과 내에 소방계에서 관장케 하였다.

1919년 3 · 1운동 이후 일제는 식민정체의 기조를 바꾸면서 관제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 총독부의 외청격이던 경무총감부는 총독부의 내국인 경무국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소방업무도 경무국 내 보안과에서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39년 7월 3일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경방단 규칙을 제정 공포됨에 따라 종래의 의용소방대가 경방단으로 개편되었고, 전시체제 확립으로 소방 또는 경찰의 보조단체로서 소방과 치안유지에 종사하였다.


사진 2. 천안 경방단원 모습(1944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로 일제 통치가 종식되자 경방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되고 각 지방에 소방대가 결성되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치욕적인 시기였지만 소방 측면에서는 근대 소방문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대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전국에서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소방조의 발대가 확대되면서 1930년대까지 전국 각 지역의 읍 · 면 단위까지 소방조직이 편성되었고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였다. 경성소방서, 부산소방서, 평양소방서와 같이 대도시에는 관설 소방서가 설치되었

지만 대부분 지역은 경찰서 산하의 소방조가 소방업무를 수행하였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소방서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고 소방조가 소방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소방조의 특성상 업무수행 영역과 내용은 소방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당시 소방조의 연중 주요 일정을 보면 1월 초에 시무식 개념의 출초식(出初式)을 거행하였다. 출초식은 소방시범훈련을 비롯해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등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1924년 공주소방조 출초식이 1월 4일, 1930년 천안소방조 출초식이 1월 4일, 1934년 예산소방조 출초식도 1월 4일에 있었다.

또한 대규모 소방훈련은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였고 드물지만 동계훈련도 실시했다. 춘계훈련은 보통 4~5월 사이에 개최하였고 추계훈련은 10~11월 사이에 개최하였다. 개최시기를 살펴보면 춘계연습은 강경소방조가 1927년 4월 29일, 천안소방조가 1931년 4월 17일에 시행하였다. 추계연습 사례를 보면 1918년에 공주소방조는 10월 7일, 예산소방조는 10월 18일에 실시했고, 1927년 10월 12일에는 홍성소방조, 1927년 10월 14일에 천안소방조가 추계연습을 하였다.

이 훈련은 읍 · 면의 소방조 단위 또는 군 단위의 연합훈련으로 개최되었으며 대규모로 개최되는 연합훈련에는 인근 지역에서 참관하기도 했다. 1924년 11월 7일 천안역광장에서 벌어진 추계대연습에 예산소방조가 견학을 하였고, 1932년 5월 5일 개최된 아산군 전체 연합연습에 천안소방조가 참관하기도 했다. 특히, 1933년 5월 18일 강경공보교 운동장에서 열린 논산군 연합 소방대연습에는 350명이라는 대규모 인력이 참가하였는데 행사규모에 맞게 인근의 대전, 부여, 공주 등지에서 참관을 하였다. 이처럼 당시 지역별 소방조는 상호 공조활동이나 학습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진 3. 공주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식(1926년)



사진 4. 천안소방조 창설 20주년 기념 소방연습(1932년)

그리고 일제강점기 화재진압장비는 완용펌프가 주력이었으나 소방조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일본산 가솔린펌프와 소방자동차도 도입되었다. '가소린소방뽐푸' 또는 '소방즉통'으로 불린 기계식 소방장비의 도입연도를 보면 1926년 12월 6일 논산소방조가 10마력 가솔린펌프를 도입했다. 1930년 4월 22일에는 천안 성환소방조, 1933년 12월 15일에는 광천소방조, 1934년 9월 15일에는 공주소방조, 1935년 8월 19일에는 서천소방조가 도입했다. 특히, 충남에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3대의 가솔린소방펌프(보령, 서천, 천안)가 현존하고 있는데 3대 모두 형식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유물로서의 가치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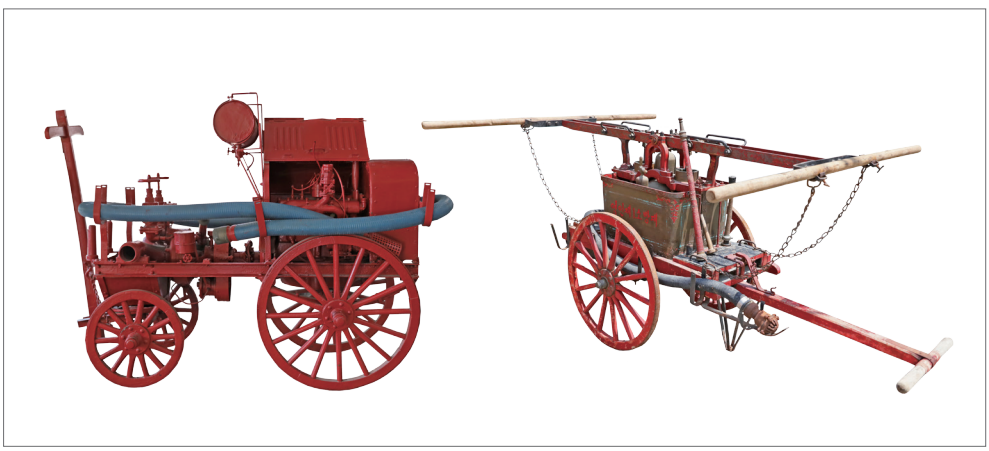


사진 5. 개항 이후 충남에서 사용되던 근대식 소방장비인 가솔린엔진 소방즉통과 목륜 완용펌프

이밖에도 소방조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연말연시 또는 설날 등을 전후해 야경(야간경계순찰)근무, 홍수나 태풍 등 수해현장에서의 인명구조와 수방활동, 방화선전 활동으로 연극 및 영화상영, 사진 전시회 등도 개최하는 등 현대의 소방과 유사한 맥락의 소방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공주소방조는 1930년 1월부터 매월 15일에 시가미화데이(市街美化DAY)를 운영했는데 이것은 소방조가 지역사회 중추조직으로 활동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충남 소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인이 장악한 소방조의 운영에 있어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부당한 처사에는 강력히 항거를 하였다는 것이다. 192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국인을 차별하여 간부로 선발하지 않은 일본인 조두(組頭)에게 저항하기 위해 30여 명의 조선인 소방조원이 동맹사직하며 장비를 모두 반납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1930년 9월에 예산소방조는 부조두(副組頭)의 출자금 부정사용과 관련해 조합원이 단체로 반발하여 경찰의 취조를 받게 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충청남도 지역의 소방조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또 한가지 사실은 현존하고 있는 망루와 사이렌탑에서도 발견된다.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사이렌탑이 서천군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고, 보령시 청소면 의용소방대가 보존하고 있는 모터사이렌의 제조년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925년산으로 확인되었다.

일제강점기 소방조는 소방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충남의 경우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진 6. 1940년 천안경방단 육상대회 우승 기념

1920년대초 전국 소방력 현황			
구분 \ 년도		1922년말(대정11년)	1923년말(대정12년)
소방조 조직	**계**	**699개조**	**746개조**
	상비소방조	5개조	61개조
	일본인 소방조	11개조	11개조
	조선인 소방조	231개조	248개조
	조일공동 소방조	435개조	465개조
	조중일공동 소방조	17개조	16개조
소방조원	**계**	**42,810명**	**48,043명**
	조두	688명	전체 730명
			일본인 378명
			조선인 352명
	부조두	517명	전체 567명
			일본인 187명
			조선인 380명
	소두	2,639명	전체 3,071명
			일본인 932명
			조선인 2,135명
			중국인 4명
	소방수	38,966명	전체 43,675명
			일본인 7,293명
			조선인 36,300명
			중국인 82명
자동차즉통		20대	24대
증기즉통		9대	7대
발동기즉통		16대	24대
완용즉통		690대	756대
경편즉통		561대	761대
용토수		77개	76개
제자류			1,293개
전(纏)			233개
깃발			598개
수관차		145대	150대
수송차		517대	817대
흡수기		9,713개	

02. 미군정시대

1945년 광복이 되면서 1948년까지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일본에 의해 시행된 소방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였다.



사진 7. 1945년 미군정장관 천안소방대 방문 기념

1946년 4월 10일 군정법령 제66호에 의해 소방을 경찰행정에서 분리하는 자치 소방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미국식의 자치소방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미군정의 의도였다.

미군정은 경찰업무에 속해 있던 소방을 분리하여 중앙기구로 상무부 토목국에 중앙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도 산하에는 도 소방위원회를 두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행정부서와 협력하여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제도와 규칙을 수립하거나 개선하는 것이었으며, 도 소방위원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중앙과 각 도에 소방청이 설치되었다. 충청남도 소방청은 1947년 4월 18일에 설치되어 산하에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었으며, 충청남도 최초로 대전 · 천안 · 공주 · 조치원 · 논산소방서가 신설되었다.

이 시기에 소방서 간부들은 일제강점기 군 · 경찰 간부 출신이나 미군정과 관계가 있는 우익 인물들이 취임하였다. 소방서에 근무하던 소방서장 이하의 간부도 새로운 관명을 사용하게 되어 소방서장은 감찰관 또는 경감으로 하위 직원은 소방수부장과 소방수로 칭하였다.

이런 미군정시대의 소방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짧게 끝났으나, 소방위원회의 도입, 중앙과 지방의 소방청 신설, 소방서 설치 등 오늘날 소방청 설립과 자치소방제도의 밑거름이 되었다.

03
정부수립과 경찰제도 속의 소방
(1948~1970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 소방기구는 경찰에 다시 흡수되었다. 중앙은 경찰조직인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가 설치되었으며, 각 도의 소방청은 지방 경찰국에 두었다. 소방서는 경찰에 인수되어 소방행정은 다시 경찰행정 체제 속에 흡수되었다.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경찰서에서 직접 담당하였다. 이때의 소방공무원 신분은 경찰과 함께 일반직공무원 신분이었으며, 하위직인 소방감, 소방사, 소방원만 있어 상위직인 소방서장은 경찰직인 총경 또는 경감으로 보하였다.

이 시기에 의용소방대는 1952년 8월 방공단규칙 제정을 계기로 소방대가 방공단에 흡수되었다가 1953년 7월 민병대를 조직하여 잠시 동안은 민간 소방조직은 없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확고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은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에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의용소방대의 설치,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수당, 보상금, 경비, 정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부터이다. 의용소방대는 법적근거 하에 합법적인 기관으로 소화, 수방, 방공 등의 중요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67년 4월 14일 법률 제1955호로 2차 '소방법' 개정 시 소방상 필요에 따라 소집된 때 출동하여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0년 12월 31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형식면에서는 소방조직의 민간보조 기관으로 재정립되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소방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 등에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소방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한편, 폭설로 눈보라가 휘날리던 1969년 1월 31일 천안에서 희대의 열차사고가 발생한다.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열차 청령호가 천안역 남쪽 500m 지점에서 진입 신호를 기다리는 남원발 서울행 열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승객 42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중경상을 입은 천안 열차 추돌사고이다. 당시는 천안소방서가 개서되기 전이어서 의용소방대가 독자적으로 출동하여 부상자 구출 및 사고 수

습을 하였고, 사고 이후 철도청에서는 천안의용소방대의 사고 수습과 인명구조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였음을 치하하며 철도청장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사진 8. 천안역 경부선 열차 추돌사고 현장(1969년)



사진 9. 철도청장 감사장

이렇듯 충남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소방서가 개서되기 전까지는 그 지역의 재난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의용봉공의 정신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조직이 중심이 되어 그 지역 재난사고를 담당하였다.

1969년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소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서 별정직인 경찰공무원의 소방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소방총경 · 소방경감 · 소방경위 등 7개 계급으로 분류되었다.

1970년대 들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천안이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1970년 5월 13일에 대전소방서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천안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초대 이종숙 소방서장을 포함하여 소방인력 60여 명과 소방차량 5대가 배치되었다. 이어 6월 10일에 천안소방서 오룡파출소가 설치되어 충남에서 최초로 소방서 산하의 소방파출소가 개소하게 되었다.



사진 10. 1970년 5월 13일 천안소방서 개서식

04
시·군 소속의 소방
(1971~1991년)



사진 11. 1970년대 조치원역 소방훈련

정부수립 이후 소방행정은 경찰행정의 일부로 운영되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재정에 의한 소방관서의 운영경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였고, 소방인력의 부족에 따른 임시직에 대한 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1970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에서만 소방이 지방사무로 실시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경찰이 소방사무를 담당하였다.

1975년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남침위험에 대한 국민총력대응 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내무부에 민방위본부가 설치되었고, 민방위본부에 소방국이 설치되면서 경찰과 다시 분리되었다. 이에 맞춰 충청남도에도 민방위국이 신설되고 소방과가 설치되어 현재 충남소방본부의 모태가 되었다.

1976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사무가 시군사무로 이관되면서 천안소방서는 천안시청 소속이 되었으며, 시군 지역의 경찰서 및 파출소의 소방업무는 시군으로 모두 인수되었다.



사진 12. 1980년대 충남 대전소방서 구급대 모습

이후 1982년 12월에 15개 시군 소속의 소방계를 폐지하고 천안소방서로 업무를 인계하였고, 15개 시군에는 소방공무원(교) 1명씩을 배치하였다.

198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경제성장과 도시화 · 산업화에 따라 소방의 역할이 증가하면

서 각 시군마다 소방관서가 추가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3년 소방법 개정으로 구급업무가 소방의 기본업무로 법제화되면서 전국 9개시 24개 소방서에 44개 대의 구급대를 편성되었고, 충청남도에는 대전소방서에 구급대가 설치되었다.

한편,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화재사고를 계기로 1987년 8월에 천안소방서 독립기념관파출소가 설치되었고, 11월에 대천소방서(現 보령소방서)와 산하에 죽정파출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교통사고, 테러상황 등에서 인명을 구조할 특별구조대가 충남 대전소방서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사진 13. 화재로 불타버린 독립기념관 겨레의집(1986년)

이후 1989년 1월 1일자로 충청남도 관할이었던 대전시와 대덕군이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전소방서가 충남소방본부에서 분리되었으며, 이후 충청남도의 관할은 5개 시와 11개 군으로 통합되었다.

1989년 1월 온양소방서(現 아산소방서)가 설치되었고, 1990년 관서설치 승인에 따라 서산소방서가 설치되면서 대천소방서 산하에 있던 서산파출소가 분리되어 서산소방서 예천파출소(명칭 변경)를 병설하였다.

이후 도시지역과 소방 수요가 많은 읍 · 면 지역에는 1991년까지 17개 소방파출소(現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었다.



사진 14. 1990년대 도로정비 작업 동원장면

이 시기의 소방은 시군 소속으로 군(郡)에 소방계가 설치되었으며, 119신고 수보는 시장 · 군수가 인사권은 물론 예산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방의 위상은 경찰에 있을 때보다 나아지지 않았으며, 소방 본연의 업무는 물론 시군에서 지시하는 방역, 도로 정비 등의 업무에도 동원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출장비 · 수당은 물론 소방인력과 소방차량 · 장비에도 큰 차이가 났다.

05
광역자치체제의 소방
(1992~1999년)

1991년 5월 3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2월 14일부로 소방업무를 시장 · 군수에서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광역 소방행정체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로 구성된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1992년 4월 10에 최초로 발족되었으며, 소방행정과에는 소방행정계, 장비계, 감찰계를 두었고 방호과에는 방호계, 예방계, 교육계를 두었다.


사진 15. 충남소방본부 전경(대전 소재, 구. 충남도청)

광역 소방행정체제가 시행되면서 시군에 있던 천안 · 공주 등 5개 소방서와 18개 소방파출소가 충청남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편제되었다. 또한 점차 소방서 담당 관할구역이 모든 시군을 포함하도록 확대되면서 소방과 관련된 시군 업무는 충청남도 소속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점차 이관되면서 1992년 1월 15일에 군(郡) 소방계는 폐지되었다.

시군에 분산되었던 소방사무과 인력이 통합되면서 대전 · 충청지역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3년 7월 20일에는 충청남도소방학교(現 충청소방학교)가 천안에서 개교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이 빈발하면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구조구급업무를 소방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에 충남에서 처음으로 천안소방서에 119구조대가 설치되었고, 1995년에는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가 신설되었다.



사진 16. 천안소방서 119구조대 발족(1994년)

이후 KBS 1TV에서 방영된 '긴급구조 119'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구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96년에는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에 구조대가 설치되었고, 더불어 구급수요 증가에 따라 20개 소방파출소에 119구급대를 배치하였다.

이어 1997년에는 논산소방서가 충청남도에서 여섯 번째로 설치되었으며, 성환 · 서천 · 강경 · 합덕 등에 소방파출소(現 119안전센터)도 계속 설치되어 30여 개에 이르게 되었다.

1998년에 소방본부는 민방위분야와 통합하여 충남소방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구조구급과가 폐지되고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과가 설치되었다. 또한 충청남도 단독으로 운영하던 충청남도소방학교는 인력 감원에 따라 대전 · 충북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1999년 4월에 충청소방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인력 증원도 한동안 동결되었다.

한편, 1998년 이전까지의 119신고체계는 소방파출소(의용소방대)에서 시스템 없이 전화기에만 의존하여 어느 동네, 누구네 집 등을 물어물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사진 17. 소방파출소 119수보 전화기(1998년 이전)

이후 19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충남의 시 지역에 위치한 6개 소방서(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를 1개 단위로 통합하여 119 신고를 받고 유선전화로 해당 소방파출소와 지역대에 출동을 지령하는 접수대를 설치하여 119신고접수체계의 기반을 다진 결과 119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 7월에 충청남도는 道 단위 전국 최초로 인원 29명(소방 27, 일반 2), 접수대 6식을 갖추고 119종합상황실을 통합 설치 운영하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사진 18. 충청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전경(2000년)

06
충남소방의 성장과 발전
(2000년~)

2000년대 들어 경제가 회복되고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충남소방은 발전의 기회를 맞았다. 특히 화재 · 구조 · 구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노력과 지방의회 의원 · 기초단체장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소방관서가 하나하나 증설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소방본부 항공대가 2000년 1월 20일에 설치되었다. 당시 항공대는 충남 조치원 지역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조종사 2명 등 총 8명이 배치되었으며, 폴란드 스위드닉사의 헬기가 배치되었다.



사진 19. 충남도의회 조치원 소방항공대 방문(2011년)

이후 2002년 홍성소방서, 2003년 예산소방서, 2004년 당진소방서, 2005년에 부여소방서가 개서하였으며, 2008년에는 서천소방과 금산소방서가 동시에 개서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천안시의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 천안서북소방서가 분리 · 신설되었으며, 이 시기에 충남소방은 13개 소방서와 62개 소방파출소가 운영되었고 정원은 2,059명까지 늘었다.


사진 20. 충남소방본부 전경(내포 소재, 현. 충남도청)

2013년에는 충청남도청의 내포 신도시 이전과 함께 충남소방본부도 홍성군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였다. 또한 재

난민방위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면서 소방안전본부도 소방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6월에는 태안소방서가 개서하였고, 11월에는 충남소방의 관서 · 인력 증가에 따라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승격되었다.

2014년에는 중대형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 119광역기동단이 설치되었다.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 기동대 임시 청사를 두고 대장 1명과 대원 14명을 배치하였다.



사진 21. 홍주종합경기장 내 119광역기동단 임시 청사



사진 22. 화생방 분석차량(트레일러)



사진 23. 고성능 화학차(유류 화재 등 물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특화 소방차량)



사진 24. 조연차(조명차와 배연차의 기능을 합친 하이브리드형 소방차)

한편, 2014년 4월 16일에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 · 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중앙의 소방조직은 소방방재청에서 중앙소방본부로 격하되었다.

이 당시 서해안지역의 산업화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 평택 · 당진항과 송악읍 기지시리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철강공장이 당진에 준공을 하면서 해상 물동량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으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까지 증가하면서 부두 및 해안가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서해안 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1월 소방정대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고대관리부두에 개소하게 된다.

2015년에는 청양소방서가 개서하였으며, 소방항공대가 조치원 비행장이 폐쇄되면서 태안군 남면에 있는 한서대학교 비행장으로 이전하였다.

2016년에는 소방안전교육 수요증가와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해 천안에 충남안전체험관이 설치되었고, 도내 시군 중에서 마지막으로 계룡소방서가 설치되었다. 계룡소방서 설치로 15개 전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됨에 따라 행정구역에 맞춰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시 · 군청 및 경찰 등과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현장지휘체계도 강화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가 소방청으로 격상되었으며, 2020년 4월 1일에는 국민청원 등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진 25. 충남소방정대 발대(2015년)



사진 26. 항공대 태안 한서대학교 비행장 이전(2015년)

다만,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소속은 충청남도 소속으로 남게 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광역 소방행정체제는 유지되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2만명, 충남소방에 1,898명을 충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에 94명, 2018년 293명, 2019년 342명, 2020년 379명, 2021년에 358명이 충원되었고, 2021년에는 충남의 소방공무원 정원은 4,099명이 되었다.

이렇게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서의 증가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및 현장지휘체계 강화를 위해서 2020년에 소방본부에 소방청렴조사과와 감사위원회에 소방감사팀을 신설하였으며, 2021년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증가하는 구조구급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구급과를 신설하였다.

이에 충남소방본부는 2021년에 이르러 4과 1단 1실에 25개 팀이 되었으며, 15개 시군에 1개 소방학교, 16개 소방서, 80개 안전센터, 16개 구조구급센터, 1개 소방정대, 28개 지역대를 운영하여 전국도 지역 중에서는 가장 촘촘한 소방출동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1992년 충남소방본부가 발족한 이래 30년 동안 충남소방은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여 본부의 팀은 6개에서 25개로 늘었고, 정원은 26명에서 203명으로 늘었다. 또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은 604명에서 4,099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안전센터는 18개에서 80개로 늘었다.

앞으로 충남소방은 규모와 양적인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진 27.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개관식(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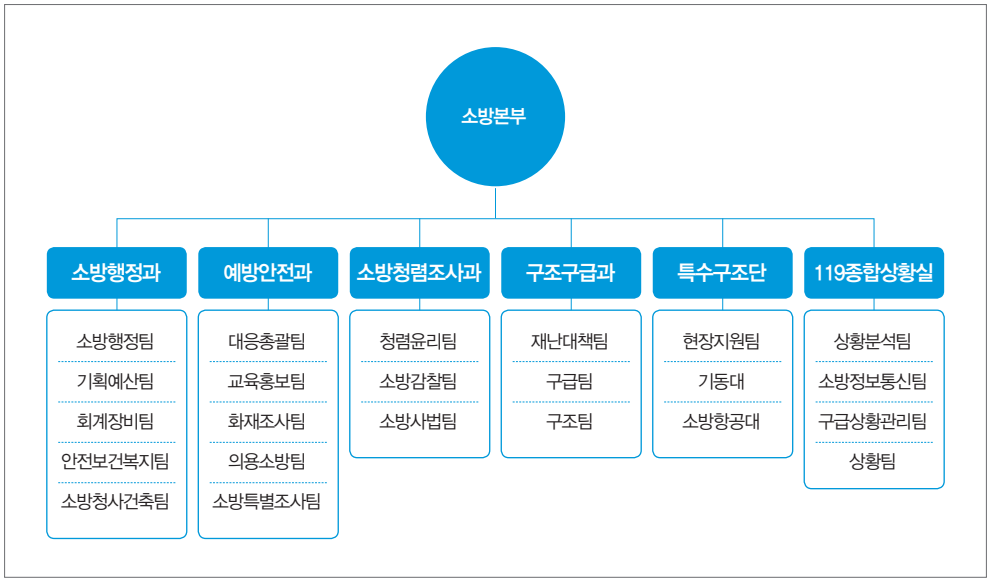


사진 28. 2021년 현재 충남소방본부 조직도

제2장
충남소방의 역사

제2절 기관별 발전사

01. 소방본부
02. 충청소방학교
03. 천안동남소방서
04. 천안서북소방서
05. 공주소방서
06. 보령소방서
07. 아산소방서
08. 서산소방서
09. 논산소방서
10. 계룡소방서
11. 당진소방서
12. 금산소방서
13. 부여소방서
14. 서천소방서
15. 청양소방서
16. 홍성소방서
17. 예산소방서
18. 태안소방서

2

01 소방본부

01. 지역 특성

충청남도는 한반도 중서 남부에 자리해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인접해있다. 도청소재지는 예산군과 홍성군에 걸쳐있는 내포신도시이며, 대전이 1989년도에 충남도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에는 천안시가 최대 도시가 되었고, 현재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특례시 지위까지 얻어 충남 최대 도시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 29. 충남소방본부 전경(내포 소재, 현. 충남도청)

인구는 약 212만 명, 면적은 8,245.5km²이며, 산하에 8시 7군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충청남도 내 대부분의 인구, 경제력과 의료시설, 상업시설, 교통 등의 인프라는 경기도와 근접해있는 천안시와 아산시에 몰려있다. 두 도시의 인구는 도합 100만 명에 이르며, 충청남도 인구의 과반수(45.62%)에 육박한다. 또한 수도권에 접해있고 경부 고속선,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망과 지리적 이점으로 성장하기 시작해, KTX(천안아산역)가 개통되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수도권 전철까지 연장됐다는 이점이 도시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충청남도는 북부와 남부의 경제 격차가 극심한 편이다. 충남 북부의 천안, 아산은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의 대규모 사업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이후 삼성전자 계열의 급속한 성장세로 반사 이익을 크게 얻어냈다. 또한 아산시는 삼성 외에도 현대자동차 사업장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대기업 중심 경제권을 바탕으로 아산신도시 등을 필두로 급속한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옆 동네 당진, 서산, 태안 등 서해안 북부권의 경우 북부 연안 지역에 당진항, 대산항을 배후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트랜시스 등 중화학공업 벨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천안, 아산과 함께 엮여 충남 북부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지역이 되었다.

02. 소방본부 연혁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사무의 주체가 시군에서 시도로 변경됨에 따라 1992년 4월 10일에 민방위국 소방과가 폐지되고, 충청남도소방본부가 신설되었다.



사진 30. 충남소방본부 전경(대전 소재, 구. 충남도청)

소방본부에는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를 두었으며, 소방본부의 정원은 26명이었다. 소방행정과에는 소방행정계, 장비계, 감찰계가 있었고, 방호과에는 방호계, 예방계, 교육계를 두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성수대교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구조구급업무를 소방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소방본부에 구조 · 구급과가 신설되어 3과 8계가 되었으며, 구조 · 구급과에는 구조팀과 구급팀를 두었다.

1997년 외환위기 금융 사태가 발생하면서 1998년에 소방본부는 민방위 분야와 통합되면서 구조구급과가 폐지되고, 재난관리과가 소방본부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소방본부는 충남소방안전본부로 부서명이 변경되었고, 구조조정도 단행되어 1,203명이었던 소방공무원은 1,112명으로 91명이 감축되었다.

1999년에는 소방안전본부의 3과 9계가 다시 2과 10계로 재편되었다.

기존의 방호구조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안전관리과로 개편되었으며, 소방행정과에 민방위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행정과에는 소방행정계, 장비계, 소방지도계, 민방위계가 있었으며, 안전관리과에는 방호계, 예방계, 구조구급계, 재난관리계, 안전점검계, 종합상황실이 있었다. 이후 2000년에 소방항공대, 2002년에 소방정보통신계와 화재조사계가 신설되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소방안전본부는 기존의 2과 12계 체제에서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기동점검계를 분리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면서 3과 12계 체제로 재편되었다.

2012년에 소방안전본부는 방호구조과 내 종합상황실이 종합방재센터로 변경되면서 과(課) 단위 부서로 격상되면서 기존 3과 체제에서 3과 1센터 체제로 바뀌었다.

2013년에는 안전자치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소방안전본부 소속의 재난민방위과가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3과 1센터에서 2과 1센터 13팀이 되었다. 2015년에는 대형 ·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과(課) 단위 부서인 119광역기동단이 신설되었으며,

재난대책팀, 구급팀, 구조팀, 소방복합시설 추진팀 등 6개 팀이 설치되어 소방본부는 2과 1단 1센터 19팀이 되었고 소방본부 인력은 131명으로 늘었다.



사진 31. 119종합상황실 전경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장 부족인력에 대한 대규모 충원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인력 증원에 따라 관리 감독 및 현장지휘 강화를 위해서 2020년에는 소방청렴조사과를 신설하고 소방안전감사팀, 소방특별조사팀, 구급상황관리팀을 설치하였으며, 종합방재센터를 종합상황실로, 119광역기동단을 특수구조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21년에는 구조구급과를 신설하고 특수구조단에 현장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4과 1단 1실 25팀이 되었으며, 소방본부 정원은 203명이 되었다.

충남소방본부 주요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1992.04.10.	충청남도 소방본부 발족(2과 6계)
1995.03.15.	구조구급과(구조팀, 구급팀) 신설(3과 8계)
1997.10.30.	구조구급과 폐지, 소방안전본부로 부서명 변경
1999.08.16.	직제 개편(3과 9계 → 2과 10계)
2000.01.20.	소방항공대 신설
2002.03.30.	소방정보통신계, 화재조사계 신설
2005.10.06.	민방위재난과 신설
2012.06.20.	종합상황실 –〉 종합방재센터로 과 단위 격상
2013.07.15.	안전자치행정국에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재난민방위과 분리
2015.01.04.	119광역기동단(과 단위) 신설
2020.07.01.	소방청렴조사과 신설 명칭 변경(종합방재센터 → 종합상황실, 119광역기동단 → 특수구조단)
2021.07.01.	구조구급과(현장지원팀 포함) 신설

02
충청소방학교

01. 지역 특성


사진 32. 충청소방학교 전경

유관순 열사, 김시민 장군 등 수많은 위인을 배출하고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애국충절의 도시 천안. 충청남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충남 천안은 조선시대부터 한양에서 경상도와 전라도로 내려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필수 지역으로 현재도 수도권과 경상도, 전라도를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이다. 예로부터 삼남(三南: 충청, 전라, 경상)의 요로였던 천안삼거리. 천안시는 천안삼거리를 기념하기 위해 1번 · 21번 국도가 만나는 곳에 천안삼거리 공원을 만들고, 해마다 흥타령 축제를 펼치고 있다.

충청소방학교는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서기 930년 고려 태조 왕건이 군사를 양병했다는 천안시 유량동 태조산. 이곳 태조산은 남쪽으로 취암산, 북쪽으로 국사봉, 그리고 일봉산과 월봉산과 함께 한복판의 남산(여의주)을 놓고 다투는 다섯 용의 형태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02. 충청소방학교 연혁

충청소방학교는 1993년 7월 20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충청남도소방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고 1999년 1월 1일에 충청권 3개 시 · 도(충남, 충북, 대전) 공동운영 협약이 체결되며 같은 해 4월 10일 '충청소방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2013년 1월 11일에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하며 충청권 4개 시 · 도(충남, 충북, 대전, 세종)와의 공동 운영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2018년 1월 1일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소속이었던 안전체험관이 충청소방학교로 편입되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설은 물론, 도민 재난안전 체험의 여행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진 33. 충청남도소방학교 개교 당시 사진

2010년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2급 응급구조사 양성 및 보수교육 수요가 급증하며 중앙소방학교 과정으로는 교육 적체를 해소할 수가 없었다. 이에 충청소방학교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1년 6월 14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 7월 구급훈련팀이 신설되며 충청권 2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적체 해소에 이바지하였다. 이후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등 전문 소방관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관'을 지속 양성하고 있다.

충청소방학교는 3과 1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직 중인 교직원은 58명이다. 이 중 파견 소방공무원은 12명으로 공동 운영 협약이 체결된 충청권 타 시 · 도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견 소방공무원은 공동 운영 협약에 의해 1년 단위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임교육반 기간에는 여성 교육생 지도를 위해 여성지도관을 단기 파견(출장)으로 운용하고 있다.

충청소방학교 주요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1991.07.05.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조례 제정
1992.06.13.	청사신축공사
1993.06.10.	청사준공
1993.07.20.	충청남도소방학교 개교
1994.07.08.	충청남도소방학교정원규칙 개정(정원 29명)
1998.09.05.	충남 · 대전 · 충북 3개 시 · 도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1999.04.10.	충청남도소방학교에서 충청소방학교로 교명변경
2011.06.07.	충청소방학교 직제변경 및 3과 7담당으로 증설
2011.06.14.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승인(보건복지부 제8호)
2013.01.11.	충남 · 충북 · 대전 · 세종 4개 시 · 도 공동운영 협약 체결
2018.01.01.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소방학교로 편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정원 30명)
2020.07.01.	충청소방학교 3과 · 1관, 8팀으로(구급교육훈련팀) 증설
2020.10.05.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03
천안동남소방서

01. 지역 특성



사진 34. 천안동남소방서 전경

천안동남소방서가 수호하는 천안은 서울 기점 83.6㎞(고속도로)에 위치한 국토의 중심도시로서 수도권의 배후와 충남 서부지역 관문, 국 · 철도, 고속도로 · 도로 및 삼남(전라도 · 경상도 · 충청도) 분기의 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남북에 경부선이 있으며 남서로는 장항선이 뻗어 있고 서울, 진천, 아산, 공주, 평택, 대전 방향으로 사통팔달의 육로가 펼쳐져 있는 애국충절의 고장이자 충남의 대표 도시이다.

관광 상품으로는 호두과자, 병천(아우내) 순대가 유명하며, 관내에 초등학교 75개,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23개, 대학교 11개 등이 밀집되어 있는 교육의 도시이다.

02. 천안동남소방서 연혁

1970년 3월 12일 천안소방서 설치 승인을 받아 1970년 5월 13일 초대 이종숙 소방서장을 포함하여 소방 인력 60여 명과 소방차량 5대(펌프 1, 탱크 2, 기타 2)로 천안소방서가 개서 되었다. 당시 천안소방서의 위치는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던 천안시 오룡동 부지로서, 의용소방대가 기부한 장소였다.

이후 80년대에 이르러 천안에서는 전 국민이 잊지 못할 '독립기념관 화재'가 발생하였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분노한 국민들이 700억에 달하는 성금을 모아 설립 중이던 독립기념관이 준공 한 달이 남지 않은 1986년 8월 4일 불에 전소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염원하던 겨레의 상징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 35. 1970년 5월 13일 천안소방서 개서 사진

아쉬웠던 점은 화재 발생 전년도부터 내무부 소속 소방당국에서 독립기념관 경내 소방파출소 설치를 2차례나 요청하였지만, 당시 문화공보부에서는 회신조차 없었고,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 문제와 소방차가 관람객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대형화재를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므로 화재 확산을 막을 방도가 없었고, 이를 계기로 화재 발생 1년 후인 1987년 8월 10일 독립기념관 개관을 5일 앞두고 국민들의 성원과 소방당국의 노력이 합세하여 독립기념관 경내에 파출소를 개소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혹시나 모를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독립기념관 119안전센터(2006년 이후 파출소에서 119안전센터로 명칭 변경)는 최고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화재 발생 이후 소방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 왔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총 5개의 파출소를 운영하였지만, 천안소방서 청사가 천안시 규모에 비해 너무 협소하여 업무능률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며, 1993년 12월 천안소방서는 오룡동에 위치한 구청사에서 구성동에 신축청사로 이전함으로써 충남 제1관서 위상에 걸맞은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2010년 즈음 천안시 인구는 50만을 넘었고, 천안은 중부권 교통의 요충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각종 재난상황이 타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짐에 따라 소방서 추가 개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급증하는 소방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2011년 10월 1일 천안소방서를 천안동남소방서(명칭변경)와 천안서북소방서(개서)로 양분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현재 천안동남소방서는 2과 1단, 6개의 119안전센터, 2개의 지역대 체제로서 245명의 소방인력과 40대의 소방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천안시 면적의 69%인 438.45㎢를 관할하며 27만여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하루 평균 화재 2.8건, 구급 3.2건, 구급 19건의 소방 활동을 펼치며 최상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천안동남소방서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천안소방서의 역사적 주요 소방활동은 크게 3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1) 독립기념관 화재

1986년 8월 4일 밤 9시 50분, 기념당 용마루에서 폭음과 함께 불길이 시작된 사건이다. 당시 80년대 중반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촉발된 독립기념관 건립은 온 국민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성원을 담아 천안 목천의 흑성산 기슭에 추진되고 있었다. 개관을 앞두고 8월 4일 밤 9시 50분, 기념당 용마루 천장에 설치된 전구에 불을 켜는 순간 전기 과부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36. 불타버린 독립기념관 모습

소방력은 천안, 온양, 대전, 조치원, 평택, 청주 등 인근에서 총 37대, 130여 명 동원, 3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준공전이기 때문에 자체소방을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지지 않았었고, 당시 전면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과감히 옥내로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300여평, 15층 높이에 겨레의 집 천장이 소실되어 약 20억 원의 재산피해액이 발생하였다.

2) 꿈의 궁전 화재

2001년 8월 3일 03시 발생한 '꿈의 궁전' 여관 화재로 지금도 현직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큰 화재였다.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총 32개 객실을 갖춘 여관에 불이 날 당시 70여 명이 투숙중이었다. 소방인력 120여 명, 19대의 소방차량이 투입되어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투숙객들이 깊이 잠들어 있던 시각이었고, 유독가스가 빠르게 객실로 스며들어 6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휴가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렀다가 변을 당했고 그중 그해 겨울 결혼을 예정 중이던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꿈의 궁전' 화재는 지

하 보일러실 과열로 인한 화재로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소방시설 관리자 제도의 발전에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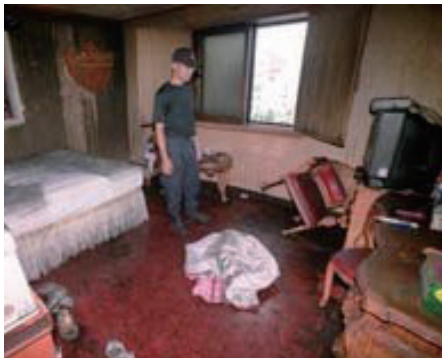


사진 37. 꿈의궁전 여관 객실 모습



사진 38. 꿈의궁전 여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장면

3)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



사진 39.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현장

2003년 3월 26일 23시 17분경 발생한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이다. 당시 합숙소 내부는 스티로폼과 합성수지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로 장식되어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실내로 퍼졌고, 유리창에는 방범용 쇠창살이 설치되어 아이들이 재빨리 대피할 수도 없어 26명이나 되는 사상자(사망 9, 부상 17)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주방에서 발생한 전기누전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12분 만에 진화되었던 비교적 작은 화재였음에도 순식간에 퍼져나간 유독가스는 단잠에 빠져 있던 무방비 상태의 아이들을 순식간에 덮쳐버렸다.

불과 한 달 전인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의 공포가 가시기 전에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소방 인식 변화에 다시금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듬해 이에 발맞추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소방방재청도 설립되며, 충청남도에서도 천안을 중심으로 재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천안동남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46.04.10.	천안소방서 신설
1950.05.27.	천안소방서 폐지
1969.01.31.	천안 열차 추돌사고 발생
1970.05.13.	천안소방서 개서
1970.06.10.	오룡파출소 개소
1983.09.10.	동부파출소 개소
1986.08.04.	독립기념관 화재 발생
1987.08.10.	독립기념관파출소 개소
1993.12.17.	천안소방서 이전
1994.06.15.	119구조대 발대
1995.05.26.	충남방적 천안공장 화재 발생
2001.08.03.	꿈의궁전 여관 화재 발생
2003.03.26.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발생
2006.01.02.	방호예방과, 대응구조과 신설
2006.11.30.	명칭 변경(파출소 → 119안전센터)
2006.12.19.	병천119안전센터 개소
2011.10.01.	천안동남 · 서북 소방서 분리
2013.12.23.	청당119안전센터 개소
2015.06.22.	현장대응단, 의용소방팀, 소방민원팀 신설
2015.06.22.	화재구조팀, 구급팀으로 명칭 변경
2018.04.16.	풍세119안전센터 개소
2019.01.01.	현장대응단 → 현장대응단, 구성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분리
2020.04.01.	현장대응팀 → 현장지휘팀으로 명칭 변경
2020.07.01.	대응총괄팀, 구조구급팀으로 명칭 변경

04.
천안서북소방서

01. 지역 특성


사진 40. 천안서북소방서 전경

천안서북소방서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는 충남의 천안시와 천안군 하늘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고려 태조가 '하늘 아래의 으뜸가는 요충지(要衝地)'라고 명명한 데서 땅 이름이 기원했기 때문이다. 천안삼거리로 통용되는 이곳은 교통의 요지로 기능해 왔으므로, 요충지로서 역할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민요에 '천안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아 흥 제멋에 겨워서 축 늘어졌구나 흥'으로 전개되는 노래 가사는 삼거리의 정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교통 기능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철도교통으로 이어지고 경부선 · 장항선 · 안성선이 십자로 형태로 놓이면서 철도의 사거리가 되었다. 삼거리의 전통에 물자와 여객 수송의 새로운 사거리 기능이 더해지면서, 근대 도시의 기반을 확립해 갔다.

천안시 서북구는 산업단지, 북천안 IC 등 천안 신물류 교통의 요지이고, 세계 OLED, 리튬 이온 2차 전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삼성 SDI를 비롯하여 8개의 산업단지 등에 건실한 기업들이 있어 서북구 지역경제를 튼실하게 받쳐주고 있는 곳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고,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등 중부권 신성장동력의 중심지이다.

또한, 입장 거봉포도, 성환 배 등 명품 농산물의 산지이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하였다.

위치적으로는 천안을 기준으로 동쪽은 충북 진천, 청주와 접하고 있고 서쪽은 아산, 남쪽은 세종, 공주 북쪽은 안성, 평택이 위치하고 있다.

02. 천안서북소방서 연혁

천안지역의 역세권 개발 및 산업공단 입주 등 지속적인 도시화와 화재, 구조, 구급 등 도내 소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0년 10월 1일에 충청남도 조례개정에 따라 천안동남, 천안서북으로 분리되어 천안서북소방서가 신설되었다. 천안서북소방서 개서와 동시에 차암119안전센터를 개소하였고 2015년에는 소방민원의 증가로 인하여 소방민원팀을 신설하였고, 동시에 그 해 의용소방팀을 신설하여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썼다. 2016년에는 입장면에 한발 앞선 현장대응을 위해 입장119안전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차암119안전센터에서 관할하던 직산읍에 119안전센터 개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년 직산119안전센터를 개서하여 농촌지역 재난 대응력을 강화했다. 또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불당동에 화재와 재난에 대비하고자 2018년 불당119안전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불당119안전센터에는 미니(Mini) 구조대를 전진 배치하여 시내권 화재 · 구조출동 시 신속한 현장대응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가 좁고 다중이용시설, 다가구주택이 많은 시내권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정119안전센터에 18m 소형 사다리차를 배치하여 화재 · 구조 현장에 적극 활용 중이다. 그리하여 2021년 현재 천안서북소방서는 2개 과, 1개 단, 9개 안전센터 및 1개 구조구급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302명, 의용소방대원 470명, 소방차량 등 44대를 배치하여 41만 시민들의 안전과 천안시 서북구의 화재 및 재난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



사진 41. 천안서북소방서 개서식

03. 주요 재난 및 사고

천안서북소방서의 역사적 주요 소방 활동은 크게 태양산업, 마린랜드, 라마다호텔, 차암초등학교, 해태제과, 영타운빌딩 6건의 화재로 볼 수 있다.

1) 태양산업 화재



사진 42. 불길이 치솟는 태양산업 화재현장

2015년 1월 18일 오전 6시 40분, 아침 식사를 하러 가던 공장 관계자로부터 공장 2개 동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공장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샌드위치 패널로 된 제품창고 28개 동 중 8개 동이 모두 불에 타 전소됐다. 진압 당시 화재 발생 지점 주변에는 19개 LPG탱크가 위치해 있어 불이 옮겨 붙을 경우 주변 공장으로 연소 확대는 물론 소방대원의 안전도 장담 못 하는 상황이었다. 소방본부는 광역3호(대응 3단계)를 발령하였으며 인근 경기도와 충북지역에서 장비를 긴급 지원받아 소방차 총 60여 대, 인원 600여 명을 동원해 6시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이날 화재로 부탄가스 제조공장 3만 6,258㎡ 규모의 28개 동 중 제품창고, 인쇄창고, 출하장, 생산라인 등 1만 6,000㎡의 8개 동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1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 마린랜드 화재


사진 43. 2017년 9월 1일 마린랜드 화재 현장

2017년 9월 1일 오전 1시경, 신고자 A 씨가 직산에서 물건을 싣고 배송하기 위해 천안서북경찰서 앞 도로상을 운행하던 중 좌측 편 마린랜드 물류창고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는 화세가 강해짐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량 18대, 소방대원 15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 약 1시간 50여 분만

에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인해 창고 건물 2개 동이 전소되고, 엔진 및 엔진오일, 고무보트 5대, FRP 선박 1대, 차량 5대 등이 소실되어 소방서 추산 4억 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취약한 야간에 발생한 대형화재로 화재 취약시간 때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 화재로 기억된다.

3) 차암초등학교 화재

2019년 1월 3일 오전 9시 32분에 초등학교 내 증축 중이던 5층 높이의 1개 동 16개 교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소방서는 즉각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하였고 화세가 거세지자 즉각 대응 2단계로 상향하였다. 화재 발생 40여 분이 지난 오전 10시 12분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당시 김은숙 교감선생님 주도 하에 각 교실과 연결된 방송용 마이크를 집어 들고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였고 유용관 행정실장 등 5명의 행정실 직원들은 화재 발생 경보기를 누르고 5층까지 뛰어 올라가 모든 교실을 돌면서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별도의 지진 옥외대피소가 있는 이 학교는 평상시에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여러 차례 해 왔던 선생님과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학교를 빠져나왔다. 그 결과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평소 적극적으로 해왔던 소방훈련과 선생님들의 화재 초기 행동들이 빛을 발했다. 우리에게 화재 발생 시 대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 화재로 머릿속에 남아있다.



사진 44. 2019년 1월 3일 차암초등학교 화재 현장

4)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



사진 45. 라마다호텔 화재현장

2019년 1월 14일 오후 4시 56분에 발생한 '천안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로 1명이 숨지고 소방대원을 포함해 19명이 다쳤다. 최초 화재 신고자 김모씨(51)는 "외벽 환풍구에서 연기가 난다"고 신고한 후, 소화기를 들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주차장 입구가 좁은 데다 차량에 옮겨 붙은 불로 소방관들이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화재 현장에 투숙객 7명은 화재가 발생하자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24명은 구조됐다. 하지만 소방관 4명을 포함한 1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중 3명이 중상, 16명이 경상을 입었다. 불은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8시 46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라마다호텔은 건축 과정에서 천장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여 놓으면서 불의 급격한 확산 경로가 된 것으로 분석됐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드러난 건축물 내장재 문제가 반복되어 안타까운 현실태를 보여주는 화재로 기억된다.

5) 해태제과 천안공장 화재

2021년 3월 24일 20시 13분경 불길이 시작됐다. 당시 공장은 야간근무자 70여 명이 근무 중이었고, 근무자 전원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는 건물 밖에 쌓아 놓은 플라스틱 자재에서 시작돼 공장 창고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강한 바람에 불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씨는 공장 부지 내 갈대에 옮겨붙어 두 군데에서 연소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인접 공장,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었지만 긴급구조통제단을 신속히 가동하고 건물 위치 및 기상 상황을 고려해 진압 작전을 세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화재로 투입된 소방력은 안성, 평택, 세종, 중앙구조본부 등 소방차 50여 대와 인력 550여 명을 투입해 대규모 진압작전을 펼쳤다. 불길은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6시 30분께 완진되었다. 대형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공장 및 야산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해 성공적인 화재진압으로 회자된다.



사진 46. 해태제과 천안공장 화재현장



사진 47. 해태제과 천안공장 화재진압 장면

6) 두정동 영타운빌딩 화재

여섯 번째는 '두정동 영타운빌딩' 화재이다. 2021년 4월 09일 17시 14분경 지하 주차장에서 불길이 시작됐다. 당시 빌딩은 학원, 검도관, 사무실 등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로 순식간에 연기가 상층부로 상승하여 2, 3, 4층 학생을 포함한 10여 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신고접수 후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고립 인원 인명구조를 위한 총력대응에 들어갔다. 화재발생 20여 분만에 현장대원에 의해 전원 구조 완료되었고 단순 연기흡입으로 병원이송 후 별 탈없이 안전하게 귀가하였다. 천안서북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팀, 현장지휘팀 및 현장대원이 하나가 되어 소방활동 정보카드, 건축물 도면 등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견고한 재난대응시스템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지체 없이 투입된 구조대원과 진압대원, 신속히 건물 정보 등 상황을 현장대원에게 전파한 상황팀, 협소한 도로에서도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긴급구조통제단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여 나타난 사례로 회상된다.



사진 48. 영타운 빌딩 화재현장 요구조자 인명구조 모습

천안서북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2011.09.26.	천안서북소방서 개서
2011.10.01.	소방서 명칭 변경(천안소방서 → 천안서북소방서) → 충청남도 조례 개정에 따른 천안동남, 서북소방서 분리
2011.10.07.	차암119안전센터 개소
2012.06.22.	명칭 변경 (구조 · 구급대 → 119구조구급센터)
2015.01.18.	태양산업 화재
2015.06.22.	소방민원팀 신설
2015.06.22.	의용소방팀 신설
2015.06.22.	현장대응과 → 현장대응단 으로 명칭 변경
2015.06.22.	방호예방과 → 화재대책과 로 명칭 변경
2016.01.25.	입장119안전센터 개소
2017.09.01.	천안 마린랜드 화재
2018.09.05.	직산119안전센터 개소
2018.12.11.	불당119안전센터 개소
2019.01.01.	명칭 변경 (119구조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2019.01.01.	명칭 변경 (화재진압대 → 차암119안전센터)
2019.01.03.	천안 차암초등학교 화재
2019.01.14.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
2021.03.24.	해태제과 천안공장 화재
2021.04.09.	두정동 영타운빌딩 화재

05.
공주소방서

01. 지역 특성



사진 49. 공주소방서 전경

공주소방서가 수호하는 공주는 충청남도 총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15개 시 · 군 들 중 가장 넓은 지역이다. 북쪽으로 차령산맥, 남동쪽에 계룡산이 주요 산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 · 서 방향으로 금강이 관류하고, 유구천, 정안천, 대교천, 제민천, 혈저천 등 많은 지류들이 이에 합류한다. 국가하천(금강)과 지방 1급 하천(유구천)이 분포하고, 차령산맥이 차가운 북풍을 막아 북쪽보다는 훨씬 따뜻하나 내륙분지로 금강의 영향을 받아 한서의 차가 큰 대륙성 기후를 띠고 있다.

또한, 공주시는 봄철 계룡산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 백제의 왕도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 겨울철 군밤축제까지 계절별 다양한 종류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멋 · 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67회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는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 지구를 기반으로 백제의 후예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로 나아가고 있다.

02. 공주소방서 연혁

1985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11795호에 의거 공주소방서 설치를 승인받아 초대 김영원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개서하면서 교동파출소를 병설하였다. 이듬해 1986년 12월 22일에는 대통령령 제12009호에 의거, 유구파출소가 개소되었고, 1990년 3월 27일에는 대통령령 제12608호에 의거, 조치원 파출소가 개소되었으며, 1996년 11월 18일 '충청남도 소방서 직제 규칙' 제2634호에 의거, 공주소방서 119구조대를 발대하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 공주에서는 가장 인명피해가 컸던 '원희정신과의원 화재'가 발생하였다. 2006년 10월 20일 오전 5시 47분에 발생한 이 화재로 총 5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환자 대부분이 치매나 알코올 중독자, 정신지체자로 거동이 불편했으며, 병원이 3층에 위치해 있어 출입구가 적은 데다 창문에는 방범용 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이다.

원희정신과의원 화재 이후 소방력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시민들의 관심 또한 증가됨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 신관119안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26일 동학사119안전센터, 2013년 7월 15일 계룡119안전센터가 차례로 개청되면서 총 5개의 센터가 운영되었다.

공주소방서에서는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속적 보강으로 기존에 낡고 협소한 청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대응에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2016년 3월 16일 웅진동에 현 청사를 신축, 이전함으로써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진 50. 2020년 9월 30일 공주소방서에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

공주소방서 주요 내빈 방문으로는 2020년 9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 특별경계근무 중인 공주소방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공주는 백제의 옛 도읍으로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고장인 만큼 공주소방서가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육상 재난을 총괄하는 우리 소방조직의 발전과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의 처우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경계근무 현황보고를 마친 후 장비 시연에도 참관했는데, 장비 시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차로 불리는 1930년대의 '완용펌프'와 2020년의 고성능 화학차의 성능 비교가 이뤄졌다.

2021년 현재 공주소방서는 2과 1단, 6개 119안전센터, 1개의 구조급센터, 3개의 지역대 체제로서 242명의 소방인력과 40여대의 소방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공주시 총면적 864.15㎢를 관할하며, 10만여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하루 평균 화재 1.9건, 구조 8.6건, 구급 31.5건의 소방활동을 소화하며 품질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주소방서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공주소방서의 역사적 주요 소방 활동으로 크게 3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1) 원희정신과의원 화재

2006년 10월 20일 오전 5시 47분경, 공주시 교동에 위치한 원희정신과의원 3층에서 불길이 시작된 사건이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1층에 청과물, 2층에 PC방, 3층에 병원이 입점한 건물로 화재 당시 6개 입원실에 사망자 5명을 포함, 환자 40명이 입원해 있었으며 입원환자 대부분이 치매나 알코올중독자, 정신지체자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진 51. 원희정신과의원 화재현장

소방서로부터 500m 거리에 위치한 원희정신과의원은 화재신고 3분 만에 소방대가 도착하였으나, 신고 지연으로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소방인력 198명과 장비 32대가 동원되어 약 40여 분의 총력대응으로 재난이 수습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5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4층 건물 3층에 자리한 병원 내부 1,676㎥ 중 573㎥가 소실되어 약 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병원이 건물 3층에 위치해 출입구가 적은데다 창문에는 방범용 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옥상으로 탈출하지 못한 점, 방화로 인해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점 등이 사망자를 낸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2) ㈜우진페인트 화재

2013년 1월 19일 오후 2시 35분경 발생한 정안면 사현리 정안2농공단지 내 '(주)우진페인트 화재'이다. 이 화재는 공장 1층에서 폭음과 함께 시작된 불길로 공주소방서의 빠른 대처로 큰불은 2시간여 만에 진압됐지만 잔불 진화는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됐다.

소방력으로는 공주, 논산, 천안, 세종 등 인근 소방력 180명과 장비 20대가 동원됐으며, 이 화재로 인해 공장동 2,829㎡가 전소되고, 3층 건물 1동이 불에 타 14억 원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3명이 연기를 흡입하여 공주의료원에서 진료 후 현장에 복귀한 것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 52. 불길이 치소는 우진페인트 화재현장

3) 정의산업 공장 화재

2019년 3월 6일 오후 5시 3분경 발생한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소재 '정의산업 공장화재'이다. 이 화재는 '공장에서 연기와 함께 화염이 보인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였으며, 접착제 제조 공장이라는 특성상 다량의 위험물질이 보관되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방대의 신속한 대처로 1시간 30여 분 만에 진압됐다.

신고를 받은 공주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100여 명과 3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하였으며, 이 화재로 약 10억 원의 재산피해와 직원 1명이 2도 화상을 입는 부상을 당하는데 그쳤다.



사진 53. 화재현장과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모습





공주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85.12.13.	공주소방서 개서(교동파출소 병설)
1986.12.22.	유구파출소 개소
1990.03.27.	조치원파출소 개소
1995.05.08.	구조구급과 신설
1996.11.18.	공주소방서 119구조대 발대
1997.10.30.	구조구급과 폐지
1998.09.05.	구조구급계 폐지
2005.10.06.	대응구조과 신설
2006.10.20.	공주시 교동 '원희정신과의원' 화재
2006.12.20.	신관119안전센터 신설
2008.12.26.	동학사119안전센터 신설
2013.01.19.	공주시 정안면 '우진페인트' 화재
2013.07.15.	계룡119안전센터 신설
2015.06.22.	의용소방팀 신설, 현장대응단 통합(교동, 구조대)
2016.03.16.	공주소방서 청사 이전
2019.01.01.	현장대응단 분리(웅진센터, 구조구급센터)
2019.03.06.	공주시 탄천면 '정의산업' 화재
2020.07.10.	정안119안전센터 신설
2020.09.28.	양승조 도지사님 소방관서 방문
2020.09.30.	정세균 국무총리님 소방관서 방문

06.
보령소방서

01. 지역 특성

보령소방서가 관할하는 보령시의 면적은 총 573.90㎢ 으로 1개읍 10개면 5개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서해안을 배경으로 서울과 전라남도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천안과 익산을 잇는 장항선 철로의 발달로 육로 교통로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

또한 해안가에 인접한 도시답게 서해안으로는 해안선 272.99km 유인도서 15개소, 무인도서 75개의 섬이 있고, 대천항, 오천항, 무창포항 등 어항 30개소, 해안로가 발달되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보고, 즐기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이며, 전국에서 제일 긴 보령해저터널(전 세계 해저터널 중 5번째)이 2021년도 말 개통 예정임에 따라, 해저터널 경유지인 원산도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지 산업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주요 관광지로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는 보령머드축제 개최지인 대천해수욕장이 있으며,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는 무창포 해수욕장 등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적 특색에 맞게 다양한 해양레포츠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이다.



사진 54. 보령소방서 전경

02. 보령소방서 연혁

1987년 11월 26일 대천소방서 개서를 통해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던 의용소방대 업무를 소방서로 이관, 통합 관리하게 되었으며 1988년 8월 30일 보령시 죽정동에 청사신축 준공을 토대로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당시 보령소방서의 관할구역으로는 서천군, 홍성군, 청양군을 포함하여 관할하였고, 서천파출소(1989.1.28.), 홍성파출소(1990.5.29.), 장항파출소(1991.6.15.), 청양파출소(1994.5.2.), 광천파출소(1995.5.8.) 등 타 시 · 군에 파출소 설치를 통해 지역 안전을 책임져 왔다.

이후 다수의 관광객이 모이는 대천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신속 대응하고자 신흑파출소를 개서하였고, 1995년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되어 보령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서도 흐름에 맞춰 대천소방서에서 보령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후 1948년 대천해수욕장 첫 개장을 시작으로 매년 대천해수욕장 개장 기간 마다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수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천해수욕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1998년 7월 보령소방서에서는 119해변구조대를 창설, 매년 대천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 구조 · 구급대원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대천해수욕장 해변구조대 청사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대천해수욕장 개장 이래 최초로 인명사고 제로화 달성에 119해변구조대가 큰 기여를 하였으며, 이 공을 높이 세우고자 해변구조대 옆 청사에 이를 기념하는 비를 세워 전 방문객을 대상으로 119해변구조대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름철 대천해수욕장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보령소방서는 2014년 정홍원 국무총리 방문, 2017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 정부 인사가 해변구조대 격려를 통해 해변구조대의 활약상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각 기관에서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보다 더 나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제공으로 매년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소방 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동시에, 각 시 · 군별 소방 기관 설치에 따라, 2002년 3월 30일 홍성소방서 신축으로 홍성군, 청양군이 별도 분리됨을 시작으로 하여, 2004년 12월 30일 서천, 장항파출소 분리를 통해 보령지역만을 관할하게 되는 보령소방서로 거듭나게 된다.

전국 최대 화력발전소인 보령화력발전소를 관할하고 있는 보령소방서는 재난 발생에 대응을 대비하고자 2008년 7월 1일 오천119안전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 15일 오천119안전센터를 개청하여 주포, 청소, 천북면을 담당하고, 본서로부터 출동거리가 먼 지역의 안전을 담당함으로써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였고, 현재 오천면에 신보령화력발전소, LNG 터미널

등 대형 소방대상물이 들어서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보령중앙시장 등 6개소의 전통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보령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더불어 특수시책 추진,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다양한 활약을 함께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15일 보령소방서 대천 전통시장 전문 의용소방대 발대를 통해 시장 내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어 우리서 관내 소방안전 사각지대였던 주포면 지역의 신속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자 2016년 1월 25일 주포119안전센터 개청을 끝으로 현재 3개 과(단), 6개 119안전(구조구급)센터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보령 관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센터 개소 등을 통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한걸음 다가서는 방향으로 성장해온 보령소방서는 다(多) 도(島)의 도시에 맞게 도서지역 안전을 책임지고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삽시도, 효자도, 외연도 의용소방대 창설을 통하여 도서지역 재난을 지키는데 더욱 앞장섰다.

2021년 현재 보령소방서는 2과 1단, 6개의 119안전센터, 2개의 지역대 체제로 223명(여성소방공무원 24명)의 소방인력과 53대의 소방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보령시 전체 면적 573.90km2 관할, 10만여 명의 보령시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보령소방서는 지난해(2020년) 총 148건의 화재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238건 구조출동하여 1,656건 처리, 8,894건 구급출동 중 5,094건을 처리했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1987년 11월 26일 대천소방서로 개서한 이래 현 보령소방서에 이르기까지 국내 제일의 해수욕장이 있는 해양관광도시인 보령에서는 크고 작은 재난들이 있었지만 역사적 주요 재난 사고는 크게 3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1) 죽도 바닷물 범람사고

2008년 5월 4일 보령 죽도에서 일어난 바닷물 범람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다. 당시 보령소방서와 경찰 및 민간인 등 500여 명을 투입해 경비정 12척과 헬기 2대, 민간자율구조선 15척을 동원, 6일 동안 사고 인근에서 집중 수색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상

파랑에 의한 보령 죽도 방파제 수난사고 대책으로 예 · 경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측시설의 개선을 통한 피해예측 정보의 수집과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R&D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바다낚시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상레저 안전법상 바다나 강, 호수 등의 레저 활동 시에는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감안해 낚시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는 법이 개정 · 추진되었다.



사진 55. 파도에 휩쓸리는 당시 CCTV 장면

2)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2012년 3월 15일 22시 57분에 제1~2호기 터빈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인원 606명, 장비 35대를 동원하여 현장 활동에 임했다. 전기공동구(케이블 터널 내)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미로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어 신속한 현장 진입과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웠고, 화재가 시작된 지하 1층 케이블룸(터널)은 고압이 통전 중으로 관계자로 하여금 전원 차단을 요청하였으나, 발전 시설의 특성상 전원 차단이 즉각 실행되지 않아 화재 초기 화재진압 활동에 지장 초래하였다.

또한 내부는 케이블(전선)이 덕트를 매개로 각 동별(실별) 수없이 많이 존재하여 지하 1층에서 발화된 화재가 케이블의 피복을 연소시키며 구획된 벽을 통과한 덕트를 통하여 빠르게 연소 확대되어 정확한 발화지점 확인이 어려울뿐더러, 2차 사고 우려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인접 소방서, 유관기관 등 합동 진화 작전을 펼쳐 화재가 발생하고 약 12시간이 지난 익일 오전 10시에 화재를 완진하였으며, 총 9억5,68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번 보령화력발전소 화재를 계기로, 발전소 내 자체소방대와, 보령소방서 간,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자 합동훈련, 간담회, 대응체계 방안 마련 구축 등 상호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 56.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현장

3) 광천IC 연쇄추돌 사고



사진 57. 광천 IC 부근 연쇄추돌 현장

2016년 1월 3일 08시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광천 IC 부근 차량 연쇄추돌 사고로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사건으로 회자된다. 사고는 짙은 안개로 운전자들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6대의 차량 연쇄 충돌을 시작으로, 이후 2차로 7대, 3차로 3대가 연이어 충돌하였다. 현장에는 총 12대의 장비와 22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소방에서는 구조 및 구급활동, 경찰은 교통정리에 주력하였다. 피해 상황으로는 차량 16대 파손, 환자 15명이 발생하였으며, 중증도 분류 결과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 14명으로 확인되었다. 선착 구조대와 구급대의 신속한 인명구조 및 사상자 중증도 분류, 추가 구급대 요청으로 인근 홍성의료원 등 3개소의 병원으로 모든 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었다.

보령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87.11.26.	대천소방서 개서(죽정파출소 개소)
1988.08.30.	청사신축 준공(대천시 죽정동 431–1)
1989.01.28.	서산파출소 개소
1990.05.29.	홍성파출소 개소
1991.06.15	장항파출소 개소
1992.07.30.	신흑파출소 개소
1994.05.02.	청양파출소 개소
1995.01.01.	행정기관 명칭 변경(대천소방서 → 보령소방서로 개칭)
1995.05.08.	광천파출소 개소
1995.12.08.	서천파출소 개소
1996.11.12.	119구조대 발대
1998.09.05.	보령소방서 → 충청남도 보령소방서로 개칭(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로 개칭)
2002.03.30.	보령소방서 관할 변경(홍성소방서 분리 : 홍성군, 청양군)
2002.04.10.	웅천파출소 개소(웅천, 미산, 성주, 주산)
2005.12.28.	방호구조과를 방호예방과로 개칭 및 대응구조과 신설
2008.05.04.	죽도 바닷물 범람사고(9명 사망, 14명 중경상)
2008.10.15.	오천119안전센터 개소(주포, 청소, 천북)
2012.03.15.	보령화력발전소 제1~2호기 터빈동 화재(재산피해 9억 5,680만 원)
2016.01.03.	광천IC 연쇄추돌 사고(사망 1명, 부상 14명)
2016.01.25.	주포119안전센터 개소(주포, 주교, 청소)
2019.05.29.	보령소방서 청사이전 준공식(보령시 성주산로 63)
2019.07.01.	죽정119안전센터를 명천119안전센터로 개칭

07. 아산소방서

01. 지역 특성



사진 58. 아산소방서 전경

한반도의 중앙부 및 충남의 최 서북단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산시는 북쪽은 차령산맥의 여맥에 속하는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남쪽의 산지에서 발원하는 곡교천이 서류하여 그 유역이 평야를 형성하며, 삽교천에서 통합하여 아산만에 유입된다. 남쪽에는 광덕산과 북쪽에는 영인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남고 북저의 지형인 아산시는 중앙이 낮고 평평한 평야가 전개되고 있다. 동쪽으로는 천안시와 남쪽으로는 공주시, 서쪽으로는 예산군, 북쪽으로는 경기도 평택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장항선 등으로 서해안 내륙 지방의 수송기능이 강화되었다. 경부고속철도는 서부지방으로의 수송을 유리하게 하여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 지역을 지역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지목받게 하였고,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 신정호 별빛 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은 아산시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02. 아산소방서 연혁

1983년 천안소방서 관할에 아산의 일부 지역이 추가되면서 9월 30일 천안소방서(現, 천안동남소방서) 산하에 온양파출소가 개소되었다. 이후 1986년 1월 온양읍이 아산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온양시로 승격됨에 따라 1989년 1월 31일 온양소방서가 개서되었다. 이는 온양읍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관광도시로의 발전으로 인해 온양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기구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온양소방서는 1990년 4월 30일 산하에 예산파출소를 설치하였고, 광역 소방행정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1992년 1월 1일 예산군 전역을 관할 지역으로 두게 되었다. 이에 더해 1994년 8월 온양시와 아



사진 59. 2020년 2월 29일 신창제지공업 화재진압 장면

산군이 통합되고 아산시로 개편됨(법률 제4774호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산소방서로 개칭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아산소방서 삽교파출소가 신규 개소되어 예산파출소와 12개 읍·면을 행정구역상 분할 담당하기 시작했다. 예산파출소는 예산읍,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지역을, 삽교파출소는 삽교읍, 덕산, 고덕, 봉산, 신암, 오가 지역을 각각 맡아 예산군 전역을 빈틈없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아산소방서 산하에는 파출소(現, 119안전센터)가 하나둘 새로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아산시의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2004년 8월에는 인주면에 인주파출소가, 2005년 1월에는 신창면에 신창파출소가 추가로 개소되었다. 이어 2010년대에는 신도시 조성 사업, 대기업의 유치(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코닝정밀소재), KTX역사 신설 등으로 인해 아산시의 인구는 26만 명으로 증가했고 늘어난 시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방, 탕정, 장재119안전센터가 차례로 개서 되며 현재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아산소방서는 주요 인사 방문 및 각종 국가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도 기여하며 지역 내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 예로 2020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아산 온양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유사시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방문지역 소방점검을 추진하였고, 방문 당일에는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여 최고도의 출동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2018년과 2021년 문 대통령의 아산경찰대학교 졸업식 행사 참석 당시에도 안전유지에 힘써 행사가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진행하는데 기여하였다.

2021년 현재 아산소방서는 2과 1단, 8개의 119안전센터, 2개의 지역대 체제로 편성되어 288명의 소방인력과 46대의 소방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하루 평균 화재 4.8건, 구조 4.5건, 구급 48건, 생활안전 7.6건의 소방 활동을 수행하며 33만 아산 시민에게 최상의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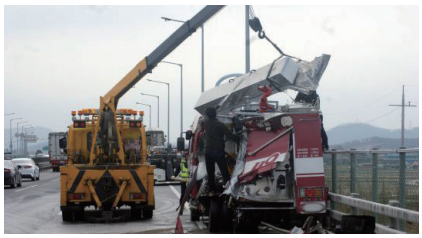
아산소방서의 역사적 주요 소방활동은 크게 3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1) ㈜대륙제관 화재


사진 60. 대륙제관 화재 현장

2006년 2월 14일 오후 3시 8분,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영인농공단지 안의 대륙제관 가스충전실에서 가스통에 가스를 주입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가스충전동에 자동화 기계가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포장지 필름에 불이 붙은 뒤 옆 동인 에어졸 제관동으로 옮겨붙게 되었고, 다시 제품 창고로 번져 3개동 3,800여 평이 소실되었으며 창고 안에 적재되어 있던 휴대용 가스통 200만 개가 모두 불에 타는 대형화재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이날 화재로 공장에서 제작 중이던 3만여 개의 부탄가스통이 공장 외부까지 튕겨나가 근로자 전원과 주변 마을 주민 65세대 130여 명도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는 대형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계도 조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 둔포면 교통사고


사진 61. 처참히 파손된 펌프차의 모습

2018년 3월 30일 발생한 '둔포면 교통사고'이다. '도로를 뛰어다니는 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국도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차량을 25t 트럭이 들이 받아 아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1명과 임용예정 실습생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임용예정 실습생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교육 훈련생에게 4대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폭우로 인한 실종자 발생 사고


사진 62. 송악저수지 실종자 수색 현장

2020년도 8월 3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3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고, 실종자 3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하여 유례없는 21일간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시청, 경찰, 군부대 등을 포함하여 총 4천957명의 인력 동원과 1,214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수색 끝에 실종자를 전원 발견하였다.

아산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83.09.30.	천안소방서 온양파출소 개소
1989.01.31.	온양소방서 개서
1989.05.19.	온양소방서 청사 준공(모종동 361–59)
1990.04.30.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 개소
1994.05.10.	온양소방서 둔포파출소 개소
1995.01.01.	아산소방서 명칭 변경
1996.11.12.	아산소방서 119구조대 발대
1997.12.15.	아산소방서 삽교파출소 개소
1998.09.05.	아산소방서 직제 변경
2004.08.10.	아산소방서 인주출장소 개소
2005.01.17.	아산소방서 신창파출소 개소
2006.02.14.	영인면 신운리 '대륙제관' 화재
2008.01.31.	인주119안전센터 개소
2009.10.07.	대응구조과 신설
2010.11.26.	배방119안전센터 개소
2012.07.01.	119구조구급센터 직제개편
2013.06.10.	대응구조과 → 현장대응과 명칭 변경
2015.06.22.	의용소방팀, 소방민원팀 신설
2015.06.22.	방호예방과, 현장대응과 → 화재대책과, 현장대응단 명칭 변경
2016.01.25.	탕정119안전센터 개소
2018.03.30.	둔포면 교통사고 발생(소방공무원 3명 순직)
2018.05.19.	아산소방서 신청사 준공(모종로 77)
2019.01.01.	현장대응단 → 모종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분리
2019.01.01.	장재119안전센터 개소
2020.02.09.	문재인 대통령 아산온천시장 격려 방문
2020.04.01.	현장대응팀 → 현장지휘팀으로 명칭 변경
2020.08.03.	송악면 실종자 수색
2020.07.01.	대응총괄팀, 구조구급팀으로 명칭 변경
2020.07.10.	선장119지역대 개소

08. 서산소방서

01. 지역 특성



사진 63. 서산소방서 전경

서산소방서가 수호하는 서산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대산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서산은 당진 · 태안 및 충남도청의 소재지인 홍성과 밀접해 있으며 주요 관광명소로는 해미읍성, 개심사 및 서산 한우목장으로 충남의 대표적인 석유화학산업 · 관광 도시이다. 지역 특산물로는 부석 육쪽마늘 및 생강, 팔봉산 감자가 유명하며 관내에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8개, 대학교 1개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이다.

02. 서산소방서 연혁

석유화학산업 · 관광의 도시인 서산을 지키는 소방의 역사는 초기에 대천소방서 서산파출소로 시작을 하여 1990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방서 직제 개정안에 따라 서산소방서로 분리되어 개서 되면서부터 하나의 관서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서산소방서의 초기 관할 지역은 서산 · 당진 · 태안으로 3개 지역의 화재 · 구조 · 구급활동을 담당하였다. 3개 지역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990년 당진소방파출소, 1994년 태안소방파출소 개소 및 1996년 119구조대가 발대됨에 따라 서산소방서의 구체적인 조직화 및 관할구역의 명확화로 지역주민에게 신속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서산의 농작물인 생강의 저장 장소(생강굴)에서 유독가스로 실신한 시민을 구조한 서산소방서의 현장 활동 사례는 당시 유명 TV프로그램인 “긴급구조 119”에 방영 되면서 지역 내 소방서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 1월 6일 서산소방서의 관할 지역이 서산 · 당진 · 태안에서 당진이 분리되어 당진소방서가 개서 됨에 따라 관할 지역이 서산 · 태안으로 줄어들어 관할 지역의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12월 26일 서산시 대산읍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상황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19화학구조대를 개소하여 서산 · 태안 일원의 대규모 재난 상황을 9명의 인원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2013년 11월 29일 태안지역의 관광객으로 인한 유동인구 급증 및 서산소방서의 원거리 출동 등으로 현장 활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태안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라 관할 지역이 서산 · 태안에서 태안이 분리되어 급증하는 소방수요 충족 및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8월 17일 서산의 작은 마을인 해미읍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일정이 예정되었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의 방문이 예정되어 화재 · 구조 · 구급의 소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전거 구급대를 발대 하였다. 많은 인파로 인하여 소방차량의 진입 불가능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및 지속 가능한 현장안전관리를 위한 자전거 24대, 1급 응급구조사 24명을 배치하여 방문 기간 동안 안전한 교황 방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6월 분리돼있던 직할안전센터 및 구조구급센터를 통합하여 화재 · 구조 · 구급의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해 탄력적인 현장대응을 가능토록 하게 했으며 2017년 성연119안전센터 개청을 통해 차세대 자동차 산업 지역인 성연 지역의 재난을 예방하는 소방업무를 제공하게 되었다.



사진 64. 화목보일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모습(KBS2)

2020년 6월, 서산소방서는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이색적인 시책을 강구하였다. 이색적인 시책은 “화목 보일러를 이용하는 독거노인 가정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 지원”으로 화목보일러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 위험 특성에 맞춰 독거노인을 위한 초기 화재 대응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가는 화재예방 방안은 서산 지역의 20가구에 설치함을 물론 충남의 각 소방서에 독거노인 화재예방 대표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21년 현재 서산소방서는 2과 1단 6개 안전센터, 1개 구조구급센터, 2개 지역대 체제로서 241명의 소방인력과 46대의 소방차량을 갖추게 되었고, 서산시 면적인 742.03㎢을 담당하며 17만여 명의 시민에게 질 좋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 평균 화재 2건, 구조 3.7건, 구급 35.9건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안전 지킴이 소방서가 되도록 성장하고 있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서산소방서의 역사적 주요 소방 활동은 크게 3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1) 가야산 산불

2011년 3월 18일 19시 52분경에 발생한 해미면 대곡리 '가야산 산불'이다. 한서대학교 원룸 밀집 지역에 있는 원룸촌 뒤쪽 공터에서 미상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건초에 떨어져 발화하여 가야산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이다. 해미면 산수리 계곡 인근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였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데 2일이 걸렸던 화재 출동 건이다.

소방공무원 210명, 의용소방대 및 유관기관, 지역 주민 등 1,100명이 동원되었고, 29대의 소방차량과 헬기 6대가 투입되어 48시간 만에 진화되어 가야산 45,000㎡가 일부 소실되었다. 또한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헬기 1대가 해미면 산수 저수지에 추락하여 정비사 1명이 숨지고 조종사 등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진 65. 추락한 소방헬기를 인양하는 모습



사진 66. 레미콘 차량 전도 사고 현장

2) 레미콘 전도 사고

2015년 10월 14일 09시 10분경에 발생한 예천동 '레미콘 차량 전도 사고'이다. 25톤 레미콘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반대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덮치고 그 뒤에 있던 다른 차량들을 잇따라 충돌한 후 멈춘 사건으로 레미콘 운전자 1명 부상, 쉐보

레 크루즈 운전자와 탑승자 3명이 사망하였다. 레미콘 차량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대산 방향으로 무리하게 진행 중 신호를 지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3) 대산 롯데케미칼 화재



사진 67. 롯데케미칼 화재 현장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한곳으로 석유화학 관련업종 50여 개 기업이 입주하여 조성된 곳이다. 롯데케미칼 화재는 2020년 3월 4일 새벽 3시, 공장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폭발 진동은 수십 km 떨어진 당진과 태안 등 인근 시군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발 원인은 프레셔 하우스 3단 압축기 토출 측 익스팬션 조인트의 벨로우즈 파단부로 누설된 가스가 공정상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여 천안, 아산, 당진, 태안, 홍성 등 주변 소방서의 소방력과 경기 남부지역의 소방력을 동원하여 총 66대, 274명이 동원하였고 6시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4명이 다치고 롯데케미칼 납 사분해 공정(NCC) 1,500㎡ 소실 등 약 46억 4천여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사진 68. 롯데케미칼 화재를 진압 중인 모습

서산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89.01.28.	서산파출소 개소
1989.04.06.	서산소방서 설치 승인
1990.03.16.	서산소방서 개서
1990.03.16.	서산파출소 → 예천파출소 명칭 변경
1992.09.04.	대산파출소 개소
1994.05.25.	태안파출소 개소
1995.01.10.	"긴급구조 119" 서산소방서 현장활동 사례 방영
1996.11.19.	119구조대 발대
2002.04.10.	안면파출소 개소
2004.01.06.	당진소방서 분리(당진파출소, 합덕파출소)
2005.11.14.	대응구조과 신설(방호구조과 → 방호예방과 명칭 변경)
2006.11.30.	파출소 → 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2006.12.26.	해미119안전센터 개소
2006.12.28.	동부119안전센터 개소
2008.12.28.	부석119안전센터 및 서산119화학구조대 발대
2011.03.18.	가야산 산불화재 및 산불화재진압 헬기 추락
2012.07.01.	119구조구급센터(119구조대 → 구조 · 구급대 통합)
2013.11.29.	태안소방서 분리(태안, 안면119안전센터)
2014.08.13.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따른 자전거구급대 발대
2015.06.29.	현장대응단 직제개편(예천, 119구조구급센터 통합)
2015.10.14.	예천동 레미콘차량 전복사고
2017.05.29.	성연119안전센터 개소
2019.01.01.	현장대응단 직제조정(예천, 119구조구급센터 분리)
2020.03.04.	롯데케미칼 폭발화재 사고
2020.04.0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부서 명칭 변경 (현장대응 → 현장지휘, 위험물 → 소방민원)
2020.07.0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화재구조 → 대응총괄, 구급 → 구조구급)

09.
논산소방서

01. 지역 특성

논산시는 충청남도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 계룡시와 대전광역시 · 금산군, 서쪽으로 부여군과 전라북도 익산시, 남쪽으로 완주군, 북쪽으로 공주시에 접해 있고, 호남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가 통하는 곳이며, 호남선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논산'이라는 이름은 우리말 '놀뫼'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금강 주변에 펼쳐진 논산평야와 계룡산이 있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대 석불이 있는 관촉사가 있으며, 동양 최대길이의 탑정호 출렁다리가 4월 중 개통 예정이다.

현재 논산시 은진면 중 일부는 백제시대 가지내현(加知奈縣)으로 불리었다. 신라 경덕왕 때 시진현(市津縣)이었고 9주 5소경 중 전주에 속했다. 한편 황산벌로 유명한 연산면 지역은 삼국시대 백제의 행정구역으로 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이었다. 후 삼국시대 통일신라의 황산군(黃山郡)이었고 9주 중 웅주에 속했다.

조선시대에는 은진현, 연산현, 노성현, 석성현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이 여러 지역들이 1914년 4월 1일 은진군을 중심으로 연산군, 노성군 및 석성군의 일부가 통합되어 비로소 논산군이 되었다. 이후 1931년 4월 1일 강경면이 강경읍으로 승격했으며 1938년 10월 논산면이 논산읍으로, 1996년 3월 논산시(도농복합)으로 승격되었다.



사진 69. 논산소방서 전경

02. 논산소방서 연혁

1985년 12월 13일 공주소방서가 개서 되었으며, 그후 논산의 발전에 따라 1989년 5월 6일 논산 반월동에서 논산소방파출소의 문을 열게 되었다. 논산소방파출소의 개소를 위하여 1988년 3월 2일 당시 내무부로부터 관서 설치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소방공무원 13명(소방위 1, 소방장 2, 소방교 4, 소방사 6)의 정원 승인을 받아 개소를 하게 되었다. 개소와 더불어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라는 직제로 일부 의용소방대원과 지역주민의 반발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논산지역의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민원업무 등을 파출소에서 처리함으로써 소방이 논산 주민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그간의 소방 책임을 시장 · 군수에서 도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사무의 광역화가 이루어졌다. 1992년 1월 15일 충청남도 직제규칙 제2210호(1992년 1월 1일 소급 시행)로 소방업무의 도이관에 따른 시 · 군의 소방서 직제가 폐지되고 소방서 관할구역이 조정되었지만 논산은 계속해서 공주소방서의 관할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논산의 발전과 충청남도의 광역소방체제에 의한 소방서 설치 추진계획에 의하여 1995년 6월 30일 내무부로부터 논산소방서 관서 설치 승인을 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의 무관심 등으로 소방서 신설 부지 문제부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대두되었고 매년 소방서 설치 예산의 미확보로 답보의 상태가 되었다.

1995년 5월 23일 강경파출소의 설치가 승인되고 같은해 12월 15일 강경파출소를 개소하므로 논산의 소방 사각지대인 서남부권을 관할(강경읍, 연무읍, 양촌면, 가야곡면, 성동면, 채운면) 하여 논산지역의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를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러던 중 1996년 3월 1일 논산시의 탄생과 더불어 시지역 중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도의회의원 등의 노력으로 현재 소방서 위치에 1,047평의 부지가 확보(도비) 되어 소방서 추진의 발판이 되었고 그해 43억 원의 소방서 신축 예산이 확보되어 1997년부터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 1997년 6월 16일 내무부로부터 18명(소방정 1, 소방령 2, 소방경 5, 소방위 2, 소방장 4, 소방교 4)의 정원 승인으로 소방서 개서에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로 어려운 입장이어서 정원 승인 등에서 어려움이 아주 많았고, 그로 인하여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드디어 어려운 산고 속에서 우리 지역에서 갈망하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숙원이었던 논산소방서가 1997년 12월 15일 개서하므로 1994년 6월 30일 소방서 설치 승인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 후 논산소방서는 논산시를 비롯하여 금산군(2008년 분리), 계룡시(2016년 분리)의 안전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현재 논산소방서는 정원 234명(현원 224명)으로 2과(소방행정과, 화재대책과) 1단(현장대응단), 안전센터 5개소(내동, 강경, 연무, 반월, 연산), 지역대 3개소(상월, 양촌, 벌곡), 119구조구급센터 1개소를 운영하며 논산시 면적 554.61km, 120,541명(57,826 가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화재출동건수는 1,066건, 구조는 1,945건, 구급 10,735건, 생활안전 1,083건을 출동하여 논산 안전 활동의 최전선에 서있다.

또한 논산시 탑정리에 위치한 탑정호(저수지)에 동양 최장 길이의 출렁다리(길이 600m, 폭 2.2m)가 21년 4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논산소방서에서 발 빠르게 수난구조대 사무실 56㎡ 및 접안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수변데크길(3km) 구간 내 위치 표지판도 50m 간격으로 6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수난사고 대비를 위해 탑정호 수난구조대 발대를 준비 중이며 모터보트 및 수상인명과 육상 인명구조를 위해 정원 15명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난구조대 설치 후 잠수 자격자 및 수난 관련 경력자의 전입을 통해 도내 수난구조대 역량을 향상하고, 수상인명구조 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잠수교육의 육성기지로 양성할 계획이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1) 정신병원 화재

1993년 4월 19일 새벽 2시 10분경 논산읍 부창동의 서울신경정신과의원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입원환자 41명 중 34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은 입원실 병동 153.71m2(46.5평)을 모두 태우고 논산소방서를 비롯한 소방인력 200여 명에 의해서 30분 만에 꺼졌다.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병원의 정원은 25명이었으나, 41명을 수용했고, 환자 대부분이 비닐호스로 손발이 묶여 있어 대피를 못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70. 화재현장인 정리중인 모습

2) 화지중앙시장 화재

우리 삶의 일부분인 시장 화재도 있었다. 2004년 5월 19일 새벽 3시경 화지중앙시장 내 공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부동산 4개, 동산 11개 점포가 소실되었다. 화지시장 내 화재는 최초 발화지점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었고, 낡고 오래된 목조 한옥과 함석 재질로 지붕으로 쌓여져있고 건물과 건물 간격에도 틈이 없이 빼곡하게 붙어있었다.

또한 미로 같은 골목길이라 어려움이 많았고 앞 도로에서 고가 사다리차로 직접적인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거미줄 같은 전선 및 통신케이블 선이 널려있어 고가 사다리차를 무용지물로 세워 놓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 속에 소방차와 순수 인력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동원된 소방력은 180명, 차량 20대를 포함하여 한전, 시청 직원 등 여러 유관기관의 공조 속에 공가 외 4곳과 의류점포 등 11곳을 태우고 오후 11시 38분경 완진되었다. 우리 삶이 녹아있는 시장 화재라 가슴이 더욱 아픈 화재였다.



사진 71. 화지중앙시장 화재 현장



사진 72. 화지중앙시장 화재진압 장면

3) 타코마테크놀로지 공장화재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01시 52분 신고 접수된 노성면 두사리에 위치한 타코마테크놀로지 공장 화재이다. 최초 신고는 해당 공장에서 작업 중 증기 분출로 인한 환자 발생에 따른 구급신고로 접수되었다. 그래서 첫 출동은 화재진압용 소방차가 아니라 구급차가 출동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가 도착하여 내리려는 순간 공장 폭발로 인하여 구급차가 전소되었고, 구급대원 3명은 가까스로 자력 탈출 후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고, 구급대원 3명도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그리고 그 후 소방차량이 출동하였고, 01시 54분 대응 1단계 발령 및 논산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이 되었고, 신속한 주민 대피령을 통해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후 02시 15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화마와 전면전을 펼쳤다. 동원 인력 총 337명(소방 265, 의용소방대 52 등)과 장비 44대가 동원

되었고, 인근 소방관서 7개서(본부 광역기동단, 중앙119구조본부, 익산화학구조대, 공주, 부여, 서천, 계룡)에서 화재 진압에 힘을 보탰다.

09시 33분 붕괴된 공장 안에서 실종자 1명(사망)을 발견하였고, 14시 19분 뒷불감시까지 종료하여 화재는 완전히 잡혔다. 화재로 49억 9,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사진 73. 2021년 3월 18일 타코마테크놀로지 화재현장

4) 고양이 심폐소생술

2021년 2월 15일 대한민국을 가슴 따뜻하게 한 소식이 있었다. 논산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의 대원이 동물구조 출동을 나갔다. 나가서 보니 고양이가 축구 골대 그물망에 걸려 힘들어하다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때 우리 대원이 의식을 잃은 고양이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몇 번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하니 고양이가 혓바닥을 움직이며 의식이 돌아옴을 알렸다. 심폐소생술을 한 대원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하였다. 이 출동 건은 많은 매체를 타고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고양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방관의 모습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였고, 소방서 게시판과 전화로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소방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 이번 일로 인하여 충남소방본부에선 전국 최초 반려동물 응급처치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응급처치를 사람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처럼 기본적인 소양으로 될 것이다.



사진 74. 뉴스데스크 보도(MBC)

논산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89.05.06.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 개소
1993.04.19.	논산정신병원화재 (사망 34명, 중경상 2명)
1995.12.15.	공주소방서 강경파출소 개소
1996.11.18.	119구조대 발대
1997.12.15.	논산소방서 개서
2004.05.19.	논산화지중앙시장 화재
2005.11.14.	대응구조과 신설(방호구조과 → 방호예방과 명칭변경)
2006.11.30.	연무 · 추부119안전센터 신설
2008.01.29.	반월119안전센터 신설 및 금산 추부119안전센터 분리
2012.12.05.	연산119안전센터 신설
2016.07.01.	계룡119안전센터, 계룡119구조대 계룡소방서로 이관
2019.01.01.	현장대응단 내부직제 조정 및 정원조정(단→ 내동119구조구급센터 분리)
2021.03.18.	타코마테크놀로지 공장화재 (사망 1명, 중경상 8명. 49억 9천만 원)

10.
계룡소방서

01. 지역 특성

계룡소방서가 수호하는 계룡은 충청남도 남동부에 위치하여 동서 간 8.4km, 남북 간 12.9km로 뻗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대전, 서쪽과 남쪽으로는 논산, 북쪽으로는 공주와 인접해있다.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육 · 해 · 공 삼군 본부가 한곳에 위치한 국방의 요충지이다. 교통은 대전~논산 간의 1번 국도가 지나고 있고, 호남 고속국도지선에 계룡 나들목이 개설되어 있어 대전 · 논산 · 공주 방면으로의 도로교통이 모두 편리하다. 호남선이 지나면서 계룡역이 설치되어 있어 철도교통 또한 편리한 인적 · 물류 요충지이자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지속 성장하는 역동적인 충남의 도시이다. 또한 주요 관광지로는 산봉우리가 줄지어 날카롭게 솟아 있고 뛰어난 경치를 이루고 있는 충청남도의 대표적 명산인 계룡산국립공원이 있다. 이 밖에 신도안면 용동리의 괴목정(槐木亭)과 숫용추, 신도안면 부남리의 암용추 등이 있다. 1983년부터 계룡산(鷄龍山) 기슭에 건설된 육 · 해 · 공 3군 통합 신기지(新基地)인 계룡대는 36m 높이의 통일탑을 비롯하여 주변에 전투기 · 전차 등의 무기를 전시해 내방객들에게 안보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방수도' 계룡시에서는 2017년 이후 매년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보훈과 평화, 화합의 마음을 담아 계룡軍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 75. 계룡소방서 전경

02. 계룡소방서 연혁

계룡소방서의 탄생은 2003년 계룡시의 승격이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육군 · 해군 · 공군 3군 연계와 지휘 통합의 효율성을 위해 1989년부터 1993년 까지 3군 본부 계룡대 이전 계획에 맞춰 충청남도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있는 버지니아주 알링턴과 같은「국방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1990년 2월 계룡출장소를 설치하여 인구 15만 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 도시기반 시설 구축, 생활편익시설 확대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시 승격 요건인 인구 5만이 되면 당시의 논산군에서 분리하여 따로 시로 승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만큼 인구가 늘지도 않았고, 1995년 도 농통합시 제도가 출범하면서 이때부터는 기존 군이나 시의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키는 일이 없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듬해인 1996년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자, 계룡출장소는 별개의 시로 승격되는 길이 막히게 된다.

이후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특례시 설치를 약속하고,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 승격 요건'에 "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인구가 3만 이상이며 도농복합시의 일부인 지역"이라는 사실상 계룡시만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 결국 2003년 9월 19일 계룡시로 승격하였다.

계룡시 승격 이후 소방관서 신설 없이 논산소방서 산하 파출소(계룡파출소) 형태로 운영되었고, 2006년 12월 두마면 왕대리에 약 26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논산소방서 계룡119안전센터를 개소하였다.

이후 계룡시는 인근 대전광역시의 위성도시로 주거지역으로서 각광받으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편의시설 등이 건립되었다. 또한 인구도 2003년 당시 3만 명에서 4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소방대상물도 늘어가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 · 구급 등 소방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13명의 구조 대원과 구조공작차 1대를 갖춰 2013년 6월 계룡119구조대를 발대했다.


사진 76. 2019년 2월 27일 품안마을화재 아기구조


사진 77. 2020년 7월 29일 연산면 화재현장

계룡대실지구 개발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소방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소방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계룡시는 충청남도에 소방서 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 등으로 토지가격 상승과 총액 인건비 제도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수년째 표류하던 소방서 신설은 2016년 7월 1일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위치한 계룡119안전센터를 임시청사로 활용하여 소방행정과와 현장대응단, 계룡119안전센터와 계룡119구조대의 조직을 두면서 55명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개서하였다.

계룡 시민의 염원이던 소방서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마지막으로 신설됨에 따라 민원 편의와 시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계룡대 등 국가 중요 군사시설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7년 소방력 확충을 위해 안전센터 신설이 필요했으나, 청사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2017년 12월 계룡시와 협의하여 엄사면 유동리에 위치한 공공시설사업소 주차장 건물 관리사무소를 임시로 활용하여 엄사119안전센터를 개소했다. 당시 사업비 5천여만 원을 들여 샌드위치 조립식 판넬을 설치해 대기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였으며, 근무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4월에 착공한 계룡소방서 청사는 엄사면 소재 부지면적(1만 2,055㎡),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3,608.48㎡) 규모로 115억 예산을 들여 약 1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하였다.



사진 78. 2020년 11월 4일 계룡소방서 청사 준공식

계룡소방서 신청사는 충청남도 소방관서 중 가장 넓은 부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녹색인증 기준에 맞춰 설계된 최신식 친환경 건축물로 2020년 11월 4일 청사 준공식을 갖고 계룡소방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2021년 현재 계룡소방서는 2과 1단, 3개 센터 체제로서 소방공무원 115명, 의용소방대원 140명 소방력과 16대의 소방차량으로 계룡시 60.74㎢를 관할하고 4만 2천여 명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제일의 소방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룡소방서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계룡소방서의 주요 소방 활동은 크게 2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1) 페리카나 물류창고 화재



사진 79. 화재를 진압 중인 모습

2008년 5월 28일 계룡소방서 개서 이전 두마면 입암산업단지 내 ㈜페리카나 물류창고 화재이다. 사실 이 화재는 효성파워텍 공장 내 교반기 모터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유증기로 착화하여 인접 건물이었던 페리카나 물류창고로 급격히 연소 확대된 화재다. 불이 페리카나 창고 내에 다량의 인화성 액체에 점화되며 불길이 하수로를 따라 흘러 300여 미터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가의 분재류와 견사까지 소실되었다. 이 불은 10:30분경 시작되어 대전, 부여, 공주, 금산 등 인근에서 인력 150명, 소방 장비 30여대를 동원한 다음에야 12시경 완진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3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2) 하나로마트 화재

2016년 11월 29일 엄사면 하나로마트 화재이다. 이 불은 11시 48분경 시작되어 마트 1동을 전소시키고 소방인력 208명, 소방 장비 31대를 동원하여 3시간 50여 분만인 15:40에 완진됐다. 마트 안 기둥 콘센트 부근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되어 있어, 건물 전체로의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졌다.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전체가 전소하여 약 7억 5,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80. 중장비 동원 화재진압 모습

계룡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2004.12.30.	논산소방서 논산계룡파출소 신설 및 관할 조정
2006.11.30.	소방파출소에서 119안전센터로 명칭 변경
2006.12.19.	논산소방서 계룡119안전센터 준공식
2008.05.28.	두마면 농공단지 페리카나 물류센터 화재
2013.06.10.	논산소방서 계룡119구조대 발대
2016.07.01.	계룡소방서 개서(1과 1단)
2016.11.29.	엄사면 논산계룡축협 하나로마트 화재
2017.12.29.	엄사119안전센터 신설
2019.01.01.	조직개편(현장대응단 → 현장대응단, 계룡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로 분리)
2020.07.01.	화재대책과 신설(2과 1단, 3센터)
2020.09.22.	계룡소방서 신청사 입주
2020.11.04.	계룡소방서 신청사 준공식

11.
당진소방서

01. 지역 특성


사진 81. 당진소방서 전경

서당진소방서가 수호하는 당진시는 충청남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 고속도로가 연결된다. 고대 · 부곡국가산업단지에서부터 송산지방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철강업체가 입주하면서 철강산업으로 발달하고 있고, 예당평야에는 농업이 발달하였다. 지리적 위치는 북으로는 송산면, 송악읍, 석문면 등이 서해와 아산만을 경계로 평택시 포승읍, 화성시 우정읍에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신평면, 우강면 그리고 합덕읍이 삽교천을 경계로 아산시 인주면과 선장면에 접해있고 남쪽으로 합덕읍은 예산군 신암면과 접하고 면천은 예산군의 고덕, 봉산면과 접하며 정미면은 서산시 음암면, 운산면과 경계를 이룬다.

관광 상품으로는 해나루쌀, 면천두견주, 4~5월 장고항의 실치가 유명하며, 관내에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8개, 대학교 3개가 있다.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보물 4점(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 안국사지 석탑 ·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을 비롯하여 사적 1개소(당진 솔뫼마을 김대건 신부 유적), 천연기념물 2점(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 면천 은행나무), 국가무형문화재 2점(기지시 줄다리기 · 면천두견주), 국가 민속문화재 1점(남이흥장군일가유품) 등이 있다. 이밖에 석문면의 소난지도 의병 총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시도 지정 문화재로는 충남 유형문화재 4점(당진 영랑사 대웅전 · 이만유 장군 유물 · 영탑사 약사여래상 · 안민학 애도문 및 백자명기)을 비롯하여 충남무형문화재 2점(당진 안섬당제 · 대장장), 남이흥장군묘 일원 · 당진 합덕제 · 당진 필경사를 비롯한 충남 기념물 11점, 충남 민속문화재 1점(당진 송규섭 가옥), 영탑사 칠층석탑 · 채운포 석교비 · 영탑사 범종을 비롯한 충남문화재자료 7점 등이 있다.

또한, 당진시는 따듯한 봄이 찾아오면 면천 진달래 축제와 당진시 장고항 실치축제를 시작으로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심훈 상록 문화재, 당진 해나루 황토 감자 · 고구마 축제, 일몰과 일출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왜목마을 해돋이 축제까지 계절별 다양한 종류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는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당진시의 뿌리 깊은 문화유산으로, 줄다리기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액을 막아주고 번영과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로 당진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로 나아가고 있다.

02. 당진소방서 연혁

1990년 3월 16일 서산소방서가 개소를 하게 된다. 서산소방서가 개소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산에서 원거리인 당진군에 소방파출소를 개소하기 위하여 당진읍 의용소방대가 열심히 노력하여 1990년 4월 6일 총 8명으로(김종기, 정점동, 송영권, 송하원, 이선성, 유현근, 이태희, 박태리) 당진파출소가 개소하게 된다.

파출소가 개소된 이후 당진읍 의용소방대 및 당진군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1995년 9월에는 고가사다리 굴절차를 배치할 수 있었으며, 소방차량 및 구조 장비 등이 보강되면서 안전한 당진군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했던 합덕면은 야산이 없는 평야지대로 예당평야가 있는 부촌이었으며 당진읍만큼 인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5일에 서산소방서 합덕파출소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하였다.

2003년 7월 6일 당진에는 전 국민이 잊지 못할 '가원 다방'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건물 3층 조립식 불법 건축물에서 잠을 자던 다방 여주인과 여종업원 등 5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였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당진군에도 소방서가 생겨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강조되어왔다. 그리하여 2004년 1월 6일 모두가 염원하던 당진소방서 설치 승인을 받아 초대 최경식 소방서장을 포함한 93명의 소방인력과 36대의 소방차량 및 화재진압 장비를 갖추고 당진군 송악면에 개소하게 된다. 그리고 2005년 9월 28일 지금의 당진소방서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당진군의 도시화 및 산업화 계획은 당진군 전 지역에 인구를 증가시켰고, 자연스레 소방수요의 증가와 고품질 소방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 12월 송악면에 당진소방서 송악119안전센터를 2008년 1월 석문면에 당진소방서 석문119안전센터를 추가로 2009년 11월 신평면에 신평119안전센터를 개소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당진군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고 2012년 1월 1일 당진시로 승격하게 된다.

당진시 합덕읍에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1821~1846)가 탄생한 솔뫼성지가 있다. 솔뫼는 소나무가 뫼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은 많은 순교자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솔뫼성지에는 김대건 신부 동상과 생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기념 성당 및 기념관, 십자가의 길 등이 있으며 천주교 성직자들의 모태와도 같은 곳이다.

이곳에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게 된다. 교황 방문 전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솔뫼성지 전반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방문 당일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최고도의 출동태세를 확립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성공적으로 교황 방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당진시의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 평택 · 당진항과 송악읍 기지리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철강공장이 당진에 준공을 하면서 물동량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으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까지 증가하면서 부두 및 해안가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서해안의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1월 소방정대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고대관리부두에 개소하게 된다.



사진 82. 솔뫼성지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고대 · 부곡국가 산업단지 인구 유입으로 당진시내와 비교적 가까운 송악읍 기지시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송악읍 전체에 인구가 많아지자 기존에 운영 중이던 송악119안전센터에서 수용이 어려워지는 사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2015년 1월 기지시 119안전센터가 송악읍 기지시리에 개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각 읍 · 면에 안전 센터가 차례로 개소하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21년 현재 당진소방서는 2과 1단, 7개의 119안전센터, 1개의 소방정대 4개의 지역대 체제로서 261명의 소방인력과 48대의 소방 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당진시 704.43㎢를 관할 하며 17만여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하루 평균 화재 3.2건, 구조 5.4건, 구급 37.2건의 소방 활동을 펼치며 최상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진소방서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당진소방서의 역사적 주요 소방 활동은 크게 3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1) 가원다방 화재

지금도 현직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주 이야기가 될 만큼 큰 화재였다. 2003년 7월 6일 오전 03시 40분, 건물 1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시작된다. 그 뒤로 강한 폭발음이 2~3차례 들리면서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소방인력 70명, 25대의 소방차량이 투입되어 1시간 20분 만에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불은 100여 평 규모의 건물 전체와 옆 건물인 페인트 가게 건물 등을 모두 태워 9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당시 3층 조립식 건물에서 잠을 자던 다방 여주인과 여종업원 등 5명이 숨졌다.



사진 83. 가원다방 화재를 진압중인 화재진압대원의 모습



사진 84. 화재로 인해 무너져 내린 가원다방의 모습

사망자들은 1층과 2층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3층 숙소에서 1층으로 내려오려면 2층 다방 내부를 거쳐야 한다. 3층에서 내려와 대피하려고 했을 때 1층에서 시작된 화재로 2층 다방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 질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가원 다방' 화재 건물의 3층 옥상 조립식 건물은 1997년 3월 18.48㎡로 신고한 채 90.24㎡ 규모로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 증축 건축물의 현황 파악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소방대상물 현황 파악을 하는 경방 카드가 소방 활동 정보 카드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서해대교 29중 교통사고 화재

2006년 10월 3일 오전 7시 42분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교통사고 화재'이다. 서해대교는 2000년 11월 10일 개통하여 당진시 송악읍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을 연결하는 다리로 당진시의 물류 중심도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당진 관광명소 9경 중 2경으로 꼽히기도 하나, 사건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2006년 10월 3일 아침 당진 서해대교에는 안개가 매우 짙었고 서해대교 입구 전광판에는 '안개 조심'이라는 경고가 떠 있었다. 그러나 전광판의 경고를 무시한 25톤 트럭이 서해대교를 지나갔고, 트럭은 전방이 보이지 않자 서해대교를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서행하며 앞서서 가고 있던 1톤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면서 1차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 1차 사고 차량 두 대가 1, 2, 3차로 및 갓길을 막았고 모든 차선이 막힌 도로에서 잠시 뒤 2차 3차 4차 추가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했다.



사진 85. 화재로 인해 불타버린 트럭의 모습

사고 여파로 추가 추돌했던 화물차의 엔진이 튀어나오면서 다른 트럭 밑에 깔리게 되고 그 트럭의 전기배선에 스파크가 튀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 된다. 불기둥이 8m까지 솟아올랐고 대형화재로 번지면서 사고 차량 들과 운전자들을 휩쓸어 버리기 시작했다. 불이 난 사고 차량을 발견한 다른 차들이 다시 또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가 추돌사고가 나면서 총 29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몇 분 만에 서해대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막혀있는 도로 때문에 사고 현장 도착이 늦어져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상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한 후였다. 이 사고로 사망자 11명, 부상자 54명의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서해대교에는 건축 당시에도 법령에 맞는 소방시설을 구축하였지만,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7년 5월 교량부에는 포 소화전을 고공부에는 방수총과 옥외소화전을 추가 보강 설치하였다.



사진 86. 서해대교 주탑에 설치된 포소화전

3) 당진항 화물선박 화재

2006년 12월 4일 오전 8시 30분 발생한 '당진항 화물선박 화재'이다.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당진항 고대부두에서 수출용 고철 선적작업을 하던 도중 투발루 선적 이스턴 페리스1호(1천 318t급)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당시 선박에는 중국인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나 불이 나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인력 50명, 15대의 소방차량이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고철 더미 속에서 불길이 계속 올라오고, 물을 많이 분사할 경우 배가 침몰할 위험성도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 87. 사다리차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 중인 모습

장시간 화재로 인해 선박은 위태롭게 30도 정도 기울어졌으며 태안 해경에서는 만일의 선박 침몰로 인한 유류 유출을 막기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만발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화재를 진압하였다.

오전 8시 30분경 시작된 화재는 10시간이 지난 저녁 7시경 불길이 잡혔고 다행히 완전히 진화됐다.

당진소방서는 선박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두 관계자 등과 협업하여 기름 찌꺼기가 남아있는 고철 반 · 출입을 전면 중지시켰고, 해경 등과 해상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진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90.04.06.	서산소방서 당진파출소 개소
1995.12.05.	서산소방서 합덕파출소 개소
2003.07.06.	가원 다방 화재 발생
2004.01.06.	당진소방서 개서(송악면 기지시리 임시청사)
2004.01.06.	당진소방서 119구조대 발대
2006.10.03.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06.12.04.	당진항 1,300t급 선박 화재
2006.12.13.	당진소방서 송악119안전센터 개소
2008.01.31.	당진소방서 석문119안전센터 개소
2009.11.27.	당진소방서 신평119안전센터 개소
2013.07.01.	당진소방서 현장대응과 개설
2014.08.15.	프란치스코 교황 당진 솔뫼성지 방문
2015.01.16.	당진소방서 소방정대 발대
2015.01.16.	당진소방서 기지시119안전센터 개소
2015.06.22.	의용소방팀, 소방민원팀 신설
2015.12.03.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화재〈인명피해 3명(사망 1명, 경상 2명) / 재산피해 2,200만 원〉
2019.01.01.	현장대응단 내부 직제조정(현장대응단, 당진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로 분리)
2020.04.0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현장대응팀→ 현장지휘팀 명칭 변경)
2020.07.01.	화재구조팀 → 대응총괄팀, 구급팀 → 구조구급팀 변경

12.
금산소방서

01. 지역 특성

금산군은 충청남도 남동부에 위치하여 노령산맥의 지맥이 군의 중 · 북부를 지나고, 남동쪽으로 소백산맥이 뻗어 있어 두 산지 사이에 산간분지가 발달되어 있다. 금수강산을 줄여 만든 이름에 걸맞게 노령산맥을 이루는 정수이자 충청남도의 최고봉인 서대산(905.3m)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으로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서쪽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북쪽으로 대전광역시와 접하고, 남쪽으로 전라북도 무주군, 진안군, 완주군과 도계를 이룬다.

통영 · 대전 고속도로가 위치한 대전과 전라북도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다.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 인삼의 종주 지대로서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 유통단지가 있고, 매년 9월~10월 중에 금산인삼축제가 개최되어 인삼 문화 체험과 광연 · 전시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사진 88. 금산소방서 전경

02. 금산소방서 연혁

1992년 7월 31일 공주소방서 금산소방파출소를 시작으로 금산소방서의 역사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인력의 부족과 장비의 한계로 인해 금산군 전체를 관할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1995년 금산읍 의용소방대에서 119구조대를 설립, 운영하여 금산소방파출소를 보조하고 구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1997년 12월 15일 논산소방서 개서에 따라 관할이 변경되어 논산소방서 금산소방파출소로 직제가 변경되었다.



사진 89. 금산읍 의용소방대 119구조대 모습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소방수요 증가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었다. 이에 2006년 11월 30일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 공포되어 파출소는 '119안전센터', 소방대기소는 '119지역대'로 명칭이 변경되고 금산소방서 추부119안전센터가 신설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사진 90. 1990년대(추정) 금산소방대원 모습

금산지역은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및 다수의 농공단지가 위치하고 금산인삼축제를 비롯, 각종 지역 문화축제가 1년 내내 개최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의해 관광객 및 불특정 인구의 유동이 많아 매년 화재 · 구조 · 구급 등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금산군은 충남에서 7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화재진압과 응급환자 구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금산군의 소방서 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적극적인 유치 노력의 결과로 2008년 1월 29일 금산소방서 개서로 2과 2안전센터 1구조대 총 65명의 소방공무원과 28대의 소방차량이 배치되어 소방업무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당시 금산군 576㎢를 관할하면서 5만 8천여 명의 지역주민과 1,500여 개에 이르는 소방대상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고, 2015년 1월 16일 복진119안전센터 신설로 3개 119안전센터 및 1개 구조구급센터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분야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21년 현재 금산소방서는 2과 1단, 3안전센터, 1구조구급센터 2지역대 체제로 155명의 소방공무원과 620명의 의용소방대원, 34대의 소방차량을 갖추게 되었고, 금산군 전체를 관할하며 약 5만여 명의 군민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하루 평균 화재 0.3건, 구조 1.4건, 구급 7.8건, 생활안전 3.5건의 소방 활동을 펼치며 최상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금산소방서는 오늘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1) ㈜삼호화학 페인트 공장 화재

1994년 10월 2일 오후 3시경 발생한 금산군 추부면 '㈜삼호화학 페인트 공장' 화재이다. 페인트 야적장에 쌓여있던 페인트와 원료 등이 들어 있던 드럼통이 강한 햇빛을 받아 폭발하면서 화재가 시작됐다. 금산소방서와 대전 등 인근 지역 소방서에서 20여 대의 소방차와 1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동원돼 진화작업에 나섰다.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이 잇따라 폭발하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3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완전히 진화됐다.

2)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화재



사진 91. 금산읍 의용소방대 119구조대 모습

2002년 3월 11일 오후 6시 30분경 발생한 금산군 제원면 '(주)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화재이다. 이 공장은 대지 26만 9,000평에 철근 콘크리트 골조 패널 구조의 3층짜리 29개동으로 연간 77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타이어의 주력 공장이다. 이날 불은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고온 상태에서 섞어 타이어 원료를 만드는 2,700평 크기의 공장동 2층 고무가 공실에서 내부 이상고온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이어 원료가 가득 쌓여있는 공장 전체로 빠르게 번져 나갔다. 화재 초기에 충남 · 충북 · 대전 · 전북에서 소방차 48대, 소방공무원 250여 명 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펼쳐 나갔으며, 공장 1,750㎡를 태우고 3억 1,4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다음날 오전 6시경 완전히 진화했다.

3)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 사고



사진 92. 물살에 휩쓸려간 시민을 구조한 구조대원

2020년 8월 8~9일까지 이틀간에 걸친 '용담댐 방류 침수 피해'이다. 2020년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물을 용담댐에서 초당 3,200t을 방류하면서 금산군 부리면, 제원면 등 10개 마을이 불어난 하천물에 잠겼고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공무원 93명, 의용소방대원 40명, 소방차량 34대 등을 동원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여 인명구조, 급 · 배수지원, 안전조치 활동을 펼쳤다. 이후 인삼밭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도 함께 참여하여 수해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산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92.07.31.	공주소방서 금산파출소 개소
1994.10.02.	㈜삼호화학 페인트 공장 화재
1997.12.15.	논산소방서 금산파출소로 관할 변경
2002.03.11.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화재
2006.11.30.	논산소방서 추부119안전센터 신설
2008.01.25.	금산소방서 개서
2008.01.25.	금산119안전센터, 금산119구조대 신설
2012.07.01.	금산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신설
2015.01.16.	금산소방서 복진119안전센터 신설
2015.06.22.	방호구조과 → 현장대응단으로 명칭 변경
2015.06.22.	현장대응단 직제 개편(금산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통합)
2019.01.01.	현장대응단 직제 개편(금산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분리)
2020.07.01.	화재대책과 신설
2020.08.08.	집중호우 용담댐 방류 침수 피해

13.
부여소방서

01. 지역 특성

충청남도 남부에 위치한 부여군은 동쪽으로 논산시, 서쪽으로 보령시와 서천군, 북쪽으로 청양군과 공주시, 남쪽으로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와 접하고 있다. 14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고도로 267점의 문화재가 곳곳에 산제 되어 있으며 백마강과 낙화암, 정림사지, 궁남지 등 관광 사적지와 백제금동대향로 등 국보가 있는 부여박물관이 있다.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주요 특산물은 부여 8미에 속하는 수박, 밤, 방울토마토, 양송이버섯, 멜론, 딸기, 표고버섯, 오이 등이 있고 모두 굿뜨래 브랜드 마크를 달고 팔리며 굿뜨래는 국내 농촌 브랜드화의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될 만큼 성과가 좋은 편이다.

부여군을 상징하는 꽃은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고 생명 창조와 풍요, 번영, 청렴 등을 상징하는 연꽃이다. 지역 상징 마크로는 백제금동대향로 “봉황”을 형상화하여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으로 진취적인 부여군민의 강렬한 의지를 상징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부여를 표현한다.

또한 마스코트로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를 의인화하여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역사와 문화의 도시에 걸맞도록 친근감 있게 표현한“금동이”가 있다.



사진 93. 부여소방서, 소방전술훈련 평가

02. 부여소방서 연혁

부여소방서는 충청남도 부여군 관내의 화재를 예방 · 경계하고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충남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이다.

부여소방서가 있기 이전 부여군에는 부여소방서가 아닌 논산소방서 소속의 부여 · 임천파출소가 있었다. 그리고 부여 · 규암 · 은산 등 부여 관할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소방활동을 이어갔다. 그 후 차츰 각 면마다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그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각종 모내기, 봉사활동 및 수해복구, 자연보호 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부여파출소(부여소방서)와 함께 해 왔다. 현재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현황으로는 총 35개대, 인원 900명, 그중 전담 대가 9개대로 119수호천사 및 생활 안전강사 활동 등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부여소방서 개서 이전 모습은 소방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몇 가지 존재하였는데 이는 부여군민들 및 직원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한 예로 부여파출소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역인 논산소방서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도 겪었고, 근무형태도 24시간 근무 후 하루 휴식 그리고 또다시 24시간 근무를 실시하는 등 2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도 누적 등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또한 부여군민들은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 부족 등으로 민원업무처리 및 소방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부분을 겪었어야 했다.

하지만 2005년 1월 10일 부여소방서가 개서 후 점차 채용인력 및 장비 보급 등 소방이라는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가 발전하면서 백제 · 사비 · 임천 · 홍산 · 외산 119안전센터에 인력 충원 및 소방 장비 등 보급이 이루어져 근무환경도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좋아졌다.

특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규정 제25조「심신 안정 환경조성」에 따라 부여소방서 본서와 사비119안전센터에는 2015년도 심신안정실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출동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심신 안정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개서 이전부터 함께 활동해왔던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다양한 업무추진으로 소방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부여소방서는 2과 1단, 5개의 119안전센터, 1개의 119구조구급센터 등 195명의 소방인력과 41대의 소방장비를 갖추고, 6만 5천여 명의 부여군민을 보호하고 있다.

하루 평균 화재 0.3건, 구조 3.5건, 구급 9.2건의 소방 활동을 토대로 119의 존재의 이유인 봉사 · 희생정신으로 부여군민의 안전과 소방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1) 집중폭우로 인한 실종자 발생 사고



사진 94. 부여군 은산면 인근 하천 실종자 수색 장면

2010년 7월 24일 토요일 00:27경 집중폭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그 당시 강우량이 시간당 160mm에 달하는 상황으로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에서 주택 2채가 유실 및 붕괴가 되어 집에 있던 3명이 실종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 및 경찰 기타 유관기관 등 1500여 명을 투입하여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중장비를 이용하여 119구조대원과 주택 붕괴 지역을 우선 수색 후 은산천 14km 구간을 조별로 나누어 정밀 수색하였다. 또한 인근 공주, 논산, 보령, 홍성의 구조대를 지원받아 7월 24일 10:15경 실종자 1명을 인양하였다. 그 후 수색 10일 차 되던 때에 사체 1구를 추가 인양하고 마지막 실종자 수색에 힘을 가했다. 2010년 07월 24일 사건 발생 후 18일 차 되던 당일 18:00경 실종자 유가족과 부여 군수가 협의를 하여 수색을 종료했다.

2) 임천면 돈사 화재



사진 95. 임천면 돈사 화재 현장을 조사중인 대원

2010년 12월 3일 20:30경 임천면 점리에서 발생한 돈사화재이다. 전기화재로 추정되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5,859㎡ 돈사 1동이 전소되고 약 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 지점의 진입로가 협소하였지만 사전 조사된 각종 정보 조사 결과와 확보된 출동 경로에 따라 20:36 선착대가 도착하고 부여군 관내 거주자에 대한 비상소집 후 약 22:30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

3) 아이스크림 공장 화재



사진 96. 화재가 발생한 아이스크림 공장

2017년 7월 9일 20:33경 부여군 석성면에 위치한 아이스크림(코니아일랜드) 공장 화재이다. 부여소방서는 180여 명의 소방인력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하여 화재진압에 임하였다. 지상 1층, 2개 동으로 초기 발생 당시 당직실에 휴식 중이던 신고자가 공장 중간 부분 지붕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였다. CCTV를 확인한바 원부자재 냉동창고 천장에서 급격히 연소되었고, 전기 배전반에도 탄화 흔적이 발견되었다. 화재는 2동 중 2,022㎡ 소실 및 아이스크림 원자재, 지게차 2대, 생산설비라인 및 기자재류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고 22:50경 화재를 진압하였다.

4) 옥산면 돈사화재



사진 97. 부여군 옥산면 돈사화재

2017년 11월 8일 20:42경 부여군 옥산면에 위치한 돈사에서 일어난 화재가 있다. 최초 신고자에 의하면 사무실에서 업무 중 연기가 발생하여 직원들과 함께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유독가스로 인해 밖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였다고 한다. 현장 도착 당시 최성기 사태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고 부여소방서에서는 펌프차 등 장비 16대와 소방인력 등 81명을 동원하여 21:48경 화재를 진압하였다. 그 후 부여소방서, 부여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총 3개 기관이 1,2차로 나누어 합동감식을 실시하였는데 돈사 내부 CCTV 확인한 결과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고 연기 발생 상황도 확인되었고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해 열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에 의해 발화되어 돈사(분만동) 전체로 연소 확대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5) 백제교 투신 수난 사고

부여소방서 관내에는 4대강 중 하나인 금강과 이어져있는 백마강이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2건의 수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 2018년 7월 25일 07:27경 백마강 백제교 중간지점에서 투신 수난 사고가 일어났다. 신고자가 난간 중간지점에서 투신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하여 07:30경 구조대가 3분 만에 도착하여 구명환을 소지하고 로프를 이용해 하강하여 요구조자 1명을 구조 후 구급대에게 인계하여 병원이송 후 상황은 종료되었다. 또한 최근 2020년 10월 27일 21:13경 백제교 중간지점 또 한 건의 투신 수난 사고가 발생했다. 요구조자가 10월 27일 19:00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 남편이 10월 28일 백강지구대로 실종 신고를 했다. CCTV확인 결과 투신을 확인하여 경찰 공동 대응 요청 접수 후 부여소방서 구조대와 함께 11:32~17:30경까지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요구조자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20년 10월 29일 수색 2일차 부여소방서는 구조보트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수색을 벌여 16:10경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배수장에서 주변 수색을 하던 경찰헬기가 요구조자를 발견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매년 수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부여소방서에서는 백마강 주변 화재예방순찰 등 강화 및 구조에 필요한 수난구조훈련 등 사고예방 ·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사진 98. 수난사고 요구조자를 구조한 모습

부여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90.03.16.	공주소방서 부여파출소 개소
1995.06.08.	공주소방서 임천파출소 개소
1997.12.15.	논산소방서 개서(논산 · 금산 · 부여)
2002.11.26.	부여소방서 설치 승인
2003.12.20.	부여119구조대 신설
2004.12.30.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05.01.10.	부여소방서 개서(백제 · 사비 · 장항 · 서천 · 임천 파출소, 119구조대)
2006.11.30.	홍산 · 한산 119안전센터 설치 승인
2008.01.25.	부여소방서 관할구역 변경(서천소방서 개서)
2010.07.24.	부여군 호우피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은산면 나령리)
2010.12.03.	부여군 임천면 점리 돈사 화재
2014.03.21.	사비119안전센터 新청사 이전(부여군 북포로29)
2016.01.25.	외산119안전센터 신설(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235)
2017.07.09.	부여군 석성면 코니아일랜드 화재
2017.11.08.	부여군 옥산면 돈사 화재
2017.07.26.	소방청 출범(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2019.07.01.	부여소방서 화재대책과 신설
2019.11.19.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2020.04.0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기구:1관, 2국, 15과, 3소속기관, 18개 시 · 도소방본부)
2020.07.01.	화재구조팀→대응총괄팀, 구급팀→구조구급팀 변경

14.
서천소방서

01. 지역 특성

서천소방서가 수호하는 서천군은 충청남도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부여군, 북쪽은 보령시, 남쪽은 금강을 경계로 전라북도 군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황해와 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366.04㎢이며 가구는 26,433가구, 인구는 55,289명으로 동쪽과 북쪽 일대는 산악 구릉으로 부여군, 보령시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12,000정보에 달하는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평균기온은 13.1°이고 강수량은 1,431㎜를 보이고 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미곡은 맛과 질이 일품이어서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어패류와 김 또한 그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또한 춘장대해수욕장, 천연기념물 제169호인 동백나무숲과 마량리 해돋이 마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관광 서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사진 99. 서천소방서 전경

02. 서천소방서 연혁

고려 말 충신 목은 이색과 구한말 애국지사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 등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 서천에 처음으로 소방서가 설치된 시기는 1990년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군(郡) 지역의 소방 수요에 대처하고자 1990년 5월 17일 관서 승인에 따라 1991년 6월 15일 설치하였다.

하지만 서천군에 독립된 기관이 아닌 당시 보령 · 부여 · 홍성 · 서천 · 청양을 관할하던 대천소방서(現 보령소방서) 소속 장항파출소로 개소하여 이후 1995년 12월 8일에는 서천파출소도 개소하였지만, 2005년에는 다시 부여군과 서천군 일원을 관할하는 부여소방서가 개서 됨에 따라 보령소방서에서 부여소방서로 소속만 바뀌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지역을 지키게 된다. 부여소방서 소속 기간 중에도 지역의 소방조직은 확대되어 2006년 12월 11일 한산119안전센터를 개소하였다.

2008년 드디어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지역의 독립 행정기관으로써 관할 지역 주민의 화재 · 구조 · 구급 업무를 총괄하는 서천소방서가 2008년 1월 25일 개서 되었다. 같은 날 긴급구조기관으로써 최대한의 역량 발휘를 위하여 비인119안전센터 개소 및 119구조대가 동시에 발대하여 소방서 아래 4개(장항, 서천, 한산, 비인) 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갖춘 기관으로 탄생하게 된다. 2002년 금매복지원 화재, 2004년 영보카센터 화재는 그동안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던 지역민들의 마음에 화재의 무서움과 각종 재난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민 만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설치를 염원하기 시작하여 6여 년의 시간이 흘러 이루어진 결실인 것이다.

소방서가 위치한 서천군의 대표 관광지로 먼저 떠오르는 곳은 춘장대해수욕장이다. 바다와 인접한 여러 지역에 유명한 해수욕장이 많이 있지만 춘장대해수욕장은 이 중에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해수욕장으로 서해안 중 가장 완만한 수심 변화와 주변에 위락시설보다는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송림이 넓게 발달하여 캠핑 등을 통한 가족 또는 연인의 휴양지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이러한 춘장대해수욕장이 위치한 서면에 관광객 그리고 인근 어업을 위한 항구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수난 사고 등 각종 긴급출동 요청이 증가하여 2009년 6월 1일 서면119안전센터가 개소하고 2012년 119구조대가 확대 개편되어 119구조구급센터로 개소하게 되었다.

특히, 119구조구급센터 개소 1년 전 2011년 8월 13일에는 비인면 장포리로 군산대학교에서 수련회를 온 17명의 학생이 족구시합을 한 후 땀을 식히기 위하여 오후 4시 2분쯤 해변에서 물놀이(수중 기마전)를 하다가 8명이 물에 빠졌다가 4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4명도 1시간여만에 구조하였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이들을 슬픔에 젖게 하였다. 이 사건 이후 해안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119



사진 100. 2009년 6월 1일 개소한 서면119안전센터

구조대의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각고의 노력으로 개소하였으며, 현재도 주기적으로 구조 대원들은 내수면 및 연안에 접해있는 바다에서 수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훈련에 여념이 없으며 사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서천군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지만 서쪽 지역의 대부분이 서해바다와 맞닿아 어업 또는 항구 관련 산업의 발달 그리고 관광객이 많은 이유로 내륙보다는 해안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소방서 또한 대부분의 출동 부서가 서쪽으로 편중되어 위치하고 운영되었으나, 내륙 지역에도 농업을 기반으로 많은 면(面) 단위 행정구역이 위치해있다.

서천군의 내륙인 동쪽 지역은 서천군 내 인구 밀집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보령시, 부여군 또한 농업이나 임업과 관계된 산업이 중심인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소방력에 대한 수요가 적어 출동 관련 부서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농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극심해지고 이와 관계하여 가족 관계가 파괴된 독거노인의 증가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해체라는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국가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20년 1월 1일 서천군의 동쪽 내륙 농촌지역에 위치하지만 서천군의 경계를 넘어 보령, 부여 고령의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소방수요에 충족하고자 판교119안전센터를 개소하였다. 판교센터의 처음 시작은 작은 역할 하나로 시작되었으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사회적 약자 ·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며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의 비젼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2021년 현재 서천소방서는 2과 1단, 6개의 119안전센터, 1개 119구조구급센터 체제로서 199명의 소방인력과 41대의 소방 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5만5천여 명의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하루 평균 화재 0.2건, 구조 2.7건, 구급 8.8건의 소방 활동을 펼치며 최상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천소방서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2008년 개서 이후 지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염원으로 서천소방서는 급격한 조직의 확대와 발전이 실현되었지만 한편으로 조직된 소방력의 실천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은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최근에 신설된 안전센터에는 물탱크 차량이 배치되지 못하여 화재 발생 시 인근센터의 신속한 지원을 필요로하며, 소형 화재 발생 시 독자적인 활동만으로 화재진압 활동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소방서는 서천군의 남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어 관할 지역 내 신속한 출동을 위한 이전의 필요성과 최근의 확대되는 소방인력을 수용하기 비좁은 청사 현실로 인하여 서천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서천소방서의 역사적 주요 소방 활동은 크게 3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1) 금매복지원 화재

2002년 12월 10일 밤 23시 23분, 본관동을 신축하고 2003년 1월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임시로 거주하던 별관 조립식 가건물에서 불길이 시작된 사건이다. 불은 천장 부분 전기배선이 심하게 소실된 점으로 보아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로 추정됐으며, 소방인력 90명 및 16대의 소방차량이 투입되어 48분 만에 완진 되었으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거주해서 9명이 사망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진 101. 화재로 소실된 금매복지원

2) 영보카센터 화재

2004년 5월 2일 새벽 2시 36분경, 서천읍 군사리에서 발생한 '영보카센터' 화재로 인력 148명 및 16대의 장비가 투입되어 화재를 진압했으며 화재진압 후 카센터 내부에서 사망자 3명을 발견했고 1명은 실종된것으로 추정됐다.

실종된 1명은 8일 뒤 기산면 용곡리 길산천의 다리 공사 현장에서 예리한 흉기에 목을 찔린 채 사체로 발견된 사고이다. 2021년 현재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방송에 여러 번 방영된 사건이다.



사진 102. 2004년 5월 2일 영보카센터 화재진압 장면



사진 103. 2017년 3월 14일 서천포장 공장 화재 현장

3) 서천포장 공장 화재

2017년 3월 14일 밤 19시 09분,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종천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서천포장' 공장 화재로 서천 포장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다른 공장으로 연소 확대 되어 약 18억의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건물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발화지점 및 발화원을 찾을 수 없는 미상의 화재였으며, 인력 273명 및 18대의 소방차량이 투입되어 약 2시간 만에 완진했다.

서천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90.05.17.	관서 설치승인(대천소방서 장항파출소)
1991.06.15.	대천소방서 장항파출소 개소
1995.05.23.	관서 설치승인(보령소방서 서천파출소)
1995.12.08.	보령소방서 서천파출소 개소
2002.12.10.	금매복지원 화재(9명 사망)
2004.05.02.	영보카센터 화재(3명 사망)
2005.01.01.	보령소방서에서 부여소방서로 소속 변경
2006.11.30.	관서 설치 승인(부여소방서 한산119안전센터)
2006.12.11.	부여소방서 한산119안전센터 개소
2007.12.20.	관서 설치 승인(서천소방서, 119구조대, 비인119안전센터)
2008.01.25.	서천소방서 개서, 119구조대 발대, 비인119안전센터 개소
2009.06.01.	관서 설치 승인(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2009.10.12.	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개소
2011.08.13.	서천 비인면 장포리 수난 사고
2012.06.20.	119구조구급센터 개소
2015.06.22.	의용소방팀 신설, 현장대응단 통합(장항센터, 구조구급센터)
2017.03.14.	서천 포장공장 화재
2019.01.01.	현장대응단 내부 직제조정(현장대응단, 장항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로 분리)
2019.07.01.	화재대책과 신설
2020.01.01.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개소
2020.04.01.	현장대응팀 → 현장지휘팀으로 명칭 변경

15.
청양소방서

01. 지역 특성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군은 충청남도 중부에 위치하여 면적 479㎢, 인구 3만여 명, 1읍 9개 면으로 차령산맥의 여맥인 칠갑산 · 성태산 · 백월산 · 우성산 · 비봉산 · 법산 등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군을 북서부와 남동부로 나누고 있나. 칠갑산에서 발원한 지천과 잉화달천, 그리고 서부 경계를 흘러내리는 무한천이 군의 남동부 경계를 흐르는 금강에 흘러든다. 산지가 탁월하여 경지는 비교적 적으나 산간분지가 논으로 이용되고 하천 유역에 발달한 평야, 특히 지천 유역의 고리섬들, 금강유역의 장수평들, 무한천 유역의 가남평야 등이 경지로 이용된다.

관광 상품으로는 고추와 구기자가 유명하다. 구기자는 국내 최대 산지이기도 하다. 청양군 일대는 칠갑산 도립공원에 속하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천장호의 출렁다리 및 장곡사 칠갑산 천문대 등 관광명소가 있다. 매월 8월 말 ~9월 초에는 백세공원 일원에서 고추 · 구기자 축제가 열리며 칠갑산에서는 장승문화 축제, 얼음분수 축제 및 알프스마을 조롱박 축제가 열린다.



사진 104. 청양소방서 전경

02. 청양소방서 연혁

1994년 5월 대천소방서 소속의 청양파출소가 개소되어 운영되었다. 대천소방서 관할로 그동안 군에서 취급하던 소방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화재 예방활동과 소방 검열, 화재진압 등 전반적인 소방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초대 파출소장 소방위 안종석을 포함하여 소방공무원 총 28명이 배치되어 14명은 본소에 근무하고, 나머지 14명은 각 면대에 나누어 근무하였다. 청양파출소의 개소는 관내 소방력 및 기동력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 대천소방서에서 보령소방서로 개칭되고, 2002년 3월 30일에는 보령소방서 관할이었던 홍성소방파출소가 소방서로 승격 개청됨에 따라 청양소방파출소는 홍성소방서 관할로 편입되었다.

2001년도에는 청양읍 송방리에 청양소방파출소 신축청사가 완공되어 기존 소방파출소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었다. 2003년 12월 28일에 홍성소방서 청양119구조대가 발대되었고, 2006년 11월 30일 소방파출소에서 119안전센터로 개칭되었다.

2007년 정산대기소가 119안전센터로 승격 개소식을 가져 기존 청양소방파출소에서 분리되어 15명의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어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등 4개면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정산119안전센터의 개소로 인하여 정산면 일대뿐만아니라 1991년에 조성된 정산 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 재난사고에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 발 빠른 현장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청양지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 소방인력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졌다.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기에 하루빨리 소방서의 신설이 요구되었다.

2015년 1월 드디어 청양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청양소방서가 개서하였다.

2개의 과(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2개의 119안전센터(청양,정산)과 1개의 119구조구급센터로 운영되고, 이광성 초대 서장이 취임하였다.



사진 105. 2015년 개서한 청양소방서 구청사

2016년에는 운곡 · 장평119지역대에 인력이 확충되어 배치되었고 2017년에는 청양소방서 신축 청사가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다. 기존 119안전센터 건물은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119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하는 등 국민들에게 더 나은 안전 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현재 청양소방서는 2과 1단, 2개의 119안전센터, 1개의 구조구급센터, 2개의 119지역대 체제로 129명의 소방공무원과 514명의 의용소방대원, 31대의 소방 장비를 갖추게 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1) 중묵리 산불 화재



사진 106. 2002년 4월 14일 중묵리 산불 화재

2002년 4월 14일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화재이다. 국내에서도 역대급 산불로 꼽히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14일 오후 2시 30분경 중묵리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최고 초속 17m의 강풍을 타고 청양군과 인접한 예산군 광시면과 신영면 차령산맥 줄기를 3,095ha를 태웠고 재산피해는 80억 원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일대 식물 생태계가 크게 파괴되고 이재민이 78명이 발생했다. 청양군과 예산군은 소방뿐 아니라 군청, 경찰, 지역 주민들까지 인력 3천여 명과 장비 60여 대 등이 출동 진화에 나섰고 15일 오전 8시쯤이 되어야 불길을 잡았다.

2) 애경화학 공장 화재



사진 107. 2016년 8월 3일 애경화학 공장 화재

2016년 8월 3일 발생한 정산면 정산농공단지 내 애경화학 공장 화재이다. 무인 설비로 가동되는 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골조 1동 3층 800㎡, 부속설비 등이 불에 타 7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007년 개소한 정산119안전센터가 농공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 진화에는 청양소방서 전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 소방관서를 포함한 인력 101명이 투입되고 장비 21대가 동원되어 1시간 15분 만에 진화할 수 있었다.

3) 테이프 제조공장 화재



사진 108. 2018년 2월 25일 테이프공장 화재진압 장면

2018년 2월 25일 오전 1시 20분경 화성면 장계리 화성농공단지 내 문구용 테이프 제조공장에서 화재 발생하였다. 다행히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가 한 밤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5개동 중 4개동(3,737㎡) 이 전소되어 12억 2,57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근의 7개 소방관서(광역기동단, 보령, 홍성, 부여, 아산, 당진)가 동원되었고 298명의 인력과 35대의 소방 장비가 투입되어 화재접수 후 3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5시경에 진압되었다.

청양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94.05.02.	대천소방서 청양파출소 개소
1995.01.01.	대천소방서에서 보령소방서로 개칭
2002.03.30.	보령소방서 관할 변경(홍성소방서 분리 : 홍성군, 청양군)
2002.04.14.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산불화재
2002.04.15.	충청남도 홍성소방서 개서 분리(홍성 · 청양 · 광천파출소)
2003.12.03.	홍성소방서 청양119구조대 발대
2006.11.30.	소방파출소에서 119안전센터로 개칭
2007.01.01.	정산119안전센터 개소
2014.12.15.	청양소방서 설치 승인
2015.01.07.	청양소방서 개서
2016.06.08.	청양소방서 운곡 · 장평119지역대 인력확충
2016.08.03.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애경화학 공장 화재
2016.10.31.	청양소방서 운곡 · 장평119지역대 인력배치
2017.10.18.	청양소방서 신축 청사 이전
2018.02.25.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공장 화재
2020.07.01.	청양소방서 화재대책과 신설

16.
홍성소방서

01. 지역 특성

홍성소방서가 수호하는 홍성은 충남 서해안의 중심지로서 국도 21호선이 남북으로, 29호선은 동서로 뻗어 있고 장항선 철도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서해안 교통 요충지에 있으며, 2012년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충남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 109. 홍성소방서 전경

관광 상품으로는 한우, 대하, 김, 새우젓이 유명하며, 관내에 3,000여 개의 축사가 있어 국내 최대의 '축산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02. 홍성소방서 연혁

1990년 5월 29일 대천소방서(現 보령소방서) 홍성파출소의 개소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지역의 안전을 민간조직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처리하게 된 것이다. 1995년 1월 1일 대천소방서가 보령소방서로 개칭되었고, 1995년 5월 8일에는 보령소방서 광천파출소가 개소되면서 홍성 관내 2읍 모두 소방기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사진 110. 2005년 5월 27일 홍성소방서 청사 준공식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각종 화재, 재난 · 재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자체마다 소방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 7월 4일 홍성소방서의 설치, 2002년 1월 8일 홍성소방서 정원이 승인되었고, 2002년 3월 30일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보령소방서에서 홍성소방서(홍성군 · 청양군)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2002년 4월 15일, 초대 정무희 소방서장을 필두로 최초의 의용소방대가 창설된 지 60여 년 만에 홍성군 전체(청양군 포함)를 관할하는 홍성소방서가 개서하였다.

2010년대에는 2012년 12월 5일 충남도청의 이전과 함께 내포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내포119안전센터가 개소하였다. 도청소재지로서 충남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다. 2015년 1월 7일 청양소방서가 분리되면서 홍성소방서는 오로지 홍성군만을 관할하여 체계적인 소방안전 관리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현재 홍성소방서는 2과 1단, 6개의 119안전센터, 2개의 지역대 체제로 209명의 소방인력과 43대의 소방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홍성군 전체 면적 446.70㎢ 관할, 10만여 명의 군민을 보호하고 있다. 충남도청 소재지로 충남 서해안의 중심을 넘어 새로운 충남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홍성에서 홍성소방서는 최고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홍성소방서의 역사적 주요 소방 활동은 크게 3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1) 일진전기 화재

2013년 7월 22일 15시 55분 콘덴서 설비 시험기 가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콘덴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내부 폭발로 발화하여 절연유 등에 옮겨붙어 연소 확대된 화재이다. 일진전기 건물은 층고가 높아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방력은 홍성, 서산, 보령 등 인근에서 총 차량 20대, 100여 명이 동원되어 1시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사진 111. 2013년 7월 22일 일신전기 화재진압 장면



사진 112. 화재로 소실된 공장의 모습

2) ㈜청운브레이크 공장 화재

2019년 3월 19일 06시 08분에 발생한 '(주)청운브레이크'공장 화재이다.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된 화재이고 인근 서산, 예산 등 차량 23대, 인력 200여 명이 동원되어 3시간에 걸쳐 화재진압을 하였다. 화재로 브레이크 라이닝 공장 1동이 소실되었으며, 신속한 출동, 빠른 인명 대피 유도로 기숙사동에 있던 직원들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이 사고들은 평소 공장, 아파트 등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대상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간부 담당제를 운영하여 분기별로 소방시설 유지 · 관리 등 안전 관리 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지속 추진하여 홍성지역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소향 교차로 교통사고

2018년 11월 20일 새벽 1시 04분경 홍성읍 소향 교차로에서 홍성 혜전대학교 호텔조리학과 학생으로 당시 선 · 후배 사이로서 친한 이들 6명은 내포 신도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 공유 앱으로 차를 빌려 운전대를 잡고 홍성군으로 가던 중 소향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고 사망자 및 부상자 5명이 발생한 사고였다. 소방력은 소방장비 홍성소방서 총 8대, 119광역기동단(現 119특수기동단) 1대, 소방헬기 1대, 인력 30여 명이 동원되었다. 그 당시 동승자인 학생 2명은 그 사고 난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1명은 경상, 나머지 2명은 중증외상이었다. 중상 1명은 오른쪽 하지 절단되어 헬기로 이송되었다.

이 사고는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앱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가장 큰 사고 중 하나로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도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사진 113. 충격으로 완전히 부서진 사고차량

홍성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90.05.29.	대천소방서 홍성파출소 개소
1994.05.02.	대천소방서 청양파출소 개소
1995.01.01.	대천소방서에서 보령소방서로 개칭
1995.05.08.	보령소방서 광천파출소 개소
2001.07.04.	홍성소방서 설치 승인
2002.01.08.	홍성소방서 정원 승인
2002.04.15.	홍성소방서 개서, 구룡119안전센터 개소, 119구조대 발대
2003.12.03.	홍성소방서 청양119구조대 발대
2004.01.06.	화재조사담당분야 업무 개시
2006.11.30.	소방파출소에서 119안전센터로 개칭
2007.01.01.	오관(정산)119안전센터 개소
2008.12.11.	갈산119안전센터 개소
2009.11.07.	대응구조과 신설, 방호구조과에서 방호예방과로 개칭
2009.12.21.	오관119안전센터에서 옥암119안전센터로 신축 이전 개소
2012.07.01.	119구조대에서 119구조구급센터로 직제 개편
2012.12.05.	내포119안전센터 개소
2013.06.10.	대응구조과에서 현장대응과로 직제 개편
2015.06.22.	방호예방과에서 화재대책과로, 현장대응과 · 구룡 · 구조구급센터에서 현장대응단으로 직제 개편
2019.01.01.	현장대응단에서 구룡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로 직제 개편
2020.04.01.	현장대응팀에서 현장지휘팀으로 명칭 변경
2020.07.01.	대응총괄팀, 구조구급팀으로 명칭 변경

17.
예산소방서

01. 지역 특성



사진 114. 예산소방서 전경

예산소방서가 수호하는 예산은 충청남도의 북서부지역 남북 간 중간지역에 위치하며, 예산읍으로부터 육로 거리로 동쪽과 북동쪽에는 천안시, 아산시가 소재하며, 남동쪽에는 공주시, 대전광역시가 서쪽과 남서쪽에는 홍성군, 보령시가 위치한다.

도로망으로 보아 예산읍이 중심지가 되어 아산 방면, 당진 방면, 홍성 방면, 공주 방면 등의 네 갈래의 교통로가 이곳으로부터 펼쳐져 있어서 충남 북서부지역 도로교통의 중심적,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예산군은 한반도의 기후형인 여름철의 남동풍과 겨울철의 북서풍이 탁월한 온대 계절풍이 불며 여름에 몹시 덥고 겨울에 추운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강수량의 반 이상이 여름에 내리는 하계 다우형 기후를 띤다.

또한, 예산은 아름다운 예당호수와 추사고택, 향천사, 수덕사와 덕산온천, 덕숭산과 가야산이 있는 관광명소이며, 관광 상품으로는 사과가 유명하다.

02. 예산소방서 연혁

1990년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가 설치되었다.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는 1988년 3월 2일 관서 설치가 승인되었고, 1990년 2월 19일 정원이 6명으로 승인되었다. 1992년 1월 1일에는 광역 소방직 행정 체제로 전환에 따라 예산군 전역이 온양소방서 관할로 흡수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 아산소방서

예산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7년 12월 15일 아산소방서 삽교파출소가 개소되어 12개 읍면에서 6개 읍면을 행정구역 상 분할하여 예산파출소는 예산읍,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지역을 담당하고, 삽교파출소는 삽교읍, 덕산, 고덕, 봉산, 신암, 오가 지역을 각각 담당하였다.

2002년 9월 4일 예산소방서 설치가 승인되고, 2003년 10월 20일 예산소방서 정원이 승인되어, 2003년 12월 20일 예산소방서가 개서 되었다.

2006년 6월 30일 '지방 소방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소방 파출소와 출장소의 명칭이 각각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로 변경되었다. 2006년 12월 19일 충청남도 예산소방서 119안전센터 명칭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었고, 덕산119안전센터를 개소하였다. 2008년 7월 7일 예산소방서 오가119센터를 개소하였다.

2015년 6월 22일 충청남도 예산소방서 현장대응단을 신설하였고, 2019년 7월 충청남도 예산소방서 화재대책과를 신설하였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예산소방서의 역사적 주요 소방 활동은 크게 3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1) 비츠로셀 공장 화재

2017년 4월 21일 밤 10시 54분, 비츠로셀 공장 내 관리동에서 폭음과 불꽃이 일어났고, 건물 내부에서 "쾅쾅" 하는 폭발음으로 시작된 화재이다. 일부 연기를 흡입한 인명피해는 있었으나, 다행히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건물 전체와 옆 건물로 옮겨붙는 등 총 4개 동이 소실되어 45억 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하였다.



사진 115. 폭발중인 비츠로셀 공장

공장은 건전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각종 화학물질을 다수 취급하였고, 생산제품의 화학작용 등이 화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던 화재였다. 건물 내부에 제품을 쌓아

높은 곳에 통전 중인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평소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며, 예산소방서 개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기록하였다.

2) 양계 부화장 화재



사진 116. 검은 연기가 자욱한 부화장 화재 현장

2012년 1월 12일 새벽 1시 30분경에 예산군 대술면에 위치한 양계 부화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해당 건물은 닭 부화장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19억 원을 기록하였다.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접근도로가 좁고,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건물 내부에서 공사를 하던 중 용접 작업으로 인해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근 아산 · 서산 · 당진 · 홍성 · 공주에서 지원 출동을 하였고 약 20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하였다. 불은 부화장 건물 2,000여 평 등 총 2동이 전소되었다.

3) 법륜사 대웅전 화재



사진 117. 화재로 소실된 법륜사 대웅전

수암산에 자리 잡고 있고, 내포영산대재가 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는 법륜사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화재는 2007년 1월 27일에 발생하였고, 12평 규모의 목조 대웅전과 대웅전 내부의 불상과 탱화 등을 태웠으며, 약 1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산기슭에 있는 사찰의 화재진압은 소방력의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환경이었다. 현재는 다시 증축을 한 상태로 현재 이 사찰의 석굴법당 옆에 위치한 마애관음보살의 모습과 두 눈을 부릅뜬 사천왕상은 불교 조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90.04.30.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 개소
1997.12.15.	아산소방서 삽교파출소 개소
2002.09.04.	예산소방서 설치 승인
2003.07.28.	예산소방서 정원 승인(행자부)
2006.12.19.	예산소방서 119안전센터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2006.12.19.	예산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개소
2007.01.27.	예산 법륜사 화재
2009.07.07.	예산소방서 오가119안전센터 개소
2012.01.12.	양계 부화장 화재
2015.06.22.	예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신설
2017.04.21.	비츠로셀 공장 화재
2018.12.15.	수덕사 상가화재 발생
2020.07.01.	대응총괄팀, 구조구급팀으로 명칭 변경

18.
태안소방서

01. 지역 특성


사진 118. 태안소방서 전경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며,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길이가 무려 530.8㎞에 이르는 해안은 곳곳마다 절경을 끌어안고 있다. 태안의 바다에는 119개의 크고 작은 섬이 흩뿌려져 있다. 내륙은 저 산성 구릉지로서 많은 산지가 논과 밭으로 개간됐고, 리아시스식 해안은 만곡이 심해 간척지가 많이 개발돼 있다.

태안군은 안면도의 천연송림과 아름다운 해안 등을 잇는 30여 개의 해수욕장도 간직하고 있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로 해안과 갯벌이 큰 위기를 맞았지만 전 국민의 지원을 받은 주민들은 그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 태안에는 소중한 자연 및 문화유산이 많다. 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과 난도 괭이갈매기 서식지, 신두리 사구 등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지방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인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경이정, 흥주사 만세루, 흥주사 3층 석탑, 목애당 등이 있다. 기념물로는 안흥성, 소근진성,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태안향교, 흥주사 은행나무 등을 들 수 있다. 무형문화재 중에는 황도붕기풍어제가 유명하다.

'태안(泰安)'이라는 이름은 고려 충렬왕 24년(1298)에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강점기인 1914년 태안군이 서산군에 예속된 이후 75년 동안 내려오다 1989년 1월 1일 태안군으로 복군 되었다. 태안은 해안선이 길고 굴곡이 심하다. 그래서 가는 곳, 발 닿은 곳이 모두 경승지다. 태안의 명소 중에서도 백화산, 안흥성, 안면송림, 만리포, 신두사구, 가의도, 몽산 해변, 할미 · 할아비바위 등 '태안 8경'이 특히 볼 만하다.

'태안 8경'은 울창한 송림과 조화를 이룬 멋진 바다, 갖가지 형상으로 빚어진 기암절벽과 섬, 아직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02. 태안소방서 연혁

태안소방서는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를 수호하는 충청남도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로 과거 개서 전 서산소방서가 서산 · 태안 지역을 모두를 관할하다가 2013년 11월 29일 태안소방서가 독립된 소방서로 개서하게 됨과 동시에 1994년 5월 25일 날 개소한 직할센터인 태안119안전센터와 2002년 4월 10일 날 개소한 안면119안전센터, 그리고 2012년 12월 20일 발대한 태안119구조대(現119구조구급센터)가 태안소방서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사진 119. 2015년 4월 2일 태안소방서 개서식



사진 120. 2015년 10월 12일 소원면119지역대 발대식

개서 다음 해인 2014년 10월 24일, 원북면 일대를 관할하는 원북면119지역대가 발대하였고, 2015년 1월 8일에는 낡고 오래된 태안119안전센터 건물과 내근 직원들이 근무하던 임대건물인 태안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을 대신해줄 태안소방서 본서 건물이 현재 자리에 준공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0일 날 근흥면과 소원면 일대를 관할하는 근흥면119지역대가 발대하였고, 계속되는 소방수요로 인해 같은 해 10월 12일 남면119지역대, 소원면119지역대가 발대하였다.

또 2016년 1월 21일 기존 원북, 이원면 일대를 관할하던 원북면119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승격되어 원북119안전센터가 개소하였고, 같은 해 12월 30일 근흥면119지역대 역시 근흥119안전센터로 개소하게 된다.

또한 2018년 5월 17일에는 소방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고남면119지역대를 발대하여 현재 태안소방서는 본서에 2개의 과(소방행정과, 화재대책과)와 1개의 단(현장대응단) 및 4개의 안전센터(태안 · 안면 · 원북 · 근흥), 1개의 119구조구급센터, 그리고 3개의 119지역대(남면 · 소원 · 고남)가 있다.

03. 주요 재난 및 사고

1)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태안 앞바다의 원유 유출 사고는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와 삼성물산 소속 '삼성 1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총 12,547㎘의 원유가 태안 해역으로 유출된 사고이다. 인천대교 공사를 마친 삼성 1호 크레인 부선(동력이 없는 배)을 예인선이 경남 거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부선이 인근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하여 벌어진 일이다.

초기에 파도가 심하여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데다 원유가 오일펜스를 넘어가 피해가 커졌다. 파손된 유조선은 이틀 만에 겨우 구멍을 막았지만, 이미 태안군의 양식장, 어장 등 약 8,000㏊가 원유에 오염되었다. 원유가 뭉친 타르 덩어리는 점차 빠르게 확산되어 12월 30일에는 전라남도에서 발견되었으며, 2008년 1월 3일에는 제주도 북쪽 추자도에서도 발견되었다.



사진 121. 기름으로 오염된 태안 앞바다

태안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기름 유출 사고 전에 비해 바닷속 생물의 개체 수가 절반가량 줄어들었었고, 뉴스에서도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지나야 조개류가 돌아올 것이고, 10년 정도가 지나야 예전과 같아질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회복 불가능이라고 전망했던 태안 앞바다가 전국의 각지에서 모여든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자발적으로 비번 일을 반납하며 땀 흘린 서산 · 태안지역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활동으로 인해 단 3년 만에 기적적으로 방제 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만리포 바다와 그 외 기름유출 피해 바다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많은 관광객이 여름철 태안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는 이를 기리고자 "태안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사고



사진 122. 2013년 7월 18일 해병대 캠프 참사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사고는 2013년 7월 18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그중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가 실종,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개요는 캠프 둘째 날인 18일 안면도 앞바다에서 공주 사대부고 학생 197명은 두 개 조로 나뉘어 보트 훈련을 받았는데, 고무보트 8대에 10명씩 탑승하여 바다로 나갔던 첫 번째 조가 오후 5시경에 모래사장으로 돌아왔다. 이 첫 번째 조의 학생 80명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벗어 다음 조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넘겨준 뒤 바닷가에서 대기하다가, 교관의 지시에 따라 바다로 들어갔다. 교관이 벌을 주기 위해 10여 명씩 줄을 세우고는 학생들한테 차례로 뒷걸음치며 바다에 들어가게 한 탓에, 바닥이 움푹 파인 '갯골'에 학생들 중 23명이 무방비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다.

뒤쪽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서로 손을 연결해서 갯골에 빠진 친구들을 구조해냈다. 학생들의 이런 노력으로 여러 명을 구해냈으나, 5명은 끝내 나오지 못하고 실종된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과 해양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실종된 지 만 하루 만인 7월 19일, 5명 모두 끝내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태안소방서 주요 연혁 및 재난 · 사고	
구 분	주 요 내 용
1994.05.25.	서산소방서 태안파출소 개소
2002.04.10.	서산소방서 안면파출소 개소
2006.11.30.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파출소→119안전센터로 명칭 변경” (서산소방서 태안119안전센터, 안면119안전센터)
2007.12.07.	태안 기름유출사고 발생
2012.12.20.	서산소방서 태안119구조대 발대
2013.07.18.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발생
2013.11.29.	태안소방서 개서
2014.10.24.	원북면119지역대 발대
2015.01.08.	태안소방서 본서 신축청사 준공
2015.04.02.	태안소방서 개청식
2015.06.22.	현장대응단 발대(직할 태안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 통 · 폐합)
2015.10.22.	남면 · 소원면119지역대 발대
2016.01.21.	원북119안전센터 개소
2016.12.30.	근흥119안전센터 신설
2018.05.17.	고남면119지역대 발대
2019.01.01.	현장대응단 → 태안119안전센터 및 119구조구급센터로 분리
2019.07.01.	화재대책과 직제 신설
2020.07.01.	조직개편에 따른 팀 명칭 및 사무분장 변경 (화재구조팀 → 대응총괄팀, 구급팀 → 구조구급팀, 현장대응팀 → 현장지휘팀)

제2장
충남소방의 역사

제3절 의용소방대 발전사

3

01.
의용소방대 기원

02.
충남 의용소방대 발전

03.
지역별 의용소방대 성장과 발전

01.
의용소방대 기원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자연부락 단위의 자생적 자위소방 활동이 주를 이뤄 왔다. 그러던 중 세종 19년(1437년) 1월 경상감사의 주청으로 주민 자위활동(무기소지 및 사용)이 용인되어 '지방의 용금화조직'이 최초로 공인되었다. 이 후 각 동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지역의 청장년들이 자력으로 방재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의용소방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사진 123. 조선시대 궁중소방대 훈련 장면

그 후 일제치하에서는 일본 국내의 민간조직체인 소방조제도를 모방하여 제정된 총독부령 소방대규정에 의해 향토자치제적인 사회 안정의 의용소방 정신을 진작한다는 기치아래 각 지방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를 처음으로 조직하였다. 그러나 1939년 7월 3일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경방단 규칙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종래의 의용소방대가 경방단으로 개편되었고 전시체제 확립으로 소방 또는 경찰의 보조단체로서 소방과 치안유지에 종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로 일제 통치가 종식되자 경방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 다시 소방대가 조직되었으며, 1952년 8월 방공단규칙 제정을 계기로 소방대가 방공단의 흡수되었다가 이후 1953년 7월 민병대가 조직되면서 잠시 동안은 민간 소방조직은 없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에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그 후 계속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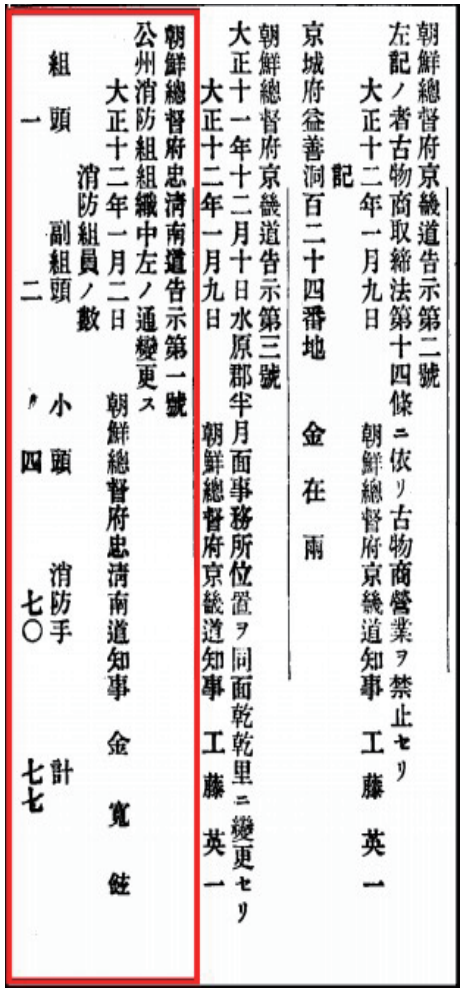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의용소방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오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러 번에 걸친 제도적 변천 속에서도 의용소방대가 계속 존속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상비 소방조직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이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여러 차례의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여 오는 과정에서 터득한 자위 정신의 발로라 할 수 있겠다.

02.
충남 의용소방대 발전

01. 의용소방대의 형성

충남 의용소방대의 시작은 1904년 '강경소방조(江景消防組)'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911년 공주경찰서의 산하 조직으로 공주소방조가 결성되었다. 지금의 소방서와 같이 독립된 공공기관은 아니었으며, 전문 소방수가 상시 대기하는 구조 또한 아니었다. 즉, 기관이 아닌 의용적(義勇的) 조직체로서 불이 나면 경종을 난타하여 화재 소식을 전하고, 각 처에서 종소리를 들은 소방수들은 공주경찰서 연병장으로 모인 후 경찰서장의 감독 아래 일사불란하게 불이 난 장소로 이동하여 불을 끄고 다시 각자의 생활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였다.

하지만 모든 조직은 나름의 체계가 있는 법, 공주소방조 또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1924년에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보 제3120호를 살펴보면 당시의 소방조는 소방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조두(組頭) 1명, 부조두(副組頭) 1명, 연대장과 같은 소두(小頭) 4명, 그리고 소방수가 70명으로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합쳐 약 77명의 구성원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활동하였다. 하지만 그 수가 매번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二號
左記ノ者古物商取締法第十四條ニ依リ古物商營業ヲ禁止セリ
大正十二年一月九日　朝鮮總督府京畿道知事　工藤　英一
記
京城府益善洞百二十四番地　金　在　雨
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三號
大正十一年十二月十日水原郡半月面事務所位置ヲ同面乾乾里ニ變更セリ
大正十二年一月九日　朝鮮總督府京畿道知事　工藤　英一
朝鮮總督府忠淸南道告示第一號
公州消防組組織中左ノ通變更ス
大正十二年一月二日　朝鮮總督府忠淸南道知事　金　寬　鉉
消防組員ノ數
組頭　一
副組頭　二
小頭　四
消防手　七〇
計　七七

사진 124. 1924년 조선총독부 관보 제3120호 중 "소방조원"

02. 의용소방대의 발전

현재의 의용소방대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 된 것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의용소방대는 소방조(1889), 경방단(1939), 소방대(1945), 방공단(1952) 이라는 또 다른 명칭으로 오랜 시간동안 전통을 이어오며 활동해 왔다. 그러던 중 1958년 3월 11일「소방법」이 제정되면서 의용소방대의 설치,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수당, 보상금, 경비, 정원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의용소방대는 비로소 법률에 근거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더욱 확고한 법적지위를 가지게 되는 등 역사적으로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1966년 4월에는 의용소방대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인 수방업무가 의용소방대의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의용소방대원이 방공법에서 정한 방공업무를 겸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이후 1969년 4월 9일에는 내무부에서 의용소방대 수당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폭설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1969년 1월 31일 천안에서 희대의 열차사고가 발생하였다.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열차 청령호가 천안역 남쪽 500미터 지점에서 진입 신호를 기다리는 남원발 서울행 열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승객 42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중경상을 입은 천안열차 추돌사고이다. 당시 천안소방서 개서 이전시점 이었으므로 현장에 즉시 출동할 이렇다 할 구조인력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때 천안의용소방대가 독자적으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부상자 구출 및 사고 수습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사고는 빠르게 수습되었다. 그 이후 철도청에서는 이러한 천안의용소방대의 공로를 인정하며 철도청장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천안지역에서는 천안소방서가 개서하는 1970년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천안 전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들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하였다.



사진 125. 1969.1.31. 천안 열차 추돌사고 현장

이와 마찬가지로 충남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소방서가 개서되기 전까지는 그 지역의 재난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의용봉공의 정신'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조직이 중심이 되어 그 지역의 재난사고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1970년 12월 31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형식면에서는 국가 소방조직의 민간보조 기관으로 재정립되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73년 2월 8일「소방법」을 개정하면서, 의용소방대를 시 · 읍에 설치하도록 한 것을 시 · 읍 · 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업무보조로 인한 사고보상 규정과 보수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기 소집교육과 자체기술경연대회의 실시, 소방공무원과의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단합대회의 개최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소방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던 중 민방위본부가 발족된 후인 1975년 12월 29일 내무부에서 시 · 군의용소방대 조례준칙을 시달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시 · 군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때 의용소방대 복제도 규정하여 시군 예산으로 대원에게 복제를 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1981년 10월 29일「시 · 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준칙」개정 시에는 시 단위 의용소방대에 부녀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1984년 5월 19일에는 부녀대를 의용소방대에서 분리하여 부녀의용소방대로 하였으며 1985년 6월 13일에는 부녀의용소방대를 읍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1985년 12월 13일 공주소방서가 개서하였고 의용소방대는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대로 명칭이 개칭되었으며 그동안 민간 위주의 소방활동이 소방서 주도의 소방활동으로 바뀌게 되었고, 부녀의용소방대 확대 설치를 계기로 의용소방대 조직도 한층 더 체계화되었다.

또한 1986년 12월 26일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임용권을 소방서장 및 읍 · 면장에서 시장 · 군수로 격상하였고, 1989년 3월 4일에는 의용소방대원 재해 시 유족보상에 대한 규정과 요양보상에 대한 진료 항목을 신설하여 진찰,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89년 8월 4일 밤 9시 50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용마루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한다. 개관을 앞두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로 국민들의 자존심과 긍지에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 준 사건이었다. 천안, 온양, 대전, 조치원, 평택, 청주 등 인근에서 총 37대, 130여 명의 소방력을 대거 동원하여 3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지만, 준공 전이기 때문에 자체 진화를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지지 않았었고, 당시 전면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과감히 옥내로 진입하는 활동으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300여평에 15층 높이의 겨레의 집 천장이 소실되어 약 2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정부수립 이후 소방행정은 경찰행정의 일부로 운영되어 의용소방대에 대한 국가의 운영경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였고, 일부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였다.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기 전 소방은 시군 소속으로 시장 · 군수가 인사권은 물론 예산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도 시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필요시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비상근의 의용소방대만이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1992년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는 이전의 시 · 군 조례로부터 시 · 도의 조례로 바뀌어 운영되도록 통일되어 의용소방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

터 폭넓은 운영경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조직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또한 1992년에는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높이고 열의를 가지고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1992년 12월 24일 소방의용소방대상 규정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1993년부터 시상을 시작하여 1998년도까지 시상하였고, 그 후 1994년 2월 3일에는 의용소방대원 복제 지급 시기를 신설하여 기존 대원은 2년마다, 신규 대원은 임용 즉시 임용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였다.


論山 정신병원 불
患者 34명 숨져
假건물病棟 문잠겨 대피
중도일보
부상

사진 126. 논산 정신병원 화재 보도문 / 중도일보

한편, 1993년 4월 19일 새벽 2시 10분경 논산읍 부창동의 서울신경정신과의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인하여 입원환자 41명 중 34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은 입원실 병동을 모두 태우고 논산소방서를 비롯한 소방 인력 200여 명에 의해서 30분 만에 꺼졌으나 피해가 매우 컸다. 이유는 병원의 정원은 25명이었으나 41명을 수용했고, 환자 대부분이 비닐호스로 손발이 묶여 있어 대피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현장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화재진압 보조, 사상자 처치 등 재난수습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2003년 3월 26일 23시 17분경 발생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에서는 26명이나 되는 사상자(사망 9, 부상 17)가 발생하였다. 당시 화재현장에서는 천안지역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현장대응, 수습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태안 앞바다의 원유 유출 사고때에도 전문가들도 회복 불가능이라고 전망했던 태안 앞바다가 전국의 각지에서 모여든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자발적으로 비번일을 반납하며 땀흘린 서산 · 태안지역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활동으로 인해 단 3년 만에 기적적으로 방제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만리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기름유출 피해를 입었던 바다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사진 127. 2007. 12월 태안 원유방제 작업 현장

이러한 의용소방대의 희생적인 활동과 제도적 변천과정을 거쳐 오면서 소방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29일 새로운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958년 제정된 이래 근거 법령으로 운영되어왔던 소방법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는 소방기본법상에 의하여 각 시 · 도별 조례로 운영되었다.

또한 2008년 1월 17일 개정된「소방기본법」은 재난 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설립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동안의 소방 환경 변화와 더불어 대형재난에 대비한 전문조직의 확대 필요성과 의용소방대를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한 독립된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수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위와 처우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결과로 2014년 1월 28일에는 부족한 소방 인력을 보조하기 위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단독 법률을 시행(2014. 7. 29.)함으로써 충남 의용소방대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5년 6월에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비위 사실 등으로 인한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장비의 지급 근거도 마련하였고, 또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 소방력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된 의용소방대는 오늘날 소방활동 보조에서 벗어나 생활안전 출동이나 봉사활동 등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환경 변화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역할이 재정립되어 전문대, 전담대 및 생활안전 강사, 심리상담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로써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 의용소방대는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또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제도적 변천 속에서도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민들이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여 오는 과정에서 터득하며 내면화된 모습으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의용소방대는 도내 촘촘한 조직망을 구축한 자원봉사 조직 중의 하나이면서도, 수행 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인 자원봉사 단체와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의 충남 의용소방대 조직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03.
지역별 의용소방대 성장과 발전

01. 천안 의용소방대

천안지역 의용소방대의 시초인 '천안소방조'는 1912년 창설되었다. 1932년 10월 23일 부산일보를 통해 보도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1] 천안소방조는 1915년 6월 22일 발표된 「消防組規則」에 따라 組頭, 副組頭, 小頭를 두었고, 경찰서장과 소방조두 등의 지휘에 따라 매년 천안역과 남산 강변일대를 중심으로 출초식과 소방연습 거행하였다. 또한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매년 연말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매일 야간 순찰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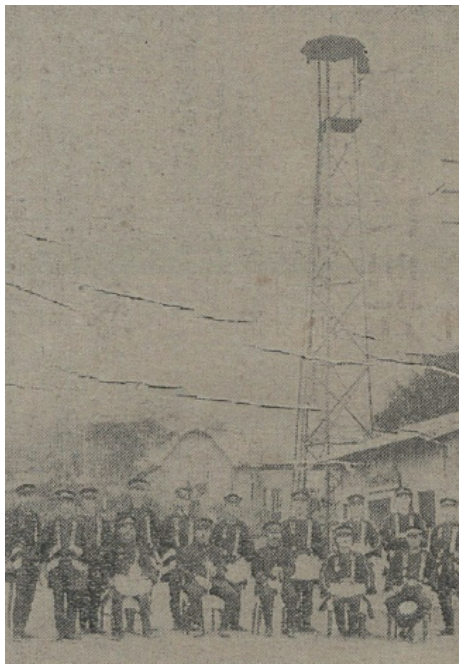


사진 128. 천안소방조 건물, 망루와 소방조원

1925년 입장면 양대리에 직산금광회사 설립과 금광 개발을 계기로 입장지역은 천안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으로 발전하였고, 당시로서는 첨단 소방장비라고 할 수 있는 가솔린펌프를 도입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2] 그러나 192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말기까지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다. 1926년에는 소방조 내부 분쟁으로 소방원이 총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1928년에는 소방조 간부의 임기 만료 후 후임 선정 문제 등으로 소방조 운영이 난관에 부딪혔고, 천안군수, 경찰서장 등을 중심으로 한 소방조 후원조직 협의회가 구성되어 소방조두로 舟戶政輝, 부조두로 本丑太郎을 임명함으로써 간부 임명 문제가 해결되었다.

1) BIG KINDS, 《釜山日報》〈天安消防組 廿周年記念 廿六日演習〉, 1932. 10. 23

2) 천안서북소방서 입장면남성의용소방대 양대지역대 차고에 에 보존 중인 가솔린펌프의 제원을 확인 한 결과 1932년에 제작되었다.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등 진용을 갖춘 천안소방조는 매년 2월 30일부터 소방조원들이 교대로 시내 특별경계와 방화선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인 1932년에는 대대적인 소방연습을 실시하여 천안소방조의 위용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천안소방조 대원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보도된 기사를 통해 천안소방조에서 활동한 대략적인 인원을 추정할 수 있다.

'1932년 5월 5일 아산군 온양온천 북쪽 광야에서 소방 연합연습을 실시하였고, 천안소방조에서는 조두, 부조두 등 간부를 포함한 50여 명의 조원이 견학하였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당시 천안소방조의 조원은 대략 5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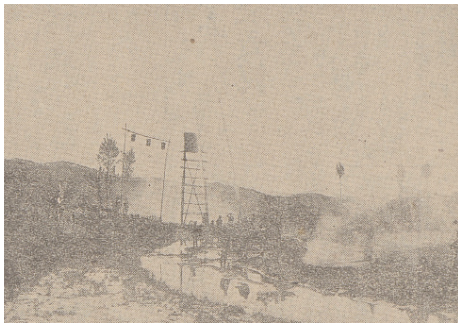


사진 129. 천안소방조 창립 20주년 기념 추계 소방연습

1932. 5. 8., 釜山日報.

〈天安消防組員 聯合演習を 見學〉

五月五日牙山君内消防聯合演習か溫陽溫泉の北方十八丁餘廣野で擧行されたので 天安消防組にては之を見學すべく幹部組員五十餘名は
(후략)

사진 130. 1932년 10월 26일 조선신문

천안지역 화재현황은 공문서 등 공식 자료가 없어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화재 양상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천안의 화재는 현재의 천안역 동부광장 쪽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주로 새벽에 발생하였다. 화재진압은 주로 천안소방조와 헌병분대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소방장비와 소방용수가 부족하여 화재진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42년 1월 22일 발생한 대화정 화재는 일제강점기 후기 화재진압 임무가 천안소방조에서 경방단으로 이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32년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조선은 일제의 병참기지가 되었다.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방화단과 소방조, 사방단을 통합하여 경방단(警防團)을 결성하기로 하였고, 경방단 결성에 따라 천안소방조는 1939년 9월 20일, 추계연습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4)]

3) 1927년 발행한 「군산소방조발달지」에 의하면 충청남도 전체 소방조두는 23명인 것으로 보아 소방조 수는 23개로 추정된다. 소방부 수가 63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개 소방조가 3개의 부를 구성하여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충청남도는 14개 군이 설치되어 1개 군 단위에 1개 정도(대전, 공주 등 중심도시는 2개 이상)의 소방조가 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 BIG KINDS, 《釜山日報》〈天安消防組 二十日に解散式〉, 1939. 9. 19

천안소방조 주요 활동 내용	
구분	소방활동 내용
1912.08.10.	경부선 천안정거장 부근 이강석의 집에서 14시 30분 경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소방대 및 헌병분대가 출동하여 진화하였다.
1919.08.18.	02시 30분 천안읍 민영익의 집에서 발화하여 헌병분대 및 소방부 등이 출동하여 진화하였으나, 물이 없어 소화하지 못하고 04시 주택 4채를 전소하고 관내에 주둔 수비대에 의해 진화되었다.
1926.12.26.	05시 30분경 천안역 경남철도의 이삼등 합조 객차에서 발화하여 전소되었다.
1929.06.24.	03시 30분경 본정통 환봉운송점(丸捧運送店)에서 발화하여 천안극장과 호서은행 창고 등으로 연소 확대, 즉시 소방대가 출동하여 진화에 노력하였으나 용수가 부족하여 초기진화 실패, 두 시간 반 동안 주택 13호를 반소, 06시경 겨우 진화하였다. 손해액은 5천 원 가량이고 15세 소년 1명이 참혹하게 소사하였다.
1942.01.22.	19시경 천안읍 대화정 청부업 淸水茂久太郎 소유 건축목재 공장에서 발화하여 공장 목재를 전소시키고 20시경에 경방단 및 애국반원들에 의해 진화되었다.



사진 131. 1945년 10월 10일 천안의용소방대 결성식, 천안국민학교

천안의용소방대는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하던 1945년 8월 30일 초대 김광수 대장을 필두로 하여 1945년 10월 10일 천안경찰서 산하 천안의용소방대가 결성되었다.

천안의용소방대가 결성되던 시기는 좌우이념이 극심하게 대립하였고, 전국에서 신탁통치 찬반 데모가 일어나는 등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이때 천안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주축이 되어 좌익세력을 소탕한 사건이 있었다. 1946년의 '천안 2 · 9의거'이다.

해방 직전 독립을 위한 항일 의거를 목적으로 천안의 향토 민족독립운동 인사들이 13인 동지회[5]를 조직하였고, 13인 동지회 인사들의 활동이 반공 2 · 9의거로 이어진 것이다.

5) 천안 향토민족 민족독립인사 13인은 오세갑, 박복히, 이창중, 최영환, 김성기, 윤문식, 최태익, 서기석, 박영규, 유필남, 심의규, 정석우, 송연흥이다.

천안지역은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좌익세력이 우세하였고[6], 우익 인사들은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 '천안 광복청년회'를 결성하여 좌익과의 정면 대립 투쟁을 결의하였는데, 광복청년회 회원의 대부분은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었다.

1946년 2월 8일 오후 세 시경 발생한 천안군 목천읍의 흑성산 산불을 진화한 후 저녁식사 자리에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이 모였다. 13인 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천안의용소방대 제2지부장이자 광복청년회 동원부장 유필남은 좌익과 공산세력의 확장을 막고,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익지도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궐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대원들은 좌익 세력 소탕을 결의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천안의용소방대는 3개 편대로 행동조직을 편성했고, 여기에 광복청년회가 동조하였다.

먼저 1946년 2월 8일 밤 인민위원회 노동책이자 자유신문 지국장이었던 신탁통치 찬성 주모자이자 이종순의 집을 급습해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였고, 가택을 수색하던 중 우익인사에 대한 테러 · 살해 대상 명단을 입수하였다[7].

1946년 2월 9일 최종순의 집에서 입수한 증거의 내용을 확인한 의용소방대원들과 광복청년회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근거지인 수도주물공장, 흥아산업과 K.T.C(Korea Truk Company)를 급습하여 공장 노동자들 속에 숨어 있는 공산당원들을 색출하여 소탕하였다. 공산주의 주동자 김두환이 대흥사에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대원들이 대흥사를 급습하였으나 김두환은 K.T.C 급습 소식을 미리 알고 도주하였다.



사진 132. 2 · 9의거 기념탑, 천안삼거리공원

1946년 2월 11일 천안지역 공산주의 세력을 소탕한 천안의용방대와 광복청년회는 성환에 진출하여 성환의용소방대원들과 합세하여 성환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 이종걸 정선용, 정근용을 체포하여 천안경찰서에 인계하였다. 천안과 성환의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공산주의자들 우익 인사들에 대한 테러 · 살해 계획은 천안의용소방대에 의해 사전에 진압되었고, 2월 24일자 대동신문과 전국노동자신문, 동아일보는 좌익 소탕 작전이 성공했다고 보도하였다.

6) 당시 천안지역에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좌익세력은 300여 명이었고, 반대하는 우익세력은 40~50명 정도였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7) 살해 대상 우익인사는 김광수 천안의용소방대장, 정석우 경찰서장, 유광준 천안군수, 윤길순 반탁위원장, 이병흠 조흥은행 지점장 등 천안지역 유지 30여 명이다.

천안 2 · 9의거 이후인 1946년 4월 10일 군정법령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 · 자치화 하여 천안소방서를 신설하였다. 천안소방서는 1950년 5월 27일 폐지되었다.

천안소방서가 폐지된 1950년부터 천안소방서가 다시 설치되는 1970년까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들이 중심이 되어 천안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담당하며, 소방조직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1970년 3월 12일 천안소방서 설치 승인을 받아 5월 13일 천안소방서가 개서되었고 의용소방대는 천안소방서 의용소방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당시 위치는 천안시 오룡동 39번지로 의용소방대에서 부지를 천안소방서에 기부하였다.

천안소방서는 1993년 12월 17일 천안시 구성동 51-1번지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충남 제1관서에 걸맞은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고, 이에 천안의용소방대도 함께 이전하였고, 천안소방서 개서를 시작으로 성거 · 입장 · 직산 · 성환지역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창설되었다.

2010년 즈음 천안시 인구는 50만을 넘었고, 천안은 중부권 교통의 요충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각종 재난상황이 타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짐에 따라 소방서 추가 개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사진 133. 천안서북소방서 의용소방대 발대식

이에 2011년 9월 20일 천안시 행정구역 편제에 따라 천안소방서가 천안동남소방서와 천안서북소방서로 분리되었다. 2021년 현재 천안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남성의용소방대 7개, 여성의용소대 9개, 전담의용소방대 2개, 지역대 4개 등 22개의 의용소방대를 조직 ·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서북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남성의용소방대 5개, 여성의용소방대 5개, 지역대 5개 등 15개의 의용소방대가 조직 ·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총 37개의 천안지역 의용소방대는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을담당제 운영,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순찰 및 각종 홍보활동과 자살예방 및 노인돌봄, 방역지원 등 자원봉사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천안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30	직산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5	입장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66	성거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성환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84	성환읍남성의용소방대 북부지역대 창설	
1991	성환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91	성거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91	직산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91	입장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3	서북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13	서북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3	서북남성의용소방대 쌍용지역대 창설	
2013	서북남성의용소방대 두정지역대 창설	
2013	서북남성의용소방대 서부지역대 창설	
2013	서북남성의용소방대 불당지역대 창설	



직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현. 직산119안전센터)


입장면 의용소방대 청사
(현. 입장119안전센터)

02. 공주 의용소방대

공주소방조는 1911년 10월 공주경찰서의 산하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결성 당시의 인원은 기록된 바가 없으나 1924년 「조선총독부 관보」 제3120호에 따르면 공주소방조는 조두 1명, 부조두 1명, 소두 4명, 소방수 70명으로 총 77명의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원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기에 그 수가 조


사진 134. 1935년 10월 3일 신축된 공주소방조 준공 기념사진

금씩 늘어나기도 하였다. 공주소방조가 설립될 당시 전국에는 155개의 소방조가 있었다. 1938년 말에는 1,393개로 증가하였는데, 공주에서도 이러한 증가 추세에 맞추어 주요 행정 지역(공주읍의 본정, 욱정, 상반정, 대화정, 금정, 산성정)에 소방조가 조직되었다.

공주소방조는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조직된 지 약 10여 년 만인 1921년 5월 12일 건물 1층을 확장하였다. 이때 양수를 위한 신식기계로서 가솔린펌프를 새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공주군민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7천여 원으로 구입하였다.

또한 그 이듬해에는 공주 원도심 중앙에 망화대(望火臺)를 설치하여 화재의 진원지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당시 공주의 제2 부호이자 자선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던 김윤환(1870~1936)이 1926년 약 600원의 기부금을 내어 공주소방조의 여러 소방 기계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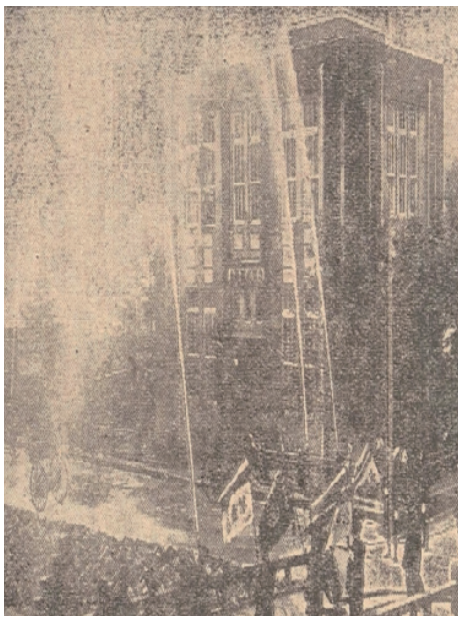


사진 135. 1934년 5월 10일 춘계 소방훈련

소방조의 공식적인 훈련은 1년에 총 3회 정도 이루어졌다. 연초에 이루어지는 신년 출초식(出梢式)이 있고, 4~5월에 이루어지는 춘계 소방훈련, 10월에 이루어지는 추계 소방훈련이다.

매회 아침 7~8시경에 격종하면 소방수들은 공주경찰서 앞 연병장에 집합하여 점열을 실시한다. 때로는 도청 연병장이나 공주시장의 금강관 앞 공터에서 실시할 때도 있다. 9~10시경이 되면 출동하여 공주금융조합 근처 제민천가에서 양수(揚水)훈련을 한다. 이때 소방조의 일본인과 조선인이 갑을 양측으로 나누어 성대한 연습을 하는데, 펌프를 통해 뻗어가는 물줄기를 보기 위해 관민 다수의 사람이 몰려 그 일대가 성황이었다고 한다.

공주소방조는 「조선소방조규칙」 제7조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방조에 대하여 수재 및 화재의 경계 · 방어 태세를 명할 수 있다."에 따라 각종 수해 및 화재 현장에서 다양한 활약을 하였다.

한편, 공주소방조는 단순히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넘어 여러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망을 얻기도 하였다.

공주소방조 주요 활동 내용		
구분		소방활동 내용
화재	1927.03.05.	**소방수 부상, 공주의 화재** 충남공주시장 나무가가에 불이 일어나 20여 동이 되는 나뭇가리가 전소되었는데 출화 원인은 당시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며 그 나무 임자들은 춘궁에 나무 장사로 그날그날을 생활하는 농민 여러 사람이 함께 쌓아놓고 팔려다가 그와 같이 전소를 당하였다는데 손해액은 십여 원이며 소화하던 소방수 하나가 경상이라 하더라.
	1933.05.07.	**공주영명여고 지하실에 발화** 충남공주영명여학교 지하실로부터 불이 나서 풍세가 맹렬하여 일시는 매우 위험하였으나 소방대의 노력으로 10시 반경에 진화하였다. 원인은 당일 오후 4시경 가사 실습 시간에 실습을 하고 남은 숯불로 연화된 것인데 손해는 오백 원 가량이다.
	1935.03.18.	**공주군 장기면 대화 상보** 충남 공주군 장기면 신흥리 신세균의 집에서 지난 15일 오전 11시 사삽문에 발화하여 오십호 되는 부락 중 십륙호의 30여 채가 전소하였다 함은 기보한 바거니와 때마침 풍세가 험악하여 공수소방조원과 장기소방조에서 펌프를 가지고 출동하였다. 손해금액은 만 원 가량에 달한다고 한다.
수해	1923.07.24.	**공주수해 시내 가옥 전부 침수** 금일 각 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당한 곳이 많은 가운데 충남 공주에서는 시내 전부가 침수되고 기타 가옥 두채가 떠내려갔다함은 이미 보도한바 그 후 지난 19일 폭우가 내려 공주 천에 가설된 교량이 유실될듯함으로 공주소방대가 총출동하여 극력 방어하는 중이다.
	1926.07.26.	**공수사곡홍수 익사, 실종 11명** 지난 22일 오전 2시경부터 내리는 혹우에 충남 공주군 사곡면 호계리에는 북쪽에 있는 천보가 터져서 갑자기 침수하여 시장이 전멸되었는데 죽은 사람이 두명이오 거처불명이 아홉명이다. 가옥파괴 수십호중에 유실 가옥이 9호라는데 구호코자 노력하든 주재소 순사 류명환도 떠려가는 것을 소방수가 출동하여 생명을 구제하였다.

1930년 4월 1일 출동 수당을 받기 위해 공주경찰서 연무장에 모인 공주소방조의 조두 오오니시(大西)는 매월 15일을 '시가 미화 작업의 날'로 정해 시장 거리를 청소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들은 시내 각처를 청소하면서 거리의 환경 미화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소방조의 연중 업무인 연말 · 연초 야간경계 순찰 근무를 통해 화재나 범죄 등 공주 시내의 화재나 범죄 등의 사건 · 사고 예방에 힘써 공주 읍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시켰으며, 소방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각인시켰다.

광복 이후 공주소방조는 1945년 9월 15일 '공주(의용)소방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그 후 1948년 3월 1일 공공기관으로서 '공주소방서'가 새롭게 편성되면서 공주소방대는 소방서원을 보좌하였다. 1950년 6 · 25전쟁이 발발하면서 공주소방대는 소방서원을 보좌하여 소방을 비롯해 경비, 토벌, 방공 등 다방면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그러나 정식으로 인정된 기관이 아니기에 대우가 소홀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용경찰대와 함께 '방호단(防護團, 또는 방공단)'으로 통합 강화하여, 정부에서 인정한 단체로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용소방대를 한국청년단에 편입시키려 하자 각 지역 소방대의 반대에 부딪혔고, 게다가 한국전쟁의 여파로 각 지역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졌다. 그래서 결국 1953년 12월 정부에서는 각 시도 경찰국에 의용소방대를 편성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1954년 1월 1일 공주에서는 소방대 광장에서 각 기관장 관민다수 참석리에 공주의용소방대의 신년 발대식이 거행되었고 대장에는 전 방공단장 장동욱(張東旭) 씨가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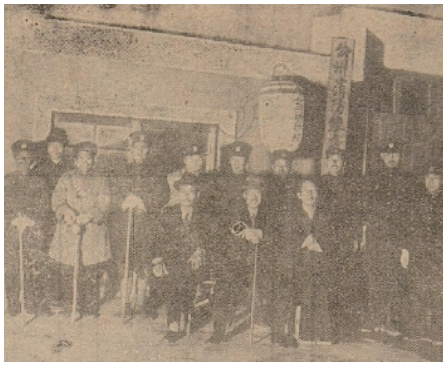


사진 136. 1937년 공주소방조 야간 경계근무



사진 137. 1949년 10월 공산성 쌍수정 앞 기념 촬영, 공주군의용소방대

1985년 12월 13일 공주소방서가 개서되었고, 의용소방대는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대로 명칭이 개칭되었다.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시 1읍 9개면 6동 22개대 630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히 대응조치하고 자율소방체제 구축 및 의용봉공 정신으로 지역 방재조직의 구심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138. 2019년 8월 31일 공주의용소방대 소방훈련

공주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45	공주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경천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7	계룡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9	신풍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50	유구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51	반포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54	이인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71	우성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84	의당 · 정안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85	동학사산악전문의용소방대 창설	
1986	공주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95	유구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0	탄천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2011	사곡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2012	반포 · 계룡 · 정안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3	이인 · 우성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4	산성시장전문의용소방대 창설	
2015	신관생활안전전문대 창설	


신풍면 의용소방대 청사


반포면 의용소방대 청사


의당면 의용소방대 청사

03. 보령 의용소방대

보령지역 의용소방대는 1937년 경방단을 소방단으로 개칭하면서 대천, 천북, 오천, 청소, 주포,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소방단이 동시 창설되었다.

1952년에는「방공단 규칙제정 – 대통령령 제681호」에 따라 소방단에서 방공단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다. 이후 방공단을 해체하고 민방위대를 조직하면서 1954년 1월에는 보령군 의용소방대(대천의용

소방대 외 9개대)를 최초로 설치하였다. 6.25 전쟁 후 전후 복구 사업과 폐허가 된 국토를 복구하는 사업 등 정부사업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방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현재까지도 수행해오고 있다.

1976년 경찰관서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를 보령군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의용소방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86년에는 대천시 승격으로 보령군과 의용소방대가 분리되어 1995년 다시 통합 전까지는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사진 139. 1970년대 의용소방대 방화조 행사 모습

1987년 대천소방서 개서로 시 · 군 의용소방대 업무를 소방서로 이관 통합처리 하게 되었고, 1995년 대천소방서에서 보령소방서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러 37개대 정원 940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보령 지역 지리적 특성상 바다를 끼고 있어 도서지역에 대한 소방업무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993년에는 오천면남성의용소방대 원산도지역대를 창설하여 도서지역 소방공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었다.

이후에 삽시도지역대(2015년 1월), 효자도 · 외연도지역대(2015년 7월), 고대도 · 장고도지역대(2021년 1월)을 추가로 발대 하면서 그동안 화재에 취약했던 도서지역에 소방력을 확보하였다.

한편,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960년부터 다양한 훈련과 캠페인 활동을 펼쳐왔다. 60년대 흔히 볼 수 있었던 초가집 화재진압 훈련부터 당시 보령에서 제일 높았던 前보령경찰서 옆 망루 소방훈련까지 실전을 방불케 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진 140. 1960년대 초가집 화재진압 훈련

이렇게 과거부터 내려져 오던 의용소방대의 정신은 2000년대로 와서 각종 대형재난 및 다수사상자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보령시 남포면 죽도 해일사고와 2012년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 화재현장을 예로 들 수 있다.

2008년 5월 4일 낮 12시 42분경 죽도 나루터와 죽도 서쪽 및 동쪽 갯바위, 죽도에서 1km정도 떨어진 대천해수욕장 남쪽 갯바위 등 4곳에서 높은 파도로 35명이 휩쓸려 바다로 빠졌다. 이 사고로 36명이 구조되었으며, 사망자 9명을 포함해 2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당시 보령소방서는 대규모 수색작전을 펼



사진 141. 2008년 죽도 사고 발생 이후 수난사고 예방캠페인

치기 위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의용소방대와 함께 10일 간 수중과 수변을 실시하여 사고자를 모두 구조하거나 수습하였다. 이러한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가 맹활약하면서 지역사회의 선망을 얻기도 하였다.

보령의용소방대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3월 15일 밤 10시 30분경 오천면 오포리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지하 전력구 케이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약 10여년이 지난 이 화재는 아직까지도 보령관내에서 잊혀지지 않는 최악의 참사로 기억되고 있다. 전력판매 손실비용 약 180억원, 기자재 설치 및 시공비용 약 395억원 등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6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런 참혹한 현장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서 진압대원들에게 보급식과 필요 물품을 조달하고 호스정리, 교통정리 등 원활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활동하였다. 빛에 가려져 음지에서 묵묵히 활동 하는 의용소방대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의용봉공정신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뜻을 이어받아 각종 재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식이 각인되었다.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2004년 119시민수상구조대 실시 이후 서해안 최대의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에서 해변구조대 활동을 참여해왔다. 수변 순찰과 기상에 따른 주 · 야간 입욕 통제 활동을 실시했고, 미아 찾기, 관광객 안내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까지도 의용소방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홍보효과도 톡톡히 해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대천해수욕장 개장 이래 최초로 인명 사고가 없는 무사고 해를 기록하는데 많은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2017년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보령남성의용소방대 이승호 대원이 소방호스 끌기 개인전 1위를 기록하였고, 2019년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서는 개인장비 착용 릴레이 1위와 남, 여 소방호스 끌기 3위에 입상하여 4개 종목 중 3종목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현재까지 37개대 940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 화재 · 구조 ·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묵묵히 활약하고 있고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사진 142. 의용소방대 대천해수욕장 환경정화 활동

보령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54	대천, 천북, 오천, 청소, 주포,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10개대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64	대천의용소방대 신흑지역대 창설	
1986	대천, 천북, 오천, 청소, 주포,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10개대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성주면 남 · 여 의용소방대 창설	
1987	주교면 남 · 여 의용소방대 창설	
1992	웅천읍 남 · 여 의용소방대 창설	
1993	오천면남성의용소방대 원산도지역대 창설	
2001	미산면남성의용소방대 남부지역대 창설	
2015	오천면남성의용소방대 삽시도 · 효자도 · 외연도지역대 창설	
2016	대천전통시장전문의용소방대 창설	
2021	오천면남성의용소방대 고대도 · 장고도지역대 창설	



청소면 의용소방대 청사



남포면 의용소방대 청사

04. 아산 의용소방대

아산지역 의용소방대는 1948년 7월 17일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가 설치되기 이전인 1943년 2월 1일 경방대 창설로 온주의용소방대(현 온주지역전담의용소방대) 1대 대장으로 신길성 대장이 선임되었으며 완용 펌프 1대를 구비하여 조직되었다. 초기 열악한 소방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화재 및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지역의 동향과 지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민으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하게 되면서 1945년 9월 주민들의 자체 조직인 온양의용소방대 발대를 시작으로 염치, 금곡, 탕정, 신창, 선장, 도고, 영인, 송악, 배방 등 아산군 12개 읍면에 각각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다.

조직 구성은 각 대별로 20~30명 내외로 의용소방대장과 부대장, 부장 및 반장을 두었다. 대의 하부조직으로는 총무부, 방호부, 구호부, 훈련부의 4부를 두어 필요시 부, 반 부서를 통합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무부에서는 서무반, 경리반을 두어 기획, 인사, 경리 등의 사무를 분장하며, 방호부에서는 소방반, 감시반을 두고 각종 설비의 정비, 감사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구호부에서는 대피반, 구호반을 두어 수화, 방독, 소독, 피해조사등을 훈련부에는 훈련반, 교육반을 두고 지도연구계도 및 선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의용소방대 업무분장인 3부 8반과 비슷한 형태를 띠며 운영하였다.

초기 주요 장비로는 일부 의용소방대에 수동식 목재 완용펌프로 화재진압에 활용하였으나 그나마 6.25사변을 겪으면서 파손되고 노후되어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는 수동식 금속 완용펌프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파괴용구로 갈고리와 도끼, 소화장비로 물주머니를 사용하였다. 1960년대 당시의 소방장비로는 고도의 경제발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미군들이 폐차로 처분한 차량에 적재함을 떼어내고 물탱크와 펌프를 장착하여 활용하다 1967년에 남영소방펌프가 특허를 획득(당시 분당 2,000리터)하여 그 최초의 동력소방펌프를 소방자동차에



사진 143. 초기에 사용된 화재진압용 완용펌프



사진 144. 군용차 적재함을 떼어내고 소방차로 개조한 차량

장착하여 전라남도 고흥군에 첫 납품을 시작으로 규모가 큰 시군단위에 한두 대씩 배치되었다. 이들 잉여 물자 개조 소방차량들이 1971년 이전에는 380여대, 1972~1981년 210여대가 생산되어 모두 590여대가 생산되면서 대략 1970년대 아산에도 소방펌프차가 배치되면서 완용펌프와 함께 화재진압 및 소방훈련에 활용되었다.

의용소방대의 주요 활동으로는 초창기에 주로 경방단[8]과 방공단[9]을 겸하여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의용소방대원은 향토에서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화 또는 수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되어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직무는 소화나 수방업무의 보조에 있고 방공법에서 정한 방공업무도 병행해서 수행하였다. 의용소방대의 업무는 소방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매월 3시간 이상 교육훈련도 실시하였다. 교육훈련으로는 방공훈련 등을 월 1회 5시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소방훈련 교관 및 조교를 소방관, 경찰관 또는 대원중에서 소방서장이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근거를 두어 점차 의용소방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당시에도 대원의 출동수당은 관내 출동시는 1인당 1회 500환[10], 관외출동 시는 식비로 1인당 500환, 교육훈련 출동수당은 1인당 1회 300환이었으며 신청 시에 지급하였다.



사진 145. 1985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아산 의용소방대는 1943년 창설되어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소방행사(불조심의 달, 시동식, 소방의날 등)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재난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은 경찰국과 소방협회에서 매년 12월 1일 「방화일(防火日)」로 정하고 각종 화재의 예방활동을 전개했으며 방화강조기간을 설정하고 방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따른 소방연습과 지역별 연합연습도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불조심의 날은 1967년 내무부 예규로 제정되었으나 1977년 폐지되었다.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역별로 행사의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였다.

8) 1983년설치 소방조의 후신으로 소방조와 수방단을 통합한조직으로 1945년까지 존속
9) 해방후 경방단이 소방대로 다시환원되었다가 1952년 방공단 규칙이 제정되면서 방공단에 흡수되었고 1953.7 해체되었음.
10) 우리나라의 옛 화폐 단위 1환은 1전의 100배. 1953년2월15일부터 1962년6월9일까지 통용



사진 146.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훈련



사진 147. 불조심 강조의 달 시가행진

1991년을 기점으로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로 바뀌면서 정기적으로 정착되었고 시기도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로 바뀌었다.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기간에는 시가행진 및 소방연습도 병행 실시하였다.

주요 재난활동으로는 1989년 실옥동 공장화재시에 소방공무원과 함께 주야 3일 동안 재난현장을 수습하였고 1990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가화재 시에도 그 역할을 다하였다.

또한 2006년 2월 13일 오후 3시 8분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영인농공단지 안의 대륙제관 가스충전실에서 가스통에 가스를 주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날 화재는 가스충전동의 자동화 기계가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포장지 필름에 불이 붙은 뒤 옆 동인 에어졸 제관동으로 옮겨 붙게 되었고 제품 창고로 번져 3개동 3800여평이 소실, 휴대용 가스통 200만개가 모두 불타며 제작 중이던 3만여개의 부탄가스통이 공장외부까지 튕겨나가 근로자 전원과 주변 마을 주민 130여 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질 정도로는 큰 대형화재였다. 이날 화재현장에는 의용소방대원 70여 명과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하였다.

1983년 9월 30일 천안소방서 온양파출소가 개소되고, 1989년 1월 31일 온양소방서로 분리되면서 1989년 아산권역 최초로 온양여성의용소방대가 창설되었다. 이후 1995년 3월 15일 온양소방서를 아산소방서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아산소방서 관할 내에 남성대(16개대), 여성대(11개대), 혼성대(1개대)등 총 28개대가 창설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70년 역사의 온양남성의용소방대가 2019년 내부사정으로 해산 처분되는 아픈 과정을 겪는 등 순탄치 않은 역사가 있었다.

2021년 현재 아산 의용소방대는 아산소방서의 주요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각종 소방행정지원은 물론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을담당제 운영, 화재예방 캠페인 및 각종 홍보활동과 노인돌봄, 방역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산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31	염치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2	탕정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3	온양남성의용소방대 온주지역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43	신창면남성의용소방대 읍내리지역대 창설	
1945	온양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5	둔포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5	송악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45	인주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5	선장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5	배방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도고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46	음봉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영인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46	배방읍남성의용소방대 금곡지역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48	영인면백석포지역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38	신창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89	온양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2	둔포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7	배방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2	탕정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2	음봉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5	염치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5	인주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6	온양온천시장전문의용소방대 창설	
2018	신창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9	도고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9	영인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9	선장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9	배방읍 장재지역혼성의용소방대 창설	


염치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창면 의용소방대 청사


송악면 의용소방대 청사


도고면 의용소방대 청사

05. 서산 의용소방대

1939년 7월 3일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경방단 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소방조와 수방단이 해체되고 경방단으로 통합하였다. 그리하여 구한말 이래 조직되어 있던 소방조는 제도상으로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경방단 조직으로 소방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서산읍 경방단으로 시작하였다.



사진 148. 대산읍의용소방대 분열식 광경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시대의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소방기구는 경찰 기구에 흡수되어 소방행정이 경찰행정체제 속에 포함되자 서산읍에 대원 50명과 가솔린 소방기 1대를 인수하여 의용소방대가 설립되고 1946년 3월 1일 초대 변정윤 대장을 중심으로 대원 50명과 함께 의용소방대가 출범하였고, 1945년 8월 15일 왜정 36년 당시 양대 경방단이 방공단으로 변경, 1946년 서산양대의용소방대 설립되어 이천교 대장이 활동하였고, 1945년 8월에 해미면의용소방대 초대 조학봉 대장(대원 30명), 고북면의용소방대 초대 김의배 대장(대원 30명), 1946년 3월에는 대산읍의용소방대 초대 손부근 대장(대원 40명), 성연면의용소방대 초대 이래인 대장(대원 40명), 1946년 6월에는 인지면의용소방대 초대 박배옥 대장(대원 40명), 지곡면의용소방대 초대 한월동 대장(대원 40명), 1946년 8월에는 음암면의용소방대 초대 이은묵 대장, 운산면의용소방대 초대 이각성 대장 그리고 1948년에는 부석면의용소방대 초대 임경순 대장과 1961년도에는 팔봉면의용소방대 초대 양승현 대장, 1994년 2월 28일에는 해미지역대 초대 김양수대장, 2015년 11월 30일에는 동부시장전문의용소방대 초대 공군식 대장이 대원 20명과 함께 발대하였고, 여성의용소방대는 1972년 9월 1일 서산여성의용소방대 초대 구본영 대장이 1990년 2월 1일 팔봉면여성의용소방대 초대 김길자 대장, 1991년 7월 23일에는 초대 유금준 대장, 1995년 11월 15일 대산여성의용소방대 초대 김정숙 대장, 2005년 6월에는 부석여성의용소방대 초대 조명순 대장, 2005년 6월에는 지곡여성의용소방대 초대 장춘자 대장, 2007년 4월 9일에는 인지여성의용소방대 초대 김옥수 대장, 2019년 9월 19일에는 성연여성의용소방대 초대 원연주 대장이 대원 20명과 함께 출범하였다.

1900년대 중반에는 각 의용소방대에 배치되어 있던 완용펌프를 활용하여 지역의 화재진압 및 소방 활동을 도맡아 추진할 정도로 의욕과 사명감이 투철하였으며, 지금까지 의용봉공 정신으로 똘똘 뭉쳐 지역의 파수꾼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어 경방단이 해체되자 서산의용소방대는 1952년 3월 1일 소방대를 민방공단으로



사진 149. 성연면의용소방대 기념사진



사진 150. 해미의용소방대 소방 지프차

개칭하였으며, 소방 장비를 보강하고 조직을 안정화하여 1955년 5월 15일에는 민방공단을 또다시 소방대로 개칭하였다.

1959년 10월 23일에는 치안국으로부터 코멘트 소방차를 배정받아 대대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통해 1965년 2월 15일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이 60명에서 90명으로 증원되었다.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서산읍 중앙에 화재감시를 위한 망루대를 철조로 건축하여 화재의 진원지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2월 21일에는 인천 미군부대로부터 GMC 1대를 인수받아 소방차로 개조 수리하여 사용함으로써 비약적인 소방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25가 발발하면서 지곡면 초대 대장 한월동은 우익의 선봉이 되어 좌익 축출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좌익세력의 득세로 도주 및 은닉 생활을 영위하다가 그 세력에 생포되어 지곡면 화천리 1구 면사무소 사이렌 철탑에서 학살되었다. 이는 반공정신 고취에도 일대 획을 그었다 할 것이다.

주요 재난 활동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4일 오전 2시 59분쯤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불기둥이 수십미터 높이로 솟구쳐 주변 하늘이 빨갛게 보일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직원은 물론 의용소대원도 긴급통제단 비상소집에 임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주변 차량 통제 및 보조역할 등 충실히 하여 재난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큰 역할을 하였다.

최근 의용소방대 활약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 우려도 무릅쓰고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 22개대 약 430여 명은 다목적 차량을 이용해 도로 및 인도에 방역활동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서산시 호수공원 및 주변 다중이용업소 일대를 등짐펌프와 휴대용 분무기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일조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해외와 타 지역의 방문자제와 의심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 안내, 그리고 개인위생관리 감염예방에 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산 의용소방대는 1시 1읍 9면 5동에 22개대 630명 대원으로 편성되어 전 대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순찰 그리고 각종 홍보활동과 게이트키퍼 및 노인돌봄, 방역지원, 마을담당제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산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46	서산시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72	서산시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5	서산시남성의용소방대 양대지역대 창설	
1946	대산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95	대한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음암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15	동부시장전문의용소방대 창설	
1945	해미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91	해미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94	해미면남성의용소방대 해미지역대 창설	
1946	운산면남성의송소방대 창설	
1945	고북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48	부석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8	부석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인지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46	인지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성연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성연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지곡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46	지곡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61	팔봉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61	팔봉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지곡면 의용소방대 청사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06. 논산 의용소방대

논산 의용소방대 시초는 1920년 초대 대장 고상준을 주축으로 현재의 강경읍 중앙리에서 완용펌프 3대의 장비로 강경소방조가 발족하였으며, 1925년 일산 소방차 1대를 지방비로 구입하여 논산소방조가 발족하였고 1940년 논산경방단으로 개칭, 1945년 해방 이후 자치소방대를 조직하였다.

1940년 노성면 호암리에 초대 김동천 대장이 완용펌프 1대의 장비로 의용소방대를 창설, 1945년 부적면의용소방대(대장 김철원), 양촌의용소방대(대장 김영호), 1946년 연산의용소방대(대장 김용헌), 1948년 벌곡면의용소방대(대장 윤천기)가 창설되었다.

6.25사변 수복후 치안유지 및 공비토벌작전 참가자 명단

消防隊長	朴長吉	副隊長	林鍾完	曺玉煥	朴魯鶴	禹相烈
禹相甲	徐丙烈	鄭允謀	鄭金謀	李秉文	李吉喬	張景鳳
梁定鎬	金福童	高相貴	李在夏	金相信	成炳吉	張奉吉
金吉泰	兪基先	黃錦守	李元熙	朴春來	李源甲	盧炳浩
金慶春	金甲守	李鍾萬	朴昌信	吳錫奎	李哲宰	崔吉善
盧昌辰	林鎭寬	姜貴萬	李起賢	姜永植	鄭一容	吳明洙
尹恩重	李龍薰	文貴運	등 (無順)			

사진 151. 치안유지 및 공비토벌작전 참가자 명단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논산의용소방대는 공비토벌대를 자체조직하여 군 · 경과 함께 공비 토벌에 약 30여 명의 대원이 참전하였으며 대둔산 공비 소탕작전에서는 4명의 공비를 생포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1963년 행정구역 개편 통합으로 구자곡, 금곡, 황화소방대를 통합하여 연무읍의용소방대로 발대하였고 이때의 주요 소방 장비로는 완용펌프 2대를 보유하였다.

1964년 10월 연무읍 안심리에 소방대 건물을 건립하였고 3/4톤 닷지자동차를 구입하여 소방차로 개조, 사용함으로써 인력이 아닌 동력에 의한 화재진압이 시작되었다.

연무읍의용소방대의 활동상을 살펴보면 1969년 충청남도경찰국장으로부터 소방행정 우수상을 수상, 1970년 충청남도로부터 소방행정 우수 및 모범대 수상을 하였다. 그 후 논산지역 의용소방대는 1975년 9월 1일 법률 제2792호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내무부 직제가 개정(1975.8.26.)되어 민방위본부를 설치하고 각 도에 민방위국을 신설(민방위과, 소방과)하면서 발전하였다.



사진 152. 1985년 방화장비 조작훈련

1984년 10월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에서 준우승차지, 다음 해인 1985년 7월 전국소방왕선발대회 도대회에서 우승하여 소형소방차(쎄렉스) 1대를 부상품으로 받아 논산군에 기부하였으며

제3회 전국소방왕선발대회에 충남대표로 출전하여 최우수상 수상하여 전국에 연무읍의용소방대의 명예를 알리게 되었다, 이때 상금 1백만 원과 소형소방차 1대를 부상으로 받아 이 역시 논산군에 기부하여 논산지역 소방차를 보급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논산의용소방대의 주요 활동상을 살펴보면 1971년 부적면 아호리지대 논산천 범람으로 수해 발생 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고립객 10여 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앞장섰으며, 1975년 4월 두마면 두계리 두계역 구내에서 미사일 적재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미사일 탄두 폭발의 위험 때문에 누구도 화재진압에 나서기를 꺼리는 상황에서도 화재진압에 앞장섬으로써 미사일 탄두 폭발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고, 1975년 3월 논산시 화지동 공설시장의 대형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 6명 및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다.

1993년 4월 논산시 부창동 소재 서울신경정신의원 화재발생으로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그 어려운 시신 운반작업에 악취와 두려움에도 사체 운반처리에 전력을 다하였고, 1996년에는 논산시 의용소방대 119구조대 창설하여 한달여간 특수재난구조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전북 여산 하사관학교에 의뢰 자진 입교하여 남녀대원 80여 명이 유격훈련을 이수하였다.

이처럼 논산 지역 의용소방대는 해방 후 치안유지에 앞장서야 했고 해방의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6.25 전쟁을 맞아 공비 소탕 작전 등에 참가해왔으며 크고 작은 화재를 진압하여 왔고 현재에는 2읍 11면 2동에 총 24개대 의용소방대(정원 760명)로 구성되어 불조심 캠페인, 기초소방시설 보급, 마을담당제 활동,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멘토링 활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등 투철한 의용봉공정신으로 지역사회의 표본이 되는 봉사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사진 153. 논산의용소방대 특수재난구조 훈련 장면

논산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20	강경소방조 창설	
1939	은진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0	호암의용소방대 창설	
1945	논산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5	강경소방단 명칭변경 재창설	
1945	상월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45	부적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45	양촌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46	연산의용소방대 창설	
1948	벌곡면의용소방대 창설	
1963	연무읍의용소방대 창설	
1967	채운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미상	논산부여의용소방대 창설	
1970	연무부녀의용소방대 창설	
1973	강경부녀의용소방대 창설	
1976	광석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85	성동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1991	양촌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2	연산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미상	노성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2010	벌곡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2011	광석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3	벌곡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5	상월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5	노성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상월면 의용소방대 청사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성동면 의용소방대 청사



노성면 의용소방대 청사

07. 계룡 의용소방대

논산군 두마면 지역의 시초인 두마면의용소방대가 1968년도에 30명으로 발대되면서 초대 대장으로 김종락대장, 2대 한용철, 3대 김동수, 4대 하태일, 5대 이재관, 6대 최홍묵(현 계룡시장)이 임명 되었다.

시골지역이다 보니 변변한 청사 및 소방차량도 없이 장터 및 두계역 주변의 화재진압 및 취약지역 순찰 등 봉사활동을 하였고, 비록 장비는 열악했지만 대원들의 사명감은 투철했고 의욕이 넘쳤다. 의용봉공정신이 지속 계승되어 지역의 파수꾼으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 왔다.

당시 의용소방대원들은 지금처럼 조직화 되어 있지 않고 활동에 따른 수당 등도 전혀 없었으며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운영되었고 대부분 지역 유지들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다고 한다.

계룡의용소방대 발대는 2003년 계룡시의 승격이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계룡시 승격 이후 2004년 1월 1일 계룡시 의용소방대가 60명으로 이덕재(2004.1.1. ~ 2009.12.31.) 대장을 초대 대장으로 발대 하면서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화재 예방 순찰 및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2006년 9월 20일 계룡시 여성의용소방대가 60명으로 반경희(2007. 1. 1.~ 2012. 12. 31.)대장을 초대 여성대장으로 발대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수호천사활동, 화재예방 캠페인 및 해마다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후 계룡시 엄사면에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으로 아파트단지 및 상가가



사진 154. 2007년 계룡시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캠페인

개발됨에 따라 소방수요 급증에 맞춰 2015년 1월 1일 남성대원 30명과 여성대원 20명으로 구성된 계룡시 엄사면 남 · 여의용소방대(남성대장 이효택, 여성대장 정해연)가 발대되어 엄사면 지역의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와 재난환경 변화에 발맞춰 화재예방 홍보활동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 지역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계룡 의용소방대의 주요 소방활동은 크게 2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첫 번째, 2008년 5월 28일 계룡소방서 개서 이전 두마면 입암산업단지 내 ㈜페리카나 물류창고 화재이다. 이 불은 10:30분경 시작되어 대전, 부여, 공주, 금산 등 인근에서 인력 150명, 소방장비 30여 대를 동원한 다음에야 12시경 완진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날 계룡시의용소방대원 60여 명은 주변 교통정리 및 호스전개 등 소방보조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 단시간에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두 번째는 2016년 11월 29일 엄사면 하나로마트 화재이다. 이 불은 11:48경 시작되어 마트 1동을 전소시키고 소방인력 208명, 소방장비 31대를 동원하여 3시간 50여 분만인 15:40에 완진됐다. 마트 안 기둥 콘센트 부근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되어 있어 건물 전체로의 급격한 연소확대로 이어졌다.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전체가 전소하여 약 7억 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계룡시의용소방대원 5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소방차 출동 시 차량 안내 등 화재진압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계룡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계룡시 1개동, 3개면, 인구 4만3천여 명을 남성대(2개대), 여성대(2개대) 등 총 4개대 140명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을담당제 운영,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순찰 및 각종 홍보활동과 노인돌봄, 코로나-19 방역 지원 활동 등 의용봉공 정신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계룡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1968	두마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04	계룡시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07	계룡시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5	엄사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15	엄사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08. 당진 의용소방대

일제강점기의 '경방단' 조직은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으로 자동적으로 해체되면서 다시 '소방조'가 조직되었다. 정부수립 후 소방대는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사업 등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활동을 벌여왔고, 이에 당진경찰서 산하 완용 펌프차 1대와 동력 펌프차 1대, 초대 대장 인운식을 필두로 '당진면 의용소방대'가 발대하였다.

1963년 1월 당진읍 승격으로 당진면 의용소방대에서 당진읍 의용소방대로 바뀌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당진경찰서 산하 당진읍 의용소방대는 당진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담당하며 소방조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전까지는 충청남도에는 천안과 공주에만 소방서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의 역할이 적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영역을 점차 넓혀 1990년 3월 16일 서산소방서가 개소를 하게 된다. 서산소방서가 개소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산에서 원거리인 당진군에도 소방파출소를 개소하기 위하여 당진읍 의용소방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1990년 4월 6일 당진파출소가 개소하게 된다.

파출소가 개소된 이후 당진읍 의용소방대 및 당진군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1995년 9월에는 고가사다리 굴절차를 배치할 수 있었으며, 소방차량 및 구조 장비 등이 보강되면서 안전한 당진군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했던 합덕면은 야산이 없는 평야지대로 예당평야가 있는 부촌이었으며 당진읍처럼 인구가 많았다. 합덕읍 의용소방대는 화재현장 및 수해복구 등 재난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1984년 제2회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 개인 및 단체시범에서 명예로운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부상으로 대형소방차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全國 소방王에 合德의용소방대
제 2회 전국선발대회서 制覇·개선
週間地方뉴스

사진 155. 1984년 12월 2일 한국일보
(전국선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합덕의용소방대)

당진소방서의 주요 화재사건인 '가원다방 화재'는 2003년 7월 6일 발생하였는데 이 화재로 건물 3층 조립식 불법 건축물에서 잠을 자던 다방 여주인과 여종업원 등 5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당진군에도 소방서가 생겨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강조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1월 6일 모두가 염원하던 당진소방서 설치 승인을 받아 초대 최경식 소방서장을 포함한 93명의 소방인력과 36대의 소방차량 및 화재진압 장비를 갖추고 당진군 송악면(현

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부지)에 개소하게 된다. 그리고 2005년 9월 28일 지금의 당진소방서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당진소방서 개서를 시작으로 송악 · 송산 · 고대 · 순성지역 등에 의용소방대가 창설되기 시작했다.



사진 156. 2008. 7월 119나르미선 명예선장 위촉식

현재에 이르러는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원 53명으로 꾸려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난지도 해수욕장과 왜목마을 해수욕장, 삽교호 관광지에 배치돼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피서객과 낚시꾼 등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지도 및 예방순찰,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며 수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차량 등으로 인근 병 · 의원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반지역과는 달리 섬과 같은 도서지역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마땅한 응급대처방법 및 병원으로의 이송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119나르미 선'을 지정 ·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시 15읍 면동 26개대 760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봉사활동, 코로나19 방역활동, 마을담당제 활동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당진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26	신평면의용소방대 창설	 신평면 의용소방대 청사
1935	순성면의용소방대 창설	
1935	대호지면의용소방대 창설	
1935	정미면의용소방대 창설	
1939	송악면의용소방대 창설	
1945	우강면의용소방대 창설	 우강면 의용소방대 청사
1946	당진면의용소방대 창설	
1946	송산면의용소방대 창설	
1946	고대면의용소방대 창설	
1947	송악면의용소방대 창설	

당진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48	면천면의용소방대 창설	
1948	석문면의용소방대 창설	
1989	당진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89	합덕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0	신평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3	석문면삼봉전담의용소방대 창설	
2006	송악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8	송산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9	고대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면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09. 금산 의용소방대

광복 이후 금산의용소방대는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한 후 1945년 금성면(의용)소방대 창설 이후 제원면(의용)소방대, 남일면(의용)소방대, 남이면(의용)소방대가 새롭게 발족하였으나 전후의 혼란 속에서 화재가 빈번해지자 1954년에 들어와서 의용소방대를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에는 별도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종전의 예에 따랐다.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 제정 시에는 동법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다. 민병대 조직 이후 방공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 방공법에서 정한 방공업무를 겸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토록 하였다.

의용소방대원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화 또는 수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는 출근하여 소화나 수방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였다가, 1967년 4월 14일 법률 제1955호로 2차 소방법 개정 시 현재와 같이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따라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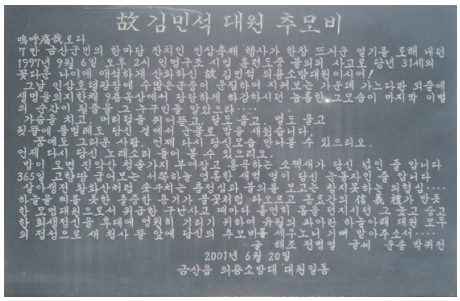
금산의용소방대는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더불어 자체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매월 소외계층 대상자를 선정하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한편 지역에서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요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소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훈 · 포상제를 실시하였다.


사진 157. 초기 의용소방대 완용펌프 조작훈련

금산소방서의 역사적 주요 소방활동은 크게 2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과거 의용소방대의 화려한 활약 이면에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1997년 9월 6일 금산인삼호텔『97금산인삼제』행사장에서 김민석 대원은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전진 레펠 인명구조 시범훈련을 하던 도중 장비결함에 의한 추락사고로 32세의 안타까운 나이로 순직하였다.


故김민석 대원 추모비

1997년 9월 6일 오후 2시 인명구조 시범 훈련도중 불의의 사고로 당년 31세의 꽃다운 나이에 애석하게 산화하신 故 김민석 의용소방대원이시여!

2001년 6월 20일
금산읍 의용소방대 대원일동

사진 158. 故 김민석 의용소방대원 추모비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순직한 김민석 대원을 추모하고 그의 용감함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2001년 6월 20일 금산읍 의용소방대 대원 일동은 금산소방서 정문 옆에 故김민석 대원 추모비를 설치하였다. 또한, 금산소방파출소는 전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현장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강화하여 현장활동에서의 안전성을 제고하였고 화재진압장비 및 구조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여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산읍 의용소방대는 2020년 한 해 동안 35여건의 화재출동으로 2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1억 6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하였으며, 15건의 수난 및 산악인명구조를 통하여 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였다.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화재진압훈련과 응급처치교육, 현장활동 안전교육 등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소방보조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으로는 20여 회의 화재예방 캠페인을 벌여 화재예방 스티커 및 포스터 부착, 비상구의 중요성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소화전 및 길거리 청소 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사랑의 연탄배달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두 번째는 2002년 3월 11일 오후 6시 30분경 발생한 금산군 제원면 '(주)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화재이다. 지금도 현직 소방공무원들 및 의용소방대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될 만큼 큰 화재였다.

이날 불은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고온상태에서 섞어 타이어 원료를 만드는 2700평 크기의 공장동 2층 고무가공실에서 내부 이상고온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이어 원료가 가득 쌓여있는 공장 전체로 빠르게 번져 나갔다. 화재 초기에 충남 · 충북 · 대전 · 전북에서 소방차 48대, 소방공무원 250명, 전 의용소방대원 620여 명 비상소집 동원되어 진화작업을 펼쳐 나갔으며, 공장 1,750㎡를 태우고 3억 1천 4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다음날 오전 6시경 완전 진화했다.

현재 금산군 의용소방대는 1읍 9개면 24개대 620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히 대응조치하고 자율소방체제 구축 및 의용봉공 정신과 함께 지역 방재조직의 구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금산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53	금산읍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93	금산읍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5	금성면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07	금성면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5	제원면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07	제원면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51	부리면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07	부리면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61	군북면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95	군북면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0	군북면 내부지역대 창설	
1945	남일면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07	남일면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5	남이면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부리면 의용소방대 청사



군북면 의용소방대 청사

금산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2007	남이면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91	남이면 성곡지역대 창설	
1945	진산면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91	진산면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62	진산면 두지지역대 창설	
1946	복수면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07	복수면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69	추부면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95	추부면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77	추부면 신평지역대 창설	



진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추부면 의용소방대 청사

10. 부여 의용소방대

1889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지역 안전을 위해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의용소방조(대)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직됐다.



사진 159. 1950년대 이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완용펌프, 규암면 합송지역대 전시

1920년도에 부여군에 부여경찰서 소속으로 각각 40명씩 부여읍 의용소방조 발대를 비롯 규암, 은산, 외산, 구룡, 옥산, 임천, 장암, 석성, 초촌 의용소방조가 발대가 되었고, 1922년도에 세도 의용소방조가 발대 되었다. 신식 소방차량은 도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고, 시골지역이다 보니 변변한 소방차량이 없이 각 의용소방대에 배치되어 있던 완용펌프를 활용하여 지역의 화재진압 활동을 도맡아 추진하였고, 비록 장비는 열악했지만 대원들의 사명감은 투철했고, 의욕이 넘쳤다.

1939년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령 제104호 경방단 규칙을 제정하여 의용소방조 명칭을 경방단으로 변경하였고 치안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정부수립때에는 복구 및 국토 재건사업에 참여하였다.

1952년 6.25사변때 방공단 규칙을 제정하여 경방단 명칭을 방공단으로 변경하였고 향토방위 임무도 수행하였지만 의용봉공정신은 계승되어 지역의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진력해 왔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1953년엔 의용소방대 조직이 유명무실화 되었고 지역에서 민병대로 활동하였다. 1954년 휴전 이후 의용소방대 조직을 재정비하여 1954년 홍산면의용소방대를 시작으로 1956년 내산, 1961년 충화, 1967년 석성, 1969년 남면의용소방대를 설치하였고, 1970년 소방법을 개정하여 시군으로 소속을 이관하였다.

지역대 설치 근거가 마련된 1970년에는 임천면 칠산지역대, 1975년 규암면 합송지역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1981년 소방법을 개정하여 여성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6년 은산여성의용소방대, 1988년 내산여성의용소방대, 1991년에 부여, 규암, 외산, 구룡, 옥산, 남면, 충화, 양화, 임천, 장암, 세도, 석성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하였고, 1992년에 홍산, 초촌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하였다.



사진 160. 1991년 양화면 부녀의용소방대 발대식

2009년에 시 군에서 도로 소속이 이관되어 2010년도에 외산면 전담의용소방대를 시작으로 2011년도 1월 세도, 증산, 3월 석성, 초촌, 구룡, 양화, 내산, 남면 전담의소대를 통합 발대하게 되었다.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주요 소방활동은 크게 2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첫 번째 '임천면 점리 돈사화재'는 2010년 12월 3일 20시 31분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 150-1번지 부여육종영농조합(법인) 주흠노(대표) 축사 화재로 돈사 천정에서 불길이 발생된 사건으로 면적이 5,859㎡의 초대형 돈사로 총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돈 11,064두가 소실되었다.

소방력은 부여소방서 및 논산소방서 등 인근에서 총 17대, 100여 명 동원하여 2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을 수 있었다. 샌드위치 패널구조로 우레탄폼이 도포되어 있어 급속도로 연소확대 되어 진화에 애를 먹었다.

임천의용소방대, 칠산지역대 70명은 주변 교통정리 및 호스전개 등 소방보조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 단시간에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두 번째는 2010년 7월 24일 토요일 00시 27분 발생한 '은산천 실종자 수색활동'으로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에서 폭우로 인하여 강 하류에 있던 주택 2채가 유실 붕괴되어 집에 있던 3명이 급류에 휩쓸려 나가 실종되어 전원 사망한 사건으로 전체 동원인력의 1/3 이상을 의용소방대원으로 배치하여 주력 수색자원으로써 활동하였다. 수색기간은 2010. 7. 24. ~ 8. 10. 18일간 이루어졌고, 소방, 의용소방대, 경찰, 부여군, 군인 등 총 4,300여 명이 동원되었다. 첫 번째 실종자를 은산의용소방대원이 수색 중 발견하였고, 통제단이 철수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하천 수색활동을 전개하였다.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정원이 900명으로 충남에서 2번째로 인원이 많은 의용소방대이다. 1981년도에는 16개 읍면에 남성대와 여성대를 빠짐없이 배치하였고 1986년도부터 은산여성의용소방대를 시작으로 1992년도까지 6년 동안 충남의 어느 시군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부여군 16개 읍면 여성의용소방대를 집중 발대하였다. 그리하여 충남에서 한때에는 가장 규모가 큰 의용소방대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부여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54	홍산의용소방대 창설	
1956	내산의용소방대 창설	
1961	충화의용소방대 창설	
1967	석성증산지역대 창설	
1969	남면의용소방대 창설	
1970	임천칠산지역대 창설	
1975	규암합송지역대 창설	
1986	은산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89	내산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91	부여, 규암, 외산, 구룡, 옥산, 남면, 충화, 양화, 임천, 장암, 세도, 석성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92	홍산, 초촌 여성의용소방대 창설	



석성면 의용소방대 청사



충화면 의용소방대 청사

11. 서천 의용소방대

1937년 8월 15일 경방단을 소방단으로 개칭하여 서천, 장항, 서남, 마동,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판교, 종천, 비인, 서면에 14개 소방단을 동시에 창설하여 활동하다 1938년 10월 1일 서남면과 마동면 일부를 통폐합하여 마서면과 장항읍으로 승격한다.

이후 1읍 · 12면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거치면서 13개 소방단으로 통합되어 활동 중 1952년 8월 25일 소방단에서 다시 방공단으로 규칙이 제정되었고, 1953년 7월 23일 방공단 해체 후 민병대로 조직을 개편한 다음 1954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소방대를 재조직하였는데, 서천군에는 13개면에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1975년 민방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관장해 오던 소방업무가 1976년 1월 1일 군청으로 이관되어 서천군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85년 6월 13일 부녀의용소방대를 읍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서천군도 1985년 7월 1일 서천읍과 장항읍 부녀의용소방대를 조직하여 15개 의용소방대가 활동하였다. 한편, 1987년 11월 26일 시 · 군 의용소방대 업무를 소방관서로 이관 및 통합관리를 하면서 대천소방서가 개서되어 서천군의용소방대는 대천소방서 서천군 의용소방대로 재개편되어 활동하였고, 2008년 1월 25일 서천소방서 개서로 서천군 의용소방대 업무가 서천소방서로 이관되었고, 이후 여성대 및 지역대가 발대되어 현재 27개 의용소방대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161. 서천군 판교면 삼거리 소재 의용소방대 건물 (1960년대 건축)


1993年7月 20日 (火曜日) 【2】

종천 의용소방대 준공

사무실및 차고, 농촌형소방차마련

사진 162. 1993년 종천 의용소방대 청사 준공 언론보도

서천 의용소방대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9월 3일 밤 10시 52분, 서면에 소재한 2층 건물인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불이 났다. 의용소방대원 180여 명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건물이 샌드위치패널 구조인 관계로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불길은 조금씩 잡혀 3시간여 만에 진화되었고, 화재로 박물관 건물과 전시품이 불에 타서 2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2011년 3월에 개관하여 어류와 포유류, 조류 등의 해양동물 박제와 실물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시설로 꾸며졌으나 화재로 모든 것이 소실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17년 3월 14일 오후 7시 9분 종천에 소재한 종이박스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동 및 공장동, 인근 공장까지 전소되었다. 불이 나자 의용소방대원 27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공장 내부에 가연성 종이박스가 많고, 공장 외벽이 샌드위치판낼 이어서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화재현장과 인접한 곳에 장항선 철로가 있어 기차 교행 시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 인근 서천역과 보령역에 연락을 취하여 기차의 통행을 일시 정지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작전을 벌였고, 화재로 1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진 163. 119안전문화제 완용펌프 방수 시연

한편,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2014년 전국 최초로 119안전문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재난 · 안전 · 생명 · 치유' 라는 주제로 열린 119안전문화제는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을 문화로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안전을 주제로 청소년 안전미술대전, 안전 전시회 관람, 안전 문화 공연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 및 안전 문화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차로 불리는 완용펌프 방수 시연을 보임으로써 소방차가 보급되기 전 화재진압 모습을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순직 · 부상자, 유족들을 위한 넋 풀이, 난타 공연 등은 문화제에 참석한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현장 소방활동은 물론 지역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2008년 서천소방서 개서 이래 1,170여 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불우이웃과 재난재해를 입은



사진 164. 재난재해 극복 봉사활동

타 지역의 주민을 위한 활동을 통해 사랑과 감동을 선사해 오고 있다.

또한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 다중운집 장소 방역활동, 방역 마스크 및 성금 전달 등 꾸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을 주고 있다.

한편,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다른 시 · 도의 의용소방대와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협업 시스템 구축은 물론 서천지역 알리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서천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37	서천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7	서천읍남성의용소방대 길산지역대 창설	
1937	장항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7	화양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7	기산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7	한산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7	마산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7	시초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7	문산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7	판교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7	종천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7	비인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7	서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8	마서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65	화양면남성의용소방대 남성지역대 창설	
1970	한산면남성의용소방대 연봉지역대 창설	



마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시초면 의용소방대 청사

서천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71	마서면남성의용소방대 서남지역대 창설	
1985	서천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85	장항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85	한산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85	판교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85	비인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7	화양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7	서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2	마서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7	기산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7	마산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마서면 의용소방대 청사



화양면 의용소방대 청사

12. 청양 의용소방대



사진 165. 1934년 10월 5일 구입한 화성면 완용펌프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군면 통폐합에 따라 청양군과 정산군이 합치되어 청양군이 되었으며 1942년 청장면을 청남면으로 개칭하고 읍내면을 청양면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청양지역 현대 소방의 역사는 1927년 화성면 의용소방대 초대 송민희 대장을 시작으로 현 김경중 대장까지 이르고 있고, 청양의용소방대는 1946년 청양경방단을 시초로 1948년 청양 의용소방대로 명칭이 변경되어 초대 김경섭 대장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98년 3월 20일 대치면 의용소방대 청사가 준공되었고 2000년 10월 26일에는 청양소방파출소 남양대기소 증축 공사 준공에 따른 '무사 기원제'가 남양의소대 안병남 대장과 정원영 군수, 유성종 군의회부의장, 한성희 청양소방파출소장을 비롯 소방관계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거행되었다.


사진 166. 남양 의용소방대 무사 기원제 행사

2002년 7월 29일 화성면 의용소방대 청사가 준공되었으며 2006년 3월에는 남양면 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및 배옥숙 초대대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2010년 11월 비봉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이태재 대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구성,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봉면에는 소방공무원 2명과 의소대원 50명이 활동했으나, 소방공무원이 3교대 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비봉지역대에서도 철수됐다. 하지만 119안전센터와 거리상 먼 지역이라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더구나 연평균 208건의 구급과 30건의 구조, 7건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결국 비봉면 의소대원들은 대형면허 소지자가 참여한 가운데 소방장비 조작 및 진압대원의 화재진압 훈련을 하는 한편 전담의용소방대를 발대하게 되었다.

2011년 8월 4일에는 운곡면 의용소방대가 배행 대장을 중심으로 한 대원 50명이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되었다.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영역은 크게 화재, 재난현장, 봉사활동 등 세가지로 구분되어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헌도는 매우 높으며 보다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훈련으로 소방관 못지 않은 재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15일 18시 14분경 대치면 전담의용소방대는 대치면 개곡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호스릴 소화전을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였다. 화재는 화목보일러실에서 발화하여 주택으로 연소 확대 중이었고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용소방대원과 마을주민의 신속한 초기진화로 주방 및 거실로의 연소 확대를 저지하여 재산피해액 등 손실을 크게 줄였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능력은 '2017년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도내 16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끼리 경합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강사 부분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하여 전국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에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2018년 9월 16일 충북 충주시 탄금대 공원에서 개최한



사진 167. 2017년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충남 1위 기념사진

2018. 충주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출전해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메달의 주인공은 청남면전담의용소방대장 김덕환 대장과 정산면여성의용소방대 권혁자 대장으로 이들은 보물사냥 종목에서 각각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했다.

'KB 어드히시브스 화재'는 2018년 2월 25일 새벽 1시 27분께, 화성면농공단지 내 문구 · 사무용품 공장에서 불길이 시작된 사건이다. 화성농공단지는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일원에 조성된 농공단지로써 각종 섬유제품, 석유정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입주해 있는 청양군의 대표적 산업단지이다. "길을 가던 중 공장쪽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청양소방서 대원 및 화성면전담용소방대원을 포함한 각 읍 · 면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차 35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력은 보령, 예산, 홍성, 부여, 공주, 등 인근에서 총 35대, 130여 명을 동원하여 5시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과감히 옥내로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양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5개동 중 4개동(4651.37㎡)의 기계설비, 테이프 완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며, 청양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대부분 소방대라고 하면 화재진압만을 떠올리지만 의소대는 화재진압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땐 항상 먼저 달려간다.

청양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14	장평면미당지역전담의용소방대	 화성면 의용소방대 청사
1927	화성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35	청남면남성의용소방대	
1946	청양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50	목면남성의용소방대	
1952	대치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53	남양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54	비봉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청양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57	정산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59	장평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61	운곡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89	청양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5	목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6	대치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6	남양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6	정산면여성의용소방대	
2006	청남면여성의용소방대	
2006	장평면여성의용소방대	
2007	화성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7	운곡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7	비봉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남양면 의용소방대 청사



비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13. 홍성 의용소방대

1912년 일제 강점기 소방조직은 마을단위의 소방조(消防) 설립이 인가되어 존속되어 오다가 1939년 9월 25일 소방조를 경방단으로 개편하여 도지사 감독하에 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방단으로 경찰의 외곽단위로 편입하게 되고 이 후 1945년 8월 18일 광복과 더불어 일본으로부터 소방권을 인수받게 되었다. 당시 홍성은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매우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였다. 이에 긴급 치안유지의 필요성은 느낀 청년 40여 명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초대 대장 조영행을 필두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활동사진은 남아있지 않다. 홍성의용소방대 고문동우회 조천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의용소방대원들은 지금처럼 조직화 되어 있지 않았다한다. 따라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은 전혀 없었으며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운영되었고 대부분 지역 유지들로 구성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感謝狀
洪城防空團
朴基丙

사진 168. 1952년 12월 15일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출몰한 북한군 퇴치 공헌에 대한 당시 국군중부지역사령관 박기병의 감사장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소방대는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후 복구사업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활동을 하여 왔으나 전쟁이후 중공의 불법개입으로 전쟁의 양상이 일변하여 반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심각했던 바, 1951년 3월 22일 법률 제183호로 반공법을 개정하고, 1952년 8월 15일에 대통령령 제681호로 방공단 규칙을 제정 · 공포함을 계기로 소방대는 방공단으로 흡수되었고 당시 홍성의용소방대는 홍성방호단으로 불리었으며 당시 소방대 업무 외에도 지역 치안유지를 임무를 맡고 있었음을 아래 사진자료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1953년 민병대가 조직됨에 따라 방호단을 포함 각종 청년단체가 해체되어 잠시 동안 소방조직은 공백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소방의 유일한 보조단체의 해산으로 소방활동의 침체를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화재가 빈발하는 실정으로 다시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54년부터 의용소방대가 재조직되었고 1958년 3월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계속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5년 홍성읍의용소방대, 1947년 장곡면의용소방대의 창설을 시초로 1970년대 민방위 발족 후 의용소방대를 시 · 군 조례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1974년부터 서부면 · 갈산면의용소방대, 1975년 광천읍 · 홍동면의용소방대, 1977년 금마면의용소방대가 연이어 창설되어 홍성지역 화재예방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홍성읍의용소방대 청사는 홍성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방청사로 1975년 황규철님에게 의용소방대 청사용으로 부지를 기증받아 건립되었으며 2010년까지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이 소방관서로 함께 사용하다가 옥암119안전센터가 개청함에 따라 지금은 오롯이 홍성읍의용소방대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169. 홍성읍 의용소방대 청사 전경


기 념 비

사진 170. 청사부지 기증에 대한 감사 기념비

홍성의 역사적 주요 소방활동은 크게 3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첫 번째 '홍성고등학교 화재'는 1972년 9월 28일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교실 16개실이 전소한 화재로 홍성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과 화재진압으로 연소확대를 저지했다.

두 번째 '일진전기 화재'는 2013년 7월 22일 15시 55분 콘덴서 설비 시험기 가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콘덴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내부 폭발로 발화하여 절연유 등에 옮겨 붙어 연소 확대된 화재이다. 일진전기 건물은 층고가 높아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성의용소방대원 200여 명이 동원되어 1시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세 번째는 2019년 3월 19일 06시 08분에 발생한 '(주)청운브레이크 공장 화재'이다. 화재로 브레이크 라이닝 공장 1동이 소실되었으며, 홍성의용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출동과 빠른 인명대피 유도로 기숙사동에 있던 직원들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성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45	홍성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7	장곡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67	홍북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69	결성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74	서부 · 갈산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75	광천읍 · 홍동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77	금마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80	은하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83	구항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86	홍성 · 광천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87	홍동면남성의용소방대 금당지역대 창설	
1994	홍동면남성의용소방대 부평지역대 창설	
1995	서부 · 갈산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97	구항 · 은하 · 홍동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98	금마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99	홍북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00	장곡 · 결성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8	홍동면남성의용소방대 부평지역대 폐지	


결성면 의용소방대 청사


금마면 의용소방대 청사


홍북읍 의용소방대 청사

14. 예산 의용소방대

예산 의용소방대는 광복을 전후로 하여 사회혼란 속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각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54년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게 되고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초로 설립된 의용소방대는 대흥면 의용소방대로 1940년 설치되었으며, 이후 1941년 예산읍 예산방위단과 삽교읍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각 읍면별로 모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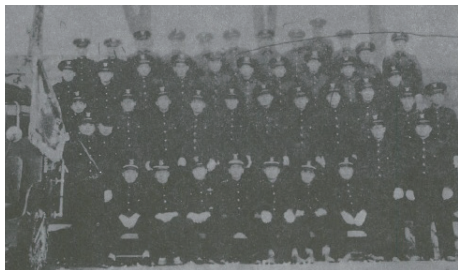


사진 171. 1941년 1월 1일 방위단 시동식 기념 사진

1968년에는 예산읍과 삽교읍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설립되었고,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고덕면의 예덕지대, 상궁지대, 구만지대, 덕산면의 나박소지대, 대흥면의 동부지대 등으로 분화되기도 하였다.

예산읍 의용소방대를 예로 들면 1941년 11월(일제시대)에 예산방위단으로 조직되어 초대 이종현 대장에 의하여 지역에서 자체 방위능력을 보완해 유지되어 왔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반공단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이종현 대장이 41년부터 51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대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1951년부터 예산인쇄소를 경영하던 조용호씨가 제2대 대장으로 추대되어 집무하다가 도의원에 당선되면서 대장직을 사임했다.

1953년 1월 7일 제3대 대장으로 서창재씨가 추대되었으며 1953년 3월 1일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반공단이 해체되고 예산읍 제1의용소방대로 개칭하였다. 그때 역전지역은 제2의용소방대, 신례원지역은 제3의용소방대로 분할되었으며, 의용소방대가 경찰서 관할에서 벗어나 군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대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1941년에는 경찰서 지휘를 받게 되어 경찰서 안에 사무실이 있었으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예산읍 예산리 1구 충남교통터미널 옆 2층 건물로 이전, 자체적으로 독립사무실을 보유하게 되었다.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게 된 대원들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합심하여 일해 왔으며 모든 일에 솔선하여 모범을 보였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화재 발생에 대하여 대원들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한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주민의 협조로 의용소방대 대복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예산군 당국에 의하여 소방차량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사진 172. 1945년 예산읍 예산리1구 충남교통터미널 옆 2층 건물로 이전해 독립사무실 보유하게 된 모습



사진 173. 1941년 예산읍대에 배치된 완용펌프(리어카식)

1960년 4월 10일 제4대 대장으로 이종대 대장이 취임하였고 63년에는 충남도지사로부터 소방장비검열 최우수상, 66년에는 치안업무 우수상, 66년 특수시책 최우수상, 69년에 소방검열 종합상을 수상했다.

1970년 8월 27일 제5대 대장으로 취임한 임덕노 대장은 운수업(충남교통 사장)에 종사하면서 소방업무에 앞장서 헌신하였다. 예산군 당국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부족했던 터에 4.5톤 물탱크차량을 비롯하여 부족한 소방장비를 구입하였고, 76년 소방청사를 충남교통터미널에서 경찰서 제2청사로 이전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70년에는 도경국장의 소방기술훈련상, 75년에는 도지사의 소방기술경연 우수상, 76년 도지사로부터 장비검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수상기록을 남겼다.

1980년 제6대 대장으로 취임한 최동학 대장은 예산군 의용소방대를 우수대로 이끌어 85년 도지사의 종합최우수소방대 표창, 87년 소방왕선발대회에 우승, 88년에는 도지사로부터 88종합우수소방대 표창을 받았다.

1991년 제7대 대장으로 취임한 성백덕 대장은 광역소방법의 발효 당시 솔선하여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로서 119소방순찰계획을 창안, 실천하였으며 대원들의 체육진흥에 힘써 93년 소방인 체육대회 우승, 94년 소방인 체육대회 장려상, 95년 군내 직장배구대회에 준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그 후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예산 의용소방대는 2014년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화재의 경계와 화재 진압, 구조 · 구급,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 화재 예방 업무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체계화되었다.

예산소방서의 역사적 주요 소방활동은 크게 2가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첫 번째 '비츠로셀 공장 화재'이다. 2017년 4월 21일 밤 10시 54분, 비츠로셀 공장 부지 내 관리동에서 폭음과 불꽃이 일어났고, 건물 내부에서 "쾅쾅"하는 폭발소리로 시작된 화재이다. 일부 연기를 흡입한 인명피해는 있었으나, 다행히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건물전체와 옆 건물로 옮겨 붙는 등 총 4개 동이 소실되어 45억 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한 예산소방서 개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기록하였다.

두 번째는 2020년도에 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이다. 호우경보가 예보되어 기상특보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었었고, 일 평균 180mm 이상의 비를 뿌려 161세대(30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긴급구호 신고 접수건수도 20. 8. 3. 당일에만 147건이 접수되었고,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시간대에 1분에 10건 이상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컸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해 269명의 인력이 활동을 하였고, 총 181건의 재난을 처리하였다. 예산군에서는 622억 원을 투입하여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였고,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전 대원이 호우피해 복구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예산소방서 덕산면남 · 여의용소방대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제33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단체경기인 '개인장비 착용&릴레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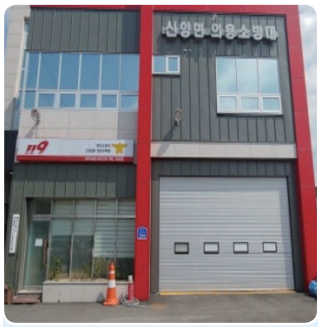
사진 174. 예산소방서 덕산면남 · 여의용소방대 기념사진

현재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남성대(6개대), 지역대(7개대), 여성대(8개대), 전담대(7개대)로 총 28개대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진압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을 담당제 운영, 각종 홍보활동, 자살예방 및 노인돌봄, 방역지원 등 자원봉사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고 있다.

예산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40	대흥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신암면 의용소방대 청사
1941	예산 · 삽교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3	신양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대술 · 덕산 · 광시 · 응봉 · 고덕면남성의용소방대(상궁지역대) 창설	
1948	신암면남성의용소방대, 예산읍남성의용소방대 신례원지역대 창설	
1953	오가면남성의용소방대, 예산읍남성의용소방대 서남지역대 창설	

예산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61	봉산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65	광시면남성의용소방대 장신지역대 창설	
1968	예산 · 삽교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70	고덕면남성의용소방대 구만지역대 창설	
1981	고덕면남성의용소방대 예덕지역대 창설	
1993	덕산면여성의용소방대, 대흥면남성의용소방대 동부지역대 창설	
1994	덕산면남성의용소방대 나박소지역대 창설	
2006	광시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2	오가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3	고덕 · 신양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2015	봉산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신양면 의용소방대 청사

15. 태안 의용소방대

1920년대 일제식민지 하에서 일본 국민의 민간 조직인 소방조(消防組) 제도를 모방하여 제정된 총독부령 소방조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어 1937년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경방단 규칙을 제정하여 소방조와 수방단을 해체하여 경방단으로 통합하였다. 이 시기에 태안은 지역 유지들이 모여 제1대 단장에 일본인 다까하시를 추대, 완용펌프 1대를 배치하면서 대원 25명으로 경방단을 발족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발대 당시 소방건물을 신축하여(사무실, 숙직실 1동, 장비창고 1동) 소방업무를 진행하였다. 그 후 제 2대 단장에 김명환 단장으로 이어져 소방을 담당하면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을 맞아 경방단은 해체되고, 다시 소방대가 조직되었다. 이때 태안은 초대대장 가경로 대장을 추대하면서 1946년 유명무실하던 소방조직을 재구성하여 대원 30명으로 발대하였다. 이 무렵 태안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등 여러 활동에 적극 활동을 벌여왔으나, 1952년 ~ 1953년까지 민병대를 조직케 함으로써 모든 청년단체가 해산되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어 1954년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 하기에 이르렀고, 1958년에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계속 발전하였다. 그 후 태안의용소방대는 1963년 지휘용 지프



사진 175. 1950년 원북면의용소방대 단체사진



사진 176. 지휘용 지프차(1963)



사진 177. 소형 펌프차(1972)

차를 1대 배치, 1972년에 소형펌프차를 내무부로부터 인수받아 1대 더 배치하여 소방 장비를 강화하면서 소방 발전에 큰 역할이 되었다. 이 당시에는 주 · 야 교대근무를 실시하여 상시 출동체계를 유지하였고, 매월 1일 · 15일에는 전 대원이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의용소방대의 체계를 더욱 더 확립하게 되었다. 1981년 시 · 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준칙에 따라 시 단위 의용소방대에 부녀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1984년에 부녀대를 의용소방대에서 분리하여 부녀의용소방대로 하였다. 이로 인해 1989년에는 태안읍(초대대장 김정자) · 안면읍(초대대장 이순례) 부녀의용소방대가 발대하게 되었다. 현재는 남성대(6개대), 여성대(8개대), 전담대(2개대)로 총 16개 의용소방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진압 및 보조활동, 마을담당제, 자살예방, 홍보활동 등 지역안전지킴이로서 태안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주요재난 활동으로는 첫 번째 “태안 기름유출사건”이 있다.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태안 앞바다의 원유 유출 사고는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와 삼성물산 소속 ‘삼성 1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총 12,547㎘의 원유가 태안 해역으로 유출된 사고이다. 인천대교 공사를 마친 삼성 1호 크레인 부선(동력이 없는 배)을 예인선이 경남 거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부선이 인근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하여 벌어진 일이다.

초기에 파도가 심하여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데다 원유가 오일펜스를 넘어가 피해가 커졌다. 파손된 유조선은 이틀 만에 겨우 구멍을 막았지만, 이미 태안군의 양식장, 어장 등 약 8,000㏊가 원유에 오염되었다. 원유가 뭉친 타르 덩어리는 점차 빠르게 확산되어 12월 30일에는 전라남도에서 발견되었으며, 2008년 1월 3일에는 제주도 북쪽 추자도에서도 발견되었다.

전문가들도 회복 불가능이라고 전망했던 태안 앞바다가 전국의 각지에서 모여든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자발적으로 비번일을 반납하며 땀흘린 서산 · 태안지역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활동으로 인해 단 3년만에 기적적으로 방제 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만리포 바다와 그 외 기름유출 피해바다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많은 관광객이 여름철 태안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는 이를 기리고자 "태안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태안서부시장 화재"이다. 2010년 6월 4일 22:00경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서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상가 건물 전체가 화재에 취약한 재래시장이라는 점으로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5개 점포가 소실되었으며 3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나은 이번 화재는 태안소방서가 개소되기 전이라 태안119안전센터가 위치하고 있었지만 대형화재를 막기에는 소방장비가 부족하였고, 서산소방서는 18.5km의 비교적 원거리인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소방력 250여 명, 차량 18대를 포함하여 한전, 군청 등 여러 유관기관의 공조속에 1시간여만에 화재를 진화하였다. 이번 화재는 태안소방서 유치의 필요성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사건이었다.

태안 의용소방대 창설 연혁

설치연도	설치지역	청사사진
1946	태안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89	태안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안면읍남성의용소방대 창설	
1989	안면읍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8	고남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15	고남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남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11	남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근흥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2011	근흥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8	소원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14	소원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6	원북면남성의용소방대 창설	
2015	원북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1949	이원면전담의용소방대 창설	
2015	이원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근흥 의용소방대 청사



원북면 의용소방대 청사




구급대 발대




충남소방본부


소방헬기 119 진화대 운영
119 Helicopter Operations in Aerial Fire-fighting

忠南消防行政史

제3장

소방행정분야별 발전사

제1절 소방행정

제2절 소방장비

제3절 예방홍보

제4절 화재대응

제5절 구조대응

제6절 구급대응

제7절 특수구조

제8절 상황관리

제9절 화재조사 및 소방사법

제10절 소방사법

제3장
소방행정분야별 발전사

제1절 소방행정

1

01.
조직 및 인력

02.
보건 · 안전관리

01. 조직 및 인력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사무의 주체는 기존 시군에서 시도로 새로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4월 10일에는 민방위국 산하에 있던 소방과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충청남도소방본부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소재에 위치한 충남도청 내에 신설되었다.

초창기의 충청남도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로 구성된 2개과의 체제였으며, 정원은 총 26명이었다. 소방행정과에는 소방행정계, 장비계, 감찰계가 있었고, 방호과에는 방호계, 예방계, 교육계가 있었다. 이러한 소방본부의 산하에는 5개의 소방서(천안 · 공주 · 대천 · 온양 · 서산)와 18개의 소방파출소(현 119안전센터)가 있었으며, 당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은 604명이었다.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 – 최초 소방본부 발족 시(1992년) [단위:명]

합계	본부	학교 (준비단)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	계룡 (출장소)	연기군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604	26	4	125	133	86	62	96	1	3	18	16	4	8	2	9	2	9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신설된 초기의 소방공무원 신분은 기존의 국가직과 지방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국가직 68명, 지방직 536명)였으나, 1994년에 이르러서는 소방본부장과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을 충청남도 소속의 지방직 신분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소방본부가 발족할 당시에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가 없는 지역의 소방사무는 시군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1995년에 '소방서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 공포함으로써 도내 모든 지역을 5개 소방서의 관할지역으로 지정 분할함에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광역 소방행정체제가 구축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성수대교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의 대형 참사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조구급업무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민간차원에서의 구조구급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빠르게 발전하던 충청남도 또한 구조구급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95년에 충청남도소방본부 내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며 기존 2과 6계 체제에서 3과 8계 체제의 조직으로 재편 되었으며, 새롭게 신설된 구조구급과 산하에는 구조계와 구급계를 두었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금융 사태로 인하여 1998년에 소방본부는 민방위분야와 통합되게 된다. 이때 2년 전 신설되었던 구조구급과는 폐지되고, 재난관리과는 소방본부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충남소방본부라는 부서명은 충남소방안전본부 라는 부서명으로 변경되었고, 소규모 구조조정도 단행되어 총 1,203명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총 1,112명으로 91명이 감축되었다.

그 후 1999년에는 소방안전본부 산하의 3과 9계가 다시 2과 10계로 재편되면서 기존의 방호구조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 안전관리과로 개편하였으며, 소방행정과 내에는 민방위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행정과 산하에는 소방행정계, 장비계, 소방지도계, 민방위계가 있었으며, 안전관리과 산하에는 방호계, 예방계, 구조구급계, 재난관리계, 안전점검계, 종합상황실이 있었다. 이후 2000년에는 소방항공대가, 2002년에는 소방정보통신계와 화재조사계가 신설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서 홍성소방서, 예산소방서, 당진소방서, 부여소방서가 차례로 신설되면서 2005년 말 경에는 1개 소방학교, 10개 소방서, 36개 소방파출소(현 119안전센터), 11개의 구조대가 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도 1,407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방안전본부는 기존의 2과 12계 체제에서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기동점검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면서 3과 12계의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후 2008년에 이르러서는 서천소방서, 금산소방서, 연기소방서가 차례로 개서하였고 이들 지역에 10개소의 119안전센터와 4개소의 119구조대가 신설되면서 충청남도소방공무원 정원은 1,633명으로 또 한 번 증가되었다. 이는 1992년 충남소방본부가 발족한 이래로 불과 15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무려 3배 이상의 인원이 증가한 놀라운 발전이었다.



사진 1. 2005년 5월 27일 홍성소방서 청사 준공식

그 이후에도 원거리 농어촌 지역에 119안전센터들이 차례로 설치되고 천안 지역에 천안서북소방서가 새로이 개서하면서 2011년에는 소방공무원 정원이 2,059명으로 증가 하였으나, 2012년에 연기소방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면서 1,986명으로 다시 감소하게 된다.

이때의 충남소방안전본부 산하에는 1개 소방학교, 13개 소방서, 13개 구조구급센터(구조대와 직할안전센터 구급대 통합), 3개 구조대, 62개 119안전센터가 있었다. 또한,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내 종합상황실이 종합방재센터로 변경되면서 과(課) 단위 부서로 격상되면서 기존 3과 체제에서 3과 1센터 체제로 바뀌게 된다.


사진 2. 2008년 8월 27일 3교대 근무관련 특별교육

주 5일제 근무가 사회의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존 2교대 근무 기준으로 근무를 시행하던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수당지급 문제 또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충남소방안전본부에서는 3교대 근무 기준으로 소방인력을 전환배치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먼저 부족한 소방 인력의 보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고 각 부서들의 기능을 조정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년도부터는 충청남도의 소방공무원 모두가 3교대 근무를 전면시행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2012년 3교대 전면 시행 당시 충남 소방공무원 정원 [단위:명]

합계	본부	학교	동남	서북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1,988	88	18	124	158	139	134	166	225	172	149	89	115	120	181	110



사진 3. 충남소방본부 119광역기동단

2013년에는 안전자치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기존 소방안전본부 소속의 재난민방위과가 다시 소방안전본부에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그 명칭을 소방본부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기존 3개과 1센터에서 2개과 1센터 13팀으로 재편되게 된다. 2015

년에는 대형 · 특수재난에 특화된 과(課) 단위 부서인 119광역기동단이 신설 되었으며, 그 산하에 재난대책팀, 구급팀, 구조팀, 소방복합시설 추진팀 등 6개 팀이 설치되어 소방본부는 2과 1단 1센터 19팀으로 증설 되었고 소방본부의 인력도 131명으로 증원되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장 부족인력에 대한 대규모 충원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수는 무려 1,485명이나 증가하게 되어 2021년에는 그 수가 4,099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렇듯 급격하게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및 현장지휘 등에 대한 필요성이 또한 대두되었다. 결국 이를 위해서 2021년에는 소방청렴조사과를 신설하고 소방안전감사팀, 소방특별조사팀, 구급상황관리팀을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종합방재센터의 명칭을 종합상황실로, 119광역기동단의 명칭을 특수구조단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소방본부 내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하고 특수구조단 내에는 현장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소방본부는 4과 1단 1실 25팀이 되었으며, 소방본부 정원은 203명이 되었다.

충남소방본부가 1992년 발족할 당시 본부 조직은 2과 6팀, 정원은 26명이었으며, 소속 기관으로는 5개 소방서와 18개 소방파출소(현 119안전센터)가 있었고 소방공무원 총 정원은 604명에 불과했다.

그 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 충남소방본부의 조직은 4과 1단 1실 25팀, 정원은 203명으로, 소속 기관으로는 1개 소방학교, 16개 소방서, 80개 안전센터, 16개 구조구급센터, 1개 소방정대가 있고 소방공무원 총 정원은 4,099명으로 크게 증원되었다. 1992년 충남소방본부가 처음 발족한 이래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남소방은 해마다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충남소방본부의 팀은 6개에서 25개로, 그 정원은 26명에서 20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소방공무원의 총 정원 또한 604명에서 4,099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19안전센터 또한 18개에서 80개로 증가하였다.



사진 4. 2020년 11월 7일 중앙소방학교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

충남소방본부 발족 이후 연도별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 [단위:명]

구분	계	소방본부	충청소방학교	소방서(시·군)																
				천안동남	천안서북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2021년	4,099	203	48	263	357	277	244	320	282	253	127	305	173		214	238	147	237	198	213
2020년	3,741	195	44	245	321	252	223	296	252	234	115	275	161		195	209	133	219	180	192
2019년	3,353	178	39	229	294	223	200	268	228	213	97	246	148		171	171	119	196	163	170
2018년	3,008	166	38	203	271	196	178	247	201	193	86	220	133		150	149	108	176	145	148
2017년	2,710	149	30	185	234	182	161	223	177	178	79	206	121		132	132	98	159	132	132
2016년	2,422	146	19	155	182	172	151	189	167	165	55	194	108		122	126	82	148	116	125
2015년	2,243	133	19	143	170	162	144	180	148	187		179	105		122	123	70	143	113	102
2014년	2,144	130	19	137	158	153	134	166	145	182		173	102		115	120	70	141	110	89
2013년	2,092	105	19	137	158	153	134	166	158	182		166	89		115	120		191	110	89
2012년	2,027	126	19	124	158	139	134	166	225	172		149	89		115	120		181	110	
2011년	2,101	124	19	128	148	144	138	173	218	163		145	93	88	119	120		172	109	
2010년	2,075	118	19	256		144	138	173	218	163		145	93	88	119	120		172	109	
2009년	1,843	116	19	244		130	123	138	197	133		126	76	72	114	102		160	93	
2008년	1,678	118	19	216		123	116	126	184	124		105	67	63	105	82		146	84	
2007년	1,537	121	21	184		143	110	110	169	112		93	65		103	80		144	82	
2006년	1,456	116	15	178		141	108	108	167	148		93			156			144	82	
2005년	1,452	112	15	178		141	108	108	167	148		93			156			144	82	
2004년	1,450	110	15	178		141	108	108	167	148		93			156			144	82	
2003년	1,388	108	12	167		141	162	99	168	209		93						147	82	
2002년	1,304	107	12	166		140	161	151	231	199								137		
2001년	1,212	97	12	166		140	232	151	215	199										
2000년	1,130	68	11	158		133	221	144	205	190										
1999년	1,120	36	7	163		137	225	148	209	195										
1998년	1,118	36	5	163		137	225	148	209	195										
1997년	1,211	44	30	175		146	235	157	220	204										
1996년	1,177	44	30	175		331	234	147	216											
1995년	1,060	44	29	165		288	210	127	197											
1994년	930	36	23	163		203	169	111	147	18	1	9		3	16	4	10	2	9	6
1993년	694	27	19	133		153	103	77	104	18	1	9		3	16	4	10	2	9	6
1992년	604	26	4	125		133	86	62	96	18	1	9		3	16	4	8	2	9	2

02.
보건·안전관리



사진 5. **화재진압 후 휴식중인 소방관**

'재난은 잠시도 잠을 자지 않는다.' 그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해서 상시 재난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그들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대부분은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급박한 재난현장 안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화재현장 안에서의 소방공무원들은 강한 열과 유독가스 등의 위험 인자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며,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공기호흡기, 방화복 등)를 착용한 상태에서 현장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강도의 육체적 부담 또한 필히 수반된다. 그리고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서 필연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장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라는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그들의 정신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간다. 이로 인해 많은 소방공무원들은 우울증, 수면장애 정신 질환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육체적인 부상의 위험은 따로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그들의 업무는 일반적인 산업체나 타 직종 공무원에 비해서 직무 환경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1945년부터 2020년도까지 약 10,926명(순직 376명, 공상 10,550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하거나 다쳤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들의 고통에 무심했고 아무런 대가없는 희생만을 그들에게 강요해 왔다. 그러던 중 2001년 서울 홍제동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발생 이후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잠시나마 집중되었고 그 덕분에 공 · 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건강관리 등에 관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었다. 2012년 2월 22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고, 충청남도에서도 이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9년 5월 30일 조례 제4523호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소방공무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 특성으로 현장에서 부상이 잦고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등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러한 직무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 ·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충남에서는 순직 4명, 공상 173명 등 총 177명의 공 ·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안타까운 첫 번째 순직사고는 충남 서산 가야산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헬기가 추락 사고였다. 2011년 3월 19일 오전 6시49분께 산불 진화에 동원된 소방헬기가 대곡저수지에서 물을 퍼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저수지에 추락해 헬기에 탑승했던 故 조승형 정비사가 순직하고야 말았다.



사진 6. 2011년 3월 21일 순직 소방공무원 영결식

두 번째 순직사고는 태안소방서 안면119안전센터 소속 故 박현우 소방장이 2016년 9월 21일 오후 2시 36분경에 태안 안면지역 도로변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달려오는 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9월 26일 결국 순직했다.



사진 7. 2016년 9월 29일 순직 소방공무원 영결식

세 번째는 2018년 3월 30일 '도로를 뛰어 다니는 개가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조활동(동물포획)을 위해 국도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차량을 25t 트럭이 추돌하여 아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1명과 임용예정 실습생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안타깝게 사망한 임용예정 실습생들을 위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후 교육생들에게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8. 당시 사고 소방차량 모습



사진 9. 2018년 4월 2일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영결식

최근 10년간 충남소방 순직 및 공상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순직							공상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기타
합계	177	4	1	0	0	3	0	0	173	40	7	43	15	9	59
2020년	30	0	0	0	0	0	0	0	30	5	0	7	0	4	14
2019년	28	0	0	0	0	0	0	0	28	11	2	6	1	0	8
2018년	22	3	0	0	0	3	0	0	19	4	1	2	2	1	9
2017년	21	0	0	0	0	0	0	0	21	3	1	9	1	1	6
2016년	10	0	0	0	0	0	0	0	10	3	0	2	2	1	2
2015년	9	0	0	0	0	0	0	0	9	0	1	1	3	0	4
2014년	10	0	0	0	0	0	0	0	10	2	0	1	3	0	4
2013년	13	0	0	0	0	0	0	0	13	2	0	7	0	1	3
2012년	20	0	0	0	0	0	0	0	20	8	1	4	2	0	5
2011년	14	1	1	0	0	0	0	0	13	2	1	4	1	1	4

충남소방에서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각종 사회기업, 소방공제회 등에서 운영하는 공상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신체 및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 홍성의료원 등 도내 4개소를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사진 10. 2012년 4월 10일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협약식

소방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1982년부터 2년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유소견자에 대한 조기 치료를 위하여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당시 건강진단은 진찰, 순환기질환, 당뇨질환 등 주로 성인병에 대한 검사 항목들로 소방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직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화재현장 및 각종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신체적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미흡하고, 근무환경에 따른 신체부위별 정밀진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정밀건강진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0년 1월 7일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을 위하여 연 2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 ·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003년도에 노동부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를 질의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이 가능하단 회신을 근거로 매년 광역자치단체에 실정에 맞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은 노동부의 포괄적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적인 확실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며,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필수항목(27개 항목)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시도별 불균형이 심하였다.

하지만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54호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제14조의3(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계획)을 신설하고 2012년 2월 22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다.

이후 소방공무원 직무환경에 적합한 건강진단 및 관리체계 도입을 위하여, 심뇌혈관계, 근골격계, 교대근무&암발생, 감염성질환 등 주요 발생빈도 항목 등을 추가하고, 수시 및 정밀건강진단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도 내외 16개 검진병원을 통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20년도 충남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 47.3%가 건강 이상 판정자(요관찰자와 유소견자를 합한 비율)로 나타났다.



사진 11.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대원**



사진 12. **2018년 계룡소방서 구급대원 감염방지위원회**

연도별 충남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 [단위: 명, %]

구분	실시인원	요관찰				유소견			
		직업병		일반질병		직업병		일반질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0년	**3,265**	332	10.2	1076	33	15	0.5	335	10.3
2019년	**2,793**	301	10.8	1,156	41.4	11	0.4	253	9.1
2018년	**2,461**	250	10.2	1045	42.5	21	1	258	10.5
2017년	**2,321**	198	8.5	925	39.9	12	0.5	206	8.9
2016년	**2,226**	206	9.3	1,201	54	11	0.5	219	9.8
2015년	**2,125**	85	4.1	778	37.2	6	0.3	157	7.5
2014년	**2,038**	122	6	560	27.7	52	2.6	128	6.3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육체적인 노동과 사고위험에 따른 신체적 위협 외에도 참혹하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난 후 따라오는 PTSD, 야간 교대근무, 긴급 출동 등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로 수면장애, 우울증 등 각종 정신건강의 위협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며, 국민의 안전과 연결되는 119소방서비스의 품질저하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이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 이후 특수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설문 전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신건강 설문조사는 시도별로 시행해오다 2018년부터는 소방청 주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PTSD, 우울증, 수면장애와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등을 확인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자살관련 문항도 포함하여 이후 고위험군에 대해서 개별대면을 통해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대책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3조, 제7조 및 14조의 규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제25조(심신안정 환경 조성)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 있다.

충남소방에서는 2013년 천안동남 및 천안서북소방서 본서에 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6개소의 심신안정실을 설치 · 운영중이다. 심심안정실은 멘탈케어와 바디케어룸을 기본 구성으로하고 그 안에 산소발생기, 영상장치 등을 설치하여 현장활동에 따른 심리 안정과 긴장 완화 등 심신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충남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검진 인원	유병 인원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					수면장애				
			계	치료필요		관리필요		계	치료필요		관리필요		계	치료필요		관리필요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0년	3,218	1,001 (31.1)	148 (4.6)	95	3	53	1.6	112 (3.5)	39	1.2	73	2.3	741 (23.0)	177	5.5	564	17.5
2019년	2,764	866 (31.3)	105 (3.8)	72	2.6	33	1.2	115 (4.2)	51	1.8	64	2.3	646 (23.4)	117	4.2	529	19.1
2018년	2,492	728 (29.2)	82 (3.3)	56	2.2	26	1	115 (4.9)	58	2.3	57	2.3	531 (21.3)	123	4.9	408	16.4
2017년	2,360	878 (37.2)	67 (2.8)	40	1.7	27	1.1	133 (5.6)	110	4.7	23	1	678 (28.7)	346	14.7	332	14.1
2016년	2,174	1,313 (60.4)	184 (8.5)	91	4.2	93	4.3	413 (19)	280	12.8	133	6.1	716 (32.9)	405	18.6	311	14.3

또한 예방단계에서 고위험군 발굴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전문상담사가 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예방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2015년 아산소방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관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별면담 및 집단면담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 및 현장활동 스트레스 저감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과 진료비용 지원사업, 힐링캠프, 국내 배낭여행 프로그램, 긴급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소방에서는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시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10월 도내 의료원 4개소(천안 · 공주 · 서산 · 홍성)에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를 설치하였다.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에 전문상담사 1인을 배치하고, 소방가족 누구나 PTSD를 포함한 업무 고충 · 일상적 스트레스 · 가정불화 등의 고민을 타 직원들의 노출 우려 없이 언제든지 찾아와 상담할 수 있으며, 24시간 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2021년 4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4960호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재정하여 마음공감센터의 법적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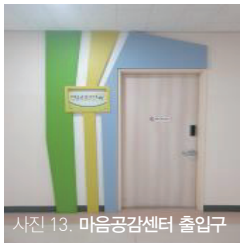

사진 13. 마음공감센터 출입구


사진 14. 마음공감센터 내부



사진 15. 마음공감센터 개소식

제3장
소방행정분야별 발전사

제2절 소방장비

2

01.
소방장비 보급과 확대

02.
개인보호장비

03.
소방복제

04.
소방장비 이동정비반 운용

01.
소방장비 보급과 확대



사진 16. 완용펌프

한국전쟁이 막 종료된 1954년 처음 발간된 충남 연보에 따르면 충남이 보유한 소방차량은 대전소방서의 3대가 고작 이였고 소방공무원 역시 23명에 불과하였다.

당시 화재진압의 주요 장비는 소방차량이 아닌 소방 펌프였으며 동력식보다 완용펌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어려웠던 경제 사정과 소방업무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소방서 등 소방조직, 소방공무원, 소방장비 등 모든 분야가 열악했던 시기였다. 당시 화재진압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화재가 발생 하면 소집되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기였던 60년대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노동집약적인 경제구조 등 늘어나는 소방 수요로 인한 소방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날로 향상되어 소방 조직과 소방장비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다.



사진 17. 1956년 원조 도입



사진 18. 주민 기증

1970년에 천안소방서가 개서하여 소방공무원 15명이 증가, 대전소방서 31명을 포함 충남 전체 46명이 되었으며 천안소방서 보유 소방장비는 소방차량 4대, 일반차량 2대였다. 아직도 소방차량이 이전보다 그 숫자는 늘어났지만 동력 및 완용펌프가 화재진압의 주요 장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소방차량은 미국 잉여 차량의 원조, 해외 노후 소방 차량을 민간단체 및 개인이 기부, 해외 차량을 국내에 들여 소방용으로 개조한 것 등으로 제작년도가 오래되어 고장 · 정비에 필요한 부품 조달 등 소방차량 유지보수에 많은 어려움 있었다.

1970년대는 충남 소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75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도에 민방위국 소방과가 신설되었으며, 1975년부터 현재 방식과 유사한 소방차량 분류를 사용한 것을 충청남도 통계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까지 많은 보유량을 보였던 소방펌프는 그 수량이 줄어들고 특수용도의 소방차량, 구급차량의 등장으로 특수한 화재 및 구급활동 등으로 소방의 업무가 확대되고 그에 걸맞는 장비들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주목할 점은 소방차량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어 소방차량 보급률 증가, 차종의 다양화, 성능향상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소방 장비의 발전과 보급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국가 차원에서 소방장비 보강의 의지를 보였던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이 1972년부터 시행되었다.

사회 전반의 급격한 공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소방사무 역시 그 범위와 업무량이 많은 팽창을 이뤘으며 소방 장비도 그 종류 및 보유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잇따라 유치하며 구조, 구급업무의 필요성과 그 수요에 따라 구급차량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국산소방차 보급에 따른 펌프차량 역시 상당한 보유율 증가를 보였다.



사진 19. 1980년 동아자동차 펌프차

제3 · 4차 소방장비 보강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방차량 국산화를 촉진하여 1983년에 46m 고가사다리차를, 1984년에는 32m 고가사다리차, 배연차, 조명차를 국내 최초 생산, 공급하게 되었다.

같은 기간 충남 소방도 소방 펌프차량 91대, 구급차량 11대 등 무려 114대가 증가하였다.



사진 20. 1982년 구급차



사진 21. 1988년 의용소방대에서 기증



사진 22. 1988년 동아자동차 펌프차



사진 23. 1988년 남영자동차 펌프차

1991년 12월 14일 개정소방법에 따른 광역 소방행정 체제 구축은 대한민국 소방사의 큰 사건이며 현재의 소방 조직 및 장비 체계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각 도의 소방조직을 과 단위에서 본부로 확대 설치되고, 소방공동시설세가 시,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된 점은 소방장비 보강의 업무가 시, 군 간의 재정 격차 및 시, 군 행정력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충청남도 전체의 소방력 평준화와 노후장비 교체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광역행정을 운영하는 시 · 도 역시 지역마다의 재정자립도 격차와 안전분야 대한 예산편성의 차이 등으로 소방인력 배치 및 장비보급에 대한 편차는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재정여건은 내용연수 10년을 넘어 15년, 20년 가까이 운행하는 소방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소방관서의 신설에 따른 신규 소방장비를 제때 보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었다.

더딘 속도로 개선되던 소방 장비 보강은 2014년 세월호 침몰이라는 엄청난 사고로 인해 재난 대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안전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과감하게 변화되었다.



사진 24. **소방헬기**

그 중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웠던 소방장비 보강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으로 충남 소방의 차량 보유율 및 노후율은 빠르게 개선되어 2018년 드디어 소방차량 노후율이 0%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복잡 다양한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수요의 소방장비 [소방헬기(1999년), 안전체험차(2004년), 소방정(2015년), 카프차(2016년)]도 단계적으로 보강하였다.


사진 25. **소방정**



사진 26. **카프(CAFS)차량**



사진 27. **이동 안전체험차량**

02.
개인보호장비

화재를 진압하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위험한 환경과 마주하며 개인의 안전을 위협받아 왔다.

소방 장비의 보강은 어려웠던 경제 여건 및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 등의 영향으로 화재진압에 직접 사용되는 소방차량 위주였으며 소방대원의 개인용 보호장비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소홀하였다.



사진 28. 2001년 3월 4일 홍제동 순직소방관 영결식

이러한 여건과 인식이 바뀌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2001년 3월 4일 서울시 홍제동에서 발생하였다. 새벽 주택화재 진압 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 7명이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로 순직하게 되어 온 국민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진화 작업을 벌였던 소방공무원이 열 보호 성능이 없는 긴 고무장화에 물 침투를 막는 방수기능이 고작인 방수복을 착용하고 화재진압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방 공무원들의 개인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방호복 등 8개 품목의 개인보호장비 보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진 29. 목장갑을 착용한 구조대원


사진 30. 고무장갑을 착용한 진압대원

2001년 5월 방화복 · 안전화 · 헬멧 · 안전장갑 등 4개 품목의 국가공통규격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 동일한 규격의 개인보호장비 사용이 시작됐으며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걸친 제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부터 개인보호장비 및 진압장비 보강이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충남 소방은 2013년부터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이 100%를 상회하였지만 노후율이 10%를 웃돌아 노후율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4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덕분에 개인보호장비의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에 많은 힘이 되었다.

충남소방 개인보호장비 종류


공기호흡기


특수방화복


진압헬멧



안전헬멧


안전화


진압장갑


안전장갑


방화두건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된 14년부터 꾸준한 개인보호장비 개선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보급률 100% 이상, 노후율 0%의 목표를 달성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보호장비 9종에 긴급구조통제단 및 생활구조 업무에 특화된 안전헬멧 및 안전 장갑이 추가되어 11종의 개인보호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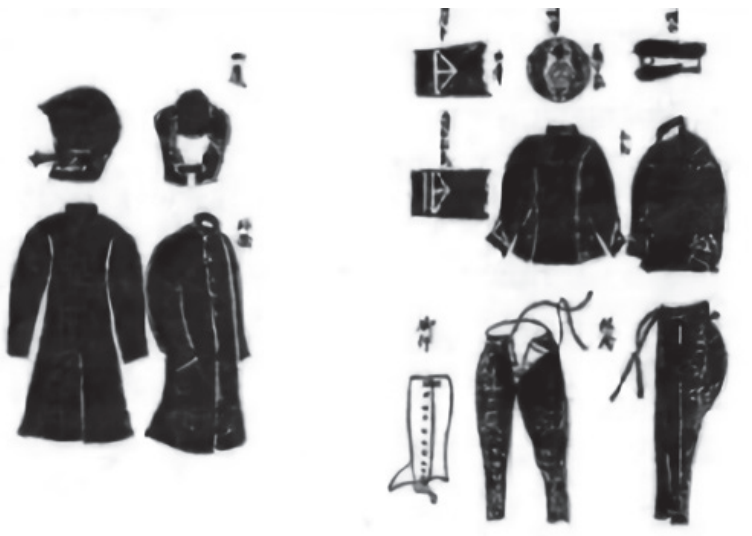
개인보호장비는 진압대원, 준진압대원, 지원요원으로 구분된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보유기준이 상이하며 공기호흡기 용기(정기검사, 위생검사 등)를 제외한 모든 장비는 개인에게 배부되고 소방장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매년 각 소방서는 불용장비 심의회를 개최하여 노후 개인장비를 불용하고 소방본부는 개인장비 지급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장비교체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보호장비를 구매 · 지급하고 있다.

03.
소방복제

융희2년(1908년) 예규철에 훈령으로 되어 있는 소방수 복제 도례(圖例)와 1911년 3월 2일 '상비소방수 복제를 개정'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복제가 제도적으로 착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8년 소방수 복제 도례(훈령갑 제19호)[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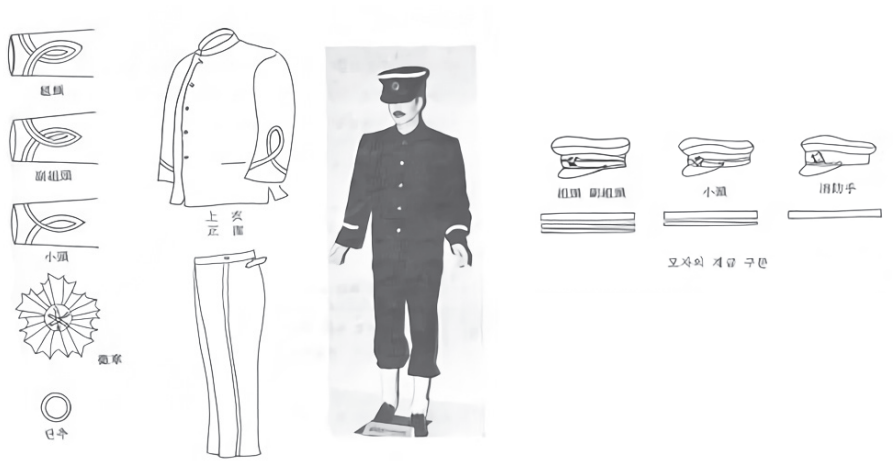


그 후, 조선총독부령으로 소방조 규칙소방조규칙[12]이(1915년 6월 제65호)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16년 4월 28일 경무부의 소방조 규칙 시행 세칙을 제정 · 시행하여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게 되는데 당시 소방조 복제의 도례는 다음과 같다.

11) 「예규철」, 총감관방문서계(總監官房文書係), 융희2년(19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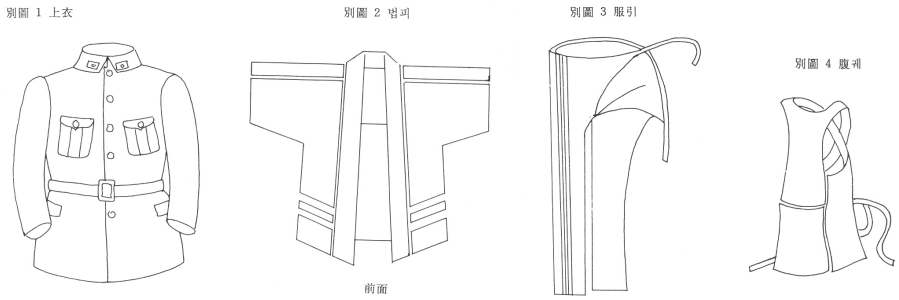
12) 소방조규칙 10조에 「소방조원의 정원, 휘장, 복장, 급여 상여 및 기구기계 등에 관하여는 도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무부장이 정한다」로 규정

1910년 소방조 복제 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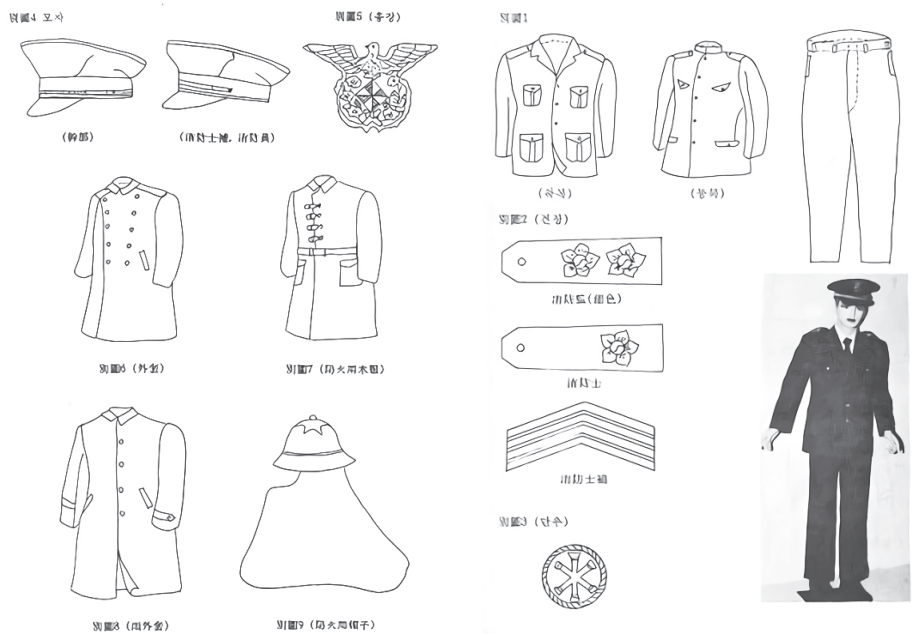
의용소방대의 전신인 경방단은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시작한 후 1937년 중일전쟁으로 확대하여 전시 체제를 갖추면서 1937년 11월 18일 반공법의 조선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어 1939년 7월 3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경방단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소방단과 수방단을 해체 · 통합하여 경방단으로 하였으며, 1939년 8월 28일 경방단 복제 규칙이 제정되었다. 경방단원은 단장, 분단장, 부분단장, 부장, 반장, 경방원으로 구분하여 복제를 다르게 하여 착용하였으며, 갑종 · 을종으로 구분하여 피복을 규정하였는데 갑종에는 상의, 을종에는 법피, 복인, 복궤로 구분하였다.

1930년대 경방단 복제 도례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로 국가 공무원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소방관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일반직 신분이던 소방공무원은 1949년 9월 3일 대통령령 제180호로 소방관 복제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제정시 소방관 복제의 주요 내용은 계급을 소방감, 소방사, 소방사보, 소방원으로 구분하고 상의, 하의, 모자, 외투 작업복, 방화용 방수복, 우외투, 방화제 모자, 구두로 구분하여 재질과 제식 등을 규정하였다. 제정 당시에는 국방색이 많았는데 이것은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소방관 복제 도례(1949. 9. 3.)



그 후 소방관복제가 소방공무원 복제로 새롭게 개정될 때까지 수차례 변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경찰공무원 제복과 유사하게 착용하였다.

그 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42호) 소방공무원 신분이 경찰공무원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계급장 및 흉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복제를 1978년 7월 15일 대통령령 제9093호로 개정(이전 규정은 소방관복제)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소방공무원과 지방 소방공무원 복제를 동일하게 하였고, 소방서장 지휘

관 표장이 신규로 제정하였다. 그 후 1982년 5월 29일 한 차례 개정하였는데, 소방공무원의 복제가 경찰공무원의 복제와 유사하여 국민이 이를 혼동할 우려가 크므로 소방공무원의 복제를 경찰공무원의 것과 구분되게 하여 소방공무원의 독자성을 부각하고,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하며, 업무 수행에 능률적인 복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예식에 참석하는 경우에 착용할 예복을 신설하였다.

1982년 12월 31일 소방공무원법 개정 시 소방공무원 복제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제를 폐지하고 1983년 4월 15일 내무부령 제392호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또한, 1955년 3월 29일 제정된「소방관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은 1978년 5월 19일 대통령령 제9024호「소방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정」으로 제정되어 운영되다가, 1985년 12월 7일 내무부령 제437호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 개정시 흡수되었다.

소방공무원 복제(1982. 5. 29.)



예복(동예복 · 하예복)



동정복 · 하정복



동근무복 · 하근무복

한편, 1988년 올림픽 개최에 따라 전국 주요 도시에 9개 119특별구조대가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당시「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는 구조대원의 복제가 들어 있지 않아 1988년 4월 30일 내무부훈령 제938호로「119구조대원 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구조대원의 복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후 계급 신설, 조직 개편 등으로 복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소방공무원의 복제를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과 색상, 재질로 개선하여 소방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였다. 제복의 종류 및 지급 방법도 개선하였는데 제복의 종류는 단순화(16종→11종) 및 통일성을 기했고, 지급 방법도 실수요 위주의 제복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여성소방공무원을 위한 임부 근무복도 도입하였다. 그 후 2005년 3월 31일 개정시 3급상당의 소방준감 · 지방소방준감 계급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소방모 · 계급장 · 표지장 및 대여 품목표를 정비하였다.

소방공무원 복제(2001. 7. 1.)


예복


정복


동근무복


하근무복


임산부근무복


기동복


우의


춘추잠바


동잠바


방한점퍼


조끼


반소매 티셔츠


구조화


기동화(남자, 여자)


단화(남자, 여자)

2001년 이후 약 8년 만에 현장 활동에 필요한 편의성과 기능성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권위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실용성을 강조한 복제 규칙 개정을 단행하였다.

복제 규칙 개정은 (주)제일과 홍익대학교 산업협력단이 2008년 9월 16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 5개월간 진행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추진됐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샘플 품평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이 결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착용해 왔던 주황색 기동복의 명칭을 활동복으로 변경하고 옷감의 재질은 땀 흡수력과 탄력을 높여 기능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근무복은 제복이 풍기는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에게 친밀감을 주도록 개선했으며 착용 빈도가 낮은 예복은 폐지하여 정복과 통합하고 정복은 각종 의식이나 행사에 착용하는 점을 고려해 디자인은 기존 형태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고 품질만을 높였다. 그리고 비행복과 훈련복, 수난활동 반바지, 체력단련복, 우천 활동복 등 특수업무 수행에 착용하는 '특수장'을 신설하여 현장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불필요한 '대여 제복 제도'를 폐지하고 지급 기준도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구분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선택 지급에 따른 직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2009년도에 이어 9년 만인 2018년도에 제복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게 되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국정감사와 현장 대원들의 재질 개선 요청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소방공무원 복제(2009. 5. 26.)



정복



근무복



임부근무복



춘추 · 동잠바



기동복



활동복



조끼(진압 · 구조 · 구급대)



방한복



훈련복



우천활동복



수난활동복반바지



비행복



활동화



단화(남자, 여자)



정모(남자, 여자)

소방공무원 복제(2018. 11. 13.)


정복


근무복


점퍼


외투


기동복


활동복


조끼(진압 · 구조 · 구급대)


방한복


훈련복


우천활동복


수난활동복반바지


비행복

04.
소방장비 이동정비반 운용

충남소방은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소방차량의 경우 2010년 514대로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본다면 전체 차량 중 162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노후차량 이었으며, 화재진압 활동이 가장 많은 펌프차는 무려 50%, 물탱크차는 29%가 노후 차량이었다.

노후 차량을 운용한다는 것은 장비의 잦은 고장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와 화재 현장에서의 오작동에 따른 재난피해 증가, 장비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

가장 좋은 대안은 노후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상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또한 장비를 운용하는 소방공무원의 장비 분야 전문지식 부족과 평상 시 장비운용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이 장비 유지 · 관리에 큰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남 소방에서는 소방 장비의 예방적 점검과 운용자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등을 전담할 소방 장비 이동정비반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진 31. **이동정비차**



사진 32. **이동급식차**

2015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3명의 차량 정비 관련 유자격자를 특별채용하고 이동정비에 특화된 특수차량을 구매하여 충남 소방 이동정비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동정비반은 2016년 3월에 이동정비차를 납품 · 배치하고 이동정비 반원의 기초교육(이동정비반 운영 타 시 · 도, 소방차 특장업체)을 통해 2017년 상반기는 소방차량 정비 기술 훈련 및 이동정비 시범운영 후 2017년 하반기에 비로소 본격적인 이동정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8년은 소방차량 검수 · 검사,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장비 점검 매뉴얼 제작, 충남형 소방차량 표준규격서 제작, 이동급식차량 운영 외에 소방장비 예방점검 및 정비, 대형재난 현장 긴급수리 지원, 물품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추가하였다. 소방장비를 실제 운용하는 소방공무원이 어려워하는 차량의 관리와 정비를 찾아가는 예방점검 서비스와 알기 쉬운 매뉴얼 책자 및 동영상 제작 · 배포를 통해 업무의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이동정비 서비스를 통해 자가 운용 · 점검 능력을 배양 및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이동정비반은 앞으로 충청남도 소방복합단지가 준공되면 소방장비 정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정비 · 점검 장비의 도입으로 전문역량 증가와 보다 많은 정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입주하는 소방학교와 연계하여 신임소방사반 소방차량 운전교육 및 특수차량 운용자 교육 등 보다 더 체계적인 소방장비 운용자 교육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33. **이동정비반 차량점검**

제3장
소방행정분야별 발전사

제3절 예방홍보

3

01. 소방교육 및 홍보

02. 소방특별조사

01.
소방교육 및 홍보


사진 34.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 교육과 홍보의 효시는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기 이전 이미 선조들의 일상 깊이 뿌리내린 생활 습관과 예로부터 내려오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불이나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하면 어른들이 '아뜨아뜨'라고 하며 주의를 주고 신기하게 이를 알아듣는 본능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불을 멀리 또는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교육과 이를 전파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1869년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소방조(消防組)를 조직한 이후 출초식이라는 불조심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출초식을 현재의 소방 홍보 활동의 효시로 삼는다. 현재의 시무식과 같은 성격의 출초식은 매년 1월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전파하는 한편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사다리 조법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다. 1931년 논산시 양촌면(당시 론산군 양촌면 인천리)에서는 소방조합원 40여 명이 출초식을 마치고 연회 개시를 위해 연회 장소를 청년회관으로 사용하기를 청했으나 청년회관을 관할하고 있던 인천청년회에서 이를 거절하자 열쇠를 파괴하고 들어가 연회를 개최했고 이 소식을 듣고 피해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청년회원들을 구타한 사실이 신문에 실리는 일도 있었다. 결국 양측이 불문에 부치기로 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당시 시대상을 감안하면 당시 소방조원들의 위세를 가늠해볼 수 있다.

광복 이후 국가의 틀이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1948년부터는 월동기가 시작되는 10월 화재 예방에 대한 적극적 방화 환경 조성을 위한 '불조심 강조의 기간' 설정과 함께 '소방관 사열식 및 소방훈련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전국적인 화재 예방 활동과 각종 홍보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이후 각기 다른 명칭으로 현재의 소방의 날 행사가 11월 1일에 지역 단위의 행사로 도내 곳곳에서 명맥을 이어 왔다. 1963년부터 내무부가 주관하는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 행사를 거행해 오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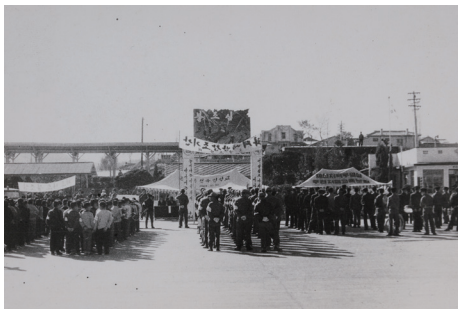


사진 35. 1963년 온양의소대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1991년 소방법 개정과 함께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보장받았다.

1960년대에 들어서며 직접 주민들과 마주하는 가두 캠페인과 소방차, 완용펌프를 앞세운 퍼레이드, 자정을 다지는 결의대회가 1970년대까지 점차 활성화되었으며, 각종 포스터나 표어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홍보활동의 모습이 점차 갖춰지기 시작한다.

1971년 12월 대연각호텔 화재를 계기로 1973년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 7대 도시에서 불조심어린이단이 조직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977년 9월 7일 당시 충청남도 산하에 있던 대전소방서 어린이소방대 발대식에는 제18대 정석모 충청남도지사의 격려사와 선서문 낭독, 지종환 서장의 대기 수여 및 시가행진 등 행사를 거행했다.

1999년 5월 29일 '한국119소년단'으로 개칭 후 2004년부터는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에서 유치원과 대학생까지 확대하였는데 문서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2000년도로 당시 도내에는 총 1,179개교에 403개 대가 조직되었으며 무려 21,820명의 대원과 403명의 지도교사가 활동했다.

1980년대에 들어 소방의 업무 영역에 응급환자이송과 인명구조업무가 포함되며 소방의 안전 교육과 홍보의 범위 또한 발맞춰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월동기 등 특정 기간에만 실시하던 홍보활동 또한 연중 계속되기 시작한다.

도민에게 화재 예방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은 변함이 없었으나 점점 지역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소방의 위상을 홍보하기 위한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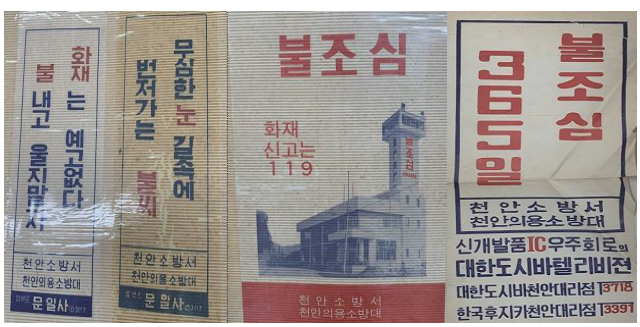


사진 36. 1973년 천안의용소방대 제작 표어



사진 37. 1977년 천안소방서 불조심 표어

도 1980년대이다. 지역별 의용소방대의 행사가 거행되면 각급 기관 단체장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도 행사에 얼굴을 비추고 대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하였다. 소방 완용펌프의 시대가 저물어가며 소방차가 배치된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차를 활용해 기존의 사다리조법이나 속도방수 등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소방차를 활용해 주민들의 시선을 끄는 행사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나라의 역량 또한 높아졌다는 자신감과 함께 90년대에 들어 중앙방송 매체와 일간지에 보도 및 사진 자료로 소방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뤄지기 시작한다.



사진 38. KBS '긴급구조119'

특히 1993년 시작한 KBS의 '긴급구조119'는 119구조대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재연과 증언을 통해 보여주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며 2000년대까지 방영되는 등 인기를 모은 장수 프로그램이다. 충남 도내 에피소드로는 1994년 12월 6일에 방영된 서산 의용소방대의 이야기로 집에 불이 나 길거리에 나앉게 된 칠순 노부부에게 돈을 거둬 새집을 지어준 미담이었다.

이는 현재 충남소방의 '가치가유 충남119' 사업과 일맥상통한데, 실제 구전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그 이전부터 비슷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후 1995년 1월 서산의 한 마을 생강굴에 추락한 주민을 구해낸 서산소방서 119구조대의 활약, 1996년 11월에는 금산군의 한 여관에서 완강기 줄에 목이 걸린 사람을 구해낸 이야기 등이 다뤄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인 1991년 5월 31일 충청남도에 2과 체제로 소방본부가 설치되며 방호과에 교육계를 두어 본격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담당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공보나 안전교육 관련 업무를 하기보다는 화재예방이라는 한정적인 업무에 그쳤다. 이후 소방홍보와 안전교육이라는 업무를 2명의 담당자가 양분하는 인력 보강은 27년이 지난 2018년에 이뤄졌다.

1999년 6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를 겪은 후 사회 전반에 우리나라 안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2003년 5월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향후 5년간 14세 이하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1/2 수준(1,269명 → 635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정책의 추진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4년 지방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아 4.5톤 규모의 체험차량을 1대 도입하였다. 최초 도입된 체험차량은 '이동형119안전체험장'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다.

1999년 11월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제1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가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우리 도에에서도 매 대회마다 참가하였고 2008년에는 제1회 충남 어린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기 시작했다. 제1회 대회는 2008년 9월 9일 청양 문화예술회관에서 거행되었으며 총 15개 팀이 참가하여 초등부에서는 부여초등학교가, 유치부에서는 논산 봉하어린이집이 제1회 대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점점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익히는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2003년 서울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곳곳에 안전체험 시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220만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찾아 안전을 배울 수 있는 충청권 최초 종합안전체험관 '충남안전체험관'도 2016년 3월 14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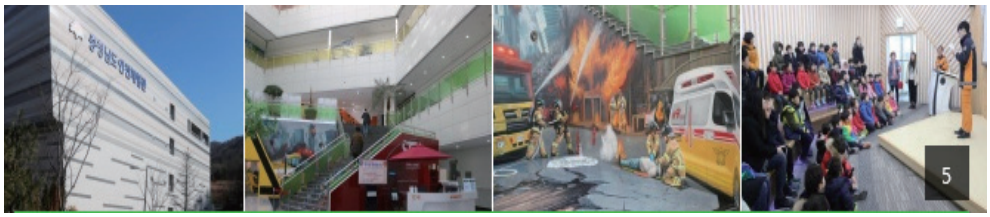


사진 39. 2004년 도입된 최초의 안전체험차



사진 40. 제1회 충남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충남안전체험관은 2011년 건립을 추진해 2015년 10월 완공했고 이듬해인 16년 6월 초까지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에만 약 8천 명이 다녀가 개관 이전부터 인기를 끌었다. 개관 첫 해인 2016년만 120,155명이 체험관을 찾았으며 2017년 131,143명, 2018년 140,448명, 2019년 118,856명이 다녀갔다. 2021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해 언론을 통해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이후 각 시도에서도 충남안전체험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

2010년대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동영상 매체 사용자가 폭증하며 종래의 TV를 기반으로 하던 홍보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들어 유튜브(Youtube)를 대표로 하는 동영상 기반 플랫폼 사용이 보편화되며 더 이상 활자 매체가 점차 소방 홍보의 주류에서 벗어나고 있는 흐름이다.

충남소방도 소방출동로 확보 등 당면 현안은 물론 계절별 안전 수칙을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제공하거나 도민들의 소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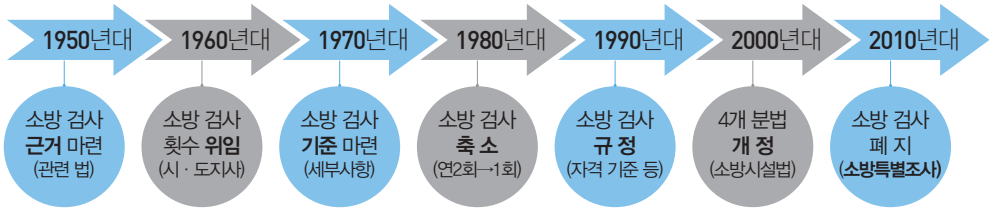


사진 41. 전국 최초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 도입



사진 42.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 홍보 영상

02.
소방특별조사



1958년 3월 11일 소방검사와 관련된 근거법이 처음 마련되었으며, 소방법 제4조(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라는 항목으로 화재의 예방상 필요한 경우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규정을 처음으로 법제화하였다. 또한, 소방법 시행규칙 제1조(소방검사) 항목을 1958년 8월 18일 처음으로 제정하여 소방검사의 종류는 지리, 수리, 건축물, 흥행장, 화재 예방, 화재 현장 및 위험물검사로 구분하였다.

1958년 법 제정 시 특정소방대상물 중 개인의 주거는 관계자의 승낙을 얻도록 하고, 검사 기간은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로 48시간 전에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제시 · 업무 방해 금지 ·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 검사를 법제화하였다.

1960년 4월 14일 개정된「소방법」에서는 개인의 주거에 화재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방검사의 횟수에 대하여 시 · 도지사에 위임하였으며, 1969년 12월 30일에 소방법 시행규칙 제11조(소방검사의 횟수)에 소방검사의 횟수(화재예방점사를 제외)는 시 ·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다.

1973년 2월 8일 개정된「소방법」에서는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기일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검사 ·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6년 4월 27일「소방법 시행규칙」제1조(소방대상물의 검사등)와 제2조(소방검사의 횟수)에서 소방검사의 종류를 건축물, 화재예방, 화재현장조사, 위험물검사, 소방활동 상 필요한 조사 항목을 규

정하였으며, 소방검사의 횟수를 연 6회(6층 이상, 3천㎡), 연 4회(4층 이상, 1천㎡), 기타 연 2회로 개정하였다.

충남 소방 첫 입건[내용: 55개 공공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은 이번에 소방법 제23조1항(특수장소의 소방시설)의 적용을 받아 동법 제54조의 벌칙에 의해 2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하였다.

1980년 6월 3일「소방법 시행규칙」제2조(소방검사 등의 횟수) 건축물 검사, 위험물조사, 지리조사를 연 2회, 수리조사 월 1회 이상 정하되 건축물 및 위험물검사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이는 소방검사를 연 2회로 축소한 것이다.

1982년 6월 5일「소방법 시행규칙」제2조(소방검사 등의 횟수) 소방검사의 종류를 건축물 검사와 위험물 검사로 하고, 소방조사의 종류를 지리와 수리조사로 구분하였다. 또한 건축물 및 위험물의 검사를 연 1회로 축소하고, 수리조사는 월 1회 지리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92년 9월 19일「소방법 시행규칙」제3조(소방검사 등) 소방검사의 검사자의 자격, 구분, 사항, 방법, 횟수 등을 규정하고, 검사자의 자격을 예방검사관[13], 경방조사관[14]으로 구분하였으며, 예방검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각각 연 2회 와 연 1회로 변경하였으며, 1999년 이를 보다 완화하여 각각 연 1회와 2년마다 1회로 변경하였다.



사진 43. 1996년 가스계 소방점검

2003년 5월 29일 소방검사 내용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4개 분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소방검사의 방법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의 발생이

13) "예방검사관"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한 경력을 가진 사람
14) "경방조사관"이라 함은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

우려되는 소방검사 대상물의 층이나 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반, 소화펌프 또는 제어반이 설치된 층이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대하여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상 및 점검자의 자격 및 종류를 세분화하였으며, 통상점검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관계인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통장점검은 월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06년 11월 20일 이후에는 작동기능점검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종합정밀점검 대상 중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다.

2006년 7월 도내 38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특별소방안전점검 결과 13개소에 36건을 적발하였고 지적상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 불량 및 자동 확산 소화기 미설치 등 시정조치 하였다.



사진 44. 2007년 전문화를 위한 특별교육

2013년 2월 5일 소방검사 제도가 폐지되고 소방특별조사제가 도입되었다.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를 신설하여 일반적이고 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표본조사제도이다. 조사제도의 대상은 관계인이 법령에 따르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따른 자체점검 불성실 대상물, 화재경계지구, 국가적 행사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행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2018년 3월 6일부터 제천 복합건축물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하여 비상구 폐쇄 등『소방안전 3대 적폐 행위[15)]』근절을 위한 충남소방기동단속반을 운영하였다.

15) 소방안전 3대 적폐 행위란 피난 · 방화시설 폐쇄 · 훼손, 소방시설 작동 차단, 불법 주 · 정차

2018년 7월부터 제천 ·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8,886개동) 및 2단계(22,900개동) 추진하였다.



사진 45. 2018년 소방안전특별조사

2020년 1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화재안전정보조사(80,164개 동) 추진하고 있다.

2020년 5월 13일 ~ 5월 21일까지(7일간) 화재안정정보조사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충남안전체험관 실습장에서 34개 반 70명의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 점검 실무 이론 및 분야별(수계, 가스계 등) 실습을 통한 개인별 역량 강화를 키웠고, 또한 소방관계법령 및 민원 업무 추진 시 민원 응대 요령 등 실시하였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으로 대형 재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 신설(본부 소방특별조사팀) 및 2021년 7월 1일부터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를 위한 소방점검 강화 · 정문성 제고를 위한 각 소방서 전담팀 신설(16개소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재난약자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사회적 이슈 대상 및 소규모 취약 건축물에 대하여도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대형 재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3장
소방행정분야별 발전사

제4절 화재대응

4

01.
화재사례 및 대응

01. 일제강점기(1910~1945년)

화재의 성상과 그에 대응하는 방법은 시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 시대별로 화재 유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건축물의 구조, 규모, 자재, 접근성)들이 모두 다르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의 제반여건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 분포된 재래식주택 대부분은 초가집이나 기와집과 같은 목조주택들이었고 도로망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보관하는 목조창고 또한 매우 많았다. 이 때문에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연소 확대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연스레 당시의 사람들은 화재를 가장 무서운 재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각 지역별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적인 차원의 소방대가 창설되기 시작했고 그 명칭은 해당 지역의 명칭에 소방조(消防組)라는 한자어를 결합하여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1904년에 최초로 강경소방조가 창설되었다. 이어서 1911년에 공주소방조와 예산소방조가 창설 되었고, 그 이듬해인 1912년에는 천안소방조가, 1914년에는 홍주소방조가 창설되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전역에서 소방조의 창설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1930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도내 대다수 읍 · 면지역에 소방조가 설치되었다. 각 지역의 소방조들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들을 진압하는데 항상 앞장서 왔지만, 지금처럼 현대화된 소방차량이나 장비들이 보급되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활동의 한계는 명확했다.

소방장비는 재래식 소화기구(삽, 양동이)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일부 지역에 보급된 완용펌프 또한 조악하기 그지없는 수준이었다. 소방용수 또한 턱없이 부족하여 불이 나면 마을의 공동우물이나 냇가 등지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직접 물을 길어 나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당시 신문에 실린 화재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쉽사리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진 46. 물을 길어 완용펌프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天安初有의大火
十一戶一時全燒
운송덤에서불이나서전무한화재
피해액이오만여원이나되는참사
普校生一名도燒死
釜山에도
十九戶

1929년 6월 24일 새벽 3시 30분경 경부선 천안역전에 있는 합동운송점 숙직실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의 천안극장과 호서은행 창고로 연소가 확대되어 천안소방조가 출동하여 진화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용수가 부족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였고, 두 시간 반 동안 10여 호의 주택이 전소되었고 새벽 6시경 겨우 진화되었다. 당시 손해액은 5만 원 가량이고, 15세 소년 1명이 참혹하게 소사해 천안 초유의 대화재로 당시 큰 소동과 혼잡을 일으켰다.

1935년 3월 15일 오전 11시 40분경 공주군 장기면 신흥리의 부락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하여 공주소방조와 장기소방조에서 완용펌프를 가지고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 하지만 때마침 풍세가 험악하여 부락 내 주택 50호 중 30여 채가 전소되고 손해금액은 만 원 가량에 달했다고 한다.

1939년 8월 24일 오후 3시경에는 논산 강경읍 강경서정의 장작더미에서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때마침 불어 온 강풍에 의해 불은 삽시간에 옆에 있는 조선미곡창고에 옮겨 붙어 강경소방조가 필사적으로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맹렬한 화세를 잡지 못하고 인근의 익산과 공주소방조에 급전을 넣어 달려온 3처의 소방조가 협력하여 오후 5시 30분경에 겨우 진화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시 소방조의 필사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소방장비와 부족한 소방용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화재진압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江景에大火
廿二戶全燒·原因損害調査中
屯浦面에火災

02. 미군정시기(1945~1948년)

1945년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948년까지 약 3년간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서울 · 부산 등의 대도시에는 인구가 급속히 집중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화재 또한 급증하였다. 이처럼 급증하는 화재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군정은 소방청을 설립하고 전국에 걸쳐 순차적으로 50여개의 소방서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에도 1947년 4월 18

에 충청남도 소방청이 개청되었고, 비교적 많은 인구가 분포해 있던 대전 · 천안 · 공주 · 조치원 · 논산 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소방장비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각 지역마다 의용적(義勇的) 조직체로서 소방대가 조직되어 화재진압을 전담하였다.

최초의 소방서 설치 이후 충남지역 주요 화재발생 사례로는 1947년 2월 28일 밤 11시 경 부여경찰서 임천지서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되었는데 당시 유치장에 수감되어있던 2명이 불에 타 숨졌다고 한다.

1947년 11월 23일 새벽 3시경 전국 유일의 충남 장항제련소 용광로 냉각장치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이 화재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한다.


長項製錬所爆發
一名死亡十名重輕傷

03.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1948~1959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 소방기구는 다시 경찰조직으로 병합되었다. 도의 소방청은 지방 경찰국에 산하에 두었고 각 지역에 소방서들은 경찰에 인수되어 소방행정은 다시 경찰행정 체제 속에 흡수되었다. 소방서가 없는 지역의 소방관련 사무는 경찰서에서 직접 담당하였다.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0년대에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였고, 이로 인해 소방장비의 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화재에 대응하는 방법도 이전과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


사진 47. 금산의용소방대 완용펌프 조작훈련(1950년대)

1950년대 초에는 충남 대전소방서를 제외한 천안 · 공주 · 조치원 · 논산소방서가 폐지되어 화재대응에 큰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화재진압 장비로는 소방차량 3대와 완용펌프 100여 대가 전부였다. 이후 1956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소방차 14대가 보급 되었지만 이때도 소방차 대부분은 대도시 지

역으로 우선 배치되어 그 외 지역들은 여전히 완용펌프로 화재를 진압해야 했고, 비상시에만 소집되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인 소방관 역할을 했다.

당시 세상을 놀라게 한 열차충돌사고가 충남에서 발생했다. 1948년 9월 14일 오후 7시 35분경 경부선 충남 내판역에서 부산발 특급해방자제2열차가 정차해 있던 중 서울로 향하던 서부해방자호 특급제34열차와 충돌하여 미군 20명을 포함해 승객 100명이 사망하였고, 23명이 중경상을 입는 처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재 사례로는 1948년 10월 6일 12시경 공주여자사범학교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숙사 2동이 전소된 사례가 있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부터 휴전을 선언한 1953년까지는 전쟁 상황으로 기록이 전무하다.


大田市에大火災
廿七棟全燒·罹災民은百餘名
人事엔實力本位
選擧에自由분圍氣絕對保障
新任金治安局長談

전쟁 이후인 1954년 3월 29일 오후 5시 50분경 충남 대전시 원동 주택에서 불이나 인근 주택 등 27동이 전소된 후 약 2시간 뒤인 저녁 7시 40분경에 진화되었다. 이날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약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인근의 원동국민학교에 수용 보호하였다고 한다.

1956년 9월 9일 오전 9시경 충남여객 소속 버스가 홍성읍 고암리 인근 하천다리 위를 통과하던 중 하천으로 추락하여 반쯤 물속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전복된 버스의 휘발유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 한 버스 승객이 담뱃불을 던져 차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인하여 승객 2명이 사망하고 버스가 반소되어 1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1958년 3월 9일 밤 11시경 당진경찰서 대호지지서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이 전소되어 1명이 사망하고 순경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1월 5일 오후 1시 50분경에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목공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동이 전소되고 76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아산 온양읍 촛불 부주의화재, 청양 비봉면 모깃불 부주의화재 등 각 읍 · 면 지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다. 1959년 11월 11일에는 천안읍 사직동에서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주택이 전소되어 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04. 경찰제도 속의 소방(1960~1970년)

1960년대부터 1970년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산업화의 급속도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이 생기고 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일거리가 생겨났다.



사진 48. 1960년대 천안의용소방대 소방차량

이렇듯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건축물의 변화와 함께 화재의 유형도 다양화됐다. 도심에는 높은 건축물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고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천안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도내에도 소방차의 보급이 점점 늘어나 완용펌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화재진압이 훨씬 나아졌다. 이 시기에도 충남 대부분 지역의 화재진압은 의용소방대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진 49. 1970년대 소방차량

1960년대 주요 화재사례로는 1960년 1월 20일 새벽 3시 10분경 부여군 부여면 소재 부여양조장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던 직원이 술독의 온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해둔 연탄난로 위에 경유통을 올려놓는 바람에 경유통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양조장 건물이 전소되고 13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1966년 5월 20일 금천군 중앙시장, 1967년 천안 공설시장, 1969년 천안시 사직동 구시장, 대전시 중앙시장 등 시장에서 화재가 빈발하였고, 당시 천안의용소방대는 1967년 공설시장 화재진압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천안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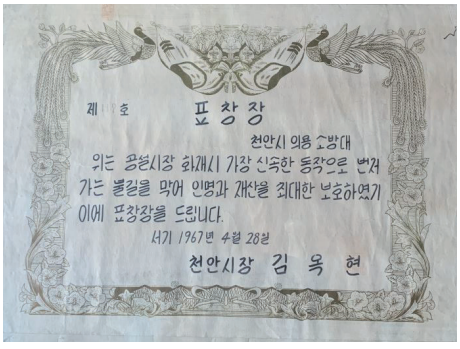

제 호
표 창 장
천안시 의용 소방대
위는 공설시장 화재시 가장 신속한 동작으로 번져
가는 불길을 막어 인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였기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서기 1967년 4월 28일
천안시장 김 옥 현

사진 50. 천안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유공 표창장

1970년 5월에는 지난 20년 전에 폐지되었던 천안소방서가 설치 승인을 받아 다시 개서하였으며, 산하에 오룡파출소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충남 대전과 천안 2개 지역은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담당하였다.

05. 시·군 소속의 소방(1971~1991년)

1970년대에 이르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 추진되었고 1972년부터는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많은 지역에 소방차가 보급되면서 과거보다 원활한 화재진압이 가능해졌지만 이때에도 많은 시골지역에서의 완용펌프 활용도는 높았다. 산업화 속에서 충남 전체에 균형적인 소방장비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진압의 여건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 당시 전국에 산업화 열풍이 불면서 충남 각 지역에도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철도 운송이 활성화 되면서 화재가 빈발하였다.

1972년 2월 3일에는 논산읍 부식납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5월 27일에는 논산군 두마면 인근에서 여수발 서울행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3,000만 원의 피해가 나기도 했다. 또한 6월 18일에는 충남 대전시 신흥제분 대전공장 화재로 무려 8,200만 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1976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사무가 시군사무로 이관되면서 천안소방서는 천안시청 소속이 되었으며, 시군 지역의 경찰서 및 파출소의 소방업무는 시군으로 모두 인수되었다.


国際방직 牙山工場에 불
輸出綿糸등 7천여만원피해
16일하오6시55분경 忠南 牙山군 排芳면長在리515 국제방직(대표 梁正模·57) 牙山공장 제1창고에서 불이나 창고건물 4백평중 1백85평을태우고 2시간30분만인 9시25분경진화됐다。이날밤 창고안에 있던 수출용면사 3백고리(고리당3백50달러·총5천2백50만원)와 원면1백50표(표당20만원·총2천5백만원)등 모두 7천7백50만원상당의 피해를냈다。

이후 전국적으로 방직산업이 전성기를 맞아 곳곳에 방직공장이 세워지면서 화재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충남에서도 1977년 11월 16일 오후 6시 55분경 아산군 배방면 소재 국제방직공장 제1창고에서 불이나 창고건물이 반소하였고 2시간 30분만인 밤 9시 25분경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창고안에 있던 수출용 면사와 원면 등 모두 7,75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981년 7월 18일에는 충남 대덕군 기성면 소재 충남방적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1명과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27억원으로 충남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해 당시 충격에 휩싸였다. 또 1981년 2월 6일 오전 9시 45분경에는 충남 대덕군 유성읍 장대리 지하 다방인 '황전다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다방 주인의 부인과 자녀, 그리고 종업원 3명 등 5명이 사망하고 다방주인과 여종업원 2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국민 모두가 충격에 빠진 화재가 또다시 발생했다. 1986년 8월 4일 밤 9시 50분경 천안에 독립기념관 개관을 앞두고 있던 중 기념당 용마루 천장에 설치된 전구에 불을 켜는 순간 전기과부화로 인해 화

재가 발생했다.



사진 51. 불타버린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모습

소방력은 천안, 온양, 대전, 조치원, 평택, 청주 등 인근에서 총 37대, 130여 명이 동원되어 3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준공 전이기 때문에 자체진화를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지지 않았었고, 당시 전면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과감히 옥내로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300여평에 15층 높이의 겨레의 집 천장이 소실되어 약 20억 원의 재산피해액이 발생하였다.

1989년 5월 9일 새벽 1시 10분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 있는 광시오토바이센터에서 불이나 잠을 자고 있던 주인 등 일가족 5명과 종업원 1명 등 6명이 숨졌다. 당시 오토바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전원에 연결해 놓은 배선이 과열되면서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층집 23평과 오토바이 10대, 인접한 집 10평이 전소해 2,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어 10월 27일 오전 11시 45분경 충남 논산군 연무읍 죽평리 앞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연무톨게이트에서 고속버스가 도색작업 중이던 트럭과 추돌해 버스는 전복되었고, 작업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페인트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로 버스와 트럭이 전소되고 버스 운전사와 승객 등 1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진 52. 천안 송유관 폭발 휘발유 유출 화재

1990년 4월 17일 오전 8시 20분경 충남 천안시 유량동 인근 밭밑에 매설된 직경 20㎝의 미군 송유관이 터져 휘발유 150t이 유출되어 이근 주택가를 거쳐 사고지점에서 1㎞ 떨어진 원성천으로 흐르던 중 오전 9시45분경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로 진화에 나섰던 주민 등 2명이 화상을 입었고, 3채의 주택이 반소되어 3,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의 천안여중 학생 2천여 명과 주민 5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사고가 나자 천안소방서 소속 소방차 15대와 300여 명의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등이 진화에 나서 오전 10시쯤 진화됐다.

1990년 7월 25일 오후 5시 40분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안도 서쪽 3.5마일 해상에서 부산 진웅해운 소속 유조선 서양호(3,372t급)에서 용접을 하다 유류저장탱크가 폭발해 작업을 하던 항해사 등 4명이 사망하고 선장 등 11명은 구명보트로 탈출하였다. 불이 나자 해경과 해군은 함정6척을 동원하여 긴급 출동했으나 보관 중이던 자체연료 벙커A유 20t이 타면서 불길이 번져 접근을 못할 정도로 화세가 강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선박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선박 재질이 불에 타기 쉬우며 유류가 적재되어 있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06. 광역체제의 충남소방본부 발족 이후(1992~1999년)

1991년 5월 3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2월 14일부로 소방업무를 시장 · 군수에서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광역 소방행정체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방본부가 1992년 4월 10일에 최초로 발족되었으며, 시군에 있던 천안 · 공주 등 5개 소방서와 18개 소방파출소가 충청남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편제되었다. 또한 점차 소방서 담당 관할구역이 모든 시군을 포함하도록 확대되면서 소방과 관련된 시군 업무는 충청남도 소속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점차 이관되었다.

이후 1993년 4월 끔찍한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충남 논산시 논산읍에 위치한 서울신경정신과의원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무려 3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성을 입은 것이다. 논산소방서를 비롯한 200여 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돼 진압에 나섰으나 조립식 건물로 이루어진 병원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피해가 컸던 이유를 살펴보면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경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고가 늦었다는 점과 비록 1층이었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확산속도가 빠른 조립식패널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지만 화재에 취약한 건축구조로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당시 샌드위치 패널은 저렴한 건축비와 건축기간이 짧다는 장점 때문에 1990년대 많은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다.



사진 53.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 모습

07. 충남소방의 성장과 발전(2000~2016년)

2000년대 들어 경제가 회복되고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충남소방은 발전의 기회를 맞았다. 특히 화재 등 재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노력과 지방의회 의원 · 기초단체장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소방관서가 하나하나 증설되었다.


사진 54. 꿈의궁전 여관 화재 당시 인명구조 모습

이때 또다시 끔찍한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2001년 8월 3일 새벽 3시경 발생한 '꿈의 궁전' 여관 화재는 지금도 현직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큰 화재였다.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총 32개 객실을 갖춘 여관에 불이 날 당시 70여 명이 투숙 중이었다. 소방인력 120여 명, 19대의 소방차량이 투입되어 1시간 30여 분만에 진화되었으나 투숙객들이 깊이 잠들어 있던 시각이었고, 유독가스가 빠르게 객실로 스며들어 6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휴가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렀다가 변을 당했고 그중 그해 겨울 결혼을 예정 중이던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꿈의 궁전' 화재는 지하 보일러실 과열로 인한 화재로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소방시설관리자 제도의 발전에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55. 한국타이어 화재진압 모습

2002년 3월 11일 오후 6시 30분경 금산군 제원면 '(주)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대지 26만 9000평에 철근 콘크리트 골조 패널구조의 3층짜리 29개동으로 연간 77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타이어의 주력 공장이다. 이날 불은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고온상태에서 섞어 타이어 원료를 만드는 2700평 크기의 공장동 2층 고무가공실에서 내부 이상고온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이어 원료가 가득 쌓여있는 공장 전체로 빠르게 번져 나갔다. 화재 초기에 충남 · 충북 · 대전 · 전북에서 소방차 48대, 소방공무원 250여 명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펼쳐 나갔으며, 공장 1,750㎡를 태우고 3억 1천 4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다음날 오전 6시경 완전 진화했다.



사진 56. 화재로 소실된 금매복지원 조립식 건물

2002년 12월 10일 밤 23시 23분경에는 서천군 금매복지원 별관 조립식 가건물에서 안타까운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천장 부분 전기배선이 심하게 소실된 점으로 보아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추정됐으며, 소방인력 90명 및 16대의 소방차량이 투입되어 48분만에 완진 되었으나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건물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거주해서 9명이 사망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 또한 조립식 패널로 인한 급격한 연소확대로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 최성기에 이르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03년에는 천안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천안 축구부 합숙소 화재이다. 2003년 3월 26일 밤 11시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위치한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초등학교 축구선수 8명이 사망하고 코치와 선수 17명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만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상 1층짜리에 불과 한 50평 남짓한 작은 숙소 건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생활하기에는 매우 비좁았으며, 부족한 환기 시설과 좁은 출입문으로 인하여 피해가 컸다. 이곳은 구성119안전센터와 3km 떨어져있어 현장 도착하는데 4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실내 내장재 합판 스티로폼 설치로 급격한 연소 확대가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이유 중에 하나였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활동과 인명구조를 실시했으나 초기 연소 확대와 질식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진 57.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현장



사진 58. 당진 가원다방 화재 현장

이후 또다시 당진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지금도 현직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주 이야기가 될 만큼 큰 화재였다. 2003년 7월 6일 오전 03시 40분경 당진시 가원다방건물 1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시작된다. 그 뒤로 강한 폭발음이 2~3차례 들리면서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소방인력 70명, 25대의 소방차량이 투입되어 1시간 20분 만에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불은 100여평 규모의 건물 전체와 옆 건물인 페인트가게 건물 등을 모두 태워 9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당시 3층 조립식 건물에서 잠을 자던 다

방 여주인과 여종업원 등 5명이 숨졌다.



사진 59. **화재로 인해 무너져 내린 가원다방의 모습**

사망자들은 1층과 2층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3층 숙소에서 1층으로 내려오려면 2층 다방 내부를 거쳐야 한다. 3층에서 내려와 대피하려고 했을 때 1층에서 시작된 화재로 2층 다방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 질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가원다방 화재 건물의 3층 옥상 조립식 건물은 1997년 3월 18.48㎡로 신고한 채 90.24㎡ 규모로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 증축 건축물의 현황 파악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소방대상물 현황 파악을 하는 경방카드가 소방활동 정보카드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60. **아산 대륙제관 화재 현장**

2006년에 들어서는 2월 14일 오후 3시 8분경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영인농공단지 안의 대륙제관 가스충전실에서 가스통에 가스를 주입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가스충전동의 자동화 기계가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포장지 필름에 불이 붙은 뒤 옆 동인 에어졸 제관동으로 옮겨 붙게 되었고, 다시 제품 창고로 번져 3개동 3800여평이 소실되었으며 창고 안에 적재되어 있던 휴대용 가스통 200만개가 모두 불에 타는 큰 화재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이날 화재로 공장에서 제작중이던 3만여 개의 부탄가스통이 공장외부까지 튕겨나가 근로자 전원과 주변 마을 주민 65세대 130여 명도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는 대형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계도 조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2006년 10월 3일 오전 7시 42분경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29중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서해대교에는 아침에 안개가 매우 짙었고 서해대교 입구 전광판에는 '안개 조심'이라는 경고가 떠 있었다. 그러나 전광판의 경고를 무시한 25톤 트럭이 서해대교를 지나갔고, 트럭은 전방이 보이지 않자 서해대교를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서행하며 앞서서 가고 있던 1톤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면서 1차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 1차 사고 차량 두대가 1, 2, 3차로 및 갓길을 막았고 모든 차선이 막힌 도로에서 잠시 뒤 2차 3차 4차 추가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했다. 사고 여파로 추가 추돌



사진 61. **화재로 인해 불타버린 트럭의 모습**

했던 화물차의 엔진이 튀어나오면서 다른 트럭 밑에 깔리게 되고 그 트럭의 전기배선에 스파크가 튀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 된다. 불기둥이 8m까지 솟아올랐고 대형화재로 번지면서 사고 차량들과 운전자들을 휩쓸어 버리기 시작했다. 불이 난 사고 차량을 발견한 다른 차들이 다시 또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가 추돌사고가 나면서 총 29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몇 분 만에 서해대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막혀있는 도로 때문에 사고 현장 도착이 늦어져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상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한 후였다. 이 사고로 사망자 11명, 부상자 54명의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62. **원희정신과의원 화재현장 모습**

이후 공주에서 방화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2006년 10월 20일 새벽 5시 58분경 공주시 교동에 위치한 원희정신과의원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게 된다. 새벽시간 때 발생했고 인화물로 인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손 쓸 시간도 없이 화재는 확산됐다. 정신과 특성상 환자의 외부 탈출을 막기 위해 출입문및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로 인해 탈출 및 인명구조에 장애요인이 많았고, 새벽시간 병원 주변에 가득한 주차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주차 차량 일부를 이동 조치하고 굴절차를 이용하여 인명구조를 실시할 수 있었다.

충남 도내 대형화재는 2000년대 이후부터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 소방업무도 변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화재 진압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공기호흡기와 방열복을 개인 장비화하여 확대 보급하였으며, 신속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와 소방차, 소방차와 진압요원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구성해 소방관서의 조기 출동태세를 확립했다. 특수화재 진압 훈련, 소방왕 선발대회 등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진압 능력을 향상하는 데 노력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진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요 읍 · 면 지역을 소방관서 관할 구역으로 편입해

소방파출소(現.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인근에 있는 소방서와 자위소방대, 군부대등과 상호 응원 체제를 확립했다.

이후 2011년에는 충남소방헬기가 추락해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3월 18일 19시 52분경에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가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한서대학교 원룸 밀집지역에 있는 원룸촌 뒤쪽 공터에서 미상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건초에 떨어져 발화하여 가야산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이다. 해미면 산수리 계곡 인근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였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데 2일이 걸렸다. 소방공무원 210명, 의용소방대 및 유관기관, 지역 주민 등 1,100명이 동원되었고, 29대의 소방차량과 헬기 6대가 투입되어 48시간 만에 진화되어 가야산 45,000㎡가 일부 소실되었다. 또한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헬기 1대가 해미면 산수저수지에 추락하여 정비사 1명이 숨지고 조종사 등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진 63. **추락한 소방헬기를 인양하는 모습**

2012년에는 3월 15일 22시 57분에 보령화력발전소 제1~2호기 터빈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인원 606명, 장비 35대를 동원하여 현장활동에 임했다. 전기공동구(케이블 터널 내)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미로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어 신속한 현장진입과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웠고, 화재가 시작된 지하1층 케이블룸(터널)은 고압이 통전 중으로 관계자로 하여금 전원차단을 주문하였으나, 발전시설의 특성상 전원차단이 즉각 실행되지 않아 화재초기 화재진압 활동에 지장 초래하였다.



사진 64.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현장**

또한 내부는 케이블(전선)이 덕트를 매개로 각 동별(실별) 수없이 많이 존재하여 지하 1층에서 발화된

화재가 케이블의 피복을 연소시키며 구획된 벽을 통과한 덕트를 통하여 빠르게 연소확대 되어 정확한 발화지점 확인이 어려울 뿐더러, 2차사고 우려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인접 소방서, 유관기관 등 합동 진화작전을 펼쳐 화재가 발생하고 약 12시간이 지난 익일 오전 10시에 화재를 진화하였으며, 총 9,568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번 보령화력발전소 화재를 계기로 발전소 내 자체소방대와 보령소방서 간 유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 방안 마련 등 상호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65. **불길이 치솟는 태양산업 화재현장**

2015년에는 천안에서 부탄가스 제조공장인 ㈜태양산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월 18일 오전 6시 40분경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공장 관계자로부터 공장 2개 동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공장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샌드위치 패널 28개 동 중 제품창고 8개 동이 모두 불에 타 전소됐다.

진압 당시 화재 발생 지점 주변에는 19개 LPG탱크가 위치하고 있어 옮겨 붙을 경우 주변 공장으로의 연소확대는 물론 소방대원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소방본부는 광역3호(대응 3단계)를 발령하였으며 인근 경기도와 충북지역에서 장비를 긴급 지원받아 소방차 총 60여 대, 인원 600여 명을 동원해 6시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이날 화재로 부탄가스 제조공장 3만 6,258㎡ 규모의 28개 동 중 제품창고, 인쇄창고, 출하장, 생산라인 등 8개동이 불에 타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08. 소방청과 국가직 전환(2017~2021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가 소방청으로 격상되었으며, 2020년 4월 1일에는 국민청원 등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다만,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소속은 충청남도 소속으로 남게 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광역 소방행정체제는 유지되었다. 이후 부족한 소방인력과 소방장비의 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재난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2017년 4월 21일 밤 10시 54분경에 예산군 신암면 소재 ㈜비츠로셀 공장 관리동에서 "쾅쾅"하는 폭음과 불꽃이 일어나며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관계자 일부가 연기를 흡입하였으나 다행히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건물전체와 옆 건물로 옮겨 붙는 등 총 4개 동이 소실되어 45억원의 재산피해를 기

록하였다. 공장은 건전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각종 화학물질을 다수 취급하였고, 생산제품의 화학작용 등이 화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던 화재였다. 건물 내부에 제품을 쌓아 놓은 곳에 통전중인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평소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사진 66. **비츠로셀 화재 현장**

2019년 1월 14일 오후 4시 56분경에는 '천안라마다앙코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숨지고 소방대원을 포함해 19명이 다쳤다. 최초 화재 신고자인 직원 김모씨는 외벽 환풍구에서 연기가 난다고 신고한 후 소화기를 들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주차장 입구가 좁은 데다 차량에 옮겨 붙은 불로 소방관들이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화재 현장에는 투숙객 7명은 화재가 발생하자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미쳐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24명이 구조됐다. 하지만 소방관 4명을 포함한 1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중 3명이 중상 16명이 경상을 입었다. 불은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8시 46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라마다호텔은 건축 과정에서 천장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여 놓으면서 불의 급격한 확산 경로가 된 것으로 분석됐고, 제천 스포츠센터화재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드러난 건축물 내장재 문제가 반복되는 안타까운 화재였다.



사진 67.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현장**

2020년에는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한곳인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롯데케미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3월 4일 새벽 3시경 공장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폭발 진동은 수십km 떨어진 당진과 태안 등 인근 시군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발 원인은 프레셔 하우스 3단 압축기 토출측 익스펜션 조인트의 벨로우즈 파단부로 누설된 가스가 공정상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68.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화재현장**

대응 2단계를 발령하여 천안, 아산, 당진, 태안, 홍성 등 주변 소방서의 소방력과 경기 남부지역의 소방력을 동원하여 총 66대, 274명이 동원하였고 6시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이 사고로 공장직원 4명이 다치고 롯데케미칼 납사분해공정(NCC) 1,500㎡ 소실 등 약 46억 4천여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사진 69. **논산 타코마테크놀로지 화재현장**

2021년에는 3월 18일 목요일 새벽 1시 52분경 논산시 노성면 두사리에 위치한 타코마테크놀로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신고는 해당 공장에서 작업 중 증기분출로 인한 환자 발생에 따른 구급신고로 접수되었다.

그래서 처음 출동은 소방차가 아니라 구급차가 출동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가 도착하여 내리려는 순간 공장 폭발로 인하여 구급차가 전소되었고, 구급대원 3명은 가까스로 자력 탈출 후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고, 구급대원 3명도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소방차량이 출동하였고, 01시 54분 대응 1단계 발령 및 논산시 긴

급구조통제단이 가동이 되었고, 신속한 주민대피령을 통해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후 새벽 2시 15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화마와 전면전을 펼쳤다. 소방인력 총 337명과 장비 44대가 동원되었고, 인근 소방관서 7개서(본부 광역기동단, 중앙119구조본부, 익산화학구조대, 공주, 부여, 서천, 계룡)에서 화재 진압에 힘을 보탰다. 아침 9시 33분경 붕괴된 공장 안에서 실종자 1명(사망)을 발견하였고, 14시 19분경 화재는 완진되었다. 화재로 49억 9,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어서 몇일 뒤인 3월 23일 새벽 3시 29분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화 선박에서 가스 폭발 등의 영향으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되어 인접 선박에 연소 확대되었으며, 화재 선박이 해상을 표류하면서 주변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과 충돌하여 추가로 화재가 발생해 총 22척의 선박이 전소(반소)되거나 바다로 침몰되었다. 소방인력 310명과 소방차 등 50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당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소방용수 확보가 쉽지 않아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화학차 등 지원차량이 도착하여 연소확대 저지에 주력하여 약 3시간 뒤인 6시 59분경 화재를 완진했으나 잔불 정리 중 10시 30분경 신진항에서 약 1.1km 떨어진 마도포구에 정박 중이던 어선 8척에 불이 옮겨 붙어 신진항 어선 등 총 30척이 화재피해를 입었다.



사진 70.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 현장



사진 71. 신진항 인근 마도포구 선박화재 현장

다음날인 3월 24일 20시 13분경 해태제과 천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은 야간근무자 7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근무자 전원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는 건물밖에 쌓아 놓은 플라스틱 자재에서 시작돼 공장 창고로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강한 바람으로 불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씨는 공장부지 내 갈대에 붙어 두군데에서 연소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사진 72. 해태제과 천안공장 화재현장

인접 공장,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었지만 긴급구조통제단을 신속히 가동하고 건물 위치 및 기상 상황을 고려해 진압 작전을 세워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이 날 화재로 투입된 소방력은 천안서북소방서를 비롯해 안성, 평택, 세종, 중앙구조본부 등 소방차 50여 대와 인력 550여 명을 투입해 대규모 진압작전을 펼쳤다. 불길은 화재 발생 10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6시 30분께 완진되었다. 대형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공장 및 야산으로의 연소 확대를 방어해 성공적으로 화재를 진압하였다.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의 영업용 LPG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출장세차업체 직원 정모씨가 화상을 입었고 지하2층에 주차된 차량 677대가 피해를 입어 약 1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아파트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되어 대응 2단계로 상향 발령되었다. 당시 소방인력 등 401명과 소방차량 55대가 동원되어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지하에 농연과 고열이 가득 차 있어 화재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 73. **천안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현장**

그동안 충남소방은 많은 시련 속에서도 화재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무인파괴방수차 및 소방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 등을 보강하여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소방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사진 74.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호스 전개**

특히 최근에는 산악지역과 좁은 골목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 고지대 주택가 등 소방차 통행 불가 지역에 대한 화재대응의 난제를 풀기 위해 200미터 길이의 소방호스가 적재된 배낭을 메고 걸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호스가 펼쳐지는 '소방호스 자동 전개 특수배낭'을 개발하여 이러한 한계에 도전해 성공했다. 뛰어난 효과성이 입증되자 2021년 10월부터는 소방본부 기동대와 항공대 그리고 도내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1차 보급해 활용하고 있으며, 충남소방의 작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화재대응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02.
소방훈련 변천과정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 소방조 단위로 행해졌으며, 그 당시 소방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원 중심의 훈련이 전부였다. 인원 점호를 실시하고, 복장과 기계 기구를 점검한 후 모의 화재 방수, 조작 경기, 도보 경기, 펌프 조법, 사다리 오르기 등 시범 훈련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일부지역에 소방차가 배치되면서 소방펌프차를 활용한 훈련이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이를 이용해 주민 계도 활동도 함께 시작됐다. 이 당시에는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화재 시에 주민의 도움을 없는 화재를 진압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자연스레 주민과 함께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1980년대에는 소방인력 부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해야 했다. 화재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팀 단위인원을 조정하여 조법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용수 부족을 대비한 흡수관 조작법등의 현실적인 훈련으로 변모했고 의용소방대에서는 대부분 완용펌프를 이용해 훈련을 실시했다. 이때까지도 대원 중심의 훈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소방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



사진 75. 일제 강점기 소방훈련



사진 76. 1974년 호스조작 훈련



사진 77. 1988년 구조장비 조작훈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관계인에 대한 훈련이 시작된다.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게 되며 1급이상의 대상물은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진 78.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모습**

2000년대부터는 재난규모가 커지게 되고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로써 재난업무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관여하게 되고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총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된다. 소방, 지자체, 군, 경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공동대응을 협업하고 일사분란한 조직적 활동을 목표로 훈련하게 된다. 이제는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이 정례화 되어 각 모든 재난대응기관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가받게 된다.

훈련의 질적인 향상도 이루어 냈다. 2010년 이후 충남도에는 무각본 소방훈련에 바람이 분다. 기존 훈련방식은 정해진 스토리에 따라 훈련을 사전에 이해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업무만 수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무각본 소방훈련은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평소 재난시 각자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숙지하고 완벽히 이해해야만 하는 훈련이다. 하지만 충남소방에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무각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제3장
소방행정분야별 발전사

제5절 구조대응

5

01.
구조업무 발전사

02.
충남소방 구조업무 발전

01.
구조업무 발전사

01. 근대의 구조업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구조업무는 지금과 같이 체계화 및 다양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구조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구조서비스라는 개념이 자리잡지 않았다. 당시 구조업무는 소방에서조차 오늘날과 같이 화재진압 · 구조 · 구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무영역이 아니었으며, 화재진압 대원이 화재 현장 활동 중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것이 소방이 행하는 구조업무의 전부였다.

그러다 화재진압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무로서 구조의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58년 3월「소방법」의 제정과 함께였다. 당시 소방법에는 최초로 "화재, 풍수해 또는 설해에 대한 인명구조"를 명시함으로써, 제한된 재난에서나마 인명구조가 소방의 업무로서 자리잡게 되었으나, 오늘날의 구조대와 같이 구조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02. 현대의 구조업무

오늘날의 구조대 및 구조서비스의 개념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였다. 경제성장과 복잡화 되어가는 사회구조는 각종 사고 및 대형재난을 유발하였으며 이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키워갔다.

그러다 1987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119특별구조대 설치운영 계획」을 제정하여 최초의 인명구조 전담부서인 119특별구조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올림픽이 개최되는 7개 도



사진 79. 대둔산 산악사고자를 구조하는 모습

시 소방서에 최초로 설치하였다. 또한 1989년 12월「소방법」개정으로 구조업무가 소방의 기본 업무로 법제화됨과 동시에 일반구조대 편성 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특별구조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방서에는 일반구조대를 둠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구조서비스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진 80. 1993년 10월 10일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1993년 1월 충북 청주 우암아파트 상가 붕괴, 7월 전남 해남군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10월 서해 위도 훼리호 침몰,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국적이고 신속한 인명 구조 · 구급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19특별구조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4년 11월에는 소방긴급구조 · 구급체계 확충 계획이 수립되어 인구 50만 이상 시 · 군 · 구 소방서에서는 구조구급 전담부서인 구조구급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전국적인 구조구급체계의 마련과 함께 119특별구조대 증가에 따라 일반구조대와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짐에 따라 이들을 오늘날의 "119구조대"로 명칭을 통일 ·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03. 구조업무 성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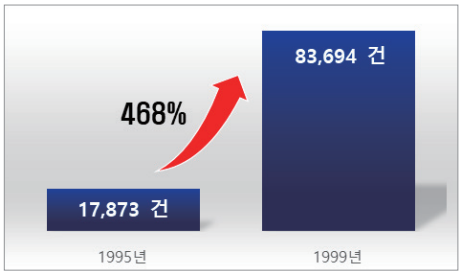


사진 81. '긴급구조 119'의 영향

구조업무가 명실상부 소방의 업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다름아닌 1994년 10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KBS 1TV에서 방영된 '긴급구조 119'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상 속 다양한 구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냄으로써 소방의 고유 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였다. 그 영향으로 구조출동은 1995년 17,873건에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종영된 1999년에는 83,694건으로 무려 468%가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구조공작차 93대가 보급되는 등 구조업무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IMF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금 국민경제가 상승기에 들어서며 웰빙(Well-being) 생활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소방의 역할은 재난상황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라는 의식이 생겨났고, 벌집제거, 동물포획 등 생활 속 구조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에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및 생활안전활동 등 생활밀착형 구조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 영역을 확대해갔다. 2011년 3월에는 전 국민이 균등한 구조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방서가 없는 시군구에는 119안전센터에 119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듬해 3월에는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생활안전활동을 전담하는 119생활안전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015년 7월에는 「소방기본법」에 생활안전활동의 정의에 대해 명문화하여 출동 기준을 확립하는 등 오늘날 구조 업무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사진 82. **벌집을 제거하는 모습**

02.
충남소방 구조업무 발전

01. 1990년대(충남소방 최초의 구조대 발대)

1989년 12월 「소방법」 개정에 따라 일반구조대 발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당시 일반구조대는 특별구조대가 설치되지 못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천안소방서(1970.5.13.), 공주소방서(1985.12.13.), 대천소방서(현, 보령소방서 / 1987.11.26.), 온양소방서(현, 아산소방서 / 1989.1.31.) 4개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반구조대가 설치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93년, 94년 대형 재난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19특별구조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고, 드디어 충남에도 1994년 6월 21일 천안소방서에 최초로 119특별구조대가 설치되었다.

천안소방서 119특별구조대는 군 특수부대 특별채용자 또는 구조전문교육을 이수한 9명으로 편성하고, 구조차와 유압엔진펌프, 에어백 등 구조장비를 배치하였다. 구조대원은 주황색 유니폼에 고동색 가죽조끼, 녹색 바탕의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였으며, 화재나 구조현장에서 구조대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황색 방수복을 착용하였다.



사진 83. 천안소방서 119특별구조대 구조차

천안소방서 119특별구조대 발대 이후 KBS 1TV에서 방영된 '긴급구조 119'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구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96년 11월 아산소방서를 시작으로, 그해에만 보령, 공주, 논산, 서산소방서 등 5개의 119구조대가 설치되며 충남소방은 어떠한 재난현장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역량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계룡소방서를 끝으로 도내 16개의 모든 시 · 도에 119구조대가 설치되었다.


사진 84. 구조헬멧


사진 85. 유압장비


사진 86. 구조대원 복장

02. 20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충남소방 역시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Well-being 생활 추구에 따른 구조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구조대책을 추진하였다.



사진 87. 대천해수욕장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2007년)

2005년에는 물놀이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단체 및 민간 구조기관 등과 응원 협정을 체결하고 도내 대천해수욕장 등 79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시범 발대하여 운영하였다.



사진 88. 기마119순찰대(2007년)

이후 지속적인 운영예산 확보 및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2005년 10월 6일 '충청남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도내 물놀이 시설 및 위험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발대하고, 주요 피서지에 119응급의료센터, 여름철 119이동안전체험센터 등을 운영하여 수난사고에 대한 예방 ·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2006년에는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한 구조현장에 신속한 인명검색 및 응급 구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 단위 독립 파출소(현 119안전센터) 5개소(조치원, 태안, 금산, 서천, 청양)에 119파출소 구조대를 편성 운영하였다. 군단위 파출소에 구조공작차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조장비 29종을 배치하였으며, 파출소 근무자 중 구조대 근무경력자 또는 구조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대별 갑 · 을부 3~4명 이상 편성하고 1개월간 교육훈련을 통해 구조능력을 강화하였다. 119파출소 구조대는 현재 구조진압대(Fire-Rescue)란 명칭으로 도내 10개소[16]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학사에는 계룡산 국립공원의 산악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산악구조 전문대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에는 대산항 인근 대단위 석유화학단지 및 석유비축기지 등 국가기반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서산119화학구조대 설치를 추진하였다.

16) 유구, 동학사, 합덕, 송악, 오천, 외산, 대산, 서면, 둔포, 안면

대산은 울산, 여수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전국무역항 중 화물처리량 6위, 위험물 취급률 3위를 기록할 만큼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대형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화학공장 자체가 폭발 가능성이 큰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물질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어느곳보다 초기대응과 전문 화재 구조인력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였다.



사진 89. 고성능화학차(1996년식, 아시아 그렌토, 삼일특장)



사진 90. 생화학인명구조차(2007년식, HAZMAT)

제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2007년)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08년 12월 26일 서산119화학구조대를 개소하였다. 서산119화학구조대는 소방공무원 13명, 생화학인명구조차 등 소방차량 3대, 화학대응장비 등 소방장비 542점을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2013년 9월 17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이관되어 현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지역의 화학사고 등을 예방 대응하는 소방기관으로 탈바꿈하였다.

3. 2010년대 이후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2000년대부터 시작된 Well-being 생활 추구는 2010년 이후 벌집제거, 동물포획 등 생활안전활동 증가로 나타났다(생활안전활동 출동건수 2010년 6,632건 → 2020년 19,517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충남소방은 「119생활안전대 편성 ·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생활안전구조대원 6인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벌집제거복, 동물포획장비 등을 보강하며 점차 생활안전활동 대응 영역을 확대해갔다. 또한 생활안전활동으로 주된 업무인 긴급상황대응의 공백방지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주축으로 생활안전대를 편성함으로써, 비교적 단순한 비응급상황에 선제출동시킴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긴급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사진 91. **전국최초 드론전문교육(충청소방학교)**

또한 기술의 발달로 드론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충남 소방은 드론을 각종 재난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7월 금산소방서를 시작으로, 2018년 2대, 2019년 12대, 2020년 4대를 도입하여 전 소방관서에 현장에 운용가능한 드론을 배치하였다. 드론의 빠른 기동성과 수색 능력을 구조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였으며,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현장지휘소 및 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20년)하여 신속한 상황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7월 16일 서산시 초등학생 실종, 같은 해 8월 3일 충남 아산시에서 호우로 인해 발생한 실종자 수색 등 각종 구조 현장에서 빛을 발휘하였다.

2021년에는 재난현장에서의 드론 활용도가 전년대비 260%가 증가함에 따라 최첨단 드론을 보강하고, 119특수구조단 드론전담팀, 권역별 광역 드론 수색단을 운영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구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3월부터는 긴박한 재난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한 구조대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명 소생률을 높이고자 '라이프세이버'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1년 구조대원 첫 라이프세이버 수여자 현황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수여 개요
1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장	이건행	천안시 서북구 영타운 화재현장 요구조자 6명 구조
2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장	김용배	
3	천안동남소방서	소방교	조상우	
4	아산소방서	소방교	서현민	
5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사	장경돈	
6	부여소방서	소방위	한주환	부여군 부여읍 백제대교 투신자 1명 구조
7	부여소방서	소방장	유제민	
8	아산소방서	소방교	최덕상	

제3장
소방행정분야별 발전사

제6절 구급대응

6

01.
구급업무 발전사

01.
구급업무 발전사

01. 1990년대 이전



사진 92. 1980년대 구급출동 사진

처음 소방의 모습은 화재진압의 모습만을 띄고 있었다. 사람들은 소방하면 빨간 불자동차가 훨훨 타고 있는 불을 끄는 것만 생각하는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만 1950~60년대 인명구조 업무도 하는 집단으로 바뀌었다가 1983년 12월 30일 소방법의 개정으로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의 업무가 소방법에 들어가서 구급업무도 소방의 기본 업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시절 119구급대의 업무는 지금 응급환자를 전문인력이 응급처치를 하면서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는 지금의 구급대 업무와는 전혀 달랐다.

1990년대 이전에는 전문 구급대원이 없이 소방대원들이 아픈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만을 목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면서 구급대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1989년 8월 18일에 1개의 소방파출소에 1개대의 구급대를 설치한다는 내무부 예규로 제정되었다.

02. 1990년대(전문 구급대 발대)

1990년대로 들어와서 응급구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5년 12월 7일 제정된 내용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반구급차와 특별구급차로 구분을 하였고 구급대가 이송할 수 있는 환자의 기준을 “화재, 교통사고 등의 현장”에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로 확대하였다.

1980년대부터 1995년까지는 구급의 전문성이 없는 빠른 병원 이송에 주안점을 둔 구급대의 모습을 보였던 반면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 충남소방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1995년 2월 5개 소방서(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에 2명씩 총 10명의 전문 인력(간호사)을 충원하여 전문적인 구급대의 모습을 갖추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전문화된 119구급대의 계기가 되었다.



사진 93. 초창기 구급대원 조끼(서산소방서)

그 후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응급구조과가 전국에 개설이 되었고 1997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이 되기 시작하였다.


사진 94. 1996년 이후 구급차

이에 충남소방에서는 1999년초에 1급 응급구조사를 기간제 근무자를 임용하였고 2002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를 정식 발령하여 구급특채로 임용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임용으로 충남소방의 전문적인 구급대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또, 1995년에 내무부 예규 제775호에 따라 구급차가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뉘어져서 운영이 되었는데 충남소방구급은 모두 특수구급차로 이루어져 있고 "구급차에 적재하는 기자재"를 "구급차에 두는 응급처치기구 등"으로 개정되면서 응급처치의 목적에 따라 기도확보 및 호흡유지, 심장박동 회복, 정상혈압 및 맥박유지, 중추신경보호, 환자이송, 체온유지, 통신 및 구출용 기자재 등 구급활동에 필요한 구급장비들이 세분화하며 발전해 왔다.


사진 95. 응급처치를 시행중인 구급대원의 모습

하지만 많은 도민들을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과 구급장비를 충원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인해 이송과정에서 응급처치를 행할 대원이나 구급장비가 턱 없이 부족했고 결국 응급처치가 빠진 단순 이송 후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부에 탄원서도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이후, 1995년도에는 공주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되었고 그 인원들이 1997년도부터 배출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1999년부터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시직 채용을 시작한다. 그럼으로써 충남 구급대는 전문구급대의 본연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03. 2000년대(119구급대의 발전)

2000년대 들어 충남 구급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한다. 1999년 임시직 채용을 시작으로 응급구조사 채용을 본격화하면서 2002년에는 구급분야를 공식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임용을 늘리고 그에 맞춰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구급서비스를 위해 구급차를 늘리면서 2000년대 충남 구급의 모습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난다.

또한, 독거 노인을 비롯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위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무선페이징을 집집마다 보급하여 도민의 안전 지킴이로써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u-119안심콜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구급신고 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병력 파악이나 신고자의 중요사항(집 주소 및 위치, 특이사항) 등을 구급대에서 미리 파악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로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심정지환자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및 일반 시민에게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는 '하이세이버 제도'가 시행되었다.



사진 96. 무선페이징 단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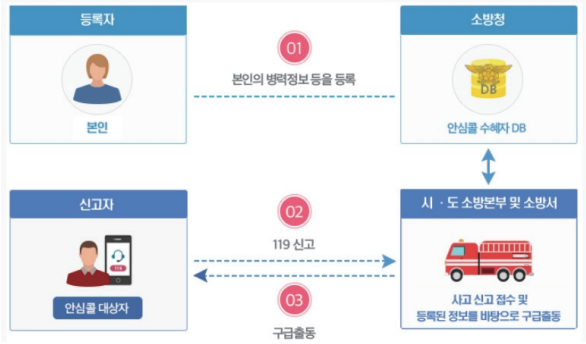


사진 97. U-안심콜 서비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등 하트세이버 수여 현황

구분	수여건수(건)	수여인원(명)		
		계	구급대원 등	일반인
합계	350	**1,647**	1,521	126
2020년	59	**309**	279	30
2019년	71	**388**	364	24
2018년	72	**323**	301	22
2017년	67	**323**	294	29
2016년	81	**304**	283	21

브레인 · 트라우마세이버 수여 현황(2019년 시행)				
구분	브레인세이버		트라우마세이버	
	수여건수(건)	수여인원(명)	수여건수(건)	수여인원(명)
합계	**15**	**40**	**15**	**42**
2020년	3	9	3	9
2019년	12	31	12	33

04. 2010년대(스마트 시대 구급대의 변화)

2010년대 들어 충남 구급은 전문화된 구급대를 만들어간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구급대의 중요성이 더 많이 대두되면서 전문인력의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2010년대가 되기까지는 전문 장비의 보급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구급장비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진정한 전문 구급대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또, 2010년 전에는 종이를 사용하여 작성하던 구급활동일지를 현장정보시스템(AVL)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출동지령과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 지도상에 위치까지 알려주는 네비게이션 기능까지 출동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여 구급출동의 질을 높이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 영상을 통하여 직접 의료지도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심정지 환자의 상황을 알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병원 내 응급실에서 하는 것처럼 구급혜택을 주는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을 2015년부터 천안,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소방서마다 1대씩 특별구급대를 운영하여 심정지 환자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아나필락시스, 응급분만 등 5가지 질환자에 대하여도 영상통화를 통하여 직접의료지도를 통하여 그 질환마다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게끔 응급처치하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아울러, 2012년 7월에는 꽉 막힌 도로나 좁은 골목길을 뚫고 응급환자에게 달려가 환자의 2차 손상을 예방하고 빠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119오토바이구급대"를 운영하였고, 2014년 8월에는 소방서마다 2대씩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좁은 골목을 누비는 "자전거 구급대"를 운영하였다.



사진 98. 오토바이구급대(천안동남소방서 시범 운영)

오토바이, 자전거 구급대와 더불어 충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7년에 다수사상자 발생 시 사용하던 기존 종이 분류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e-triage tag system)을 도입하여 사상자 분류와 병원 분산 이송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다수사상자 구급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충남 소방에서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출산 시대에 맞춰 출산율을 높이고 "임산부들이 아이 낳고 싶은 충남"을 목표로 임산부 전용 구급대를 운영하여 임산부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도내 이동 중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중증도가 심한 교통약자 등 비응급 상황에서도 이송을 지원해 주는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를 추진하여 충남도 4만9천여 명의 중증장애인을 위해 안전 약자와 복지사각지대를 배려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99. 자전거 구급대



사진 100. e-트리아지 태그



사진 101. 임산부 전용 구급차



사진 102.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 모습

제3장
소방행정분야별 발전사

제7절 특수구조

7

01. 기동대

02. 소방항공대

03. 소방정대

01. 기동대

01. 설치배경 및 연혁

1958년 3월 11일 법률「제485호 소방법」의 제정으로 소방은 인명구조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당시 화재와 함께 풍 · 수해, 설해에 의한 인명구조업무가 소방업무에 포함되었으나, 1967년 4월 14일 법률「제1955호 소방법」의 재개정으로 소방은 화재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진 103. 2015년 충남 119광역기동단의 모습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으며, 복잡한 사회구조만큼이나 각종사고가 빈발하고 그 유형도 다양해 전문성을 갖추고 고도로 훈련된 구조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완벽히 개최하기 위하여 우발사태, 교통사고, 테러 등에 의한 화재 등 각종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구조기술과 장비를 갖춘 구조대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1988년 8월 1일 올림픽이 개최되는 7개 도시에 119특별구조대 9개대(서울3 · 부산 · 인천 · 광주 · 대전 · 수원)를 설치하였고, 구조대원 114명과 구조공작차 9대로 화재 및 각종 사고의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1989년도에 소방법을 개정하여 소방업무에 구조활동을 명문화하였다.

이후 청주 우암아파트상가 붕괴사고(93.1.17.),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93.7.23.), 성수대교 붕괴사고(94.10.21.),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94.10.24.),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6.29.) 등 각종 대형재난 ·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구조기능의 보강이 추진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구난 활동 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시 · 도 및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설치하였으며, 각 시 · 도에는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화학구조대 등을 설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청남도에서는 보령화학발전소 화재(2012년),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2013년) 등 매년 늘어나는 대형 사고로 당시 일반구조대 중심 긴급구조 대응책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어 2014년에 항공대, 소방정

대, 그리고 지역별 사고유형에 맞는 산악 · 수난 · 화학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기동팀을 어우른 119광역기동단을 발대(2015년)하여 대형 · 특수재난에 대비한 광역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소방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후 119광역기동단에서 119특수구조단으로 명칭 변경(2020년) 하였으며 구조업무의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팀, 기동대, 항공대로 새롭게 119특수구조단이 탄생하였다.

기동대는 각 지역의 베테랑 구조대원 27명과 특수사고 대응을 위한 특수장비를 기반으로 충청남도 전역에서 활약중이다.

기동대는 역할에 걸맞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특수하고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재난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대형 특수재난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육상 및 공중의 입체적 통합긴급구조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수구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 104. **소방헬기를 이용한 수상훈련**

기동대는 대형 · 특수 재난으로부터 강하고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분야별 정예 구조대원으로 편성되었다. 우리 도의 소방여건과 환경에 맞는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중 · 대형 및 특수재난에 대한 긴급대응체계, 신속한 대응 및 출동여건 개선과 특수장비를 효율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운용함으로써 각 소방서 구조대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사진 105. **산악구조 훈련**

02. 주요 재난 및 사고(활동내역)

기동대의 주요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수난 특수장비(SONAR, ROV), 화학분석차 등을 활용한 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장소 또는 대원의 불필요한 체력소모를 막기 위해 특수장비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 주요 출동내역을 살펴보겠다.

1) 예산 옥계저수지 수난출동


사진 106. 옥계저수지 구조대 수색활동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옥계저수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2020년 1월 7일 11:00시경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집을 나간 뒤 미귀가한 상황으로 위치추적결과 옥계저수지 둑방에서 신발과 담배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내용이었다. 현장에서는 관할 구조대에서 1차 구조작업 중 이었고 수색범위가 광범위하며 궂은 날씨로 인해 구조대원의 안전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특수장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기동대에서 보유 중인 수난 특수장비 ROV(수중드론)를 활용한 2차 수색에 돌입했고, 그 결과 소수의 인원과 대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단시간에 요구조자(익사자)를 발견하여 인양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기동대가 ROV를 운용하여 처음으로 요구조자 인양에 성공한 사례이다.



사진 107. 산수저수지 요구조자 인양

2) 서산 산수저수지 수난출동

서산시 산수저수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서대 일본어과 교환학생이 2015년 1월 3일 9시경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간다"고 말하고 기숙사를 나선 뒤 실종된 상태였다. 경찰, 소방, 서산시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 한서대학교 학생 등 1,000여 명의 인원과 소방헬기, 수상보트, 수색견 등 대규모 장비를 동원하여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인근 야산 및 저수지를 수색한 결과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을 때 즈음 수중음파탐지기 관찰 모니터에 요구조자 형상의 물체가 찍히게 된다. 2월 15일 기동대 특수장비인 SONAR(수중음파탐지기)를 활용하여 요구조자(익사자)를 인양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필요로 하는 수색 구조

작업 등에서 최소한의 인원 및 장비로 효율적인 수색구조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고현장 활동에서 특수장비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장비의 최신 · 첨단화 및 대원들의 장비조작능력 향상 또한 필요로 할 것이다.

3) 홍성 우체국 테러(방사능)의심 신고 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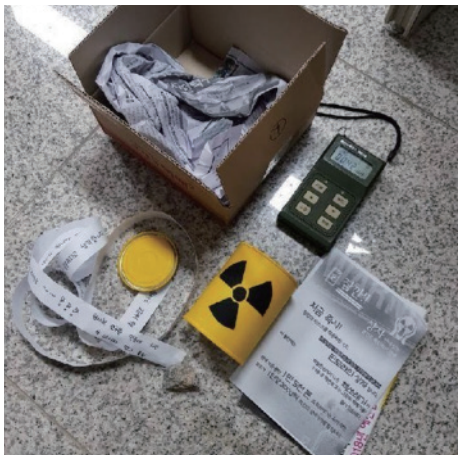


사진 108. **방사능 측정 및 수거 장비**

2018년 2월 23일 18시경 화재다발권역(천안 아산) 전진배치를 위해 아산 송악119지역대로 이동 중 발생한 상황으로 방사능 의심물질이 홍성우체국에 접수되어 현장에 도착한 기동대원 2명이 방사능 보호복을 착용, 개인선량계 및 원거리방사능 측정기, 수거장비 휴대 후 현장 진입하여 의심물질(방사능물질표지 금속통)의 방사능 측정 후 수거하여 현장 경찰에 인계하였던 건으로 방사능사고 및 테러관련 전담부서로의 역할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이후 2019년 1월 29일 화생방분석차량과 방사선감시시스템(NERMS-32NG/2GM) 도입하여 2020년 9월 29일 SIGIS 2(원거리 화학물질 탐지분석기)가 보강되어 명실상부 충남뿐 아니라 전국단위 방사능사고 대응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4) 예산군 배터리공장 유해화학물질 폭발사고 출동

2017년 4월 21일 22:54경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소재 리튬염화티오닐전지를 생산하는 ㈜비츠로셀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및 특수물질 을 취급하는 공장으로 급격하게 화세가 커지는 상황으로 대응 2단계가 발령되고 기동대 전원 비상소집에 응하여 전 방위적으로 활약한 사고 현장이었다.

기동대의 활약은 첫째, 맹독성 염화티오닐[17] 보관시설로의 연소확대 방지 성공으로 공장장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40톤 보관시설 화재 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정보 입수 후 급격하게 연소

17) 염화티오닐(SOCl2) : 자극적인 냄새 나는 무색의 발연성 유독물질,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독성이 강한 아황산가스(SO2)와 흡입할 때 인체에 치명적인 염화수소(HCl)를 생성



사진 109.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화재



사진 110.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의 모습

중인 제3공장과 연결된 강화 플라스틱 배관라인(높이 7m, 직경 700mm)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로 연소확대가 진행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서산구조대와 복식사다리 및 절단기를 이용 배관을 절단, 소방호스로 배관라인을 분리 이탈시킴으로써 연소확대를 저지하였다.

둘째, 인접공장으로의 연소확대 저지로 제2공장동 폭발로 인하여 연소확대된 제1공장동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삼우메디안으로 폭발화염 및 파편이 비산하는 상황에서 삼우메디안 관계자로부터 공장내부에 위험물(석유류, 다이클로로벤젠[18])이 다량 보관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계관창을 집중 배치하고 화염이 분출되고 있던 비츠로셀 1공장동 벽면에 집중 방수하여 연소확대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다.

셋째, 현장지휘 사각지대에 대한 방면지휘 보조자 역할수행으로 공장동 폭발로 연소확대가 진행되고 화재 방면이 확대됨에 따라 복잡해진 현장상황에 대한 대원들의 정보 부족 및 현장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을 확이하고 지휘부에 현장안전점검관의 추가 배치를 건의함으로써 현장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넷째, 화재 당시 초기출동자원 대비 화세가 강한 상황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 진행상황 및 위험요소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고 및 억제 대책을 제시하며, 위험물로 인한 2차 피해를 고려 인근 주민대피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실행시킴으로써 대민안전사고의 피해 없이 현장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18) 다이클로로벤젠(C6H4Cl2) : 흰색의 고체로 단맛이 나는 독성물질, 누출 시 신장과 간에 종양 발병 및 고농도의 증기는 호흡기와 눈 · 코 · 피부 등 알레르기 유발

5) 아산 급류 고립사고 출동

2020년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해 아산 송악면 유곡리에서 급류 고립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둑방을 통해 대피하던 주민 4명이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의하여 고립된 사건이다. 당시 하천 둑방 앞, 뒤가 급류에 의해 계속 무너져 내리는 상태로 주민들은 급류에 휩쓸려 가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이었다.

유속이 너무 빠르고 폭이 넓어 수영이나 다른 수단(로프이용 등)으로 구조하기에는 요구조자와 대원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었기에 고무보트를 신속히 투입하여 인명구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그 당시 강물의 유속이 너무 빨라 보트의 조작이 쉽지 않았고 대원들의 체력도 한계치에 달하였으나, 기동대원들이 힘겹게 고립지역 접근에 성공하여 요구조자 4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인근 침수주택에 대한 수색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6명을 추가 발견하여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사례다.



사진 111. **구조보트 활용 저수지 수색활동**

03. 기동대 현재

충남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기동대는 재난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밤낮없이 충남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충남면적 8,226.32㎢ 및 인구 2,115,823명(2021년 3월)의 안전을 관할하고 있다.

기동대는 국민의 화재, 재난 · 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년 한해(2020년) 출동건수 기준으로 약 580건(화재 513, 수난 38, 화학 8, 기타 22)이며, 현재 소방력은 기동대장 소방령 1명 외 27명의 각 소방서에서 선발을 통한 베테랑 구조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원들은 대형화재 · 수난 · 항공 · 산악 · 화학사고 등 인명구조에 전문화된 인원들을 주축으로 충남의 각종 재난사고를 비롯 전국단위 재난사고에도 지원출동하고 있다. 국가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국 119특수구조단 통합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이 관리하는 4개의 권역별 통합대응체계는 중앙구조본부를 포함한 수도권역 4개(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호남권역 4개(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역 6개(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창원)이며, 우리 기동대는 충청 · 강원권역 5개(충남, 충북, 대전, 세종, 강원)에 속하여 이를 하나로 묶어서 대형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사진 112. 충청 · 강원 119특수구조대 발대식

권역별 대응체계는 예측불허의 대형 재난에 최적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조역량을 결집하는데 있다. 주 출동은 대응 2단계 이상 지원출동 및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필요 판단 시 동일권역 특수구조단을 동시에 출동시킬 수 있는 체제이다. 지난 2020년 10월 8일 울산주상복합아파트 화재에 영남권역 특수구조단이 출동해 총력적인 대응을 전개한 모습은 통합대응체계의 좋은 예이다.

기동대는 매년 일선소방서에 구조현장에서 익혀온 구조기술 노하우와 선진기술을 전파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훈련을 개최함으로써 충남 구조대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각종 구조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또한 진행하고 있다.

특수재난은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구조대원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훈련을 강화해 구조대원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켜, 인명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동대원은 유도선 화재예방활동과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해 협력체계를 다지고 있다.

기동대는 충남 전역의 수난구조 발생 시 각 소방서 관할구조대와 함께 인명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종 첨단장비를 도입해 화학 · 테러 · 급류 · 수난 등 각 분야별 핵심 구조대원들로 편성 · 운영되는 기동대는 충청남도 인명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충청소방학교 급류구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구조대원을 육성하면서 급류구조 기초과정 자격도 신설하였다.

이 기술은 지난해 장마철 홍수로 인한 송악저수지 계곡의 물이 범람하면서 급류사고로 고립된 요구조자 10여 명을 조기에 발견하여 인명을 무사히 구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기동대는 복합재난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 적응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활동을 전개하며, 이런 훈련을 통하여 도출한 종합결과는 일선 소방서에 전파하여 대형재난사고 고층건물화재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기동대는 앞으로도 충청남도 인구 증가와 도민의 인프라 환경 조성에 걸맞은 효율적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형 특수재난 출동여건 개선과 특수장비를 활용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을 함으로써, 인명구조 및 특수재난 대비 · 대응 전문 구조대를 필요로 각종 긴급재난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 113. **수색작업에 나서는 구조대원의 모습**

02. 소방항공대

01. 소방항공대 연혁·발전사

충남소방항공대는 1996. 3. 22.에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1999. 12. 27. 초도기(W-3A Sokol/폴란드/ 39억 원)를 도입하여 예산군 삽교읍 소재 한벨헬리콥터 공장에서 2000. 1. 20.에 발대(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구조사 4명)하였다. 이후 2003. 12. 15.에 육군 연기비행장(당시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일원)에 청사를 이전하여 소방항공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비록 육군 비행장을 임차해 사용했지만 단독청사를 마련하여 운항관리, 정비관리, 항공안전 및 산악항공구조훈련 등 운영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출동 횟수가 증가하고 소방에서의 헬기 비중은 점차 높아졌다. 2008년에는 국가기관 항공기로 지정되면서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기존 1인 조종사가 운항하던 것을 2인 조종사가 운항하도록 안전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기존 2명이었던 조종사를 4명(계약직)으로 증원하여 2교대로 운용하였다.

발대 이후 주요 성과로는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열린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항공지원이다. 이 행사는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30개국 170여 업체가 참가하여 입장객이 200만 명이나 되는 큰 행사였다. 국제 행사이다 보니 관광객도 많고 사고 위험이 높아 행사기간 동안 헬기와 지상지원 차량이 태안 및 안면도 인근에 근접 대기하며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했다.


사진 114. 산불화재를 진압중인 소방헬기

산불 진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터넷에 산불을 검색하면 2005년 양양 · 낙산사 산불이 제일 먼저 검색된다. 산불로 중요한 문화재인 낙산사가 소실되면서 쓰라린 교훈을 준 산불이다. 2005. 4. 4. ~ 6. 까지 약 32시간 동안 연소했고, 산림피해 973 Ha, 피해액이 394억 원에 복구비만 260억 원에 이르는 대형산불이었다. 이때 21,181명의 인력과 헬기 65대가 동원되었다. 우리 충남소방 헬기도 당연히 투입되어 산불진화에 힘을 보탰다. 최대 풍속이 27m/s나 되어 헬기를 조종하기가 어려웠다.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화염과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고압선 등 높은 장

애물, 다수의 항공기가 운용되었기에 공중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헬기는 여러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대형산불화재를 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08. 5. 4. 보령시 남포면 죽도에서는 바닷물이 범람하면서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즉시 합동사고대책본부가 꾸려져 우리 소방헬기가 투입되는 등 총 5대의 헬기가 항공 순찰을 했고, 해경 경비정 등 57척의 선박과 지상요원 361명이 동원돼 육상과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벌였다. 섬 인근에서의 실종이지만 조류를 따라 먼 바다로 흘러갔을 경우를 고려해 근해와 원해를 구분하여 공중수색을 했다. 바다의 경우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박보다 헬기를 이용한 수색이 효과적이었다. 이 사고로 14명의 부상자를 구조했고, 9명이 사망했다.

2013. 7. 18. 오후 5시 34분쯤에는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서 사설 해병대 훈련캠프에 참가했던 진모군(17) 등 공주지역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5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훈련 일정이 끝난 학생들이 백사장에서 쉬고 있다가 교관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는데 순간 큰 파도가 치면서 학생들이 휩쓸렸고, 6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5명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실종 당시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목격자들은 설명했다. 이때 우리 헬기 포함 헬기 3대, 고정익 항공기 1대, 경비정 12척, 구조인력과 소방, 군 · 경 등 230여 명을 투입해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어린 학생들을 차가운 바다에 남겨야만 하는 아픔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던 중 2011. 3. 19.(토) 가야산에서 산불진압 중 헬기가 멸실되고 1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2011. 7. 1.부터 2015. 12. 31.까지 임차헬기(BK-117)를 대체기로 운영하면서 신형 소방헬기(AW-139/이탈리아/200억 원)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2016. 1. 1.부터 현재의 태안군 한서대학교 비행장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었다.

현재 운용 중인 소방헬기(AW-139)는 2016. 1. 1.에 취항하여 구조 181건, 구급 187건, 화재 41건 등 924건을 출동하였고 1,240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2021.4.24. 기준)



사진 115. **산불화재 진압 중 소방헬기 추락사고**



사진 116. **소방헬기와 격납고의 모습**

주요 제원으로는 1,679마력 엔진 2기를 장착하여 최대 이륙중량 6,400kg, 최대속도 310km/h, 항속거리 798km, 체공시간 3시간 50분, 탑승 인원은 14인승(최대 17명) 이다. 주요 탑재 장비로는 자동 항법/비행장치, 디지털 계기, 엔진 내 이물질 유입 방지 장치, 수면 비상착륙장치(자체 공기부양장치), EMS(응급환자 처치장비), 호이스트(구조 견인장치), 외부화물 인양장치, 밤비버킷(담수용량 1,500리터)이다. 주요 임무로는 산악 및 해상 · 내수면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구조, 응급환자 병원이송, 장거리 소방력(인원/장비) 이송, 산불감시 및 진화 등이다.

02. 시련과 재도약

소방항공대는 발대 이후(2000. 1. 20.) 11년간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의 모든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으로 발전해갔다. 특히, 산불화재의 경우 면적이 넓고 절벽 등 장애 요소가 많아 인력으로는 진압할 수가 없어 소방헬기가 거의 모든 산불화재에 투입되었다. 소방헬기는 밤비바켓(물을 담는 장비)을 이용해 많은 물을 신속하게 살수 할 수 있어 산불화재 시 매우 효과적인 장비이기 때문이다.


사진 117. 밤비버켓에 물을 담는 모습

그러나 2011. 3. 19.(토) 가야산 산불 진압 중 헬기가 추락했다. 오전 6시 48분 경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산수저수지에서 밤비바켓에 물을 담기 위한 제자리비행 중 추락해 탑승자 3명 가운데 1명 사망(정비사), 2명 경상(조종사), 헬기가 멸실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기상은 양호하였고 전날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산림청 헬기 등 총 5대가 임무수행 중이었다. 우리 헬기는 1회차 살수 후 2회차 물을 담기 위해 저수지 수면에 저공으로 접근 중 갑자기 추락하였다. 추락 직후 탑승자 3명은 헬기에서 탈출해 물에 떠 있는 헬기 동체 위로 올라왔지만 헬기는 이내 가라앉았고 2명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뭍으로 올라왔지만 1명은 헬기와 같이 물속에 가라앉았다.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 헬기 하강풍에 의해 발생한 물보라의 영향으로 조종사의 고도착각 유발, 수면부족 및 건강관리 미흡, 비행절차 미준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금의 항공대에 근무하는 후배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깝고 교훈적인 사고로 기록된다.

소방헬기가 사고로 멸실 된 후 2011. 7. 1.부터 2015. 12. 31.까지 '㈜에어로피스'라는 민간항공회

사의 헬기를(BK-117) 임차하여 대체기로 운영하였다. 이 기간동안 근무인원은 8명으로 민간항공회사에서 조종사 3명과 정비사 1명이 파견되었고, 우리 소방본부 조종사 1명과 구조사 3명이 근무했다. 소방관과 민간인이 한 팀으로 근무하는 형태였으며 임차 헬기는 야간비행이 불가하고 소형기종이라서 늘어나는 헬기 출동 수요를 충족하기에 버거웠다. 그래서 道소방본부는 신속히 신형 헬기의 도입을 추진했고, 2016. 1. 1.에 지금의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에 신형 소방헬기를 취항시켰다.



사진 118. **추락한 소방헬기를 인양하는 모습**

신형 소방헬기의 도입 후 2016. 05. 12.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지상에서 40m 높이의 설비에서 난 불이라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임차운용하던 헬기는 소형헬기라 화재진압이 불가능했지만 신형 헬기는 1,500리터의 담수능력을 갖추는 등 헬기 성능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즉시 출동했고, 기대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높은 공장 굴뚝과 타워크레인 등 장애물이 많아 가까이 진입할 수 없어 효과적인 화재진압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또한, 해무가 밀려왔고 일몰 시간이 다 되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던 아쉬움이 남는 출동이었다.(해무와 일몰 시간 이후의 헬기 화재진압은 불가)

또한, 2019. 10. 31. 독도에서의 중앙119구조본부 헬기 사고 시에는 우리 헬기가 1주일 동안 속초와 울릉도에 파견되어 독도로부터 동쪽 반경 15마일을 항공순찰했다. 독도까지 해상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는 전국 소방 29대 헬기 중 8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멀었지만 우리 헬기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우리 헬기는 소방력 공중수송, 사고헬기의 블랙박스 이송, 울릉도 뇌출혈 환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면서 항공대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의 순직과 처참하게 부서진 헬기 잔해를 가까이서 접한 항공대원들의 마음은 무거웠고 안전운항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훈련도 강화했다. 정비사 전원은 제작사(이탈리아) 정비교육을 이수하여 자체 정비능력을 갖추었고, 조종사 전원이 100% 계기비행 자격을 갖추어 갑작스런 악기상 조우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 했다. 또한, 수상생환훈련도 실시했다. 이는 소방활동 중 헬기가 수상에 불시착할 경우를 대비한 훈련으로 2017년부터 매년 7~8월에 자체 훈련 및 중앙119구조본부 훈련과정을 이수했다. 헬기는 엔진이 동체 윗부분에 있어 수상에 불시착할 때 무게 중심이 높아 뒤집힐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항공대원들의 생환훈련은 필수적인 항목으로 꼽힌다. 훈련은 휴대용 공기호흡기, 구명동의 등 생환장비 사용법, 생존수영 등 소방헬기 불시착에 대비한 대원들의 생존 방법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헬기 시뮬레이터 수중 탈출훈련은 실전적인 상황에서 실시돼 대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119. **소방헬기를 이용한 산악구조 훈련**

또한, 더 큰 도약을 위해 소방헬기 추가 도입(2호기)을 추진해 230억 원(국비 50%, 도비 50%)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구매 대상 기종의 장 · 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道의 지형과 소방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2024년에 취항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방복합시설(충남 청양군 비봉면 일원) 에 단독 헬기장을 갖춘 청사를 조성 중에 있다. 이곳은 충남의 중앙에 위치하여 15분 안에 헬기가 도내 모든 곳에 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헬기 2대를 동시에 격납하고 정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 · 야간으로 헬기가 안전하게 이 · 착륙할 수 있어 새 청사를 기반으로 중부권 최고 소방항공대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03. 소방정대

01. 설치배경 및 연혁



사진 120. 소방정대 청사의 모습

충남 당진시는 예로부터 국제 무역이 활발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다.

당진시는 2000년 11월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서해대교 개통으로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를 맞았고, 2010년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당진에 공장을 준공하면서 산업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빠르게 변모했다. 당진 · 평택항은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물동량이 증가했다.

2000년 서해대교 개통으로 충남 서해권을 찾는 관광객 또한 증가했다. 당진시는 신평면 매산리 행담도와, 함상공원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 등을 개발시키며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였으며 다른 시 · 군도 서해대교와 연계한 관광지를 개발하였다.

환황해 거점 항만을 목표로 충남 일원의 화물선, 위험물 운반선, 여객선 등의 통행량 증가와, 충남 도서 · 연안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2011년 8월 14일 충남 당진군 한진포구 앞 갯바위에서 밀물이 밀려오면서 관광객 30여 명이 고립되고, 2011년 8월 29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 석문방조제 인근 갯벌에서 조개구이를 해 먹던 중 밀물을 피하지 못하고 2명이 숨졌으며, 2011년 7월 5일 충남 태안군 만대항 선착장에 정박해있던 어선에서 불이 나 어선 9척이 불탔고, 2012년 1월 3일 대산항에 정박돼 있던 폐유운반선에서 폭발이 일어나 배 두 척



사진 121. 폐유운반선의 화재를 진압하는 해경의 모습

이 전소되는 등 신속한 화재 · 구조 ·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정대 설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충남 소방정대는 전국에서 7번째로 충남 주요 항 및 도서 전 지역에 화재 · 구조 ·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 24억, 시비 24억 총 48억원을 들여 신설되었으며, 전북 군산 삼원중공업에서 2014년 3월 건조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 3일 납품, 11월 19일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고대관리부두에 배치되었다.

2014년 12월 1일 소방정대 청사부지 옆 당진항 지원센터 내에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업무를 개시하였고, 2015년 4월 8일 소방정 취항식, 같은 해 8월 7일 청사가 이전되었다. 2013년 최초로 항해사 1명, 기관사 3명을 임용하였으며, 이듬해 항해사 2명을 임용하여 정대장 1명, 항해사 3명, 기관사 3명 등 총 12명이 소방정대에 배치되었다.



사진 122. 2015년 5월 8일 소방정 취항식

02. 소방정대 현재

2021년 현재 정대장 1명, 항해사 6명, 기관사 6명이 소방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정은 전장 30m, 폭 5.4m, 깊이 2.5m, 엔진은 3,600마력(1,800마력 x 2대)으로, 최대속력 27노트(시속 50km/h) 항해 가능한 64톤급 선박이며, 화재진압, 구급, 구조뿐 아니라 해상 유류오염 시 방재 작업도 가능하다.

P.T.O 방식이 아닌 별도의 소화펌프(225마력, 4,000L/min x 2대)가 탑재되어, 방수 시활동영역이 넓어 효과적인 방수가 가능하다. 선수측 방수포 4대, 선미측도 방수구가 6개 있으며, 약 10분간의 폼 소화(탱크용량 840L)가 가능하다. 소방선박 보유기준에 맞게 구급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해상에서 구급활동이 가능하며, 최근엔 음압형 이송장비도 탑재되어 해상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상기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송 가능하다.

최대속력 25노트(시속 46km/h)인 60마력의 구조보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주로 요구조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사용된다. 또한 소방정 접근이 불가능한 항 · 포구나 섬에 적절히 구조보트를 활용하여 소방활동의 폭을 넓혔다. 해양오염 방재를 위한 장비(오일펜스, 유흡착포, 유처리제 등)도 갖춰져 있다. 이러한 현장 활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정대 자체 해상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 분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 해양재난상황 대응절차 숙달 및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사진 123. **소방정 해상재난 대비 훈련**

제3장
소방행정분야별 발전사

제8절 상황관리

8

01. 재난 상황관리의 시작

02. 재난 신고접수 시스템의 태동

03. 119상황관리체계의 성장

04. 선진화된 재난상황관리체계로의 변화

05. 광역 재난상황관리체계의 발전

06. 재난상황관리체계 전문화

01.
재난 상황관리의 시작

1945년 광복 이후 통신시설이 그리 발전하지 못했던 1980년대 이전까지 충남 도내 주요 도시의 화재감시와 전파를 위한 통신수단은 당시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에 설치된 화재감시용 망루가 대표적인 소방 관제 시설이었다.

즉, 입으로 전달된 신고나 망루 위에 자리한 근무자의 경계의 눈으로 화재 사실을 확인한 후에 타종이나 수동사이렌 등을 이용하여 화재발생 통보와 출동지령이 이루어졌다. 우리 충남에는 1951년에 지어진 보령경찰서 망루가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다. 6 · 25 전쟁 당시 치안유지용 망루로 사용하다가 1993년까지 화재발생 사이렌을 울리던 시설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매년 만우절(4. 1.)이 다가오면 허위신고도 잇따랐다. 1962년 대전시 선화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이 거짓으로 불이 났다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4대의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켜 이에 잔뜩 화가 난 소방서장이 사직당국에 허위신고자를 고발한 사건도 전해진다.(1962. 4. 2. 조선일보)

이후 망루 등을 이용한 화재감시 체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1992년에 16개 시 · 도의 광역소방행정체제 출범과 시대 흐름에 따라 1993년 12월「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내무부령)」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군용무전기(최초의 소방무전기)를 사용하여 재난 관련 부서에 재난 상황을 전파하여 현장 수습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신속히 재난 · 재해에 대처하였다.



사진 124. **보령경찰서 망루**

02.
재난 신고접수 시스템의 태동

1976년 내무부에 소방국이 발족하였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통신망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었으며,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에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전용의 전화시설을 두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였다. 이에 본격적인 화재 전용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사진 125. 즉시 119출동이 가능한 독거노인 유케어 서비스 전화기

1990년대 이후 당시 체신부는 화재신고나 범죄신고 등 3자리 특수전화번호를 계열화하고, 11번 대는 화재 등 긴급상황을 신고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한정하였다.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나가 기억하기 쉽고 번뜩 생각나는 신고번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03.
119상황관리체계의 성장

1992년에 이르러 16개 시 · 도에 모든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광역소방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광역소방무선통신망 확충 추진지침(내무부, 1993. 11.)에 따라 16개 시 · 도에 소방전용 무선주파수의 할당과 중장기 통신망 보강사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재난 현장 지휘통제를 위한 필수 요소인 소방 유 · 무선 통신 인프라도 구축되었고, 1996년도 제4차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1996.8.23. 내무부령)하여 각 소방서에는 소방 상황을 접수하고 전달하는 전산 · 통신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소방업무에 필요한 무선통신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119상황관리체계의 기반 마련에 매진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에 발생한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체계적인 재난 신고접수를 위한 소방정보통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6년 내무부 장비통신과 주관하에 추진된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 기본 계획 및 설계'사업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119신고 배워요." 경희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27일 광진구 중곡동 어린이집에서 응급상황에 닥쳤을 때 119에 연락하는 방법을 연극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 <鄭智潤기자>

사진 126. 1996년 119신고 전화 교육 기사(경향신문)

1998년 이전까지 우리 도내 119신고체계는 22개 전화국 단위별로 분산 설치되어 소방파출소(의용소방대)에서 시스템 없이 전화기에만 의존하여 어느 동네, 누구네 집 등을 물어물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이런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더욱 신속 정확한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동시 출동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전문화된 상황운영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신고자 위치파악 시스템가동

서울시 소방본부는 22일 119 신고를 받는 즉시 신고자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재난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전화 가 걸려온후 4초 안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장난전화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127. 1998년 재난정보 시스템 기사(경향신문)

19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충남의 시 지역에 위치한 6개 소방서(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를 1개 단위로 통합하여 119 신고를 받고 유선전화로 해당 소방파출소와 지역대에 출동을 지령하는 접수대를 설치하여 119신고접수체계의 기반을 다진 결과 119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 7월에는 광역소방체제가 정착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숙달된 업무처리의 수요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급진적인 발전과 더불어 광역으로 처리가 가능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충청남도는 道 단위 전국 최초로 인원 29명(소방 27, 일반 2), 접수대 6식을 갖추고 119종합상황실을 통합 설치 운영하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119종합상황실 설치근거 및 주요내용

연월일	근거	주요내용
1998.9.5.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재난안전과 26명(일반직 25, 기능직1) 소방안전본부로 소속 변경 – 재난안전과 재난종합상황실에 소방직 3명 증원
2005.10.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소방본부 방호구조과(방호, 예방, 구조 · 구급, 화재조사, 종합상황실)
2007.1.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 '방호구조과 종합상황실'을 '방호구조과 종합안전센터'로 변경
2012.6.2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 '방호구조과 종합안전센터'를 과단위'종합방재센터'로 격상
2013.7.1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소방안전본부 종합방재센터'를 '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로 변경
2020.4.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로 변경

04.
선진화된 재난상황관리체계로의 변화

2002년에 들어서는 전국의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활동 보고용 통계 D/B화와 소방대상물 자료 등의 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각종 재난 신고의 접수부터 출동지령, 상황관제 및 조사, 보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긴급활동정보를 웹(Web)을 통해 실시간 입력, 조회 나아가 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시스템에 의해 자동화할 수 있었다. 기존의 문서나 팩스로 왕래하던 긴급 상황정보의 유통단계를 개선하여 재난상황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당시 119상황실을 중심으로 119신고접수 기능, 인적 · 자연재난 상황실 등 공간통합을 이루어 운영하는 지자체는 충남을 포함하여 3개 시 · 도 뿐이었다.

2003년 5월 29일「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근무인원, 전산통신장비 설치기준, 보고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는 곧, 소방종합상황실 및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진 128. 2006년 119상황실의 모습

2005년부터 119접수지령관제시스템(119위치정보, 지리정보, 이동전화위치정보)을 구축하였다. 신고자의 신속한 위치 파악과 소방관서에 119지령접수단말장치 · 방송시설 · 무선기지국 · 구내통신선로시설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 · 무선 정보통신 장비를 설치하였고, 출동 중인 소방차에 실시간 출동 지령을 전달하는 방송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라 119위치정보시스템(신고자의 위치정보 자동 추적)도 도로명주소로의 변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를 병행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시스템의 운영으로 장난 및 허위신고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신고 중 통화가 끊기거나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졌으며, 신고접수부터 출동지령에 이르기까지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05.
광역 재난상황관리체계의 발전



사진 129.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전경**

2012년 하반기 충청남도청이 대전시 선화동 시대를 접고 내포신도시에 뿌리를 내리며 119신고 접수처리 체계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새로운 재난환경 대응에 적합한 첨단 긴급구조 표준시스템과 융 · 복합 행정의 일환으로 이원화된 상황실(119, 자연재난)의 공간 통합 사업을 구축하여 365일 무중단 서비스 및 재난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기동성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도모하고자 재난현장 최단 출동로 검색(GIS 및 GPS 기반), 출동 · 귀소 · 대기 등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최적의 출동대를 구성하는 소방차량 위치관제(AVL) 및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령접수, 구조 · 구급활동보고서 작성 등의 현장처리 지원기능을 구축하였다. 나아가 소방대상물, 소방용수 등 실시간 현장 상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정보지원시스템(전용 단말기 177대)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2013년부터 이를 운영하였다.

한편 201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소방무선통신망 개선사업으로 중계국 18대, 기지국 92대 차량국 523대, 휴대국 2,401대에 대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했으며, 전국 최초 1인 1대원 디지털 무전기 보급을 달성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앱, 문자 등을 활용한 다매체 119신고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었다.

2014년에는 도내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외국인 119신고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국 최초로 베트남어를 비롯한 4개 외국어 능통자를 119통역봉사자로 위촉해 외국인이 119긴급전화 신고 시 '신고자 ⇄ 상황요원 ⇄ 통역봉사자'간 3자 통화 연결을 통해 119신고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소방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더 행복한 충남을 구현하는데 앞장 섰다.

2014년 4월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선박에 탔던 피해 학생들이 해양긴급 신고번호인 122를 몰랐으며, 수많은 사람이 119로 신고한 사례가 생겨



사진 130. 119통역봉사자 위촉식

났다. 119에서 122로 재연결 및 반복 설명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신고전화 통합 및 긴급전화와 비긴급전화의 분리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인위원회, 긴급신고기관과 합동으로 21개 국민 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세 개 번호로 통합하는 긴급신고통합서비스를 2016년 10월 전면 시행하였다. 이로써 긴급신고전화가 3개로 단순화되고, 112와 119는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자에게 불필요한 반복 설명을 최소화하여 재난 대응에 있어서 신속한 접근성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긴급구조기관의 공동대응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소방↔경찰↔해양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였다.



사진 131. 2021년 6월 13일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지도를 하는 모습

2020년에는 대형 재난시 사용되는 통합무선망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대비하여 기존 무선망(UHF)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국가 재난망 구축과 동시에 소방무선망 이중화를 이뤘고, 지난 2016년부터는 차량에 부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재난현장을 촬영하여 119종합상황실로 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난현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제적 현장지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사진 132. 충남소방본부, 전국 최초 119 영상신고 수어통역서비스

다른 한편, 청각 · 언어장애인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소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고민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사시 수어통역사와 영상통화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서였다. 2021년 1월의 일이며, 전국 최초로 수어통역서비스를 도입하여 소외계층을 배려한 양극화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06.
재난상황관리체계 전문화

01. 119종합상황실 업무 세분화

2017년 12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이 제정되었다. 기존 재난정보의 수집 · 분석 · 전파(보고 · 통보 · 대응지시)를 넘어 지휘 · 조정 · 통제 등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 29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종합방재센터 상황관제요원 6명 증원 포함 총 56명(실장 1명(소방정), 상황지원 4명, 수보요원 45명, 소방정보통신 6명)이 근무하게 되어 상황관리 업무가 더욱 구체화 되었다.

2020년 4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된 연후, 종합방재센터를 현재의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하면서 119종합상황실 총 6팀(상황분석팀, 상황 1 · 2 · 3팀, 소방정보통신팀, 구급상황관리팀)으로 구성되어 보다 강화된 업무 전문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화에 힘입어 충남119종합상황실은 재난대응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상황보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2020년 소방청 주관 전국 119재난상황관리 평가에서 상 · 하반기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 상반기에도 A등을 받아 3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그 성과이다.

02. 구급상황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9]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12개 권역별로 설치되어 권역 내의 응급의료체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응급의료 관련 정보(의료상담, 이송업체, 의료기관 안내 등)를 담당하고 국민들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20]

하지만 2012년 6월부터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339를 119로 통합하여 관련 응급

19) 1994. 1.7 법률 제4730호 제정

의료 상담업무가 119로 이관되면서 각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본격적으로 응급의료 지도 · 상담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339에서 근무하던 구급상황관리사 3명이 119종합상황실로 이동 배치되어 응급의료 상담업무를 시작하였고, 응급처치지도 · 의료상담에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6년에는 119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응급처치 지도 및 병원 · 약국운영 안내 등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자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 운영 규칙」을 제정 · 시행함에 따라 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2018년 4월까지 119종합상황실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여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 및 일반인 의료상담 업무를 맡아 왔으나, 현재는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와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를 위해 충청권 4개 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응급의학전문의 37명을 인력풀로 구성하여 주 · 야간 1명씩 24시간 구급대원 의료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133. 2010년 공중보건의에게 구급지도를 받는 모습

또한,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료지도로 심정지 골든타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 출동, 응급처치지도, 병원 · 약국 정보안내 및 이송으로 이어지는 One-Stop(원-스톱)구급서비스 제공으로 신고접수 단계부터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져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례로 2015년 12월 심정지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접수 35초 만에 전문 구급차량 및 펌뷸런스를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킨 사례가 있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지닌 신고접수요원이 최초로 하트세이버를 수여 받은 영예로 기록되기도 했다.

20) 1990년도 추석연휴기간 중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례를 계기로 국가에서는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체계를 1991년까지 완비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그 해 7월 1일 대한적십자사 전국 11개 지사에 129응급환자정보센터로 개소되면서 운영해 오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기점으로 국민들의 혼선을 준다는 평을 받아 현장구조와 출동은 119로 일원화 시키고, 신고번호를 129에서 1339번으로 변경하여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기능을 확대하였다.



사진 134. 전국최초 충남소방본부 '카카오톡 구급상담채널' 운영

2021년 2월부턴 가일층 강화된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위해 청각 · 언어 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구급 상담업무를 운영 중이다.

이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업무 시스템이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구급상황관리업무를 위해 다양한 신고 방법의 홍보와 더불어 전문적인 응급의료 상담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3장
소방행정분야별 발전사

제9절
화재조사 및 소방사법

9

01.
화재조사

02.
소방사법

01. 화재조사

01. 화재조사 제도



사진 135. 2006년 10월 20일 공주 원희정신과의원 화재를 조사중인 화재조사대원

화재조사는 1950년 3월 내무부령 제10호 「소방조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시작되었으며, 조사 규정 제11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일시, 장소, 피해자, 소실 종류, 피해액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 「소방법」에 화재조사 관련 규정은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로, 기존 화재 피해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한 관계자 질문권, 자료 제출 명령권, 관계 지역 현장조사 및 화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통보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1967년 1월 6일에는 내무부 예규 제114호 「화재에 의한 피해 산정 기준」이 제정되었다. 이 기준은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조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피해액 산정의 공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1970년 12월 31일에는 「소방법」이 부분 개정되었는데 종전의 화재조사와 관련된 4개 조문을 2개 조문으로 함축하였으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73년 2월 8일 개정된 「소방법」은 화재 원인과 피해 재산의 조사, 강제조사권,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자에 대한 조사권 조항도 신설되었다.

1980년 12월 30일에는 내무부 예규 제520호 「화재 보고 체제 확립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는데, 이 지침은 화재발생 시 신속 · 정확한 화재 상황 보고를 위하여 화재현장 지휘본부와 소방관서 및 소방기관 간의 유기적인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는 '화재현장지휘본부', '상황실' 등에 대해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상황 보고 시 화재의 기준을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등으로 구분하고 보고체계 · 보고구분 · 보고절차 · 통신운용 · 보고책임 등에 관하여 정하였다.

1994년 1월 28일 내무부 훈령 제1102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그동안「화재에 의한 피해 산정 기준」과「화재보고 체계 확립에 관한 지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단일화하였으며「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의 조사' 하위 규정으로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의 필요사항 기준을 정하여 신속, 정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98년 11월 7일 개정된 행정자치부훈령 제17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화재 원인 조사 및 피해액 산정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조사 업무의 체계를 세우고 과학화 · 전문화된 화재원인 조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5월 30일 시행된「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관계 장소에 대한 출입 및 조사권,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및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에「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이 소방방재청 훈령 제14호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2020년 4월 13일 소방청 훈령 제149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의해 구체적인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1년 6월 8일「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공포(시행일: 2022.06.09.)되어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 보존조치 권한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정해졌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 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이 개선되었다.



사진 136. 2019년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조사를 위해 현장에 진입하는 대원들

02. 화재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1994년 1월 제정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내무부령)에는 세부적으로 화재 피해 조사 및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고, 1998년 11월 개정된 화재조사 보고 규정(행정자치부령)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화재원인 조사 및 피해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운영하였다.

그러나 화재 원인이나 발생 장소 등이 다종 ·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화재분류 체계가 단순하고 포괄적이라 시기별 · 계절별 화재 추세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6년 6월 소방청은 국가화재분류체계 기획단을 발족하여 11월에 개선 초안 및 화재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개선안에 대한 최종보고 및 시 · 도 실무자 대상 교육을 완료한 후, 2007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 화재조사 업무의 체계를 수립하고 과학화, 전문화된 화재 원인 조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사진 137. 2006년 소방방재청 화재조사분석팀

1) 국가화재분류체계 개선

그동안 화재 원인 분류체계가 단순하고 포괄적이어서,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방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소방청은 우리 실정에 맞는 화재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선진국형 '화재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화재 원인 분류를 기존 11종류에서 방화, 실화, 자연적 원인, 미상 등 156개 종류로, 화재장소 분류는 기존 26종류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속용도 발화지점 등 588개 종류로 개선하고, 화재발생 종합보고서도 현행 조사항목 27종의 비표준화에서 230종의 표준화로 개선하였으며, 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토록 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새롭게 개선된 국가화재분류체계를 통해 화재 데이터를 분리 · 분석함으로써 화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화재예방 정책수립과 입법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범국가적인 전

산화를 통해 민 · 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화재정보를 분석하게 되었으며, 통계지표에 바탕을 둔 현장 밀착형 행정시스템을 갖추어 국민이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

2007년 1월 1일 국가화재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이 개정 · 시행되 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화재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환류 하고자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 National Fire Data System) 구축에 착수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9종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화재추세,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2007년 1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조달입찰 및 기술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07년 8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138. 화재조사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화재조사 학술대회 재현실험

이 시스템은 다양한 화재정보를 구성하여 DB화함으로써 과학적인 화재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간편하되 업무수행 평가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소방방재청 중심의 web 기반 two-way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국민,유관 기관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가 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Data 관리, 분석, 정보에 대한 '선진국형 화재정보 분석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과학적 예측력과 정책적 설득력을 가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방안전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정확하면서도 새로운 각도의 화재통계에 기초한 소방정책을 수립(통계=정책)해 소방행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한 것이다.

또 전기 · 가스안전공사, 화재보험사 등에서도 화재정보 공유가 가능하여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범국가적 민 · 관 협동체제 구축하게 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오늘의 화재, 테마별 화재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어 국민의 화재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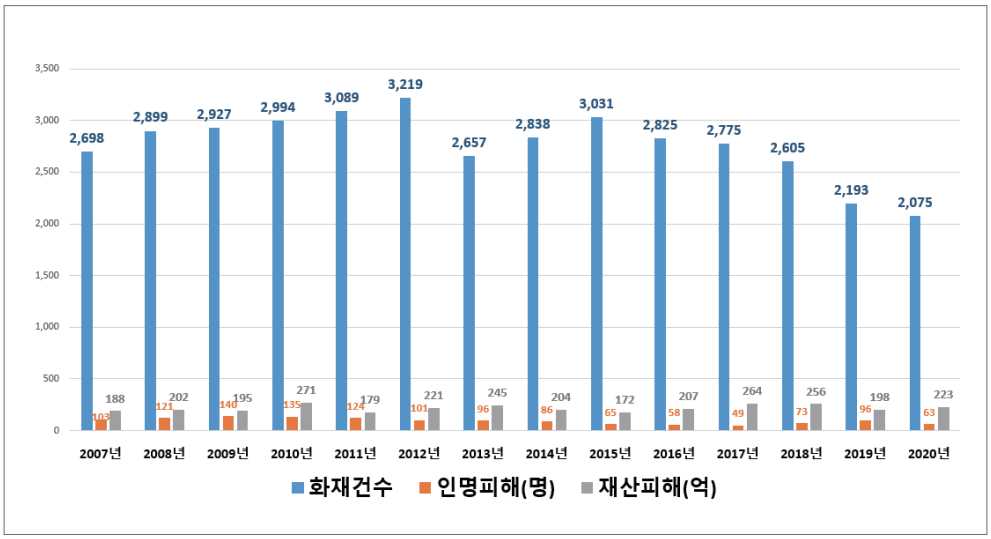


사진 139.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 추출

3)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개선

1996년도에 작성된『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이 화재피해액 산정의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 기준은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정확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피해액 산정에 대해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방관서에서 산출한 화재피해액과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으로 자칫 화재조사활동 전체에 대한 신뢰 손상의 염려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수준향상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유체재산이 고급화 · 다양화 하는 추세로 인하여 유체자산 유형별 자산가치의 편차가 심화됨으로써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산정할 때 과학적 산정기준과 방식이 요구되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다 객관적이며 공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화재조사가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개선안 연구 및 교육을 거쳐 2007년 3월 시행되었다.

2007년 1월 1일 국가화재분류체계 혁신에 따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이 개정 · 시행되고, 간편하고 과학적인 화재피해액 산정을 도입하여 업무에 편의성을 증대하는 한편, 화재 예방 및 소방대책 수립에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화재조사 실무자가 정형화된 산정 절차를 거쳐 피해산정 업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화재피해액이 보편적 경제관념 및 객관적 자산가치에 부합하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건물, 부대설비, 동산정보를 DB화하고 화재피해액에 현 단가를 반영하는 등 화재피해액 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사진 140.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현장을 감식중인 모습

03.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1)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

1980년도 이전의 화재조사 업무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내무부 소방국에서는 방호과 지도계에서, 각 시 · 도 소방본부에서는 방호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방서에서는 방호계에서 현장조사 요원 2명이 격일로 전담하여 화재조사 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화재조사 업무는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



사진 141. 2017년 9월 8일 화재조사관 전문성강화 특별 교육

1998년 11월「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개정하면서 화재조사의 전문화 방안이 추진되었고 1999년 5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화재조사 체계 확립방안」이 시달되면서 전국적으로 화재조사 전담조직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에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남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



사진 142. 2018년 미국 화재폭발 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이창원 대원

2) 화재조사요원 능력 제고

화재조사업무가 시작된 직후에는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이 부족하였으나 중앙소방학교 및 충청소방학교(2021년)에서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과정을 이수 및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지금까지 총 74명이 취득하였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및 감식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 제35호로 2013년부터 시행된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를 현재까지 총 379명의 소방관이 취득하였다.

또, 화재조사관 자격 소지자 중 미국화재폭발조사관(CFEI) 교육을 이수한 후 NFPA(미국화재조사관협회)에서 발급하는 CFEI(화재폭발조사관) 자격증까지 취득한 조사관은 2021년 9월 말 현재 35명에 이른다.

3) 화재조사 학술연구 등 역량 강화

화재조사 학술 연구 및 화재재현실험은 화재에 대한 원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화재를재현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대회로서,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서별 연구결과와 실험과정을 공유하며 화재조사관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최근 충남소방본부에서 개최한 '2021년 화재조사 학술대회'에서 16개 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이 8개월 동안 화재감정과 재현실험 등을 거쳐 연구한 화재연구논문 16편이 발표되었다. 대회결과 '드론과 3D맵핑시스템을 이용한 화재조사 활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계룡소방서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른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143. 2021년 충청남도 화재조사 학술대회 개최

최근 충남소방 화재조사 학술대회 수상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홍성소방서에서 '전선의 접속 형태에 따른 열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19년에는 천안동남소방서에서 'ESS배터리화재 감식기법 및 연소확산 방지에 관한 연구'로, 2020년에는 천안서북소방서에서 '광원과 그림자의 특성을 이용한 영상매체 분석기법을 통한 발화지점 판정에 관한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4) 소방합동조사단 운영

대형화재 및 중요화재 조사 시 상당 기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화재조사의 대 · 외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충남소방본부는 2021년 3월 대학교수 등 7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 · 운영하고 있다. 주요 운영 방법은 5개 권역별로 지역을 묶어 대형화재 · 중요화재 · 특수화재 및 소방합동조사단 소집이 필요한 화재 시 즉시 현장으로 소집되어 화재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사진 144. 2021년 3월 논산시 '공장화재' 합동조사단 활동


사진 145. 2021년 4월 태안군 '선박화재' 합동조사단 활동

5) 화재조사장비 확충

「소방기본법」 제29조에 의거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충남소방은 소방본부 법정기준 91종 대비 87종(96%), 16개 소방서는 65종 대비 평균 63종(97%)으로 높은 수준의 화재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최첨단 화재조사 장비인 금속현미경, 시편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화재원인 규명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 146. X-선 촬영기를 활용한 화재원인 규명



사진 147. 시편연마기 활용 화재원인 규명

화재조사 기자재 보유 현황 (단위: 종)

구분	계	발굴 용구	기록 기기	감식 기기	조명 기기	안전 장비	증거 수집 장비	화재 조사 차량	보조 장비	추가 권장 장비	조사 분석실	분석실 장비
합 계	**1,100**	17	255	176	68	135	102	12	118	50	17	150
소방본부	**87**	1	15	16	4	8	6	2	7	18	1	9
천안동남	**65**	1	15	10	4	8	6	1	7	2	1	10
천안서북	**64**	1	15	10	4	8	6	1	7	2	1	9
공주	**64**	1	15	10	4	8	6	1	7	2	1	9
보령	**64**	1	15	10	4	8	6	1	7	2	1	9
아산	**65**	1	15	10	4	8	6	1	7	2	1	10
서산	**64**	1	15	10	4	8	6	1	7	2	1	9
논산	**64**	1	15	10	4	8	6	1	7	2	1	9
계룡	**60**	1	15	10	4	8	6	0	7	2	1	6
당진	**64**	1	15	10	4	8	6	1	7	2	1	9
금산	**61**	1	15	10	4	7	6	0	7	2	1	8
부여	**63**	1	15	10	4	8	6	0	7	2	1	9
서천	**62**	1	15	10	4	8	6	1	6	2	1	8
청양	**63**	1	15	10	4	8	6	0	7	2	1	9
홍성	**64**	1	15	10	4	8	6	1	7	2	1	9
예산	**63**	1	15	10	4	8	6	0	7	2	1	9
태안	**63**	1	15	10	4	8	6	0	7	2	1	9

연도별 충청남도 화재발생 현황					
구분	발생건수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 원)
		계	사망	부상	
1997년	**976**	77	30	47	7,089
1998년	**1,154**	74	15	59	9,987
1999년	**1,406**	74	21	53	9,824
2000년	**1,457**	85	16	69	10,287
2001년	**1,502**	110	30	80	9,907
2002년	**1,333**	133	44	89	8,430
2003년	**1,324**	115	38	77	8,673
2004년	**1,390**	93	30	63	8,134
2005년	**1,376**	86	27	59	7,157
2006년	**1,357**	88	23	65	9,248
2007년	**2,698**	103	20	83	18,842,890
2008년	**2,899**	121	32	89	20,257,090
2009년	**2,927**	140	27	113	19,533,973
2010년	**2,994**	135	18	117	27,140,238
2011년	**3,089**	124	17	107	17,955,682
2012년	**3,219**	101	15	86	22,120,415
2013년	**2,657**	96	26	70	24,568,566
2014년	**2,838**	86	21	65	20,475,505
2015년	**3,031**	65	17	48	17,281,575
2016년	**2,825**	58	12	46	20,705,376
2017년	**2,775**	49	19	30	26,479,876
2018년	**2,605**	73	21	52	25,638,551
2019년	**2,193**	96	33	63	19,838,416
2020년	**2,075**	63	17	46	22,357,086

02. 소방사법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의 법적 · 제도적 뿌리를 살펴보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해당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동종 유형으로는 교도소,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특별사법경찰, 국립학교, 국가보훈처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9급까지의 공무원 등이며 소방공무원은 소방사부터 소방준감까지 지명하고 있다.



사진 148. 화재취약대상으로 기획수사중인 소방특별사법경찰의 모습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의 탄생 관련 연혁을 보면 처음 창설된 것은 1956년이며 연혁적으로 볼 때 1956년 1월 12일 법률 제380호에서 출발하였음을 역사적 사료가 보여주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은 1958년「소방법」제정 이후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벌칙으로 징역형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활동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의 이행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및「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다각적으로 변하고 건축물 등의 소방시설 또한 복잡하게 설계됨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에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서 있어서 소방관서에 배치된 인력의 전문성 문제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사법행정 등에 연속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건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수사의 조치만으로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근절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관련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명확하게 수사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1일 본부에 변호사 1명 등 인력 3명을 배치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하였으며, 야간 등 취약시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소방특별사법경찰을 130명으로 지정 · 운영하였다.


사진 149.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장비 관리운용 교육**

현재는 소방본부에 소방사법팀 3명을 두었으며, 일선 소방서에는 재난대응과, 대응예방과에 사법 담당자를 두어 전문적인 사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특히 현장대응단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두어 폭행사범등에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1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사실무 교육 지원 및 유치장 사용 등 효율적인 사법처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소방사범 호송 등을 위한 주요장비로는 긴급출동 및 피의자 호송을 위한 차량을 본부에 배치하였고, 수사장구 18종 88점(수갑, 포승줄,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일선 소방서까지 지급하여 즉시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갖추었다.


사진 150. **영상녹화장비**


사진 151. **조사용 책상 및 의자**


사진 152. **단방향 투시거울**



사진 153. 2016년 6월 1일 충남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식

소방활동방해사범을 직접수사하기 위하여 24시간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소방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아닌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강력한 처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피해 소방대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는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여건에 불구하고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135명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직접수사 뿐만 아니라 소방부조리 적폐행위 근절을 통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방사범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위반법률				
	합계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기본법
합계	**567**	255	198	70	44
2020년	**111**	50	36	16	9
2019년	**101**	43	39	13	6
2018년	**113**	48	42	11	12
2017년	**116**	65	29	10	12
2016년	**126**	49	52	20	5

부록

부록 1
충남소방연표

부록 2
충청남도 소방유물

부록 3
충남소방본부 선정 10대 주요사

부록 4
한발 앞선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의 모습

부록 5
소방관서 설치 현황

부록 6
역대 소방관서장

부 록 1 충남소방연표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조선시대	1904		· 논산 강경소방조 창설		
	1909	11	· 상수도 공급규칙에 의거 상수도 소화전 도입		
일제강점	1911		· 공주소방조, 예산소방조 창설	07.12	· 집중 호우로 공주, 부여, 조치원, 논산 등 도로 침수
	1912		· 천안소방조 창설	08.10	· 경부선 천안정거장 부근 이강석 주택 화재
		11.19	· 목천군 병천면 소방조 창설 추진 발표(한일청인 합동조직)	10.12	· 면천군 비방면 정충섭 주택 화재
	1913	07.	· 목천소방조 창설(51명, 예산은 위생조합이 부담)	06.07	· 온양군, 단천군 등 해충 피해
	1914		· 홍주소방조 창설	12.10	· 천안 영성면 신주막 철로 방해 사고
	1915		· 부여 은산소방조 창설	01.06	· 공주 본정 손영지 자택 화재(가옥 1채 전소)
		11.01	· 충남소방조회계규정(경무부 훈령 제10호) 발포	06.12	· 대전 장티푸스 창궐(사망 1명)
	1917	04.12	· 논산 본정 화재 시 수고한 논산소방조에 군민 4명이 14원 기부	02.22	· 공주 토키와쵸 거리 가옥 화재
		04.20	· 논산소방조 연간 사업예산 996원 확정	12.27	· 공주 공주어시장 화재(재산피해 : 8점포 전소)
	1918	02.14	· 강경소방조 출초식	08.04	· 당진군 읍내리 조영식 자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3명
		10.07	· 공주소방조 추계연습		
		10.18	· 예산소방조 추계연습	11.22	· 홍성군 감기로 다수 사망(사망 : 600명)
	1919			08.18	· 천안읍 민영익 자택 화재
	1921	12.20	· 충남소방조 규칙 시행세칙 제정	03.13	· 공주 성보영 주택 화재
	1923	05.08	· 충남지역 소방조 전체 연합 대연습	07.24	· 공주시내 가옥 전부 침수
	1924	01.04	· 공주소방조 출초식	03.15	· 청양군청 화재 – 재산피해 : 300만 원
		05.08	· 공주소방조 전 조원을 소집, 충남도청 정원에서 소방장비 양수시험 실시		
		05.24	· 공주소방조 활동사진전 개최	03.15	· 공주군 본정 주택 화재 – 재산피해 : 60원
		11.07	· 천안소방조 추계대연습(역광장)에 예산소방조 견학 방문		
		11.13	· 논산소방조 간부 3인 투표로 선출	06.20	· 서천 군사리 김영달 주택 화재
	1925	05.08	· 공주소방조 양수시험	01.18	· 연기군 조치원면 상가 화재(3개소) – 재산피해 : 2,000원
		05.09	· 천안소방조 연습 및 방화극(防火劇) 공연		
		05.22	· 조치원소방조 간부 총사직		
		07.04	· 공주 금강관에서 공주경찰과 소방가족 위안회 개최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1926	06.	· 예산소방조 소방펌프개선 요구 총사직 결의	01.08	· 논산 강경읍 상가 화재
		08.11	· 공주소방조 조선인 소방수 30명 동맹 사직 결의(소방간부 선출 시 일본인과 조선인 차별에 항의)	05.14	· 예산읍 시장 화재
		10.09	· 공주소방조 창설 15주년 기념식 거행		
		10.15	· 천안소방조 추계대연습	07.26	· 공주군 사곡면 호계리 천보 붕괴
		11.21	· 천안소방조 유수정호(溜水井戶) 굴착		
		12.16	· 논산소방조 가솔린펌프(10마력) 1대 도입		
	1927	01.23	· 공주소방조 10일간의 방화선전 시작	03.05	· 공주시장 화재
		04.29	· 강경소방조 춘계연습	09.08	· 공주군 군욱정 인근 창고 화재 – 재산피해 : 150원
		10.12	· 홍성소방조 추계대연습		
		10.16	· 천안소방조 추계연습	11.30	· 논산 김진옥 주택 화재
		12.25	· 홍성소방조 연말 야경 시행		
	1928	01.	· 천안소방조 야경조 5개 편성 운영	11.05	· 당진 보덕포 삼신상회 기선 화재(재산피해 : 1,000원)
		01.04	· 공주소방조 출초식		
		12.02	· 조선소방협회 발회식(경성), 전국 소방서 및 소방조 간부 참석		
	1929	01.02	· 천안소방조 제2부장 일본전국소방어친열식 참석	05.17	· 아산 온정면 주택화재(5가구) / 인명피해 : 부상 2명
		02.01	· 천안소방조 설 전후 야경 실시	06.24	· 경부선 천안역전 합동운송점 숙직실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5만 원
		04.20	· 강경소방조 창설 25주년 춘계대연습		
		06.08	· 조선소방협회 충남지부 발회식(도청 회의실)	08.25	· 공주 조선자동차운수주식회사 화재(재산피해 : 2,000원)
		11.23	· 충청남도소방협회 당진군지회 발회		
		12.29	· 충남 당진소방조 야경단(夜警團) 조직	11.30	· 논산 강경읍 고교정미소 · 공장 화재
	1930	01.01	· 당진소방조 야경단 운영 및 지역유지 기부금 납부	01.03	· 서천 종천면 석촌리 임가일 주택 화재 – 재산피해 : 1,000원
		01.04	· 천안소방조 출초식		
		01.10	· 논산소방조 출초식 행사 시 사망한 대원 소두에 대한 장례식	01.03	· 충남 대전 미영금 주택 화재 – 재산피해 : 1,000원
		01.15	· 천안소방조 연말 야경 시행		
		04.01	· 공주소방조 매월 15일을 시가미화데이로 정하여 봉사활동 결정 발표	01.14	· 아산 온양면 용화리 조기범 주택 화재
		04.22	· 천안 성환소방조 가솔린 펌프 도입	01.20	· 금산 김종학어물상 화재 – 재산피해 : 1만 5,000원
		05.10	· 강경소방조, 논산군 소방조 연합연습 및 개근 소방수 22명 표창		
		05.10	· 공주소방조 화재예방 선전	01.25	· 조치원 전의면 주택 화재(3가구)
		06.13	· 공주소방조 조두 힐소 신축 부지 시찰	01.31	· 논산 강경읍 정일덕 주택 화재 – 재산피해 : 1,000원
		07.02	· 논산소방조 대홍수현장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이재민 구호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일제강점		07.05	· 공주소방조 호우경계근무	02.14	· 아산 배방면 남리 주택 화재
		10.12	· 홍성소방조 추계연습 실시	02.14	· 당진 · 삽교 도로상 자동차 폭우로 전복 – 인명피해 : 사망 6명, 부상 2명
		10.20	· 천안소방조 간부 집합 위로연		
		11.10	· 당진소방조 추계연습	06.11	· 논산 연산역 인근 목포행 열차 탈선 전복 – 재산피해 : 화물칸 3대, 객차 1대
		11.14	· 홍성소방조 방화대선전 시행		
		12.01	· 천안소방조 방화선전 실시	12.20	· 공주시장 내 중국인 잡화점 시작으로 대화재 발생
	1931	01.04	· 천안소방조 출초식 및 유공자 표창	01.05	· 온양 대형화재
		01.05	· 온양 대형화재 현장 천안소방조 현장 견학	02.20	· 홍성–천안행 구간 열차 탈선(30량)
		01.11	· 천안소방조 소방수 소방장비 구입비로 출동수당 기부	02.24	· 공주 금강관 화재
		04.11	· 천안소방조 신규구입 가솔린펌프(20마력) 시운전	04.10	· 연기군 금남공립보통학교 화재
		04.17	· 천안소방조 춘계연습 및 유공자 표창		
		04.26	· 대전소방조 창설 20주년 축하연		
		08.08	· 광천소방조원 방수시험 및 장비구입비로 1년간 출동수당 전액 기부	05.18	· 연기군 조치원시장 상점 화재(8개소) – 재산피해 : 1만 5,000원
		09.14	· 천안소방조 후원회 행사		
		09.23	· 천안소방조 추계연습	05.22	· 연기군 조치원 복태양 주택 · 계사 화재 – 재산피해 : 2만 5,000원
		10.20	· 천안소방조 방화선전 행사	10.30	· 당진 면천우체국 화재로 전소
		12.10	· 강경소방조 불조심 홍보활동		
	1932	02.	· 광천소방조 설날 전후 4인1조 야간순찰 실시	02.04	· 아산 공립보통학교 붕괴 – 인명피해 : 부상 4명
		02.03	· 서산 청년회 및 소방조가 위문금 모집		
		04.05	· 광천소방조 가솔린펌프 격납고 낙성식	03.07	· 서산 읍내리 유예춘 주택 화재
		04.16	· 청양소방조 창설식(조두 없이 부조두가 지휘)	03.28	· 보령 웅천면 김순룡 주택 화재 – 재산피해 : 400원
		05.05	· 아산군 내 소방조 대연습에 천안소방조 견학 참관		
		05.07	· 광천소방조 춘계연습 및 신규 도입한 가솔린펌프(20마력) 시운전	04.05	· 아산 · 홍성 천연두 창궐(사망 380명)
		05.18	· 공주소방조 소두 김영배(사업을 위해 만주로 진출해 사임)에게 표창		
		07.15	· 천안소방조 망루 낙성식	05.03	· 홍성 홍주면 주택 화재
		07.16	· 대전소방조 신차구입 방수시험		
		07.17	· 천안소방조 망루 및 사이렌 낙성식	06.02	· 공주읍 – 금강 구간 도로 자동차 전복 – 인명피해 : 부상 1명
		10.26	· 천안소방조 창설 20주년 기념 추계 대연습 및 기념 축하연		
		12.	· 천안소방조 저수지 준공(저수량 1백석)		
		12.05	· 광천소방조 망루 낙성식		
		12.20	· 대전소방조 소방자동차 2대 구입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일제강점	1933	01.24	· 천안소방조 유공자 도지사 표창	02.25	· 논산군 강경읍 중정 남일약방 화재
		02.25	· 공주 탄천면 소방조 창설	05.07	· 충남 대전읍 한성은행 앞 전중가구점 외 민가 8호 손실 – 재산피해 : 4만 원
		05.06	· 논산군 소방조 연합 대연습(350명 참가)		
		05.18	· 공주소방조 2부장 겸 소두인 김영배 사임, 충남 소방협회가 공로 표창장 수여	07.21	· 공주 궁본자동차부 가솔린탱크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000원
		06.28	· 부여 은산소방조 유공자 표창 및 대형전등 2개 수여		
		07.04	· 천안 입장소방조 소방기구 완비	09.01	· 천안읍 남산정 서긔심 술집 화재
		10.01	· 천안소방조 추계대연습	09.18	· 충남 조치원읍 길야정 장유제조소 화재 – 재산피해 : 8만 원
		11.03	· 공주소방조 부조두 조선소방협회에서 공로자 표창 및 목배 수상		
		12.02	· 충남소방조두 전체회의(도청)	10.26	· 서산 태안면 동문리 김상연 주택 화재
		12.10	· 공주소방조 방화대선전 행사	10.27	· 서산 태안면 동문리 이기선 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3명, 부상 1명
		12.15	· 광천소방조 가솔린펌프 방수 시험		
		12.19	· 홍성소방조 2부제 인가	12.21	· 공주 박성녀 주택 화재
	1934	01.04	· 예산소방조, 홍성소방조 출초식	03.04	· 아산 수장리 최동혁 주택 화재(3가구) – 인명피해 : 부상 8명 / 재산피해 : 850원
		01.10	· 천안소방후원회 회장단 결정		
		01.05	· 천안소방조 간부인사 단행	04.03	· 부여 구교리 도선 전복 사고 – 인명피해 : 사망 23명
		01.10	· 천안소방조 회장단 결정		
		02.05	· 예산지역 유지 각 소방조에 헌금 납부	04.08	· 부여 홍산면 조현리 김호태 주택 화재(31동)
		04.02	· 공주소방조 2부제 창설		
		05.10	· 공주소방조 춘계연습	05.05	· 충남 대전군, 연기군 등 뇌수막염 유행 – 인명피해 : 감염 14명
		07.06	· 홍주소방조 창설 20주년 기념식	07.30	· 충남 전역 폭우로 수해 발생 – 침수면적 : 6,000만 평 / 침수주택 : 2,000가구
		07.19	· 공주소방조 간부인사 40% 한국인으로 임명		
		09.15	· 공주소방조 25마력 가솔린펌프 구입	09.21	· 광천소방조 야경 중 우편소 앞에서 철도범 체포
		12.19	· 서천군 소방조 후원회 발회	12.11	· 조치원역 앞 주택화재(벼 800여석 전소)
		12.24	· 논산소방조 야경활동 개시		
	1935	01.04	· 대천소방조 출초식 및 후원회 발회식 거행	01.03	· 서산군 대산면 여객선 승객 추락 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명
		01.12	· 서천군 경찰, 향군, 소방조 연합 전원 참가 대연습		
		01.30	· 공주소방조 전 조원 소집하여 동계 방수시험 실시	03.15	· 공주 장기면 신흥리 신세균 주택 화재(16가구 전소) – 이재민 : 80명 / 재산피해 : 1만 원
		02.03	· 천안소방조 전직원 비상소집 연습		
		02.07	· 천안소방조 설 전후 방화선전 및 야경 실시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일제강점		03.15	· 강경소방조 인사이동(한국인 소두 김경일 간부에 임명)	03.18	· 공주 장기면 대화상보 화재 – 재산피해 : 1만 원
		04.25	· 제7회 서천군 소방조 연합 대연습		
		05.02	· 대천소방조 창설 20주년 기념 축하회 및 각지에 기념금품 답지	04.06	· 공주 산성정 충남자동차부 화재(인접 3가구 전소) – 재산피해 : 3,000원
		05.10	· 공주소방조 춘계소방훈련		
		06.15	· 천안소방조 의식과 복장 통일화 작업	04.30	· 천안 연돌화재 – 재산피해 : 2,000원, 가옥 3호 소실
		07.20	· 홍성소방조 홍수 비상경계근무(금마천 유역 범람)		
		08.19	· 서천 소방조 가솔린 펌프 구입	05.26	· 아산 둔포 우경천, 이여산 주택 화재(3가구 전소) – 재산피해 : 2,400원
		10.01	· 공주소방조 기계장비고 신축 낙성식		
		10.05	· 서천군 화양면 소방조 신설 · 공주소방조 청사 건물 준공	08.28	· 연기군 조치원 일본 뇌염 창궐(사망 6명, 감염 7명)
		12.10	· 공주소방조 추계연습	09.16	· 부여 구룡면 논치교 자동차 전복 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1명
	1936	01.12	· 천안소방조 부조두 임명	01.28	· 연기군 조치원읍 이상래 주택 화재 – 재산피해 : 1,000원
		02.17	· 천안지역 폭설에 소방조 비상대응		
		04.07	· 공주소방조 대연습	03.24	· 공주시 서순용 주택 · 공주극장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06.15	· 부여 소방조원 23명 장항제련회사 시찰		
		07.26	· 충남 경찰 및 소방위령제(도청)	08.08	· 공주시 충남공주공립보통학교 기숙사 화재 – 재산피해 : 3,000원
		11.08	· 충남 서산소방조 방화데이 대규모 시가행진		
	1937	03.22	· 천안소방조 간담회 · 천안소방조 소두 취임	03.13	· 아산군 신창면 주택 화재 – 재산피해 : 2,000원
		04.24	· 공주소방조 연합대연습		
		12.01	· 충남 서산소방조 방화데이 대규모 시가행진	12.09	· 공주 대화정 이승해 주택 화재
	1938	10.18	· 온양소방조 추계연습	11.28	· 논산 강경상업학교 기숙사 화재 – 이재민 : 70명
		10.25	· 논산소방조 추계연습		
		11.07	· 천안소방조 추계연습	12.16	· 아산군 동선장역 인근 방공감시소 화재
	1939	09.19	· 조치원 경방단 직제편성 및 간부 임명	08.24	· 논산읍 강경서정 화재(20호 전소)
		08.20	· 논산 및 공주소방조, 조선미곡창고 화재(가옥 22호 전소) 지원출동		
		09.20	· 천안소방조 해단식		
	1940	01.06	· 조치원 경방단 출조식	01.20	· 금산 김종학어물상 화재(재산피해 : 1만 5,000원)
	1941	01.01	· 예산 방위단 시동식	03.14	· 금천읍 금천여고 화재(전소)
	1942			01.22	· 천안읍 건축 목재 공장 화재
	1943	12.	·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비과에서 소방분장	12.15	· 천안읍 본정 조일여관 화재
	1944	08.11	· 조선총독부 도소방수복제 개정	03.25	· 공주여자사범학교 화재(재산피해: 10만 원)
미군정	1945		· 예산읍 의용소방대 독립사무실 개설		
		10.10	· 천안의용소방대 결성		
		12.16	· 화재방지주간 운영(16~22일), 연말특별경계근무(16~31일) 실시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미군정	1946	04.	· 미군정청, 소방사무를 중앙은 상무부, 지방은 시 · 부 · 군청으로 이관	02.09	· 천안 2.9의거 사건
				05.22	· 충남 대전 콜레라 전염자 20여 명 사망
		04.10	· 군정법령(제66호)에 의거 소방 분야를 경찰 분야에서 분리, 도에 소방위원회 설치 · 천안소방서 개서	10.22	· 당진 · 홍성 폭도사고(사망 2명, 부상 10명)
	1947	04.18	· 도에 소방청(소방과, 예방과) 설치 소방업무 담당 · 대전 · 천안 · 공주 · 조치원 · 논산 소방서 설치	11.26	· 충남 장항제련소 폭발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0명
	1948	08.15	· 천안의용소방대 독립기념 행사	09.14	· 충남 내판역 열차충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00명(미군 20명 포함)
		11.04	· 소방청 폐지(대통령령 제18호) – 소방업무를 경찰 분야 치안 국내 소방과에서 분장	10.06	· 공주여자사범학교 기숙사 화재
대한민국	1949		· 공주군 의용소방대 기념 행사	09.14	· 충남 뇌염 창궐 – 인명피해 : 사망 49명
		04.	· 충남 소방대 활동상 영화 제작 도내 순회 상영		
		09.19	· 충남 당진 소방대원 군사훈련 실시 (19~23일, 당진경찰서)		
	1950	01.12	· 보령군 청라의용소방대 연두시동사열식 거행 · 충남 합덕소방대 시동식	01.15	· 천안읍 시장 가설점포 화재 – 재산피해 : 500만 원
		05.03	· 서산의용소방대 춘기사열식 거행		
		05.27	· 시 · 도 소방서의 명칭 · 위치 · 관할 구역조정(대통령령 제361호) – 대전소방서 존치 외 천안 · 공주 · 조치원 · 논산 소방서 폐지 · 태안의용소방대 드럼통 펌프 개조	02.02	· 서산읍 읍내리 일구시장 화재 · 서산읍 대산면 장티푸스 창궐 – 인명피해 : 사망 9명
		06.25	· 서산소방대 표창금 비행기 기금으로 헌납	06.16	· 논산 박대복 자택 화재(재산피해 : 초가집 2채 전소)
	1952	12.27	· 영인방공단 소방부장에 김예경 선임	09.07	· 충남 뇌염 창궐(인명피해 : 사망 8명)
	1953	01.11	· 당진방공단 결성 및 소방부장에 김석현 임명	08.24	· 당진항 여객선 화재(재산피해 : 100만 원)
		12.05	· 충남 광천방공단 해체 및 의용소방대원 임명식		
	1954	01.11	· 서산의용소방대 발대식(대원국민학교 교정)	03.29	· 충남 대전시 원동 화재(부상 2명, 주택 27동 전소)
		09.18	· 내무부 치안국, 화재예방을 위한 전국소방과장 회의 개최		
		10.	· 예산군 삽교의용소방대 퇴비증산사업 추진		
	1955	01.29	· 천안소방대 시동식에서 모범 소방대원 표창	01.27	· 천안 항공 제트기류 화재(재산피해 : 20만 원)
		02.28	· 대전 경찰, 소방대원 도로 보수 및 청결 작업 실시	10.12	· 서산군 서산읍 현정환 주택 화재(재산피해 : 200만 원)
		04.15	· 홍성의용소방대원들 자비로 2층규모 사무실 신축 완공		
	1956	01.10	· 온양의용소방대 시동식	09.09	· 홍성읍 고암리 충남여객 버스 화재(사망 2명)
	1957	09.03	· 내무부, 전국경비과장 및 소방과장 회의 개최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1958	01.06	· 강경 경찰시무식 모범경관 표창 수여 · 천안의용소방대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 연습 검열 우승	03.12	· 당진군 대호지 화재(부상 2명)
				06.04	· 천안 시장 내 술집 화재 – 재산피해 : 500만 원
		01.15	· 논산 의용소방대 시동식		
		09.15	· 전국 소방사무담당 경찰관 및 소방관 간부 강습회(2주과정, 경찰전문학교)		
		11.01	· 전국 방화강조주간 운영(1~7일)		
	1959	01.05	· 경찰 및 소방 시무식 대전에서 거행	02.13	· 서산군 서산읍 동문리시장 화재 – 재산피해 : 45만 원
		01.10	· 천안의용소방대 시동식		
		05.12	· 충남 유진규씨 민간소방공로장 감사장 등 수여	11.05	· 홍성군 광천 목공소 화재
		06.05	· 군 · 경 유가족 가족 돕기 모내기 활동	11.11	· 천안읍 사직동 주택화재(어린이 불장난, 30만 원 피해)
	1960		· 천안의용소방대 6대 박복희 의용소방대장 취임	01.20	· 부여군 양조장 화재
	1961		· 소방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통과	05.13	· 논산군 강계읍 강경상업고등학교 화재(재산피해 : 1,000만 원)
	1963	11.	· 온양의용소방대 '화재예방 강조기간' 기념식	08.24	· 논산군 강경읍 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2명 / 재산피해 : 200만 원
	1964			08.26	· 논산 제2훈련소 유류야적장 화재로 휘발유 1백드럼 소실 및 출동 중 소방차 전복사고 발생(3명 사망, 8명 중경상)
	1965	09.29	· 덕산의용소방대 소방훈련		
	1966			01.13	· 충남 서산 삼길포 주민, 당진 소조도에서 굴 채취 후 귀항 중 전마선 전복사고(15명 사망, 10명 실종, 11명 구조)
	1968	08.13	· 청양 사양의용소방대 한해민에 구호금품 기부	11.15	· 유선온천호텔 화재(재산피해 : 2,700만 원)
	1969	01.22	· 천안의용소방대 시동식	01.31	· 경부선 천안역 열차 충돌사고(사망 42명, 부상 131명)
		06.06	· 소방통신과 신설(충남 소방통신과장 홍세기 임명)	03.09	· 천안시 사직동 구시장 화재(재산피해 : 2,900만 원)
		10.29	· 천안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낙성식 및 미제 소방차 인수식 거행	04.20	· 대전시 원동 중앙시장 화재 – 재산피해 : 350여개 점포 소실, 피해액 3억원
	1970	03.12	· 천안소방서 설치 승인	02.13	· 공주군 사곡면에서 삼흥여객 버스가 개울로 전도(10명 사망, 50명 부상)
		04.24	· 내무부, 전국에 의용소방대 조직 강화 지시		
		05.13	· 천안소방서 개서	10.14	· 아산군 배방면 수학여행 버스 – 열차 충돌 사고 – 인명피해 : 사망 46명(중학생), 부상 31명
		06.10	· 천안소방서 오룡파출소 개소		
	1971	03.19	· 충남도경, 의용소방대원의 정치활동 가능 법령 해석 시달	07.25	· 충남 논산 은진면 홍수현장에서 떠내려가던 4명 중 3명 구조(1명 사망)
	1972	01.10	· 시장 · 백화점 · 유류사용업소 등 화기취급 일제점검 · 온양소방서 시동식 · 여성의용소방대 조직 편성	02.03	· 논산군 논산읍 부식 납품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2,500만 원
				05.27	· 논산군 두마면 여수발 서울행 열차 화재 – 재산피해 : 3,100만 원
		09.	· 논산 채운면 의용소방대 대장 정재룡 수재민 의연금 기부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11.	· 불조심강조기간을 화재예방강조기간으로 개칭 및 기간 축소(15일)	06.18	· 충남 대전시 신흥제분 대전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8,200만 원
		12.	· 4층 이상 고층건물 화기취급 정밀 지도 및 검사 실시		
	1973	01.12	· 성환 의용소방대 시동식	04.09	· 금산군 감전 사고(사망 1명, 부상 6명)
	1974	06.01	·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 소방관서로 이관	11.18	· 충남 대전시 원동 대전중앙시장 화재 – 재산피해 : 1,000만 원
		10.	· 고층 및 다중밀집시설 소방시설 점검 실시		
	1975	09.01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792호, 1975. 7. 23.) · 내무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7767호, 1975. 7. 23.) – 내무부에 민방위본부, 도에 민방위국 신설(민방위과, 소방과)	04.17	· 충남 논산시장 화재로 160여개 점포 소실
				07.30	· 충남 대덕군 경부고속도로 고속버스 전복사고 – 인명피해 : 사망 3명, 부상 21명
		11.26	· 전국 소방공무원 화재예방 비상근무령(소방훈련)	10.05	· 천안군 경부고속도로 트럭 교통사고 – 인명피해 : 부상 1명
	1976	09.	· 충남 대형화재취약 건물 소방진단(대전중앙백화점 외 26개소)	06.04	· 천안 경부선 풍세건널목 화물열차 전복사고
	1977	01.	· 천안의용소방대 소방훈련	08.10	· 충남도 집중호우로 수해 – 인명피해 : 사망 14명, 이재민 990명
		06.	· 여름철 소방대상물 방화점검		
		09.	· 태안의용소방대 소방훈련	09.08	· 충남도 일본뇌염 발발(사망 3명)
		11.	· 불조심 강조기간 소방시설 합동점검	11.16	· 아산군 국제방직 화재 – 재산피해 : 7,700만 원
		12.	· 위험물제조 및 저장판매업소 일제점검		
	1978	04.	· 아파트 입주자 참여 소방훈련 실시	08.28	· 천안 경부고속도로 2중 충돌 교통사고 – 인명피해 : 사망 9명, 부상 44명
		04.24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정(대통령령 제8967호) – 시장, 군수는 소속 지방 소방공무원을 관할구역 내 소방서에 파견	09.11	· 천안 입장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 인명피해 : 사망 3명, 부상 5명
		11.15	· 서산 의용소방대 소방훈련 경연 대회 우승		
	1979	07.16	·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 재정(대통령령 제9538호) – 대전 관할구역 확대 조정	02.10	· 천안 수신면 교통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1명, 부상 30여 명
	1980	03.11	·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9807호) – 소방경 이하 임용권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	05.27	· 천안 쌍용동 승용차 – 트럭 충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2명
		10.02	· 대전소방 구급 업무 시작	12.18	· 천안 성촌동 천안천 익사사고(사망 3명)
	1981	04.04	· 소방법 개정(법률 제3413호) – 건축물 준공 동의를 완공검사 필증교부로 갈음	02.06	· 충남 대덕군 유성읍 장대리 황정다실 다방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5명 / 재산피해 : 500만 원
		04.20	· 국가공무원법에서 소방공무원을 별정직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	02.10	·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연탄가스 중독 사고 – 인명피해 : 사망 5명
		08.11	· 청양의용소방대 비봉면 저수지 제방 긴급 복구작업 지원		
		08.13	· 덕산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	04.16	· 천안시 원성천 공사중 송유관 파손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8명
		09.24	· 소방검사대상(연 2회 이상) 중 음식점, 교회 등 38종 시설 소방검사 폐지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10.	· 의용소방대원 재해방지 및 새마을요원 활동 시작	07.18	· 충남 대덕군 기성면 간저리 충남방직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2명 / 재산피해 : 27억 원
		10.29	· 부녀의용소방대의 설치에 관한 조례 준칙 제정		
		11.09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0630호) – 각 도 민방위국장 직급을 행정직, 별정직 및 소방공무원으로 복수 직급화	09.29	· 금산군 위성통신국 화재 – 재산피해 : 280만 원
	1982	04.30	· 시 · 군의 소방서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0809호) – 읍, 면지역 중 대형화재발생 우려지역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확대 편입	05.05	·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온양펄프 화재
				07.29	· 충남 각지에서 벼락사고 – 인명피해 : 사망 3명
		10.07	· 천안소방서 15대, 16대 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		
		10.15	· 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행정자문위원 위촉	09.10	· 충남 도내 일본뇌염 유행 다수 사망 – 인명피해 : 사망 10명, 일일 감염자 : 102명
		12.01	· 15개 군 소방공무원 1명(교) 배치 금산 · 대덕 · 연기 · 공주 · 논산 · 부여 · 서천 · 보령 · 청양 · 홍성 · 예산 · 서산 · 당진 · 아산 · 청원 – 천안시 소방계 폐지→천안소방서로 업무인계	10.19	· 공주군 정안면 콘크리트 구조물 불장난 질식사 – 인명피해 : 사망 3명(어린이)
	1983	09.10	· 천안소방서 동부파출소 개소(정원 13명)	12.18	· 충남 대전시 동구 원동 중앙도매시장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2명, 부상 1명 / 재산피해 : 12억 원
		09.30	· 천안소방서 온양파출소 개소(정원 11명)		
	1984	11.10	· 충남 소방경연대회 개최	04.07	· 충남 연기군 전의면 약품공장 폭발
	1985	02.01	· 지방소방공무원 정원조정(군지역) : 15명 – 지방소방교→지방소방장	01.16	· 천안시 업성동 빙판길 추돌 – 인명피해 : 사망 4명
		10.31	· 천안소방서 서부파출소 개소(정원 승인 13명)	01.26	· 충남 대전시 대광1동 봉황여관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4명, 부상 6명 / – 재산피해 : 570만 원
		12.13	· 공주소방서 개서(1985.12.01. 관서 설치 승인) – 공주소방서 교동파출소 병설		
	1986	02.09	· 천안 2.9의거 제40주년 기념식	01.	· 덕산온천 목욕탕 화재
		05.02	· 서산의용소방대 제2회 소방경연대회	08.04	·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화재(재산피해 : 20억 원)
		12.22	· 공주소방서 유구파출소 개소(1986.12.10. 정원 승인 8명)	09.27	· 온양시 초등학교 운동회 장식풍선 폭발
	1987	02.13	· 덕산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	07.23	· 충남 공주, 연기, 논산, 부여 서천 등 금강 홍수 피해 – 인명피해 : 사망 85명, 실종 22명
		08.10	· 천안소방서 독립기념관 파출소 개소(1987.04.21. 관서 설치 승인 정원 13명)		
		11.26	· 대천소방서 개서(1987.04.21. 관서 설치 승인) – 대전소방서 죽정파출소 개소(정원 승인 1명)	07.24	· 충남 농지 침수 – 인명피해 : 140명 / 재산피해 : 농지 1억 7,000만 평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1989	01.01	· 대전소방본부 발족에 따른 대전소방서 분리	05.09	·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오토바이판매점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6명 / 재산피해 : 2,500만 원
		01.28	· 대천소방서 서산파출소 개소 (1988.03.02. 관서 설치 승인, 정원 8명)	08.31	· 충남 서해 연안 일대 해일 – 인명피해 : 사망 4명 / 재산피해 : 500억 원
		01.31	· 온양소방서 개서(1988.03.02. 관서 설치 승인)		
		05.06	·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 개소 (1988.03.02. 관서 설치 승인, 정원 13명)	10.27	· 논산시 고속버스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6명
	1990	02.27	· 서산파출소 명칭 변경(서산→예천)	04.17	· 천안시 송유관 휘발유 유출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2명 / – 재산피해 : 3,000만 원
		03.16	· 공주소방서 부여파출소 개소 (1989.04.06. 설치 승인, 정원 6명) · 서산소방서 개서(1989.04.06. 관서 설치 승인) · 서산소방서 예천파출소 병설 (1990.02.19. 설치 승인, 정원 5명)	04.28	· 천안시 삼룡동 천안여고 앞 화물트럭 교통사고 – 인명피해 : 사망 2명
		03.27	· 공주소방서 조치원파출소 개소 (1988.03.02. 관서 설치 승인, 정원 5명)	05.01	· 천안시 성거읍 문덕리 (주)대의 화재 – 재산피해 : 240만 원
		04.06	· 서산소방서 당진파출소 개소 (1988.03.02. 관서 설치 승인, 정원 4명)	06.14	· 온양시 제지공장 보일러 폭발 – 인명피해 : 사망 4명
		04.31	·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 개소 (1988.03.02. 관서 설치 승인, 정원 6명)	06.20	· 천안시 서북구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 – 인명피해 : 실종 1명 / 재산피해 : 농지 1,640ha 침수
		05.29	· 대천소방서 홍성파출소 개소 (1988.03.02. 관서 설치 승인, 정원 6명)	06.21	· 충남 연기군 전의면 경부하행선 열차 충돌 사고 – 인명피해 : 사망 2명, 부상 37명
		09.04	· 소방감찰요원 및 소방검사요원 증원(28명) – 감찰요원(위 · 장) 2명, 소방검사요원(사) 10명 증원 – 郡 소방계 설치 및 12명(위 · 교) 증원(논산 · 태안 · 예산 · 홍성 · 부여 · 서천군 : 6군) – 소방 민원담당 보강(당진 · 아산 · 천안 · 서산) : 4명(교)증원	07.26	· 태안군 유조선 유류탱크 폭발 – 인명피해 : 사망 4명
				07.30	· 공주군 사곡면 마곡천 고무보트 전복 사고 – 인명피해 : 사망 2명
				08.10	· 아산군 국도 5중 충돌 교통 사고 – 인명피해 : 사망 6명, 부상 50명
		10.15	· 문화재(사찰) 화재 대비 소방 훈련		
	1991	06.15	· 대천소방서 장항파출소 개소 (1990.05.17. 관서 설치 승인, 정원 5명)	02.16	· 서산시 극동정유 분해탑 폭발
				04.29	· 아산군 장항선 탈선사고
		07.05	· 충남도 소방학교 설치 조례 공포(조례 제2171호) (1990.05.17. 관서 설치 승인, 정원 5명)	05.27	· 충남지방 호우피해 – 재산피해 : 농경지 6,600ha 침수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07.12	· 천안소방서 두정파출소 개소(1990.05.17. 관서 설치 승인, 정원 13명)	07.22	· 당진군 신평면 고속버스 – 트럭 충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4명
		07.25	· 부여 양화면 부녀의용소방대 발대식		
		10.04	· 도 소방감찰계 설치(지방소방령 1명 증원)	07.30	· 서천군 마서면 철도건널목 트럭 – 열차 충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2명, 부상 3명
		12.14	· 소방법 개정(법률 제4419호) – 소방업무 관장 책임(시장 · 군수→도지사)변경	08.14	· 서천군 콜레라 집단 발생 – 인명피해 : 감염 87명
		12.28	· 충남도 직제규칙 공포(지방학교 설치준비단)		
	1992	01.15	· 소방서 직제 폐지 및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규칙 제2210호) – 소방업무 도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1990.01.01. 소급 시행)	01.07	· 태안군 해안초소 폭발사고 – 인명피해 : 부상 14명
		02.14	· 충남도 소방학교 설치준비단 발족(10명)	02.07	· 공주군 오인교 고속버스 추락사고
		04.08	· 충남도 직제규칙 개정(규칙 제2224호) – 민방위국 소방과에서 소방본부로(소방행정과, 방호과)	04.29	· 천안시 미군 송유관 파손
		04.10	· 충남도 소방본부 발족(2과6계) : 정원승인 15명	07.18	· 충남 집중호우 및 침수 – 인명피해 : 사망 6명 / 재산피해 : 농지 4,000ha 침수
		07.18	· 장비관리 인력 승인(장비 35대에 따른 인원 88명 증원)	08.23	· 경부고속도로 시외버스 – 트럭 추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3명, 부상 27명
		07.30	· 대천소방서 신흑파출소 개소 (1991.05.26. 관서 설치 승인, 1992.07.18. 정원 15명)	09.21	· 천안시 고속도로 버스 – 승용차 7중 충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6명, 부상 20명
		8.01	· 관서 설치 승인 – 대천소방서 청양파출소, 온양소방서 둔포파출소, 서산소방서 태안파출소	11.03	· 금산군 공사장 매몰사고
		08.02	· 공주소방서 금산파출소 개소 (1989.04.06. 관서 설치 승인, 1992.07.18. 정원 5명)	11.20	· 서산시 영창공업사 압사 사고
		09.04	· 서산소방서 대산파출소 개소 (1991.05.26. 관서 설치 승인, 1992.07.18. 정원 8명)	12.07	· 천안시 승용차 – 열차 충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3명
		10.07	· 장비관리 인력승인(장비 1대에 따른 인원 1명 증원)	12.13	· 충남방적 대전공장 화재 – 재산피해 : 500억 원
	1993	03.27	· 장비관리 인력승인(장비 34대에 따른 인원 58명 증원)	04.19	· 논산읍 부창리 서울신경정신과병원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34명, 부상 2명 / 재산피해 : 70만 원
		06.10	· 충남소방학교 인원 증원 : 10명→26명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07.08	· 충남소방학교 청사 준공 : 3/1층, 3,680㎡	08.28	· 비브리오 패혈증 각 지역에서 감염 – 인명피해 : 사망 3명
		07.20	· 충남소방학교 개교		
		12.01	· 관서 설치 승인(천안소방서 성환파출소, 공주소방서 임천파출소, 대천소방서 광천파출소)	12.28	· 천안시 가스충천소 폭발 – 인명피해 : 부상 9명 / 재산피해 : 5,000만 원
		12.23	· 덕산의용소방대 청사 준공		
	1994	04.11	· 관서 설치 승인에 따른 정원승인 31명 – 대천소방서 청양파출소 10명, 온양소방서 둔포파출소 11명, – 서산소방서 태안파출소 10명	03.08	· 태안군 통학버스 전복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57명
		04.20	· 소방본부 일반행정직 1명(행정주사) 감원	03.17	· 아산 도고면 열차 – 차량 충돌 사고 – 인명피해 : 사망 4명, 부상 8명
		05.02	· 대천소방서 청양파출소 개소	05.30	· 논산군 연산면 맹인할머니 주택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2,000만 원
		05.10	· 온양소방서 둔포파출소 개소		
		05.25	· 서산소방서 태안파출소 개소		
		06.28	· 정원 승인 : 33명 – 천안소방서 성환파출소 11명(위 1명, 장 2명, 교 4명, 사 4명) – 공주소방서 임천파출소 11명(위 1명, 장 2명, 교 4명, 사 4명) – 대천소방서 광천파출소 11명(위 1명, 장 2명, 교 4명, 사 4명)	06.05	· 홍성군 트럭 – 승합차 충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6명
		06.30	· 논산소방서 설치승인	07.02	· 충남도 집중호우 피해 – 인명피해 : 실종 1명, 이재민 7명 / 재산피해 : 농지 584ha 침수
		07.08	· 소방학교 정원 증원 3명(위 1명, 교 2명)	07.18	· 천안 철도건널목 추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0명
		07.27	· 충청남도 정원 규칙 개정 공포(정원 33명)	07.24	· 홍성 대교시장 화재 – 재산피해 : 4억 2,000만 원, 점포 90여 개 소실
		08.18	· 덕산의용소방대장 15대, 16대 이 · 취임		
		12.01	· 정원 조정 및 승인(규칙 2483호) – 기능직공무원 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으로 조정승인 : 112명	08.30	· 태안군 기도원 폭우로 인한 붕괴 – 인명피해 : 사망 4명, 부상 35명
		12.31	· 정원 조정(규칙 2491호) – 국가직 소방공무원 66명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조정 · 구조 · 구급 업무 담당 부서 신설에 따른 충남도 직제 및 충청남도담당관실과 규칙 개정 (규칙 2493호 및 규칙 2492호) – 소방본부 1과 2계 7명 / 천안소방서 1계 3명 – 공주소방서 1과 2계 6명 / 보령소방서 1계 3명 – 아산소방서 1계 3명 / 서산소방서 1계 3명	09.26	· 충남 연기군 쌍용제지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1,300만 원
				10.02	· 금산군 차부리 ㈜삼호화학 페인트공장 화재(재산피해 : 3억 원)
				10.07	· 충남 연기군 미군헬기 추락사고 – 인명피해 : 사망 5명
				12.10	· 당진군 한보철강 크레인 붕괴 – 인명피해 : 사망 8명, 부상 1명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1995	03.15	· 소방서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직제규칙 공포(조례 제2474호, 규칙 제 2517호) – 소방학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직제규칙 공포(조례 제2478호, 규칙 제2514호) – 소방학교장을 국비소방정으로, 하부조직을 규칙으로 정함	01.27	· 천안시 중원농장(부화장) 화재 – 재산피해 : 1억 6,000만 원
				02.04	· 공주시 논산군 수성광학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2억 8,700만 원
		04.07	· 천안소방서 성환파출소 개소	03.10	· 천안시 탱크로리 추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1명, 부상 7명
		05.01	· 소방관서 직급 상향조정 및 정원 증원(규칙 제2525호) – 정 4명, 령 5명, 위 12명, 사 8명 – 본부 기능직(사무보조) 1명 / 장비관리 인력 증원	03.21	· 천안시 5톤 트럭 충돌 교통사고 – 인명피해 : 사망 5명
		05.23	· 소방관서 설치 승인(파출소 3명, 구조대 7명) – 파출소 : 서천, 강경, 합덕 – 구조대 : 소방서(논산 포함 6명, 대산(특수재해구조 1명)	04.03	· 충남 당진군 순성면 우신산업 공장화재 – 재산피해 : 1억 원
				05.26	· 충남방직 구. 천안공장 화재
		06.08	· 공주소방서 임천파출소 개소	08.15	· 예산군 철도 건널목 충돌 – 인명피해 : 사망 3명
		06.15	· 보령소방서 광천파출소 개소		
		06.20	· 소방본부 증원 배치 (기능직 1명, 장비관리 인력 1대 4명 증원)	08.22	· 천안시 호프집 가스 폭발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700만 원
		09.16	· 장비관리 인력 9대 16명 증원	08.23	· 천안시 가스통 배달차 폭발사고
		10.02	· 소방파출소 정원 승인(35명) – 공주소방서 내동파출소(논산) 2명, 강경파출소 11명 – 보령소방서 서천파출소 11명 / 서산소방서 합덕파출소 11명	08.27	· 예산군 예당지 방류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명
				08.27	· 보령시 서천발전소 침수사고
		11.25	· 충남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소방파출소 정원 35명)	10.09	· 천안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추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3명, 부상 9명
		12.05	· 서산소방서 합덕파출소 개소		
		12.08	· 보령소방서 서천파출소 개소	10.27	· 태안군 태안재래시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4억 원
		12.15	· 공주소방서 강경파출소 개소		
	1996	02.10	· 충남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규칙 제2589호) – 기능직→소방직으로 전환배치(73명) – 소방차량(11대), 운전인력 22명(교 9명, 사 13명)증원 · 충남도 소방서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 공포 – 아산소방서 직급 상향조정(과장 : 경→령, 계장 : 위 또는 경→경)	02.09	· 보령시 중앙시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2,700만 원
				10.08	· 충남방적 가공공장 화재
				11.26	· 아산시 유류판매소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2,5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1997	05.30	· 충남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 (소방차량 등 운전인력 9명)	11.28	· 보령시 축사(돈사) 화재 – 재산피해 : 2,800만 원
		07.30	· 충남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 – 근속 승진에 따른 정원조사(사→교 1명, 교→장 1명) · 119구조 · 구급인력 정원승인(내무부) – 구조대 : 6개 대 42명(위 5명, 장 5명, 교 16명, 사 16명) – 구급대 : 20개 대 40명(교 20명, 사 20명)	12.03	· 공주시 금산군 점포 화재 – 재산피해 : 3,600만 원
				12.12	· 서산시 여관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2명, 부상 4명 / 재산피해 : 2,900만 원
		09.03	· 공주소방서 연무파출소, 아산소방서 삽교파출소 설치 승인	12.18	· 공주시 주택 전기합선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3,000만 원
		09.30	· 충남도 정원조례 공포(86명) – 구조대 : 42명(신설 5대 X 8명, 보강 2명) – 구급대 : 40명(20대 X 2명) – 산악구조 · 굴삭기 조작 인원 : 4명	12.20	· 천안시 성남면 연와 도자기 화재 – 재산피해 : 1억 8만 원
		11.01	· 충남도 정원조례 시행규칙 공포	12.31	· 보령시 조선소(광양) 화재 – 재산피해 : 2,600만 원
		02.26	· 천안시 동면의용소방대 청사 준공	01.21	· 당진군 읍내리 점포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8,800만 원
		05.10	· 충남도 정원조례 시행규칙 공포(규칙 제2662호)	02.13	· 논산시 주택 방화 – 인명피해 : 사망 3명, 부상 2명
			– 근속 및 특진자 정원조정(장 4명→교, 본부 · 천안 · 공주 · 아산)		
		06.16	· 논산소방서 등 정원 승인(내무부) : 28명 – 논산소방서 : 18명(정 1명, 령 2명, 경 5명, 위 2명, 장 4명, 교 4명) – 삽교파출소 : 9명(위 1명, 장 2명, 교 4명, 사 2명) – 연무파출소 : 9명(위 1명, 장 2명, 교 4명, 사 2명) – 소방항공대 : 8명(경 1명, 위 1명, 장 4명, 교 2명) – 장비운용인력(고가차, 화학차) : 4명(교 2명, 사 2명)	02.27	· 당진군 신평면 롯데기공현장숙소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4,900만 원
				03.28	· 당진군 순성면 (진우화성) 화학공장화재 – 인명피해 : 사망 3명, 부상 4명
				03.29	· 당진군 연립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3명
		08.20	· 충남도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공포 : 43명 – 논산소방서 : 14명(정 1명, 령 1명, 경 4명, 위 2명, 장 6명, 교 2명, 사 2명) – 삽교파출소 : 11명(위 1명, 장 2명, 교 4명, 사 4명) – 소방항공대 : 8명(경 1명, 위 1명, 장 4명, 교 2명) – 장비운용인력 : 10명(교)	03.31	· 예산군 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1,200만 원
				04.27	· 공주 정안면 석송리 승합차 – 트럭 교통사고 – 인명피해 : 사망 7명, 부상 1명
		08.30	· 충남도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공포	05.01	· 예산군 주택 LPG가스 폭발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800만 원
		09.30	· 충남도 소방서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공포(조례 2672호) – 논산소방서 설치	05.04	· 태안군 선박(동원호)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600만 원
		10.30	· 충남도 소방서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 공포(규칙 제2685호) – 공주소방서 구조구급과 폐지(구조구급계 신설) – 삽교파출소 설치	05.24	· 논산시 주택 방화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1,2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12.15	· 논산소방서 개서(1994.06.30. 관서 설치 승인) · 아산소방서 삽교파출소 개소	10.31	· 논산시 우성사료 분진폭발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000만 원
		12.30	· 충남도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2694호) – 소방학교 기능직(난방원) 직급 상향조정(10등급→9등급) 2명	11.06	· 천안시 주유소(매봉주유소)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1998	03.30	· 충남도 소방서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 공포(규칙 제2704호)	02.15	· 천안시 점포(천일물산) 화재 – 재산피해 : 1억 원
		05.15	· 천안소방서 성거파출소 이전 개소(동부→성거파출소)		
		09.05	· 충남도 행정조직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조례 제2725호, 규칙 제2720호) – 구조조정 : 소방본부→소방안전본부) – 소방행정과(소방행정계 · 소방감찰계 · 장비계) → (소방행정분야 · 장비분야 · 소방교육분야)방호과(방호계 · 예방계 · 소방교육계) → 방호구조과(방호분야 · 예방분야 · 구조구급분야) 구조구급과폐지, 재난관리과(재난관리분야, 안전점검분야, 재난종합상황실분야) 통합 · 충남도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2719호) – 인원 감축 : 102명(소방직 91명, 기능직 11명) – 감사실에 지방소방경 1명 증원 – 재난관리과 26명, 소방안전본부로 변경	02.21	· 천안시 축사(계사) 화재 – 재산피해 : 1억 2,000만 원
				03.12	· 천안시 공장 녹화산업 내 야적장 화재 – 재산피해 : 1억 2,000만 원
				03.21	· 논산시 논산재래시장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2명 / 재산피해 : 1억 3,000만 원
				03.30	· 천안시 파일빌딩 점포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4명 / 재산피해 : 7,400만 원
				04.05	· 태안군 신진도항 선박(방주1호)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8,000만 원
				06.21	· 충남 공주시 연기군 공장(서일산업) 화재 – 재산피해 : 2억 3,000만 원
				08.15	· 서산시 운산면 트레일러 – 승합차 충돌 – 인명피해 : 사망 7명
		12.21	· 충남도 행정조직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 2729호) – 소방교육분야를 소방교육지원분야로 명칭 변경 · 충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2728호) – 재난관리과 일반직 2명 감축(25명→23명)	09.06	· 보령시 공장(삼우씽크) 화재 – 인명피해 : 부상1명 / 재산피해 : 1억 2,000만 원
				11.02	· 공주시 직물 공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2억 8,000만 원
	1999	04.10	· 충남도 행정조직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2728호) – 충청남도소방학교를 충청소방학교로 명칭 변경	01.12	· 서산시 단란주점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4,300만 원
		08.16	· 충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2770호) – 소방행정과(소방행정, 장비, 소방지도, 민방위) – 안전관리과(방호, 예방, 구조구급, 재난관리, 안전점검, 종합상황실) · 충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2771호) – 소방행정과(민방위분야) 일반직 14명 증원) – 안전관리과 일반직 3명 감원(23명→20명)	01.24	· 천안시 동방유통 점포화재 – 재산피해 : 1억 원 이상
				05.10	· 금산군 공장(정일산업) 화재 – 재산피해 : 7억 2,000만 원
				06.03	· 충남 연기군 축사(양계장) 화재 – 재산피해 : 1억 7,0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12.30	· 충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공포(훈령 1079호) – 총 인원 10명(담당 2명, 직원 8명) – 1일 근무인원(5급 1명, 소방위 1명, 6급 1명, 통신6급 1명, 8급 1명)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공포(조례 제2814호) – 총인원 8명(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구조대원 2명, 소방학교 2명) (지방소방공무원 : 1,112명→1,120명)	06.17	· 공주시 점포화재 – 재산피해 : 1억 2,000만 원
				한	· 보령시 신흑동 나이키 미사일 폭발
				민	· 아산시 배 저온 저장창고 화재 – 재산피해 : 3억 1,000만 원
				국	· 논산시 논산시장 점포 화재 – 재산피해 : 2억 7,000만 원
	2000	01.20	· 충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2814호) – 총인원 8명(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구조대원 2명, 소방학교 2명) – 소방직 1명 소방서→소방학교 – 소방항공대 발대	03.24	· 서산시 AMF볼링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억 1,000만 원
				04.01	· 천안시 공장(명광) 화재 – 재산피해 : 3억 5,000만 원
		07.31	· 충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2814호) – 안전점검분야를 기동점검분야로 명칭 변경 · 충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 – 소방직 5명 소방서→안전관리과(22명→27명) – 안전관리과 일반직 3명 감축(20명→17명)	11.11	· 천안시 DDR클럽댄스 외 8개소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억 9,000만 원
				12.30	· 논산시 두마면 달빛노래방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4,600만 원
	2001	06.15	· 소방공무원 정원 승인(행자부) : 52명 – 소방장 10명, 소방교 31명, 소방사 11명(장비조작인력)	06.07	· 논산시 금산군 공장(남지공조) 화재 – 재산피해 : 3억 7,000만 원
		07.04	· 충남도 홍성소방서 설치승인	08.03	· 천안시 신부동 꿈의 궁전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6명, 부상 23명 / 재산피해 : 400만 원
		07.28	· 충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 – 총인원 52명(지방소방공무원 : 1120명→1172명)		
	2002	01.08	· 소방공무원 정원 승인 : 88명 – 홍성소방서 : 56명 – 보령 웅천파출소 : 16명 / 서산 안면파출소 : 16명	01.13	· 충남 연기군 점포 방화 – 인명피해 : 사망 4명 / 재산피해 : 1,100만 원
		02.20	· 충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공포(조례 제2974호) – 지방소방공무원 88명 증원(1,172명→1,260명) · 충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공포(규칙 제2975호) – 홍성소방서 신설(청양군, 홍성군 일원)	03.11	· 금산군 재원면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3명 / 재산피해 : 3억 1,000만 원
				04.14	·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산불 – 인명피해 : 이재민 100여 명 / 재산피해 : 산림 3,095ha 소실
		03.30	· 충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2873호) – 소방지도분야(의무소방원 업무 신설) – 소방정보통신분야 신설(안전관리과 업무 소방행정과로 변경) – 도 안전관리과에 화재조사분야 신설 – 홍성소방서 관할구역 확정(홍성 · 청양 · 광천 · 119구조대)	05.09	· 부여군 보일러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4명 / 재산피해 : 1,200만 원
				05.23	· 천안시 공장 전기합선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7,000만 원
				08.24	· 아산시 공장 유압펌프 파열 화재 – 재산피해 : 9,9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2003	04.10	· 웅천(보령), 안면(서산)파출소 개소 – 웅천파출소(보령시 웅천읍 – 웅천읍, 주산면, 성주면, 미산면) – 안면파출소(안면읍 승언리 – 안면읍, 남면, 고남면)	08.25	· 당진군 공장 전기용접 발화 – 재산피해 : 7,600만 원
				10.01	· 아산시 건기 화재 – 재산피해 : 1억 3,000만 원
		04.15	· 홍성소방서 개서 – 보령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 죽정 · 장항 · 서천 · 신흑 · 웅천 파출소 – 홍성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 홍성 · 청양 · 광천파출소	10.17	· 논산시 금산군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1억 3,000만 원
				12.10	· 서천군 마서면 금매복지원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9명 / 재산피해 : 952만 원
		09.04	· 예산 · 당진소방서 설치 승인(행정자치부 소행13800–446)	12.27	· 공주시 유구읍 공장 화재(재산피해 : 7,600만 원)
		08.29	· 소방공무원 정원 승인(행정자치부) : 85명 – 도 소방행정과 2명, 예산소방서 29명, 당진소방서 29명 – 소방서 화재조사담당 7명 – 논산소방서 부여구조대 · 홍성소방서 청양구조대 각 9명	01.06	· 천안시 점포(우먼로드) 석유난로 화재 – 재산피해 : 1억 3,000만 원
				01.20	· 충남 연기군 창고(다인물산) 화재 – 재산피해 : 4억 2,900만 원
		10.20	· 충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제3067호) – 예산소방서(예산군 일원) · 당진소방서(당진군 일원) 신설 · 충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 제 3068호) – 지방소방공무원 정원 85명 증원(1,260명→1,345명) · 충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 제2912호) – 소방서 화재조사담당 및 부여 · 청양 119구조대 신설	03.26	· 천안시 성황동 천안초 축구부 합숙소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9명, 부상 16명 / 재산피해 : 1억 6,000만 원
				04.01	· 금산군 공장(동남사, 한국콤포) 화재 – 재산피해 : 4억 2,000만 원
				07.03	· 충남 연기군 공장(나이스코리아) 화재 – 재산피해 : 1억 4,000만 원
		11.26	· 충남도 부여소방서 설치 승인	07.06	· 당진군 가원다방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5명 / 재산피해 : 9,700만 원
		12.03	· 청양 119구조대 신설	07.18	· 천안시 목천읍 축사 화재 – 재산피해 : 1억 3,000만 원
		12.20	· 예산소방서 개서 · 부여 119구조대 신설		
	2004	01.06	· 당진소방서 개서	02.24	· 충남 연기군 축사(금강농장) 화재 – 재산피해 : 9,200만 원
		08.30	· 충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 소방사 40명 증원→소방장 23명 증원, 소방교 17명 증원 – 항공대 교 2명 증원, 학교 위 3명 증원, 본부상황실 위 3명 증원 ,홍성 교 3명 감원, 서산 교 1명 감원, 보령 교 1명 감원	03.20	· 서산시 공장 창고 화재 – 재산피해 : 8,900만 원
				04.21	· 천안시 공장(푸른들) 소각장 화재 – 재산피해 : 1억 3,0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10.02	· 소방공무원 정원 승인 : 62명 – 정 1명, 령 2명, 경 5명, 위 6명, 장 6명, 교 13명, 사 29명 – 부여서 35명(직할 15명포함), 천안쌍용 11명, 아산신창 9명, 논산계룡 7명	05.02	· 보령시 서천군 카센터(영보상사)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3명 / 재산피해 : 9,000만 원
				05.19	· 논산시 화지중앙시장 화재(재산피해 : 8,172만 원)
		10.13	· 소방관서 현장대응팀 시범운영 : 도소행–8337 – 천안, 논산, 예산 시범운영(2004.10.13.~11월초)	05.21	· 천안시 공장(유진테크) 화재 – 재산피해 : 9,400만 원
		12.01	· 소방관서 현장대응팀 확대 운영 : 도소행–9769 – 전 소방관서 확대 시행	08.27	· 충남 연기군 모델하우스(대우건설) 화재 – 재산피해 : 1억 1,000만 원
		12.30	· 충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공포(조례 제3113호) · 충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2935호) – 부여소방서(부여군, 서천군 일원) 신설 – 파출소 신설 및 관할 조정(10개 소방서 / 36개 파출소 / 11개 구조대) (천안쌍용, 아산신창, 논산계룡, 부여백제 · 사비) · 충남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공포(조례 제3114호) · 충남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2936호) – 지방소방공무원 : 62명(1,345명→1,407명)	09.18	· 충남 연기군 공장(대성지관) 화재 – 재산피해 : 9,300만 원
				10.25	· 천안시 창고 화재 – 재산피해 : 9,500만 원
				12.27	· 예산군 공장(비츠로셀) 화재 – 재산피해 : 3억 4,000만 원
				12.30	· 논산시 축사(돈사) 화재 – 재산피해 : 9,800만 원
	2005	01.17	· 아산소방서 신창파출소 개소 – 관할 : 온양4~5동, 신창 · 도고 · 선장면 일원	02.19	· 논산시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1억 2,000만 원
		03.03	· 부여소방서 개서 – 백제 · 사비 · 장항 · 서천 · 임천파출소, 119구조대	02.19	· 천안시 공장 보일러 합선 화재 – 재산피해 : 1억 7,000만 원
		03.17	· 천안소방서 쌍용파출소 개소 – 관할 : 쌍용1~2동, 쌍용3동(불당동), 신용동(신방동) 일원	02.25	· 아산시 공장(우리승진식품) 화재 – 재산피해 : 7,900만 원
		03.30	· 정부 인사발령(소방준감계급신설) : 소방방재청 혁신인사 – 본부장 : 소방감→소방준감(계급 명칭 변경)	05.28	· 서산시 축사(효동농장) 단락 화재 – 재산피해 : 8,2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05.27	· 홍성소방서 청사 준공	09.14	·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5명 / 재산피해 : 200만 원
		10.06	· 충남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조례(규칙 제 2946호) –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소방행정 · 장비 · 소방지도 · 소방정보통신분야) – 민방위재난관리과(민방위 · 재난관리 · 기동점검 분야) ※ 민방위분야 : 소방행정과→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 – 천안 · 공주 · 보령 · 서산 · 논산소방서 3과로 변경 ※ 소방행정과(소방행정정장비분야), 방호예방과(방호 · 예방안전분야), 대응구조과(구조구급 · 대응조사분야) – 아산 · 홍성 · 예산 · 당진 · 부여소방서 변경없음(2과) ※ 소방행정과(소방행정 · 장비분야) 방호구조과(방호구조 · 예방안전 · 화재조사분야)	09.28	· 당진군 축사(양계장) 화재 – 재산피해 : 7,900만 원
				11.13	· 아산시 인주면 ㈜동화기업 화재 – 재산피해 : 8,368만 원
				11.24	· 아산시 공장(동화기업) 화재 – 재산피해 : 8,300만 원
				12.18	· 천안시 다세대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4명 / 재산피해 : 1억 5,000만 원
	2006	11.30	·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규칙 제2989호) – 명칭 변경 : 파출소→119안전센터, 대기소 · 출장소→119지역대 – 12개 119안전센터 신설(천안병천, 공주신관, 서산동부 · 해미, 논산연무 · 추부,홍성오관 · 정산,예산덕산,당진송악,부여홍산 · 한산) – 파출소 명칭 변경 : 홍성파출소→구룡119안전센터(이전개소) 예산파출소→금오119안전센터	02.14	· 아산시 부탄가스 생산 공장(대륙제관) 폭발 화재 – 재산피해 : 1억 9,800만 원
				10.03	· 당진군 서해대교 교통사고 참사 (사망 12명, 부상 49명)
				10.20	· 공주시 교동 원희정신과의원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5명, 부상 12명 / 재산피해 : 2,800만 원
				12.04	· 당진군 송악면 화물선 화재 – 재산피해 : 4,160만 원
	2007	01.10	· 충남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공포(조례 제3240호) – 본부課 명칭 변경 :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민방위과	01.27	· 예산군 삽교읍 법륜사 대웅전 화재 – 재산피해 : 1억 원
		12.20	· 충남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공포(조례 제3286호) – 금산소방서 · 서천소방서 신설 – 금산 · 서천소방서 119구조대 신설 – 119안전센터(전의, 인주, 반월, 비인, 석문)신설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공포(조례 제3287호) – 지방소방공무원 : 80명(1,407명→1,487명) – 정 2명, 령 4명, 경 10명, 위 7명, 장 28명, 교 29명	04.30	아산시 야시장 LP가스 폭발 – 인명피해 : 부상 10명
				05.17	홍성군 축사(대경농장) 화재 – 재산피해 : 2억 2,000만 원
				12.07	태안군 서해 연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12.27	청양군 공장(애경산업) 화재 – 재산피해 : 4억 8,0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2008	01.25	· 서천소방서 개서(서천군 일원) – 80명(정 1명, 령 2명, 경 5명, 위 5명, 장 12명, 교 26명, 사 29명) · 서천소방서 119구조대, 비인119안전센터 개소 · 금산소방서 개서(금산군 일원) – 65명(정 1명, 령 2명, 경 5명, 위 5명, 장 12명, 교 26명, 사 29명) · 금산소방서 119구조대, 금산119안전센터 개소	01.12	· 천안시 동일하이빌 모델하우스 화재 – 재산피해 : 3억 6,000만 원
				01.22	· 예산군 쌍신 누리봄아파트 모델하우스 화재 – 재산피해 : 2억 7,000만 원
				02.19	· 아산시 공장(엠코리아산업) 화재 – 재산피해 : 3억 2,000만 원
		01.29	· 논산소방서 반월119안전센터 개소	03.18	· 논산시 대지공업사 유증기 폭발사고 – 인명피해 : 부상 3명 / 재산피해 : 5,700만 원
		01.31	· 아산소방서 인주119안전센터 개소 · 당진소방서 석문119안전센터 개소	05.04	· 보령시 죽도 바닷물 범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9명, 부상 14명
		03.10	· 충청남도 소방 표지 규정 제정 공포(훈령 제1199호) – 적용범위(소방과 관련된 제복, 장비, 시설, 서식, 문서, 책자, 홍보물 등) 하트세이버 인증제 시행	05.18	· 당진군 해동엔지니어링 숙소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6명 / 재산피해 : 1억 3,000만 원
		04.03	· 금산소방서 개서	05.26	· 당진군 석문면 축사(돈사) 화재 – 재산피해 : 4억 9,000만 원
		07.01	·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3033호) – 연기소방서 신설 – 119구조대(연기소방서, 서산119화학구조대) 신설 – 119안전센터(동학사, 오천, 부석, 갈산, 오가) 신설 – 조치원 · 전의 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공주소방서→연기소방서)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제3034호) – 지방소방공무원 : 146명(1,487명→1,633명) – 정 1명, 령 2명, 경 5명, 위 4명, 교 60명, 사 50명 · 소방안전본부 조직 명칭 변경 – 소방지도담당→기획감찰담당 명칭 변경 – 소방행정담당 업무 중 기획 및 혁신업무	05.27	· 예산군 공장(동방리테크) 화재 – 재산피해 : 1억 9,000만 원
				05.28	· 계룡시 페리카나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4억 원
				05.30	· 아산시 공장(대흥산업) 화재 – 재산피해 : 2억 4,000만 원
				09.17	· 홍성군 홍성농장(종계사) 화재 – 재산피해 : 1억 8,000만 원
				11.08	· 예산군 축사 화재 – 재산피해 : 3억 8,000만 원
				12.05	· 당진군 축사(돈사) 화재 – 재산피해 : 1억 5,000만 원
		07.07	· 예산소방서 오가119안전센터 개소	12.09	· 아산시 공장(정산생명공학) 화재 – 재산피해 : 9억 5,000만 원
		10.15	· 보령소방서 오천119안전센터 개소	12.22	·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농장(돈사)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2명 / 재산피해 : 1억 6,000만 원
		12.11	· 홍성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개소 · 연기소방서 개서 – 연기소방서 119구조대 개소 · 서산소방서 부석119안전센터 · 119화학구조대 개소	12.31	· 아산시 음봉면 성민상사 화재 – 재산피해 : 1억 7,000만 원
		12.26	· 공주소방서 동학사119안전센터 개소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2009	06.01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제3419호) – 아산소방서 및 홍성소방서 대응구조과 신설(각 3명) – 천안소방서 북부119구조대 신설 – 서천소방서 서면 · 당진소방서 신평119안전센터 신설 – 직할 119안전센터 직급 상향 소방위→소방경 13명 – 본부 소방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전담 인력(1명), 3교대 인력(11명)	01.26	· 논산시 롯데제과 논산영업소 창고 화재 – 재산피해 : 1억 원
				01.27	· 아산시 전진기업 외 3개소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8억 2,000만 원
				01.27	· 천안시 한양비닐포장 외 5개소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4억 6,000만 원
				04.28	· 아산시 음봉면 ㈜애강리메텍 화재 – 재산피해 : 1억 5,000만 원
		07.07	· 예산소방서 오가119안전센터 개소	05.09	· 예산군 신례원 구. 충남방적 화재(재산피해 : 9,609만 원)
				07.18	· 아산시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4억 8,000만 원
		10.07	· 아산소방서 대응구조과 신설 – 14명(령 1명, 경 2명, 위 1명, 장 2명, 교 5명, 사 3명) · 홍성소방서 대응구조과 신설 – 13명(령 1명, 경 2명, 위 1명, 장 4명, 교 3명, 사 2명)	08.08	· 당진읍 건물화재 – 재산피해 : 8,000만 원
				09.22	· 예산군 공장(비츠로셀)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6명
		10.12	· 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개소 – 13명(위 1명, 장 2명, 교 5명, 사 5명)		
		11.23	· 천안소방서 북부119구조대 개소 – 13명(위 1명, 장 4명, 교 8명)	12.27	· 서산시 신정여관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3명, 부상 5명 / 재산피해 : 5,000만 원
		11.27	· 당진소방서 신평119안전센터 개소 – 13명(위 1명, 장 2명, 교 5명, 사 5명)		
	2010	06.30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095호) – 지방공무원 : 232명(1,801명→2,033명), 국가직 2명 제외 령 2명, 경 16명, 위 7명, 장 35명, 교 69명, 사 103명 – 아산소방서 배방119안전센터 신설(10명) – 소방항공구조대 직제 신설(대장증원 1명) – 119안전센터장 정원확보(9명) – 소방서 대응조사담당 검사업무 예방안전담당으로 이전 – 홍성 오관119안전센터를 옥암119안전센터로 변경	01.06	· 부여군 육계농장 화재 – 재산피해 : 3억 4,000만 원
				01.29	· 천안시 산업시설 –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8억 7,000만 원
				02.28	· 예산군 공장(신호인더스트리) 화재 – 재산피해 : 9억 4,000만 원
				07.24	· 부여군 은산천 국지성 폭우 – 인명피해 : 실종 3명
		10.04	· 기능직공무원 30명 소방직 전환	09.25	· 보령시 저두(안강망 어선)호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2명 / 재산피해 : 3억 4,000만 원
		11.26	· 아산소방서 배방119안전센터 개소 – 16명(위 1명, 장 7명, 교 3명, 사 5명)		
				12.21	·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탱크로리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억 2,0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2011	03.08	·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42호)	01.09	· 보령시 대천동 유림장여관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3명 / 재산피해 : 1,900만 원
		03.08	·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10443호) – 소방지원활동의 근거 마련		
		04.19	· 중앙소방학교 화재진화사 양성기관 지정	03.18	· 서산시 해미면 가야산 화재 – 인명피해 :사망 1명(소방헬기 정비사) / 재산피해 : 산림 4.5ha 소실
		06.10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124호) – 천안서북소방서 및 직할 차암119안전센터 설치 (천안소방서→천안동남소방서 관서 명칭 변경) – 소방직공무원 증원 : 26명(총원 2,061명)	04.01	· 아산시 둔포면 (주)한본인더스트리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4억 5,102만 원
				04.08	· 당진군 순성면 돈사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3명 / 재산피해 : 1,300만 원
		06.14	· 충청소방학교 공동 운영 규약 개정 – 충청소방학교 직제 명칭 변경 – 서무과(서무분야, 경리분야)→교육지원과(행정지원담당, 예산운영담당) – 교학과(교무 · 교수 · 지도 분야)→교육기획과(교육기획 · 교수운영 · 학생지도분야)	06.09	· 부여군 은산면 돈사 화재 – 재산피해 : 3억 9,211만 원
				10.14	· 천안시 동남구 다가구주택 프로판 가스 폭발 – 인명피해 : 부상 3명 / 재산피해 : 1,300만 원
		10.28	· 천안서북소방서 개서 – 23명(경 1명, 위 3명, 장 2명, 교 4명, 사 13명)	12.15	· 예산군 주택 아궁이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명 / 재산피해 : 2,500만 원
		11.10	· 충남 지방공무원정원 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 제1275호) – 충청소방학교 기능직 정원 감축(2명→1명) – 열관리 9급 1명, 10급 1명→10급 1명으로 감축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장기 결원에 따른 정원 감축)	12.19	· 서산시 운산면 삼경상사 외 1곳 창고 화재 – 재산피해 : 1억 9,729만 원
	2012	06.20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3868호)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158호) · 충남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제1283호) – 인력 변동(증원 및 이체) : 2,059명→1,986명 – 증원 : 40명(태안구조대 7명, 연산센터 7명, 내포센터 9명, 첫마을센터 17명) – 지방소방공무원 정원 2,059명→2,099명 (정 16명, 소방령 53명, 경 123명, 위 127명, 장 314명, 교 659명, 사 807명) 이체 : 113명(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인력 이체) (부서별 : 본부 4명, 공주소방서 4명, 연기소방서 88명, 첫마을센터 17명) (계급별 : 정 1명, 령 2명, 경 8명, 위 8명, 장 19명, 교 37명, 사 38명) – 지방소방공무원 정원 : 2,099명→1,986명 / 국가직 제외 (정 15명, 령 51명, 경 115명, 위 119명, 장 295명, 교 659명, 사 807명)	01.12	· 예산군 양계부화장 신축공사현장 화재 – 재산피해 : 19억 원
				02.08	· 예산군 하나농장 화재 – 재산피해 : 3억 2,000만 원
				03.15	· 보령시 화력발전소 1, 2호기 화재 – 재산피해 : 9억 5,680만 원
				03.27	· 보령시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2명
				03.28	·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붕괴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2명
				04.08	· 서천군 종천면 (주)알프스식품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3억 1,697만 원
				04.25	·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 붕괴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3명
				06.13	· 예산군 폐기물처리 공장(유)DMS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3명 / 재산피해 : 7,700만 원
				06.17	· 천안시 카인몰 외 1개소 화재 – 재산피해 : 2억 9,0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07.31	· 양계장 전기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6,000만 원
		직제신설 및 폐지 – 종합방재센터 신설:방호구조과 내 종합방재센터를 과 단위로 격상 – 논산연산센터 신설 정원 7명(위 1명, 장 2명, 교 2명, 사 2명) 홍성 내포센터 신설 : 정원 9명(위 1명, 장 2명, 교 3명, 사 3명) ▷ 옥암센터 홍북면 신경 · 대동 · 봉신 · 상하리, 교센터 목 · 신리 태안구조대 신설 : 정원 7명(위 1명, 장 2명, 교 2명, 사 2명) – 119구조구급센터 신설 직할 센터 내 구급대와 구조대 통폐합 – 연기소방서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 119지역대 8개소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원리, 동면, 서면, 남면, 금남면, 전동면, 장기지역대) 직제조정:당진시 승격에 따른 소방서 직재 순서 조정 연기 · 부여 · 서천 · 홍성 · 예산 · 당진 – 변경전 : 동남 · 서북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금산 – 변경후 : 동남 · 서북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당진 · 부여 · 서천 · 홍성 · 예산 **직제명칭 변경** – 도 장비담당→예산장비담당, 방호담당→방호기획담당, 기획감찰담당→감찰지도담당으로 명칭 변경 – 부여 규암지역대→역사단지지역대로 명칭 변경 **사무이관** – 기획 및 의회관련 사무이관(감찰지도담당→소방행정담당)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및 안전관리감독 사무 이관 (방호기획담당 →감찰지도담당) – 소방공무원 안전관리(감독업무 제외) 사무 이관	08.06	· 홍성군 공장(DS코리아) 화재 – 재산피해 : 2억 5,000만 원
			09.15	· 아산시 차량정비소 유류화재(부상 1명)
			10.16	· 홍성군 공장(동방하이테크) 화재 – 재산피해 : 2억 7,000만 원
			11.17	· 청양군 다방(태양다방)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4,500만 원
			11.18	· 천안시 공장(우리씨엔에프) 화재 – 재산피해 : 14억 원
			11.18	· 예산군 영농조합법인 육인농장 화재 – 재산피해 : 4억 3,000만 원
			12.15	· 당진시 고대면 차량 – 트랙터 추돌사고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2,200만 원
			12.15	·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차량 추돌사고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500만 원
			12.15	· 논산시 동식물(돈사) 화재 – 재산피해 : 1억 7,000만 원
			12.18	· 보령시 식당(통나무집사람들) 화재 – 재산피해 : 9,600만 원
			12.27	· 보령시 천북굴단지 화재 – 재산피해 : 9,800만 원
			12.30	· 아산시 공장(쏠앤텍) 화재 – 재산피해 : 8,100만 원
	2013	06.10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3764호)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195호) · 충남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제1313호) **인력 변동**(증원 및 이체) : 1,986명→2,088명 – 증원 : 102명(본부 방호구조과 6명, 종합방재센터 10명, 태안소방서 22명) (천안 청당센터 13명, 공주 계룡센터 14명, 논산 계룡구조대 10명, 소방정대 15명) (당진 현장대응과 2명, 홍성 내포센터 10명) → 지방소방공무원 정원 1,984명→2,086명 / 국가직 제외 (정 17명, 소방령 55명, 경 123명, 위 133명, 장 312명, 교 654명, 사 792명) **직제신설 및 폐지** – 태안소방서 신설 : 22명(정 1명, 령 2명, 경 7명, 위 4명, 장 2명, 교 3명, 사3명) ▷ 태안군,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을 관할구역으로 조정	01.19	· 공주시 정안면 우진페인트 공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3명 / 재산피해 : 14억 원
			01.23	· 논산시 공장(영신상사) 화재 – 재산피해 : 1억 4,000만 원
			02.19	· 태안군 광신조선소 93거성호 화재 – 재산피해 : 1억 7,000만 원
			03.22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화물트럭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2,000만 원
			03.31	· 천안시 주상복합 오피스텔 주차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4,700만 원
			07.18	· 태안군 사설 해병대 캠프 공주사대부고 학생 참사 – 인명피해 : 사망 5명
			07.22	· 홍성군 갈산면 변압기 제조공장(일진전기) 화재 – 재산피해 : 15억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태안안전센터) 태안군(안면읍, 고남면 제외) 일원 (안면안전센터) 안면읍, 고남면 일원 (구조구급센터) 태안군 일원 – 천안 청당센터 신설 : 정원 13명(위 1명, 장 3명, 교 5명, 사 4명) ▷ 천안시 동남구 중 청룡동(청수동 · 청당동 · 구룡동 · 삼용동) 신방동 · 일봉동(용곡동) 풍세동 · 광덕면을 관할구역으로 조정 – 공주 계룡센터 신설 : 정원 14명(위 1명, 장 3명, 교 6명, 사 4명) ▷ 공주시 이인면, 계룡면, 탄천면을 관할구역으로 조정 – 논산 계룡구조대 신설 : 정원 10명(위 1명, 장 3명, 교 3명, 사 3명) ▷ 계룡시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조정 – 당진 소방정대 신설 : 정원 15명(위 1명, 장 3명, 교 6명, 사 5명) ▷ 충청남도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조정 – 119지역대 폐지 : 계룡센터 신설에 따른 공주 '계룡지역대' **직제명칭 변경** – 당진소방서→현장대응과 신설 – 소방서 대응구조과→현장대응과 (동남, 서북,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홍성)로 변경 ※ 방호구조과 :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08.08	· 논산시 부영아파트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3명
				09.03	· 서천군 해양박물관 방화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3억 6,000만 원
				10.11	· 공주시 목동농장 화재 – 재산피해 : 2억 9,000만 원
				10.16	· 금산군 공장(동진화학) 화재 – 재산피해 : 2억 2,000만 원
				10.17	· 천안시 충무농장 화재 – 재산피해 : 2억 6,000만 원
				10.23	· 논산시 연무읍 양계장 화재 – 재산피해 : 2억 2,000만 원
				11.08	· 공주시 늘새봄 영농장 화재 – 재산피해 : 2억 7,000만 원
				11.10	· 금산군 공장(혜성케미컬 외 4곳) 화재 – 재산피해 : 3억 3,000만 원
		07.15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2208호) **(직제조정)** 직제 개편에 따른 재난민방위과 분리 – 재난민방위과→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로 분리 **(조직명칭)**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를 "충청남도 소방본부"로 변경 – (소방본부 조직 3과)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종합방재센터 – 방호구조과 '예방안전담당'을 "예방홍보담당"으로 변경	11.24	· 금산군 한양빌라 A동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3명
				12.14	· 홍성군 창일농장 화재 – 재산피해 : 1억 8,000만 원
				12.15	· 천안시 진왕영농조합법인 화재 – 재산피해 : 1억 4,000만 원
		09.25	· 보직명칭 변경 – 각 과 담당을 「팀장」으로 명칭 변경	12.27	· 공주시 ㈜대주중공업 화재 – 재산피해 : 1억 3,000만 원
		10.24	· 논산소방서 계룡119구조대 발대	12.28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진우농산 화재 – 재산피해 : 9,741만 원
		11.29	· 태안소방서 개서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2014	06.	· 전국 최초 의용소방대 생활안전구조대 발대	01.04	· 공주시 봉정동 단독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2,790만 원
		08.13	·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대비 자전거구급대 발대	01.22	· 아산시 서진아파트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4,000만 원
		12.30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3942호)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235호)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제1342호) 〈소방본부〉 **인력 변동(증원 및 이체)** : 2,088명→2,140명 – 52명 증원(청양소방서 20명, 당진기지센터 16명, 금산복진센터 16명) **직제신설 및 폐지** – 119화학구조대 폐지 : 조례 개정으로 인한 조직 개편(폐지)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3995호)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241호)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제1356호) **인력변동** : 2,140명→2,197명(장 11명, 교 32명, 사 14명) – 119구급대 인력 보강[19개소 57명] **소방서 팀 설치** – 의용소방팀 설치(전 소방서) – 방호예방과→화재대책과 명칭 변경(전 소방서) – 현장대응과+직할센터+구조구급센터→'현장대응단'통합(3과 소방서) – 방호팀, 구조구급팀 →화재구조팀, 구급팀으로 개편(3과 소방서) – 방호구조과+직할센터+구조구급센터 →현장대응단통합(2과 소방서) – 방호구조팀 → 화재구조팀, 구급팀으로 분리(2과 소방서) – 소방민원팀 설치(동남, 서북, 아산, 당진소방서) – 위험물안전팀 설치(서산소방서)	01.28	· 아산시 ㈜태라 공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9,000만 원
				03.08	· 예산군 오가면 단독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2,680만 원
				03.13	· 금산군 금산읍 단독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2,402만 원
				04.04	· 서산시 주택화재 – 인명피해 : 부상 2명 / 재산피해 : 4,600만 원
				04.06	· 홍성군 주택화재 – 인명피해 : 부상 2명 / 재산피해 : 3,900만 원
				06.26	· 서산시 운산면 25톤 덤프트럭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5,500만 원
				07.23	· 태안군 거성수산 냉동창고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2명 / 재산피해 : 1억 8,000만 원
				07.25	· 천안시 청당벽산블루밍 아파트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4명 / 재산피해 : 5,900만 원
				09.03	· 당진시 공장(풍한금속공업)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9,800만 원
				12.17	· 부여군 탱크로리 – 비닐하우스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2명 / 재산피해 : 5,500만 원
				12.30	· 보령시 주교면 선박 17금영호 화재 – 재산피해 : 1,150만 원
	2015	01.07	· 청양소방서 개서 · 충남 119광역기동단 신설	01.01	· 천안시 서북구 주택 석유난로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4,000만 원
		02.26	· 금산소방서 복진119안전센터 청사 준공		
		04.02	· 태안소방서 청사 개청	01.14	· 서산시 레미콘 전도 사고 – 인명피해 : 사망 3명, 부상 4명
		05.19	· 당진소방서 신평119안전센터 청사 준공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10.14	· 당진소방서 기지시119안전센터 청사 준공	01.15	· 보령시 주택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4,300만 원
		11.30	· 호남 및 충청 · 강원 119특수구조대 신설(발대 12.11)	01.17	· 예산군 주택 방화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명 / 재산피해 : 3,500만 원
		12.30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4067호)		
			·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265호)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제1372호) **인력변동** : 2,197명→2,239명(령 2명, 경 3명, 위 5명, 장 9명, 교 11명, 사 12명) 〈소방본부〉 : 인력 보강(1명) / 2개 팀 신설 **「소방항공대」 설치** **「소방복합시설추진팀」 설치** : 1명(령) 증원 〈소방서〉 : 센터 신설(5개소) / 인력 보강(41명) / 팀 명칭 변경 **천안 서북소방서 입장119안전센터 개소**(입장면 일원) – 9명(위 1명, 장 2명, 교 3명, 사 3명) **보령소방서 주포119안전센터 개소**(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일원) – 7명(위 1명, 장 2명, 교 2명, 사 2명) **아산소방서 탕정119안전센터 개소**(엽치읍, 탕정면 일원) – 11명(위 1명, 장 3명, 교 4명, 사 3명) **부여소방서 외산119안전센터 개소**(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일원) – 7명(위 1명, 장 2명, 교 2명, 사 2명) **태안소방서 원북119안전센터 개소**(원북면, 이원면, 소원면 일원) – 7명(위 1명, 장 2명, 교 2명, 사 2명) **예방안전팀**→예방교육팀 명칭 변경	01.18	· 천안시 부탄가스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19억 6,580만 원
				02.04	· 예산군 식당(삼우갈비)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2,400만 원
				02.24	· 홍성군 주택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2,900만 원
				03.05	· 홍성군 화목 보일러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2명 / 재산피해 : 2,000만 원
				03.30	· 청양군 주택 가스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3,000만 원
				05.29	· 천안시 서북구 다세대주택 주차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2명 / 재산피해 : 7,500만 원
				10.05	· 천안시 종이컵 제조공장(덕양상사) 화재 – 재산피해 : 4억 8,000만 원
				10.14	· 서산시 예천동 사거리 레미콘 전복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4명
				12.08	· 공주시 우성면 차량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1,570만 원
	2016	01.21	· 태안소방서 원북119안전센터 개소	01.03	·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 연쇄추돌 교통사고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4명
		01.25	· 보령소방서 주포119안전센터 개소 · 아산소방서 탕정119안전센터 개소 · 부여소방서 외산119안전센터 개소		
		03.16	· 공주소방서 청사 이전		
		06.08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4130호)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282호)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제1378호) **인력변동** : 2,239명→2,338명(99명 증) ※ 계급별 증원현황 : 정 1명, 령 3명, 경 10명, 위 14명, 장 10명, 교 34명, 사 27명 〈소방본부〉 : 인력 보강(15명) **「안전체험관」 설치** : 12명 증(령 1명, 경 1명, 위 4명, 장 2명, 교 2명, 사 2명)	01.13	· 홍성군 주택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5,000만 원
				03.28	· 천안시 신방동 타이어뱅크 남천안점 화재 – 재산피해 : 1억 9,536만 원
				04.01	· 아산시 양계장(SM농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억 7,0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소방특별사법경찰팀」 증원** : 2명(경 1명, 위 1명) **「소방항공대」 증원** : 1명(장 1명) – 조종사 〈소방서〉 소방서 신설(1개소 25명), 인력 보강(59명) **계룡소방서 설치** : 55명(정 1명,령 2명,경 8명, 위 5명,장 1명,교 5명,사 3명) – 증원인력 : 25명(정 1명,령 2명,경 8명,위 5명, 장 1명,교 5명,사 3명) – 이체인력 : 30명(경 1명, 위 1명, 장 6명, 교 9명, 사 13명) ※ 소방행정과 10명(증원), 현장대응단 45명(증원 15명, 이체 30명) – 논산소방서 30명 계룡소방서로 이체(논산소방서 30명 감) **화재조사, 구급대 신규 및 부족인력 배치** : 59명 – 화재조사 4명(위) : 동남, 서북, 아산, 당진 각 1명 배치 – 구급대 신규배치 22명(장 6명, 교 8명, 사 8명) : 당진 송산, 태안 남면, 청양 운곡 · 장평 센터별 6명씩 ※ 부족 인력 2명은 보령 · 공주 각 1명(장) 이체 – 구급대 부족 인력 11개소 33명 : 교 19명, 사 14명 ① 교 2명, 사 1명 배치 지역대 : 공주 정안 · 이인, 아산 음봉, 논산 양촌, 당진 순성, 금산 제원, 서천 판교, 예산 신양 ② 교 1명, 사 2명 배치 지역대 : 공주 우성, 보령 청라, 태안 소원	04.22 · 논산시 대교동 휴먼시아 아파트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54만 원 05.08 · 공주시 금학동 원룸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명 / 재산피해 : 898만 원 06.08 · 보령시 대천동 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296만 원 08.01 · 청양군 주택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명 / 재산피해 : 3,500만 원 08.03 · 청양군 정산면 애경화학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6억 100만 원 08.04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공장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271만 원 08.08 · 태안군 태안읍 컨테이너 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156만 원 08.15 ·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해비타트)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5,700만 원 08.15 · 서산시 목조주택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9,700만 원
	07.01	〈소방본부 조직개편〉 **소방행정과** : 인력 및 사무조정 – 조직업무 이관(기획예산팀→소방행정팀) – 기획예산팀 1명 증(예산업무 증가), 회계장비팀 1명 감 **화재대책과** : 팀명 변경, 인력조정 – 예방지도팀 3명, 교육홍보팀 3명 통합→예방교육팀 4명 – 소방특별사법경찰팀 1명 증, 의용소방팀 1명 증 · 계룡소방서 개서	09.11 · 아산시 음봉면 간이창고 화재 – 재산피해 : 4억 6,000만 원 09.25 · 공주시 의당면 성원농장 돈사화재 – 재산피해 : 9,320만 원 10.08 · 당진시 대호지면 돈사화재 – 재산피해 : 2억 1,900만 원
	12.30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4191호)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318호)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제1386호) **인력변동** : 2,338명→2,420명(82명 증) ※ 계급별 증원현황 : 위 4명, 장 13명, 교 30명, 사 35명 〈소방서〉 : 안전센터 신설(2개소 22명), 인력보강 60명	10.18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목장 돈사화재 – 재산피해 : 9,982만 원 10.25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노래클럽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2,500만 원 11.02 · 보령시 대천역사거리 시내버스 추돌사고 – 인명피해 : 사망 3명, 부상 11명 11.09 · 부여군 단독주택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3,4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서산 성연, 태안 근흥 안전센터 신설(22명)** ※ 계급별 증원현황 : 위 2명, 장 4명, 교 6명, 사 8명 **인력보강 60명** – 소방특별조사 인력보강 9개소 18명(각 장 1명, 교 1명 배치) (서북, 동남,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홍성) – 구급대 부족 인력 14개소 42명 배치 ① 교 2명, 사 1명 배치 지역대 : 동남 풍세 ② 교 1명, 사 2명 배치 지역대 : 동남 현장대응단 · 성남, 서북 쌍용 · 서부 · 두정, 보령 현장대응단, 아산 현장대응단, 서산 현장대응단 · 운산, 논산 상월, 당진 대호지, 홍성 서부, 태안 현장대응단	11.12	· 금산군 부리면 단독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726만 원
				11.29	· 계룡시 엄사면 계룡하나로마트 화재 – 재산피해 : 7억 5,427만 원
				12.09	· 아산시 모종동 온양3동 원룸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2명 / 재산피해 : 1억 5,394만 원
				12.14	· 서산시 석림동 주택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2017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4308호)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318호) · 인력변동 : 2,420명→2,708명 / 세무회계과 1명 증원 · 119광역기동단 항공대 6명 증원 · 종합방재센터 상황 요원 6명 증원 · 안전체험관팀 충청소방학교 이관 11명 / 1명 증원 · 천안동남소방서 풍세119안전센터(풍세면 일원) 15명 증원 · 천안서북소방서 불당119안전센터(불당동 일원) 15명 증원 · 천안서북소방서 직산119안전센터(직산면 일원) 15명 증원 · 아산소방서 장재119안전센터(장재면 일원) 15명 증원 · 계룡소방서 엄사119안전센터(엄사면 일원) 15명 증원 · 소방서 부족 인력 증원 : 199명	02.17	· 천안시 공장(SR테크노팩)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4억 9,000만 원
				03.14	· 서천군 종천면 포장재 제조공장 화재(재산피해 : 1억 8,467만 원)
				04.21	· 예산군 신암면 (주)비츠로셀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45억 117만 원
				07.09	· 부여군 식성면 아이스크림 공장(코니아일랜드) 화재 – 재산피해 : 1억 7,000만 원
				09.01	· 천안시 업성동 마린랜드 물류창고 화재 – 재산피해 : 4억 9,031만 원
				11.08	· 부여군 옥산면 돈사화재 – 재산피해 : 2억 1,000만 원
				12.11	· 천안시 서북구 다가구주택 화재(재산피해 : 9,600만 원)
		11.10	· 논산소방서 벌곡면 의용소방대 청사 준공		
	2018	01.01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4308호)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353호)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제1408호) 인력변동 : 2,420명→2,708명(288명 증) ※ 계급별 증원 현황 : 경 16명, 위 36명, 장 50명, 교 108명, 사 78명 〈소방본부〉 : 인력 보강(12명) 및 직제인계(안전체험관 11명)	01.02	· 아산시 ㈜동희 기숙사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2명 / 재산피해 : 2,000만 원
				01.09	· 예산군 신암면 공장(영승) 화재 – 재산피해 : 3억 5,000만 원
				01.10	· 예산군 오가면 가나안농장 화재 – 재산피해 : 1억 2,000만 원
				02.02	· 천안시 한마음복지회 화재 – 재산피해 : 4억 7,000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2019	01.01	· 아산소방서 장재119안전센터 개소	01.03	· 천안시 차암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 화재 – 재산피해 : 2,365만 원
		05.29	· 보령소방서 신청사 준공		
		07.01	· 인력변동 : 3006명→3,349명(343명 증)(령 4명, 경 31명, 위 27명, 장 52명, 교 110명, 사 119명)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제1453호)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4506호)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389호)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5명, 119광역기동단 기동대원 3명, 종합방재센터 상황실 3명 (소방서) : 화재대책과 신설(부여, 서천, 예산, 태안) (소방서) : 현장대응요원 278명, 지역대 30명, 화재조사 및 안전관리요원 20명, 지휘감독요원 4명	01.14	· 천안시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2명 / 재산피해 : 5억 원
				02.26	· 계룡시 신도안면 품안마을 아파트 화재 – 재산피해 : 2,766만 원
				03.06	· 공주시 접착제 제조공장(정의산업)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9억 9,402만 원
				03.19	· 홍성군 갈산면 청운브레이크 화재(재산피해 : 3억 6,700만 원)
				05.17	·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공장 옥외 탱크 누출 사고
				08.12	· 천안시 시멘트 원료 생산공장 유해물질 누출 사고
	2020	01.01	·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개소	02.29	· 아산시 신창제지공업 창고 화재 – 재산피해 : 1억 8,000만 원
		02.03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이송 119음압구급차 도입(배치)		
		02.03	· 논산소방서 초암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준공		
		06.20	·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 본격 사용화	03.04	· 서산시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4명 / 재산피해 : 46억 4,006만 원
		07.01	· 기구개편 : – 소방청렴조사과 신설, 청렴윤리팀 · 소방특별조사팀 · 구급상황관리팀 신설 – 감사위원회 내 소방안전감사팀 신설 – 소방서 계룡 · 금산 · 청양소방소 화재대책과 신설 · 기관신설 : 공주 정안안전센터 및 천북 · 선장 · 음암 · 벌곡 · 장곡지역대 신설 · 인력변동 : 3,349명→3,741명(392명 증)(정 1명, 령 7명, 경 18명, 위 32명, 장 59명, 교 126명, 사 149명)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제1460호)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4690호)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409호) (소방본부) : 19명(안전보건복지 1명, 청렴윤리 3명, 소방특별조사팀 3명, 항공대 2명, 상황실 7명, 소방안전감사팀 3명) (소방서) : 366명(진압대 191명, 구조대 49명, 지역대 신설 45명, 안전센터 신설 14명, 현장지휘팀 36명 등)	04.05	· 천안시 병천면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 재산피해 : 8,701만 원
				08.27	· 서천군 공장(한생) 화재 – 재산피해 : 9억 3,000만 원
				10.10	· 태안군 안면읍 회센터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2억 8,000만 원
				10.26	· 당진시 현대제철 컨베이어벨트 화재 – 재산피해 : 7,268만 원
				10.27	· 태안군 해변가 식당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억 4,000만 원
				11.28	· 예산군 신암면 저온창고 화재 – 재산피해 : 1억 6,765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08.24	· 임산부 및 감염방지 전문 119구급대 발대	12.19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K2호텔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952만 원
		10.09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공감센터' 개소식(4개 의료원)	12.21	· 당진시 석문면 삼봉우렁이 농장 냉동창고 화재 – 재산피해 : 2억 9,579만 원
		11.04	· 계룡소방서 청사 준공		
		11.25	· 충청소방학교, 지방 최초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	12.30	· 청양군 대치면 주택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명
		12.20	· 충남소방본부, 충청소방학교, 16개 소방서 직장협의회 설치		
	2021	01.	· 중증장애인 병원이송 119구급서비스 운영	02.02	· 당진시 목조주택 화재 – 재산피해 : 2억 4,263만 원
		01.28	· 독거노인 대상 '화목보일러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시행 · 의사소통 불편 도민 맞춤형 119서비스 운영 – 카카오톡 메신저 구급 상담 / 119수어통역 서비스 – 그림으로 보는 119응급환자 문진표	02.15	· 논산시 고양이 심폐소생술 구조
				03.01	· 논산시 쓰레기매립장 화재
				03.18	· 논산시 타코마테크놀로지 공장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8명(소방공무원 3명 포함)
		03.09	· 반려동물 응급처치 프로그램 운영		
		03.18	· 도내 첫 '라이프 세이버 인증제' 도입	03.23	· 태안군 신진도항 선박 화재 – 재산피해 : 49억 3,605만 원
		03.27	· (사)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와 '가치가유 충남119' 업무협약식		
		04.29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와 재난피해가구 지원 업무협약식	03.23	· 태안군 마도포구 앞 선박 화재 – 재산피해 : 9억 9,917만 원
		05.13	· 다문화 가족 지원 거점센터와 「다(多)가치 안전애(愛)」 업무협약식		
		06.17	· 충남 임산부 전용 119 구급차 출고식	03.23	천안시 해태제과 공장 화재 – 재산피해 : 38억 2,718만 원
		06.	· 소방호스 자동 전개 특수배낭 개발		
		06.28	· 완용펌프 장식문양 전국 최초 발견(17점)	03.28	· 당진시 현대제철 통근버스 추락사고 – 인명피해 : 사망 2명
		07.01	· 기구개편 : –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신설, 특수구조단 내 현장지원팀 신설 – 소방학교 안전체험관 체험지원팀 · 체험운영팀 신설 – 천안동남 · 천안서북 · 아산 · 서산 · 당진 예방안전과 신설 – 천안동남 · 천안서북 · 아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운영 – 16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신설 인력변동 : 3,741→4,099명(358명 증) (정 1명, 령 12명, 경 18명, 위 28명, 장 53명, 교 114명, 사 132명)	04.09	· 서산시 9중 추돌 교통사고
				04.21	· 논산시 연산면 대선건축자재(창고) 화재 – 재산피해 : 1억 4,306만 원
				06.13	· 공주시 신풍면 선학농장(양계장) 화재 – 재산피해 : 1억 1,297만 원

시대	연도	소방제도 및 활동 사항		주요 화재 및 재난 사례	
대한민국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제1491호)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4939호)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3456호) (소방본부) : 8명(특수구조단 5명, 상황실 3명) (소방서) : 350명(진압대 213명, 구조대 49명, 화재조사 49명, 소방특별조사 18명, 구급대 9명 등)	06.18	· 태안군 근흥면 동양수산 화재 – 재산피해 : 7억 2,203만 원
				07.04	· 부여군 충화면 충화슈퍼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6,535만 원
				07.24	· 부여군 옥산면 양계장 화재 – 재산피해 : 1억 8,202만 원
				07.31	· 천안시 서북구 공장(씨케이도어)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2명(소방공무원) / 재산피해 : 9,265만 원
		07.19	· 화재 · 구조 · 구급 분야별 '출동왕' 6인 선발	08.04	· 홍성군 금마면 금마가구마트 화재 – 재산피해 : 1억 1,970만 원
		07.26	· 갯벌 인명구조대 발대 및 갯벌구조전술 경연대회		
		07.28	· 계룡산 산악전문 구조대 및 펌프구조대 발대	08.11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5억 2,039만 원
		07.29	· 재난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육군 제1987부대와 업무협약식 · 충남도의회 '가치가유119' 기부금 약정서 전달식	08.21	· 아산시 신창면 SM건설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6,721만 원
		08.04	· 광역 소방드론 수색전술 경연대회 개최		
		08.11	· '라이프 세이버' 6명 선발 · 시상	08.27	· 천안시 동남구 ㈜천안팜 화재 – 재산피해 : 1억 8,405만 원
		08.19	· 미니레스트 소방전술훈련 도입(시범 운영)		
		08.26	· '119 신고 고마워유' 시행	08.31	· 홍성군 갈산면 빌라 화재 – 재산피해 : 8억 6,953만 원
		09.06	· 제1호 명예119구조견(백구) 임명식		
		09.09	· 고층화재진압용 소방드론시스템 시연회(충청소방학교)	10.17	· 태안군 원북면 캠핑장 텐트 화재 – 인명피해 : 부상 3명
		09.14	·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10.05	· 소방헬기 119진화대 발족(운영)	10.19	· 청양군 화성면 컨테이너 사무실 화재 – 인명피해 : 사망 4명 / 재산피해 : 619만 원
		10.06	· 소방장비 무상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도내 7개 대학 · 고교)		

부 록 2 충청남도 소방유물

관서	명칭	소방유물
충청소방학교	**직결식 철륜 완용펌프** (1930년대, 보령 주포) **Directly connected iron wheel buffer pump** (1930s; Jupo, Boryeong)	
	소방망루 경종 (1920년대, 대천소방조) **Fire alarm bell at a fire tower** (1920s; Daecheon Firefighting Group)	
서북	**2륜 소형 가솔린 소방즉통** (1930년대, 천안 입장) **Two-wheel small gasoline fire pump** (1930s; Ipjang, Cheonan)	

관서	명칭	소방유물
공주	**목륜 대형 완용펌프** (1920년대, 공주 이인) **Large wooden buffer pump** (1920s; Iin, Gongju)	
아산	**소형 수동식 물펌프** (1910년대, 아산 신창) **Small manual water pump** (1910s; Shinchang, Asan)	
서산	**소방장비운반용 수레** (1930년대, 서산 운산) **Cart for transporting fire equipment** (1930s; Woonsan, Seosan)	
서천	**소방호스 이동 수레** (1930년대, 서천 장항) **Cart for transporting fire hose** (1930s; Janghang, Seocheon)	

관서	명칭	소방유물
서천	**4륜 가솔린 소방즉통** (1930년대, 서천 화양) **Four-wheel gasoline fire pump** (1930s; Hwayang, Seocheon)	
예산	**대형 완용펌프** (1920년대, 예산 대흥) **Large buffer pump** (1920s; Daeheung, Yesan)	
	중형 완용펌프 (1920년대, 예산 대흥) **Mid-sized buffer pump** (1920s; Daeheung, Yesan)	
태안	**국산(협동) 완용펌프** (1950년대, 서산 고남) **Korean-made buffer pump** (1950s; Gonam, Seosan)	

관서	명칭	소방유물
태안	**소방차용 수동식 사이렌** (1940년대, 태안) **Manual siren for fire trucks** (1940s; Taean)	
	리어카소방차(복원품) (1950년대, 태안 원북) **Hand cart fire truck (restored)** (1950s; Wonbuk, Taean)	
보령	**소방망루용 모터사이렌** (1925년, 보령 청소) **Motor siren for fire tower** (1925; Cheongso, Boryeong)	

부 록 3 충남소방본부 선정 10대 주요사

연번	사 건 내 용	비고 (연대)
1	충남소방 최초의 근대 소방대(논산 강경소방조) 창설	1904년
2	천안역 열차 추돌사고	1969년
3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 4회 우승	1984~89년
4	충남소방 道 단위 전국 최초 '119통합상황실' 운영	1990년
5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대형화재	1993년
6	충남 소방항공대 창설	2000년
7	당진 서해대교 대형 교통사고	2006년
8	충남소방, 내포신도시 시대 개막	2013년
9	세계 최초, 명예구조견(백구) 임명	2021년
10	적극행정 대통령상 수상(갯보드 구조시스템)	2021년

01 충남소방 최초의 근대 소방대(논산 강경소방조) 창설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건물(현재 강경역사관)

충청지역의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중 소방대가 가장 먼저 창설된 지역은 충남 논산시 강경읍이다. 강경소방조의 창설은 지금으로부터 약 117년 전인 1904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충청지역에서는 최초였고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른 편에 속한다. 인근지역의 다른 도시들보다 다소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경지역에 소방대가 가장 먼저 설치된 이유는 이 지역이 조선 후기 전국의 2대 포구, 3대 시장으로 꼽히며 번창하던 곳으로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서 시가지가 크게 발달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개항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일본 거류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 자치적인 차원의 소방대를 만들기 시작했었던 것이다. 소방대의 이름은 조합을 통해 결성했다는 의미에서 지역명칭에 소방조(消防組)를 결합하여 지었으며, 특이한 점은 소방대원들이 다국적으로 편성되어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청)으로 구성 되어있다는 점이다. 강경역사관(등록문화재 제324호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건물에 소재)에 전시되어있는 강경역사 연표에 따르면 1897년 일본인 상인 20여 명이 이주해 상주했고 1899년에는 강경일본인회가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아마도 이들이 강경소방조의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湖南
春空に五彩の水柱
公會堂
役員
全北砂防
幼稚園か
の私城
1929년 4월 강경소방조 창설 25주년 춘계 소방훈련 대연습
(동아일보 기사 발췌)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강경소방조는 완용소방펌프와 가솔린소방펌프 같은 근대식 장비와 모터사이렌이 장착된 경종대까지 있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대규모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특히 1929년 4월에는 창설 25주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시범훈련을 선보였는데 소방펌프로 오색의 물기둥을 뿜어 올려 장관을 연출했다고도 한다.

02 천안역 열차 추돌사고

1969년 1월 31일 오전 11시 55분경 경부선 천안역 남쪽 500m 지점에서 정차 중인 남원발 서울행 102호 완행열차를 부산발 서울행 10호 청룡호가 추돌하여 42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폭설이 내렸던 천안역 남쪽 500m 지점에서 102호 열차는 진입대기 신호로 정차 중이었는데, 3분 뒤의 열차인 부산발 서울행 제10청룡호 열차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시속 80km/h로 계속 달리고 있었다. 뒤늦게 열차를 발견하고 긴급제동을 했지만 102호 열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없었다.



천안역 열차 추돌사고

이 추돌사고로 102호 열차의 2등 객차는 그 앞의 3등 객차 위를 덮쳐버렸고, 2등 객차는 3등 객차를 3분의 2 가량 뚫고 들어가면서 그 위에 얹혀 버렸다.

"쾅 하고 격한 충돌의 소리가 승객들의 귀를 메우는 순간 3등 객차 내는 피가 뿜어올라 철길을 붉게 물들였고 이어 신음소리와 아우성 소리가 차 안팎을 메웠다."라며 처참한 현장상황을 보도에서 전해주고 있었고. 3등 열차에는 정원의 2배나 되는 140여 명의 승객이 통로와 승강구까지 가득 타고 있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천안소방서 개서(1970년) 이전 시점으로 현장에 즉시 출동할 구조인력도 없는 실정이었지만, 천안의용소방대가 독자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자들을 구출하고 사고를 빠르게 수습해 나갔다. 그 이후 철도청에서는 천안의용소방대의 공로를 인정하며 철도청장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제102호 열차의 2등 객차가 3등 객차를 덮친 모습

03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 4회 우승(충남 의용소방대)

1983년에 처음 시작된 소방왕 선발대회(현.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소방기술경연대회(1989년 이후)라는 명칭으로 개최되고 있는 소방왕 선발대회는 2021년까지 총 34회를 개최할 만큼 역사와 전통이 깊은데, 충청남도는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이 남달랐다. 1980년대에는 4차례나 우승(1984년, 1985년, 1987년, 1989년)을 거머쥐었고, 이는 1986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었다(1988년은 88올림픽으로 소방왕 선발대회 미개최).



소방왕 선발대회 충남 예선대회(1985년)

1983년 제1회 소방왕 선발대회는 서울소방훈련장(장안동)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 주최로 시행되었으나 전국의 소방공무원 195명만(시 · 도별 15명) 참가하였기 때문에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들은 1984년에 개최된 제2회 소방왕 선발대회가 첫 출전이었음에도 우승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 충남소방은 과거 선배 소방가족들의 영광을 잊지 않고 그 명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의용소방대원들은 개인전(소방호스 끌기), 단체전(수관연장 등)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제7회 소방왕 선발대회 대회(198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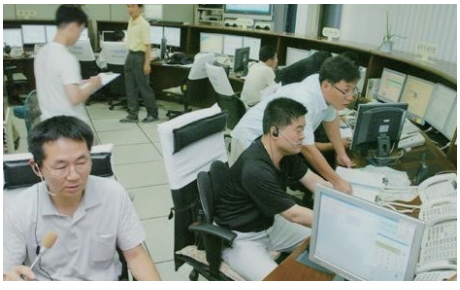
04 충남소방 道 단위 전국 최초 '119통합상황실' 운영


소방파출소 119수보 전화기(1998년 이전)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통신시설이 그리 발전하지 못했던 1980년에 이르기까지 충남 도내 주요 도시의 화재감시와 전파를 위한 통신 및 관제수단은 전화기와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에 설치된 화재감시용 망루 뿐 이었다.

이후 1998년까지 충남도내의 재난 신고체계는 22개의 전화국 단위별로 분산 설치되어 당시 소방파출소(의용소방대)에서는 이렇다 할 제반 정보도 없이 전화기에만 의존하여 어느 동네, 누구네 집 등을 동네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출동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후 보다 신속한 화재신고를 위해서 당시 체신부에서는 화재신고는 119번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등 나름 노력했지만, 점점 대형화 되는 급박한 재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때문에 화재신고의 접수부터 화재의 제반정보를 소방대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 해 줄 수 있는 전문화된 상황운영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충남소방에서는 1998년 이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충남도내의 6개 소방서(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에 각기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던 신고접수 통신회선을 1개의 통신회선으로 통합하여 한 곳에서 119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다시 유선전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소방파출소(현,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에 출동 지령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119종합 상황실의 모체가 되었다.


충남소방본부가 道 단위 중 전국 최초로 119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모습(2000년)

이후 광역소방체제가 정착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 발전하며 道 단위 전국 최초로 인원 29명(소방27, 일반2), 접수대 6식을 갖춘 체계화된 119종합상황실을 통합 설치 운영하고 있다.

05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대형화재

1993년 4월 19일 새벽 2시 25분경, 충남 논산군 논산읍 서울신경정신과의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 불은 본관 옆 조립식 병동에서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인해 발생하였고, 병동에 있었던 45명 가운데 3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피해를 남겼다.



화재로 사망자 34명이 발생한 위치 도면

이 날 화재진화를 위해 150여 명 소방관들과 7대의 소방차가 긴급하게 현장 출동하여 진화에 나섰으나 건물이 경량철제로 되어있는데다가 내부에는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 재질의 인테리어 내장재가 부착되어 있어 화재진화에 난항을 겪었다. 가까스로 30여 분만에 화재를 진화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환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창문이 하나도 없이 건물을 지은 것이 화근이 되어 대규모 인명피해는 피할 수가 없었다. 화재가 진화된 후 살펴 본 병실 내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철제 구조물들은 화재당시의 거센 불길로 인해 모두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으며 침상, 침구, 목재 침상 등의 대부분의 집기가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망자들은 간호사실 옆 격리실에서 2명, 홀에서 2명, 홀 맞은편 여자입원실에서 여자환자 11명 남자입원실 두 군데에서 17명, 그리고 공동화장실에서 2명이 각각 발견됐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망환자 대부분이 병원 측에서 난동과 탈출을 막기 위해 침상에 손과 발을 링거줄로 묶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 시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질식사 했다는 점 이었다. 화재원인은 화재감식결과 여자환자가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결론 났으며, 의원 측에서 이날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수면제를 투여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화재 당시 깊이 든 상태에서 대피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참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현장 내부

06 충남 소방항공대 창설

1970년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며 고층 건물이 크게 늘었지만 소방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대형 산불 등 재난현장에 소방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점차 대두되면서 소방헬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당시 막대한 구입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따랐다.

충남소방본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의 도의원과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소방헬기 도입 당위성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하여 왔으며, 그러던 1996년에 이러한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충남소방항공대의 창설이다.



충남소방항공대 첫 소방헬기 모습

충남소방항공대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진화와 조난객의 구조·구급 등을 목표로 1996년 3월 22일에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12년 27일 초도기(W-3A Sokol/폴란드/가격:39억원)를 도입하여 예산군 삽교읍 소재 ㈜한벨헬리콥터 비행장에서 2000년 1월 20일에 발대하였다. 발대당시 항공대 운영 인력은 조종사 및 정비사 각각 2명과 구조요원 4명 등 총 8명을 배치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군 경력자 출신이었다.



현재 충남소방헬기와 격납고 모습

이렇듯 값진 소방항공대가 창설되어 도내 서해 해상을 비롯해 산악지역과 광범위한 재난 현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 오던 중 충남소방항공대는 2003년 12월 15일에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에 있는 육군 연기비행장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된다. 비록 처음에는 육군 비행장을 임차하여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항·정비관리와 항공안전 및 산악항공구조훈련 등의 운영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현재는 태안군 남면에 위치한 한서대학교 비행장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소방항공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었다.

07 당진 서해대교 대형 교통사고

2006년 10월 3일 오전 7시 42분경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상에서 전대미문의 29중 차량추돌 사고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서해대교 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있었고 서해대교 입구 전광판 상에는'안개조심'이라는 경고 문구가 떠 있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짙은 안개로 인해 교량 위에서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25톤 화물 트럭 한 대가 전광판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달리던 중 서행하며 앞서 가고 있던 1톤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고로 인해 화물트럭 두 대가 뒤엉키며 1,2,3차로 및 갓길까지 모두 막게 되었고, 모든 차로가 막힌 도로상에서 잠시 뒤 2차 3차 4차 추가 추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뒤쪽에서 급제동을 하던 화물차 한 대의 엔진이 가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차량 밖으로 쏟아져 나와 버렸고, 공교롭게도 그 과열된 엔진은 사고여파로 정차하고 있었던 앞쪽의 다른 화물트럭 엔진룸 아래쪽을 파고들며 순식간에 폭발하게 되었다. 그 순간 거대한 불기둥이 8m까지 솟아올랐고 뒤엉켜 있던 차량들은 순식간에 화염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화재로 인해 불타버린 트럭의 모습

폭발 이후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후미차량들의 추가추돌이 계속해서 이뤄졌고 결국 총 29중 추돌이라는 대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첫 추돌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서해대교 상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해대교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려오는 차량들로 인하여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지기 시작했다. 당진소방서와 인근에 있는 경기도 평택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지만 차량정체 때문에 도로가 막혀 제때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57명(중상 16명, 경상 41명)이 다쳤으며, 보험사 추산 약 4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는 현재까지 서해대교 준공 이후 발생했던 모든 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로 기록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보다 사고 후 조치미흡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훨씬 많이 나온 안타까운 사고이다.

08 충남소방, 내포신도시 시대 개막


충남소방본부 전경(대전 소재, 구. 충남도청)

1991년 5월 3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해 12월 14일부로 소방업무가 기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광역 소방행정체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도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로 구성된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1992년 4월 10일 최초로 발족되었다. 당시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소재의 옛 충남도청 청사 내에 신설되었고 2과 6팀 체제로 정원은 총 26명 이었으며, 소방행정과에는 소방행정계, 장비계, 감찰계가 있었고, 방호과에는 방호계, 예방계, 교육계를 두었다. 충남소방본부 산하에는 5개의 소방서(천안、공주、대천、온양、서산)와 18개의 소방파출소(現.119안전센터)가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전경(내포 소재, 현. 충남도청)

이후 2012년 12월에 충남도청이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에 소재한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서 충남소방본부도 발족 20년 만에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당시 소방본부는 2과 1센터 11담당 체제로 정원은 126명이었으며, 본관 7층에 소방행정과(소방행정담당, 예산장비담당, 감찰지도담당)와 방호구조과(방호기획담당, 예방담당, 구조구급담당, 화재조사담당)가 설치되었고, 6층에는 종합방재센터(상황1、2、3팀, 소방정보통신담당)가 설치되어 2013년 1월 1일 시무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내포신도시에서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2년 충남소방본부가 처음 발족한 이래 2012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충남소방본부의 산하에 8개의 소방서(천안서북、논산、당진、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와 44개의 119안전센터가 추가로 설치돼 이전 당시 산하에는 1개 소방학교, 13개 소방서, 13개 구조구급센터, 3개 구조대, 62개 119안전센터가 있었다.

09 세계 최초, 명예구조견(백구) 임명

2021년 8월 25일 새벽,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로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93세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으로 119구조대와 경찰 등이 대거 투입되어 할머니의 행방을 찾아 나섰지만 상황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백구를 쓰다듬고 있는 양승조 도지사

실종 시간 경과 40시간, 열화상 탐지용 드론 화면에 ‘백구’의 체온이 감지되었다. 그곳은 실종된 장소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이었고 ‘백구’는 쓰러져 있는 할머니 가슴을 감싸고 기대 있었다. 발견 당시 할머니는 체온이 크게 떨어져 생체신호가 탐지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저체온증을 보이고 있었기에 ‘백구’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생명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백구’는 3년 전 길에 버려진 유기견으로 큰 개에게 물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할머니와 가족들의 정성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1호 명예119구조견(백구)

사랑과 정성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가족에게 은혜를 갚은 ‘백구’를 충남소방본부에서는 전국 최초의 명예 구조견(소방교)으로 임명하였고, 임명식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백구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모두를 감동시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미국의 CNN에도 보도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시금 감동시켰고, ‘백구’는 세계 최초의 명예119구조견이라는 타이틀을 함께 얻을 수 있었다.

10 적극행정 대통령상 수상(갯보드 구조시스템)

충청남도의 갯벌은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에 고루 분포되어 전국 갯벌 면적의 약 13.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루질 등 갯벌에서 하는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갯벌 고립사고 등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에는 갯벌 이동용 전문 장비가 없어 갯벌에서 사고 발생 시 도보로 접근해야 하는 등 인명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충남소방본부에서는 꼬막 등을 채취할 때 어민들이 사용하던 널배를 기반으로 수난구조 기능(FRP 소재로 부력 확보)을 추가 보완하여 일명 '갯보드(갯벌 인명구조용 보드)'를 개발하였다.



기존 갯벌 구조방법(도보 이동)



갯보드 활용 4인 견인 시스템

갯벌 사고가 주로 여름철(6~9월)에 집중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2021년 4월에 개발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6월 갯벌 인근 6개 소방서에 갯보드를 배치 완료하였다. 이후 갯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남소방본부에서는 '갯벌 인명구조 전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최고의 성적을 거둔 태안소방서의 구조시스템(갯보드 활용 4인 견인 시스템)을 전 소방관서에 공유하였다.

아울러 갯보드를 배치한 이후, 갯벌 고립사고에 총 63건 대응하였고 사망자 0명이라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도민의 안전을 향상했다는 측면뿐 아니라, 갯벌 사고에 대응하는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갯보드의 가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수성에 기인하여 충남소방본부는 정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갯보드를 주제로 참가하였고, 전국 1위(대통령상 수상, 1억원)의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

부 록 4 한발 앞선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의 모습

모든 도민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어렵고 힘든 곳을 먼저 살핌으로써
진정한 안전복지가 실현되도록
충남소방이 앞장서고 있다.




119
Fire & Rescue Service
Chungnam
구급대와 함께!
차 출고식

이웃의 아픔은 나누고, 즐거움은 함께 하고



▲가치가유 충남119 업무협약식

'가치가유 충남119' 도민과 함께 사랑 나눔

'가치가유 충남119'는 충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도민과 함께 사랑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가치가유'는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같이가요' 또는 '함께해요'를 친근한 충남의 사투리로 표현한 말이다.

2021년 2월부터 시작한 '가치가유 충남119'는 십시일반의 이웃사랑 정신으로 충남 소방가족이 하루에 119원씩을 모은 기금으로 시작했다. 화재 등 재난과 불의의 사고 그리고 큰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민이 새 희망을 갖고 일어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다.

기금관리는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가 주관하고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 대한재난안전구호봉사회 등의 복지와 안전관련 단체도 동참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진, 도의회 의원, 지역소재 기업 등의 참여도 늘고 있다. 이처럼 참여자가 늘면서 당초 1년 목표이던 기금 1억원 조성이 6개월 만에 달성되었다. 지원도 6개월 동안 총 38가구에 7100만원을 지원했고, 해비타트와 공동으로 119행복하우스 제1호를 준공해 입주하는 경사도 있었다. 기금 기부는 일반인도 가능하며 충남소방본부 홈페이지(https://www.cn119.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가치가유 충남119' 지역기업의 성금 기탁

이웃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며 작은 정성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자는 '가치가유 충남119'의 정신은 살기 좋은 충남의 또 다른 모습으로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다.



화재로부터 우리 마을 지키는 자치소방대

소방서 원거리 지역에 호스릴 소화전 설치



호스릴 소화전은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거나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 그리고 소방대가 없는 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만든 소방시설이다. 충남소방본부는 농어촌 마을, 유인 도서, 전통시장, 문화재 등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에 호스릴 소화전을 도입했으며, 2021년 현재 997개소에 설치했고 2022년까지 1,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호스릴 소화전은 기존 소화전에 45m 릴호스 2개를 연결하여 최대 90m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가볍고 조작이 간편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부여소방서 호스릴소화전 사용법 교육

호스릴 소화전이 설치된 지역에는 '마을자치소방단'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과 작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진압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서산 부석사 나대지 화재(17.03.13)와 논산 가야곡면 주택 화재(18.08.11), 홍성 홍동면 창고 화재(20.07.18), 서산 고파도 공사장 화재(21.04.21)에서 마을주민이 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도 했다.



▲천안동남소방서 풍세면 마을자치소방단 발대식

재난현장출동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육해공 어디서나 빠르고 똑똑한 화재출동시스템



▲구급차 모세의 기적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이 화재진압 작전의 성패를 가르며,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든타임(Golden-Time)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현재 충남소방은 화재 신고접수부터 출동지령, 차고탈출, 현장까지 7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인명피해나 화재확대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충남소방은 지속적으로 소방대를 신설하는 한편,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개선, 특수기동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교차로에서 소방차가 신호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소방차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무정차통과시스템을 보령시내 교차로에 설치해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천안과 아산 등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지역에서 현장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기동대를 시범운영하고 소방헬기로 현장에 대원을 투입하는 공중진화대를 2022년에 발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충남소방은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2018년 68.2%, 2019년 67.6%, 2020년 71.1%로 3년 연속 전국 도 단위에서 1위를 달성했다.



▲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표시

우리 동네에서도 안전체험교육 받아요

소방서 안전체험장 확충 및 전국 최초로 충남형 체험차량 개발


▲안전체험관 트릭아트

충남소방본부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상황에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의 연령과 수준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천안에 개관한 최첨단 소방안전체험관은 2020년까지 52만 명이 다녀갔다. 또한, 주민의 안전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령, 아산, 청양, 계룡 4개 소방서에 안전체험장을 설치했으며, 2023년까지 전 소방서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소방서 안전체험장에서는 화재진압체험, 자연재난체험, 피난기구체험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어 재난상황



▲어린이 이동체험차량 안전교육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재난상황을 직접 경험한 현직 소방관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심폐소생술 교육, 소방시설 사용법, 위기대처 방법 등 다양한 안전지식도 배울 수 있다. 안전체험장은 무료이며 체험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소방서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최근에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이동체험차량 3대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119신고요령, 화재대피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충남형 이동체험차량 소통이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형 안전체험차량 소통이(전국 최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전국 최초 임산부 전용 119구급차 운영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충남!' 그 최전방에는 충남소방이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 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2018년 12월부터 도내 16개 전 소방서에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배치하여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영아 건강관리까지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 구급서비스 이용자에게 출산용품 지원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산부, 위급한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구급차 내에서 응급분만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신부가 언제나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대별로 1명 이상의 여성 구급대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외국인 · 다문화 가정 임산부를 위해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동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687건, 2020년 6,049건 등 총 6,736건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43명의 새 생명이 구급차 안에서 태어나는 경사가 있었다. 또한 2020년에 임산부 전용 대형 고급 구급차 3대를 배치하였으며, 2021년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하는 동시에 12대를 특별 구급차로 리모델링하여 서비스 품질도 크게 높였다.


▲119구급차 임산부 이송장면

하늘을 지배하는 최강 충남소방 항공대

붉은 헬기의 프로펠러가 내는 생명의 소리



▲산악구조 응급처치 장면

차도 사람도 가기 어려운 곳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붉은 색의 소방헬기, 그들이 가는 곳에는 심장소리만큼 소중한 생명의 소리가 있다. 산악사고나 수난사고처럼 소방차로는 갈 수 없거나 오래 걸리는 곳으로 날아가서 구조대원이 내려와 신속하게 부상자를 구조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화재진화를 위해 쉼 없이 저수지와 현장을 오가며 물을 뿌린다.

상황실에서 출동명령이 떨어지면 소방헬기는 엄격한 규정에 따른 비행협조와 헬기시동 및 관제절차를 수행하고 10분 이내에 이륙한다. 충남 관내 어느 곳이든 최대 35분이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산불을 진압하고 중중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며, 기내에서는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진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의 역할도 수행한다.

충남 소방항공대 기장 김기일 소방위는 어릴 적부터 꿈꿔온 조종사의 꿈을 소방에 입문하여 펼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연간 80% 이상의 높은 가동률과 200여 회 이상의 출동에는 각고의 노력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방항공대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1년에 5년 무사고 비행과 항공안전점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2024년에는 청양군의 소방복합단지에 전용 청사와 격납고가 완공될 예정이며, 중형헬기 1대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중이다.



▲충남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항공대

전국 최고의 소방드론팀

드론의 활동영역 한계에 도전장을 던지다


▲충남소방본부 소방드론 수색전술 경연대회


▲충청소방학교 소방드론 전문가 양성교육

2020년 11월 9일 오전 11시경, 공주시 반죽동의 한 중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학교 급식실 건물에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당시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 중인 상황으로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당시 현장지휘팀장은 119구조대에서 운용 중인 소방드론을 즉시 투입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피난모습과 연소 확대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송해서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을 도왔다. 또한, 화재가 진화된 이후에는 현장대원의 접근이 어려운 외부 환기구 등에 잔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또한, 2020년 12월 7일 유기견 구조에 나선 공주소방서 119구조대는 드론의 액티브 트랙(Active Track) 기능을 활용하여 유기견을 직접 쫓아가며, 신속히 위치를 전송하였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유기견을 빠른 시간 안에 포획하였다.

2020년 10월 충청소방학교가 지방소방학교로는 최초로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화재진압드론 개발 및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대형드론과 군집드론 전술 연구도 착수해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2026년에는 드론119구조대 창설도 추진 중에다.

한국 최고를 넘어 세계 소방이 깜짝 놀랄만한 드론 혁명이 충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충청소방학교 소방드론교육팀의 수색지원

전화로 연결된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

한 통의 119전화가 다시 뛰게 만든 심장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예전에는 119상황실의 주 업무가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지령을 하는 일에만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팀은 구급차에게 출동지령을 하는 것은 물론, 영상 또는 음성으로 응급처치방법을 가르쳐 준다.

또한, 질병 상담, 복약 지도, 당직 병 · 의원, 약국 안내, 치료 가능한 이송병원 안내 등 비응급 환자들에 대한 상담업무도 맡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충남 119종합상황실에 들어온 심정지 환자 신고 건수는 3,500여 건이었다. 그중 37%인 1,300여 명이 구급 상담요원의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161명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구급 상담요원은 1분 1초가 중요한 심정지 상황에서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9월 119로 아버지가 쓰러진 후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들의 다급한 전화가 119로 걸려왔다. 구급 상담요원은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즉시 심정지 상황임을 알아차린 후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안내했다. 신고자는 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빠르고 강하게 가슴압박을 하였고, 심폐소생술을 5분쯤 시행했을 때 심정지 환자는 '푸~우~' 하는 소리와 함께 소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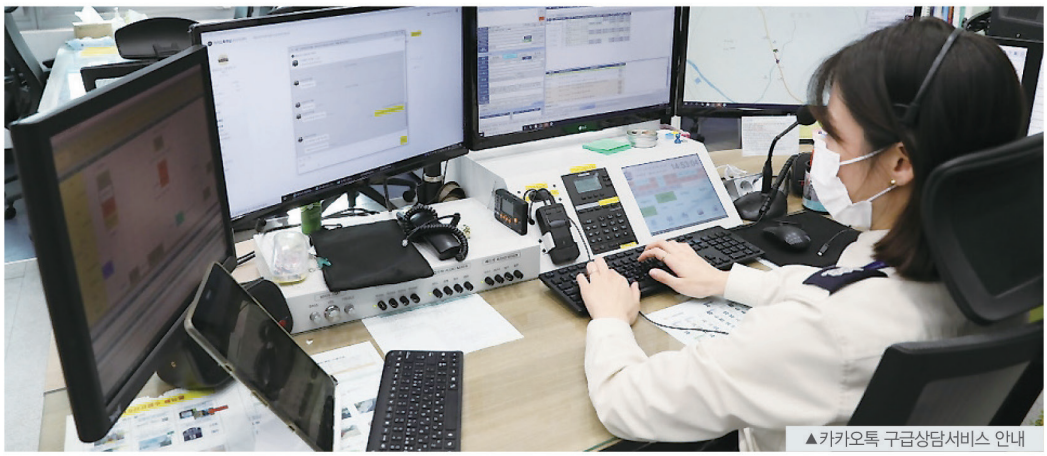
구급 상담요원은 환자를 직접 마주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기의 음성과 영상을 통해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단 1초의 골든타임도 허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구급 상담요원의 뜨거운 열정은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충남소방본부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

119와 친구 맺어요

전국 최초, 카카오톡(Kakao Talk)으로 구급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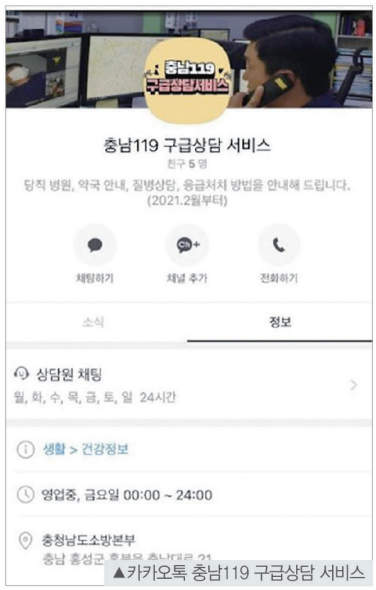
▲카카오톡 구급상담서비스 안내

누구나 한 번쯤은 말로만 듣는 것보다 문자, 그래픽 또는 영상으로 응급처치 자료를 받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충남소방은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정식 소방서비스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카카오톡 119구급상담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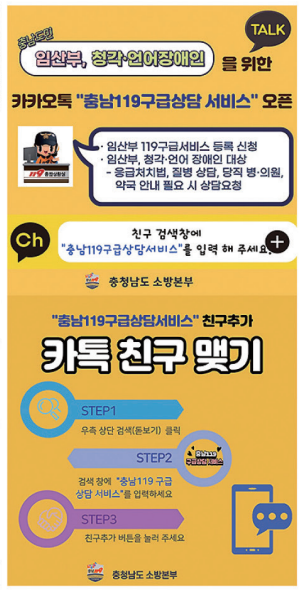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카오톡(Kakao Talk) 앱 친구검색에서 '충남119 구급상담 서비스'를 검색한 뒤 채널을 추가로 등록하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등록 안내, 청각 · 언어 장애인을 위한 전염성 질병정보 메시지 전송 등이 있으며, 발열, 화상, 출혈 등 11개로 표준화된 응급처치법도 안내해 주고 있다. 또한, 추가된 채널에 응급처치, 질병상담, 당직 병 · 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물으면, 24시간 연중무휴로 상담요원이 즉시 답변해 주고 있다.

카카오톡 119구급상담 서비스는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로 적극 행정서비스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앞으로도 충남소방은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소방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만들고,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충남119 구급상담 서비스



119가 손발이 되어 드릴께요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병원이송 서비스 시행



▲서천소방서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 출동 현장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중증장애인 이송

영철이는 10살 된 남자 어린이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체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뇌병변 진단을 받았다. 엄마 아빠와도 눈빛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음식은 보조 호흡기구를 차고 비위관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다.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부모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운다. 의자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짐칸에 이불을 깔고 갈 수 밖에 없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병원 길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가래가 차서 호흡이 막히면 차를 세우고 곧바로 흡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는 영철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철이 엄마 아빠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충남소방은 영철이 가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짐칸에 누워서 힘들게 병원을 오가야만 하는 중증장애인을 구급차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싶었고, 이송 중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는 구급대원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병원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의 요지는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보호자가 119에 미리 예약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진료를 받은 후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해 주는 것이다.

영철이가 기적처럼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119구급대원들은 사랑을 싣고 달린다.


▲조선호 충남소방본부장 중증장애인 가정 방문



▲계룡소방서와 장애인 협회 업무협약

품질 높은 서비스, 품격 있는 구급대원

구급서비스 품질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획득



119구급서비스는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핵심이다. 소방서비스 분야에서 단연 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물론이고,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등 구급서비스의 영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구급서비스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양적인 것보다는 품질이 더욱 중요하다.

소방청은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매년 전국 시도의 119구급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있으며, 충남소방본부가 도 단위 10개 소방본부 중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119구급서비스 품질평가는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 심정지환자 전문기도 유지술 시행률, 중증외상환자 현장처치시간 등 구급현장에서 이루어지는 15개의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 품질평가 중 대표지표인 심정지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ROSC)에서 심정지환자 1,429명 중 161명을 소생(11.3%)시키는 등 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구급대와 원거리 지역이 많고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거둔 성적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충남소방본부 송희경 구급팀장은 "평가를 떠나서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제도개선은 물론, 구급대원 개개인이 꾸준한 자질향상에 노력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충남소방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도시보다 더 나은 고품질, 고품격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소방헬기에 의한 도서 지역 응급환자 이송

충남이 세계 소방 최초를 해내다

'특수소방호스배낭' 개발해 소방차 진입불가 한계 극복


▲가파른 산악지형에서 소방호스 전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소방호스 배낭 방수 시연



▲부여군 장암면 산불진압(21.08.18)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까지 접근해 호스를 펼쳐서 방수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산악지역, 좁은 골목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 고지대 주택가, 전통 재래시장의 골목과 같이 소방차 통행 불가지역은 소방이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동안 골목길 소방차, 호스 이동카트, 오토바이 소방대 등을 만들어 활용하려 했지만 대부분 효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중단되었다. 충남 소방은 이런 한계에 도전해 성공했다. 100미터 길이의 소방호스가 적재된 배낭을 메고 걸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호스가 펼쳐진다. 검증 실험결과에 따르면 기존 방식과 비교해 호스전개시간이 최대 20분의 1까지도 줄어든다. 게다가 소방대원의 체력소모가 적고 사용방법이 간단해서 대원의 안전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2021년 3월부터 개발에 착수한 충남소방본부는 6월에 시제품을 만들었고 언론은 대대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국내는 물론이고 방송을 본 외국에서 구입여부를 묻는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2022년부터 양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특허등록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2021년 10월부터는 소방본부 기동대와 항공대 그리고 도내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1차 보급해 활용할 예정이다. 작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충남소방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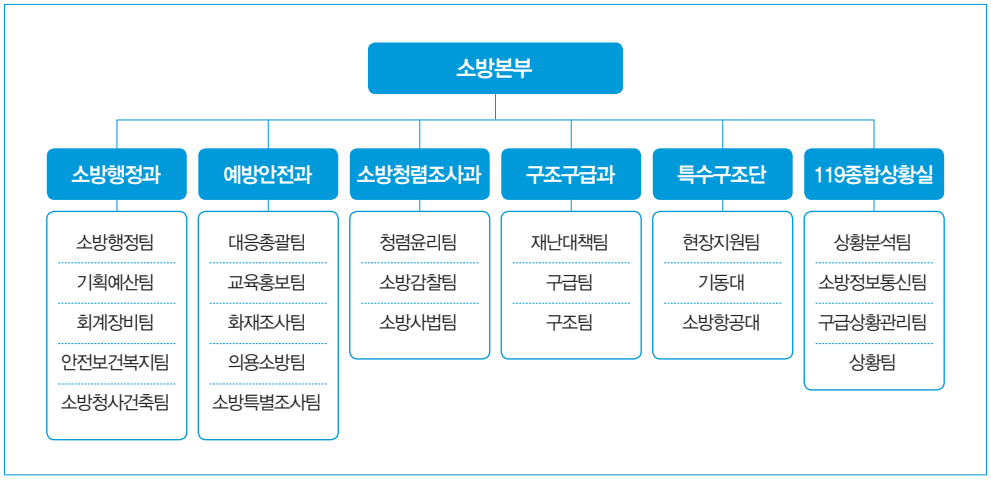



▲소방호스 100m(50m×2본)

부 록 5 소방관서 설치 현황

1. 소방본부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소방본부는 충남 15개 시·군을 관할하고, 천안동남, 천안서북,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준공일자
2012.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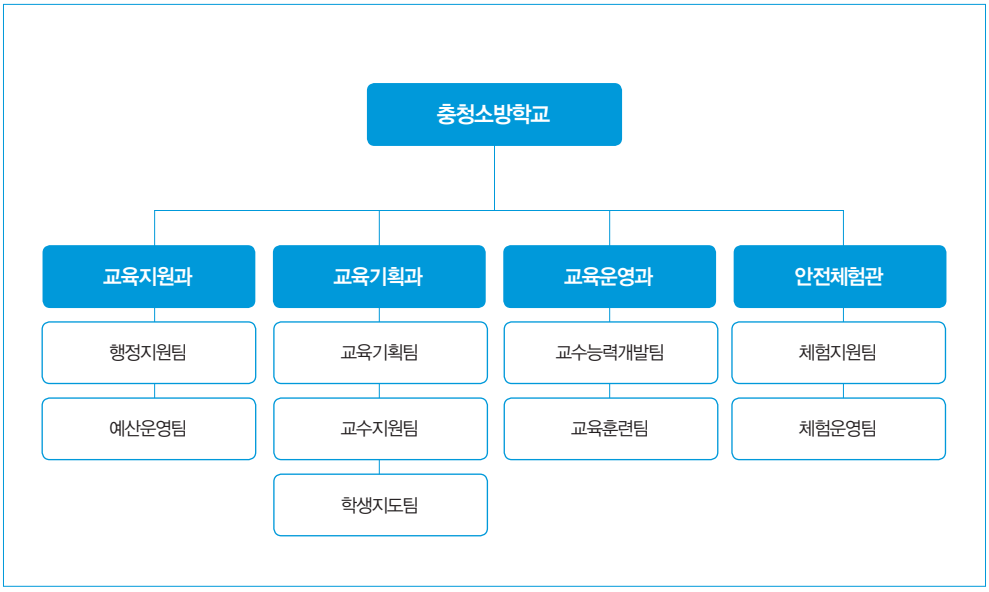
부지면적
231,000㎡

청사면적
103,000㎡

관할지역
충남 15개 시·군

2. 충청소방학교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충청소방학교 충남, 대전, 세종, 충북 4개 시·도를 관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준공일자
1993.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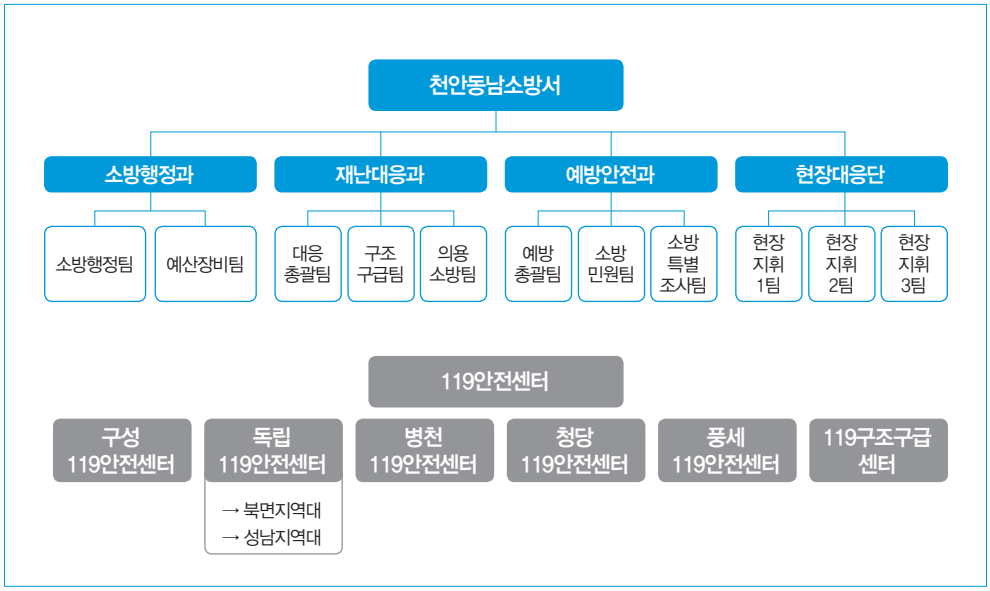
부지면적
15,900㎡

청사면적
3,680㎡

관할지역
충남, 대전, 세종, 충북(4개 시도)

3. 천안동남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천안동남소방서는 천안 동남구 지역을 관할하고, 구성 · 독립 · 병천 · 청당 · 풍세, 구조구급 센터 6개와 북면 · 성남지역대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천안동남소방서(구성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위 치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80

준공일자
1993.06.18.

부지면적
4,316.00㎡

청사면적
2,846.89㎡

관할지역
신안동, 중앙동, 문성동, 원성동, 일봉동, 청룡동

❷ 독립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59
준공일자
2016.11.21.
부지면적
397.38㎡
청사면적
680.16㎡
관할지역
목천읍, 성남면, 북면

❸ 병천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동남구 병천리 112-1
준공일자
2006.12.19.
부지면적
528㎡
청사면적
828.28㎡
관할지역
병천면, 수신면, 동면

❹ 청당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477
준공일자
2018.04.10.
부지면적
1,654㎡
청사면적
643㎡
관할지역
청룡동, 신방동

❺ 풍세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91
준공일자
2018.04.16.
부지면적
992㎡
청사면적
387.75㎡
관할지역
풍세면, 광덕면 일원

❻ 북면119지역대



위 치
천안시 동남구 북면 위례성로 724
준공일자
2019.08.19.
부지면적
1,120㎡
청사면적
214.8㎡
관할지역
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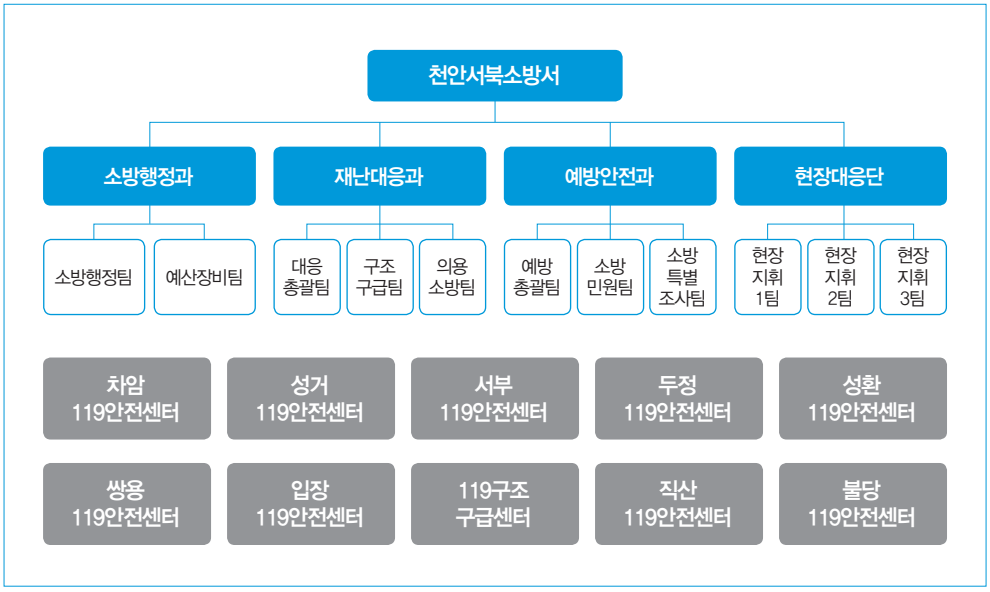
❼ 성남119지역대



위 치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444-1
준공일자
2015.11.15.
부지면적
500㎡
청사면적
415.98㎡
관할지역
성남면

4. 천안서북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천안서북소방서는 천안 서북구 지역을 관할하고, 차암, 성거, 서부, 두정, 성환, 쌍용, 입장, 직산, 불당, 구조구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천안서북소방서(차암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사단 2길 32

준공일자
2011.08.01.

부지면적
6,042.7㎡

청사면적
4,098.29㎡

관할지역
신당동, 부대동, 업성동, 차암동, 성성동

❷ 성거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1

준공일자
1998.04.30.

부지면적
493㎡

청사면적
584.40㎡

관할지역
성거읍

❸ 서부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양지18길 22

준공일자
1985.11.07

부지면적
438.7㎡

청사면적
242.9㎡

관할지역
성정1동, 백석동

❹ 두정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서북구 1공단 2길 13번

준공일자
2020.11.04.

부지면적
2,145.1㎡

청사면적
579.15㎡

관할지역
성정2동, 부성동(두정동)

❺ 성환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395
준공일자
2010.11.30.
부지면적
2,880㎡
청사면적
999.35㎡
관할지역
성환읍

❻ 쌍용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78(쌍용동)
준공일자
2004.12.28.
부지면적
1,311.7㎡
청사면적
451.08㎡
관할지역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❼ 입장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107
준공일자
2004.12.16.
부지면적
990㎡
청사면적
519.97㎡
관할지역
입장면

⑧ 직산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 4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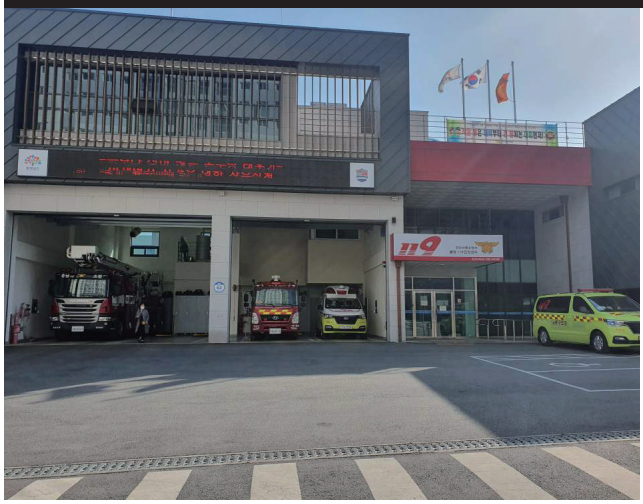
준공일자
1998.09.30.

부지면적
139.52㎡

청사면적
208.02㎡

관할지역
직산읍

⑨ 불당119안전센터



위 치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62

준공일자
2018.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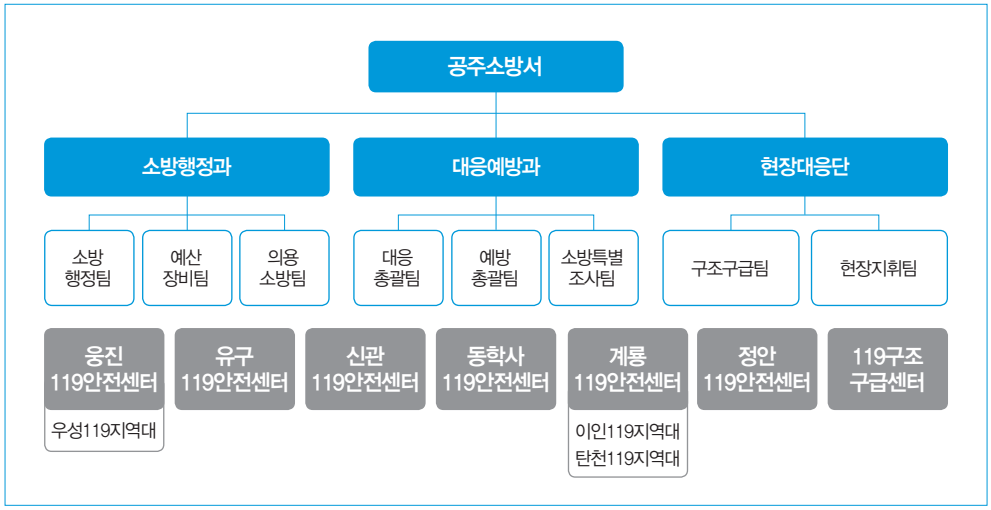
부지면적
1,025.1㎡

청사면적
861.27㎡

관할지역
불당동

5. 공주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공주소방서는 공주시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고도 공주시 일원을 관할하고, 웅진 · 유구 · 신관 · 동학사 · 계룡 · 정안, 구조구급센터 7개와 우성 · 이인 · 탄천지역대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공주소방서(웅진119안전센터/119구조구급센터)



위 치
공주시 무령로 55

준공일자
2016.03.16.

부지면적
7,568㎡

청사면적
3,622.64㎡

관할지역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❷ 유구119안전센터



위 치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368
준공일자
1989.10.04.
부지면적
615㎡
청사면적
576.91㎡
관할지역
유구읍, 사곡면, 신풍면

❸ 신관119안전센터



위 치
공주시 의당로 31
준공일자
2006.11.20.
부지면적
1,136㎡
청사면적
871.56㎡
관할지역
신관동, 월송동, 의당면

❹ 동학사119안전센터



위 치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110
준공일자
2002.09.17.
부지면적
397㎡
청사면적
279.51㎡
관할지역
반포면

❺ 계룡119안전센터



위 치
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18
준공일자
2013.07.12.
부지면적
837.6㎡
청사면적
659.84㎡
관할지역
계룡면

❻ 정안119안전센터



위 치
공주시 정안면 광정장터길 18
준공일자
1998.12.08.
부지면적
398㎡
청사면적
179.38㎡
관할지역
정안면

❼ 우성지역대



위 치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54
준공일자
2013.12.26.
부지면적
1,008㎡
청사면적
216.54㎡
관할지역
우성면

❷ 이인지역대



위 치
공주시 이인면 우릉골2길 6

준공일자
1998.11.13.

부지면적
1,589㎡

청사면적
193.71㎡

관할지역
이인면

❸ 탄천지역대



위 치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82-3

준공일자
1995.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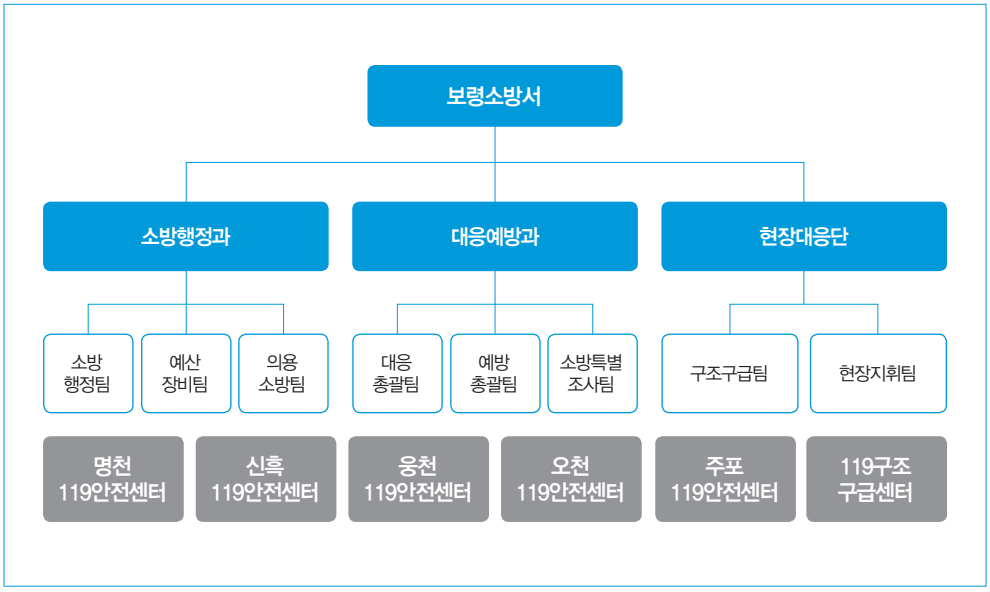
부지면적
244㎡

청사면적
159.98㎡

관할지역
탄천면

6. 보령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보령소방서는 충남 보령시를 관할하고, 명천, 신흑, 웅천, 오천, 주포, 구조구급센터 6개와 청라, 천북지역대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보령소방서(명천119안전센터/119구조구급센터)



위 치
보령시 성주산로 63

준공일자
2019.02.25.

부지면적
9,447.00㎡

청사면적
3,519.72㎡

관할지역
대천1~4동, 대천5동(내항동)

❷ 신흑119안전센터



위 치
보령시 대천항로 205

준공일자
1994.06.15.

부지면적
2,083.00㎡

청사면적
431.55㎡

관할지역
대천5동(신흑동, 요암동, 남곡동), 남포면

❸ 웅천119안전센터



위 치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947

준공일자
2003.07.19.

부지면적
1,564.00㎡

청사면적
621.00㎡

관할지역
웅천읍,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❹ 오천119안전센터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136

준공일자
2020.12.04.

부지면적
2,315.00㎡

청사면적
465.50㎡

관할지역
오천면 및 원산도 등 13개 도서지역

❺ 주포119안전센터



위 치
보령시 주포면 질재로 47-16
준공일자
2010.01.14.
부지면적
923.00㎡
청사면적
663.00㎡
관할지역
주교면, 청소면, 주포면

❻ 청라면119지역대



위 치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10
준공일자
2013.10.29.
부지면적
326.00㎡
청사면적
271.18㎡
관할지역
청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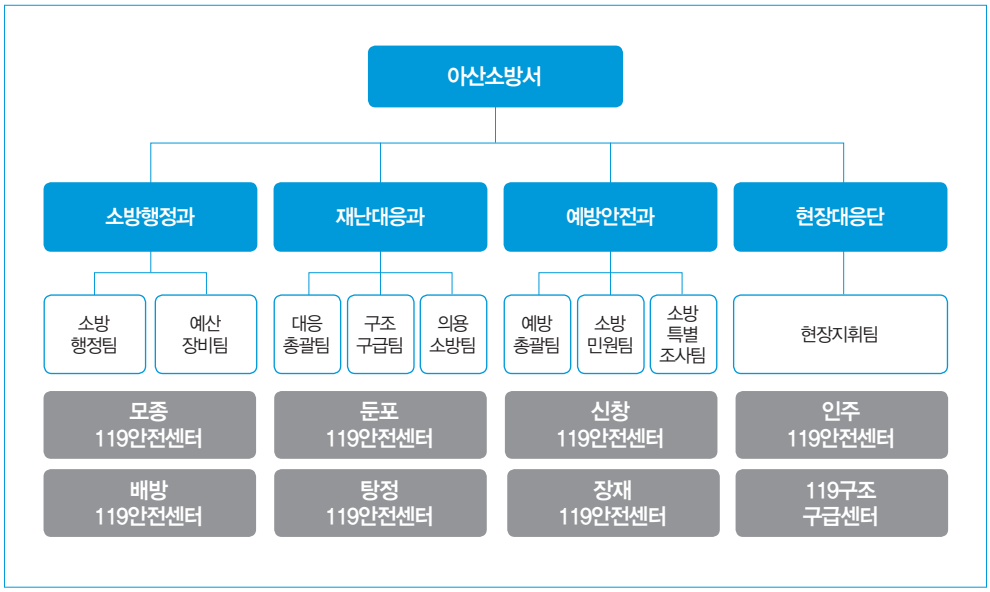
❼ 천북면119지역대



위 치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399-9
준공일자
2003.12.19.
부지면적
1,374.00㎡
청사면적
246.80㎡
관할지역
천북면

7. 아산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아산소방서는 아산시 전 지역을 관할하고, 모종 · 둔포 · 신창 · 인주 · 배방 · 탕정 · 장재 · 구조구급센터 8개와 음봉 · 선장지역대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아산소방서(모종119안전센터/119구조구급센터)



위 치
아산시 모종로 77

준공일자
2018.05.19.

부지면적
7,740.00㎡

청사면적
3,759.35㎡

관할지역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5동, 온양6동, 송악면

❷ 둔포119안전센터



위 치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848

준공일자
1995.09.05.

부지면적
1,115.00㎡

청사면적
482.7㎡

관할지역
둔포면, 인주면

❸ 신창119안전센터



위 치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48

준공일자
2005.05.27.

부지면적
1,157㎡

청사면적
459.00㎡

관할지역
신창면, 도고면, 선장면, 온양4동

❹ 인주119안전센터



위 치
아산시 인주면 공세길 19

준공일자
2014.11.25.

부지면적
1,261㎡

청사면적
683.94㎡

관할지역
인주면, 영인면

❺ 배방119안전센터



위 치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준공일자
2012.11.06.

부지면적
716㎡

청사면적
652.41㎡

관할지역
배방읍

❻ 탕정119안전센터



위 치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26

준공일자
2016.10.06.

부지면적
1,357.8㎡

청사면적
761.41㎡

관할지역
엽치읍, 탕정면

❼ 장재119안전센터



위 치
충남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88

준공일자
2018.11.30.

부지면적
1,053.9㎡

청사면적
840.25㎡

관할지역
배방읍(장재리, 휴대리, 세교리)

❽ 음봉119지역대



위 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0

준공일자
1992.02.01.

부지면적
813㎡

청사면적
217.8㎡

관할지역
음봉면

❾ 선장119지역대



위 치
아산시 선장면 선장로 137

준공일자
2009.10.22.

부지면적
194.38㎡

청사면적
194.38㎡

관할지역
선장면

8. 서산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서산소방서는 서산 지역을 관할 하고, 예천 · 대산 · 동부 · 해미 · 부석, 성연 · 구조구급 센터 7개와 음암 · 운산지역대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서산소방서(예천119안전센터)



위 치
서산시 호수공원 14로 26-4

준공일자
1990.09.25.

부지면적
5,783㎡

청사면적
2,068.72㎡

관할지역
부춘동, 석남동, 수석동

❷ 대산119안전센터



위 치
서산시 대산읍 망일산로 831-15

준공일자
2017.08.15.

부지면적
2,494㎡

청사면적
660.06㎡

관할지역
대산읍

❸ 동부119안전센터



위 치
서산시 학동3로 52

준공일자
2006.08.29.

부지면적
574.7㎡

청사면적
551.33㎡

관할지역
동문동, 음암면

❹ 해미119안전센터



위 치
서산시 해미면 성지3길 29

준공일자
1995.12.09.

부지면적
822㎡

청사면적
564.2㎡

관할지역
해미면, 운산면, 고북면

❺ 부석119안전센터



위 치
서산시 부석면 강경벌로 10
준공일자
2009.06.10.
부지면적
1,000㎡
청사면적
552.07㎡
관할지역
부석면, 인지면 일원

❻ 성연119안전센터



위 치
서산시 성연면 성연5로 92-31
준공일자
2017.12.21.
부지면적
3,846.7㎡
청사면적
859.16㎡
관할지역
성연면, 지곡면, 팔봉면

❼ 119구조구급센터



위 치
서산시 호수공원 14로 26-4
준공일자
2013.06.17
부지면적
5,783㎡
청사면적
887.2㎡
관할지역
서산시

❽ 음암119지역대



위 치
서산시 음암면 도당큰말길 6-16

준공일자
1991.02.25.

부지면적
162㎡

청사면적
156.3㎡

관할지역
음암면

❾ 운산119지역대



위 치
서산시 운산면 운정로 15

준공일자
2019.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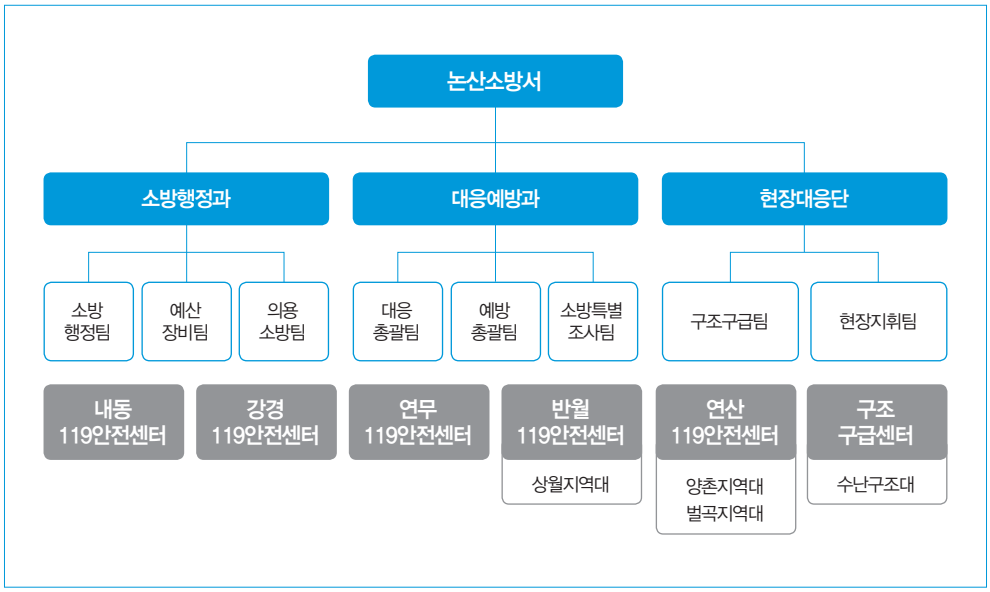
부지면적
993㎡

청사면적
285.53㎡

관할지역
운산면

9. 논산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논산소방서는 논산시 지역을 관할하고, 내동 · 강경 · 연무 · 반월 · 연산, 구조구급 센터 6개와 상월 · 양촌 · 벌곡지역대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논산소방서(내동119안전센터 · 119구조구급센터)



위 치
논산시 대학로 17

준공일자
1997.11.14.

부지면적
3,462㎡

청사면적
3,132.26㎡

관할지역
7동(취암동, 내동, 지산동, 관촉동, 부창동, 등화동,강산동), 2면(은진면, 부적면)

❷ 강경119안전센터



위 치
논산시 동안로 3

준공일자
1996.02.14.

부지면적
3,634㎡

청사면적
892.17㎡

관할지역
1읍(강경읍), 2면(성동면, 채운면)

❸ 연무119안전센터



위 치
논산시 동안로 1137

준공일자
2007.12.21.

부지면적
2,501㎡

청사면적
991.5㎡

관할지역
1읍(연무읍), 1면(가야곡면)

❹ 반월119안전센터



위 치
논산시 해월로 155

준공일자
2004.09.18.

부지면적
691㎡

청사면적
748.61㎡

관할지역
4동(대교,화지,덕지,반월동),
1면(광석면)

⑤ 반월119안전센터 상월면119지역대



위 치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1087

준공일자
2014.09.29.

부지면적
1,000㎡

청사면적
198.75㎡

관할지역
2면(노성면, 상월면)

⑥ 연산119안전센터



위 치
논산시 관창로 54

준공일자
2014.12.19.

부지면적
1,465㎡

청사면적
1,074.08㎡

관할지역
연산면

❼ 연산119안전센터 양촌면119지역대



위 치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 655번길27

준공일자
1996.02.07.

부지면적
347㎡

청사면적
160.93㎡

관할지역
양촌면

❽ 연산119안전센터 벌곡면119지역대



위 치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 596-1

준공일자
2017.0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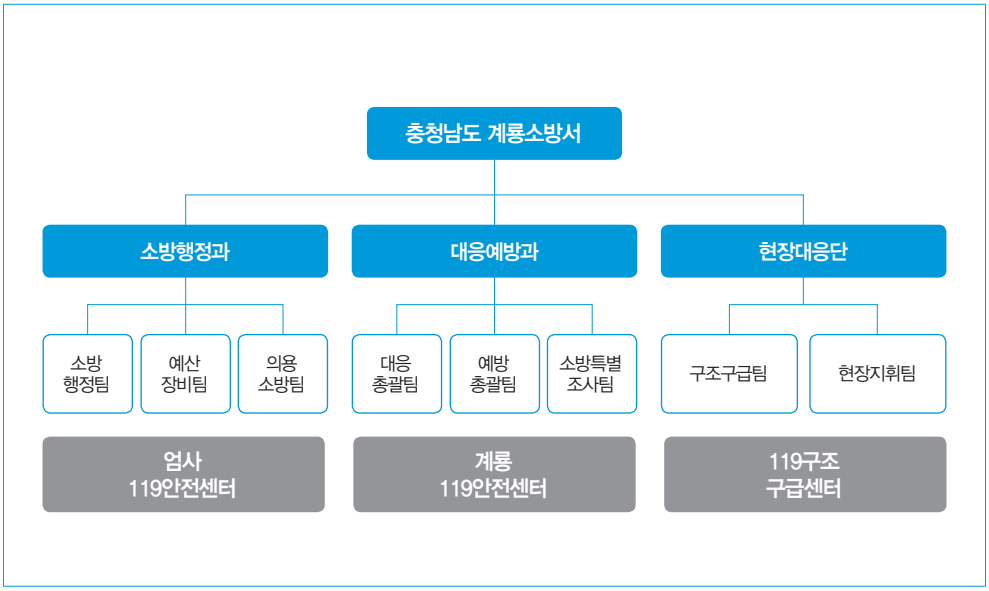
부지면적
1,653㎡

청사면적
262.2㎡

관할지역
벌곡면

10. 계룡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계룡소방서는 1개동 3개면(금암동, 신도안면, 엄사면, 두마면)을 관할하고 엄사 · 계룡 · 구조구급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계룡소방서(엄사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위 치
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32

준공일자
2020.08.25.

부지면적
12,055㎡

청사면적
1,733.66㎡

관할지역
엄사면, 신도안면

❷ 계룡119안전센터



위 치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70

준공일자
2007.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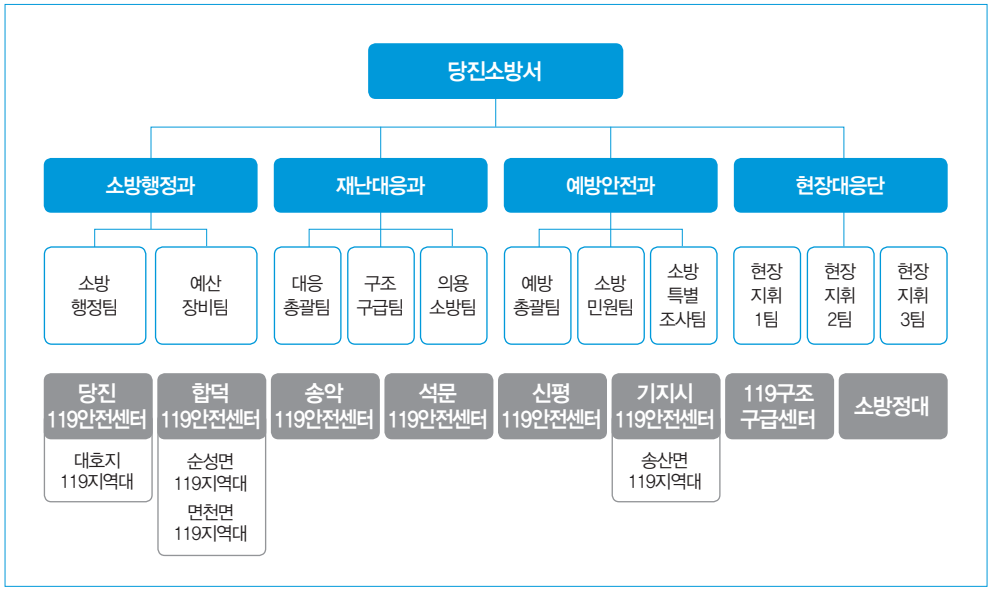
부지면적
6426.5㎡

청사면적
1087.68㎡

관할지역
금암동, 두마면

11. 당진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당진소방서는 당진 · 합덕 · 송악 · 석문 · 신평 · 기지시 · 구조구구급 센터 7개와 소방정대 1개 대호지 · 순성, 면천, 송산지역대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당진소방서(당진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위 치
당진시 역천로 838

준공일자
2005.05.16.

부지면적
9,506㎡

청사면적
2,466.77㎡

관할지역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
정미면, 대호지면

❷ 합덕119안전센터



위 치
당진시 우강면 중방로 2

준공일자
2000.07.27.

부지면적
1,892㎡

청사면적
705.15㎡

관할지역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❸ 송악119안전센터



위 치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019
준공일자
2006.05.18.
부지면적
2,992㎡
청사면적
553.15㎡
관할지역
송악읍, 송산면

❹ 석문119안전센터



위 치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1069-21
준공일자
2018.01.31.
부지면적
1,762㎡
청사면적
599.04㎡
관할지역
석문면, 고대면

❺ 신평119안전센터



위 치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133
준공일자
2014.07.15.
부지면적
927㎡
청사면적
766.02㎡
관할지역
신평면, 우강면

⑥ 기지시119안전센터



위 치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844

준공일자
2015.07.10.

부지면적
4,403㎡

청사면적
683.14㎡

관할지역
송악읍, 송산면, 시곡동

⑦ 소방정대



위 치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리 79-25

준공일자
2015.06.23.

부지면적
1,827.6㎡

청사면적
898㎡

관할지역
충남 서해안 일원

⑧ 대호지119지역대



위 치
당진시 대호지면 대호로 7

준공일자
2001.12.26.

부지면적
852㎡

청사면적
246.96㎡

관할지역
대호지면

⑨ 순성119지역대



위 치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147

준공일자
2002.10.10.

부지면적
659㎡

청사면적
263.16㎡

관할지역
순성면

⑩ 면천119지역대



위 치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623-59

준공일자
2008.07.28.

부지면적
934㎡

청사면적
359.4㎡

관할지역
면천면

⑪ 송산119지역대



위 치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25

준공일자
1997.0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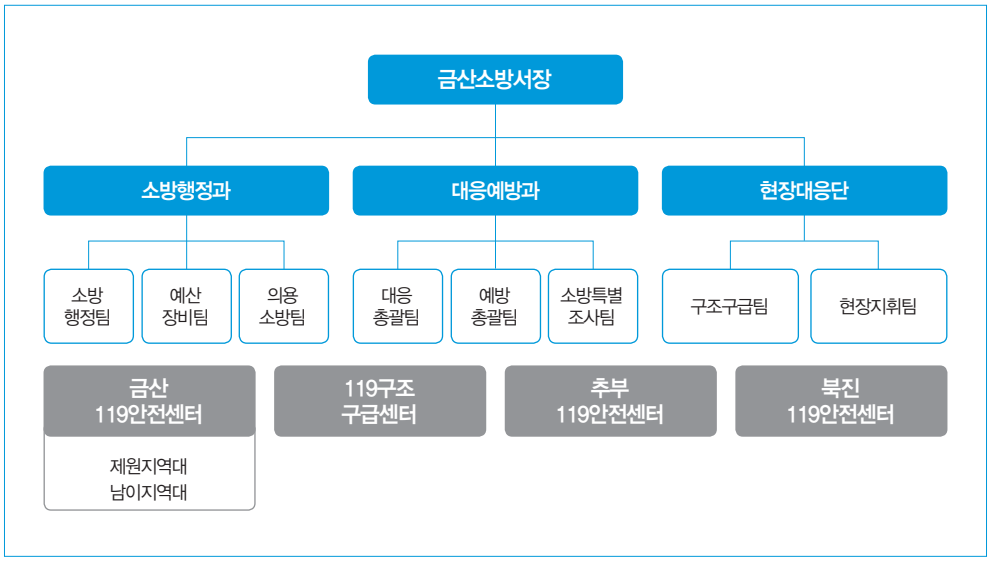
부지면적
826㎡

청사면적
272㎡

관할지역
송산면

12. 금산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금산소방서는 금산군 전 지역을 관할하고, 금산 · 추부 · 복진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등 총 4개의 센터와 제원 · 남이119지역대 등 2개 지역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금산소방서(본서, 금산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위 치
금산군 금산읍 삼풍로 2

준공일자
2001.04.18.

부지면적
4,954㎡

청사면적
2,036.13㎡

관할지역
금산군

❷ 추부119안전센터



위 치
금산군 추부면 삼육로 47

준공일자
2013.11.13.

부지면적
2,743㎡

청사면적
939.2㎡

관할지역
추부면, 군북면

❸ 복진119안전센터



위 치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47-1

준공일자
2003.02.05.

부지면적
1,636㎡

청사면적
497.21㎡

관할지역
진산면, 복수면

❹ 제원119지역대



위 치
금산군 제원면 군북로 11

준공일자
1997.06.16.

부지면적
289㎡

청사면적
223.3㎡

관할지역
제원면, 부리면

❺ 남이119지역대



위 치
금산군 남이면 진악로 54

준공일자
1997.0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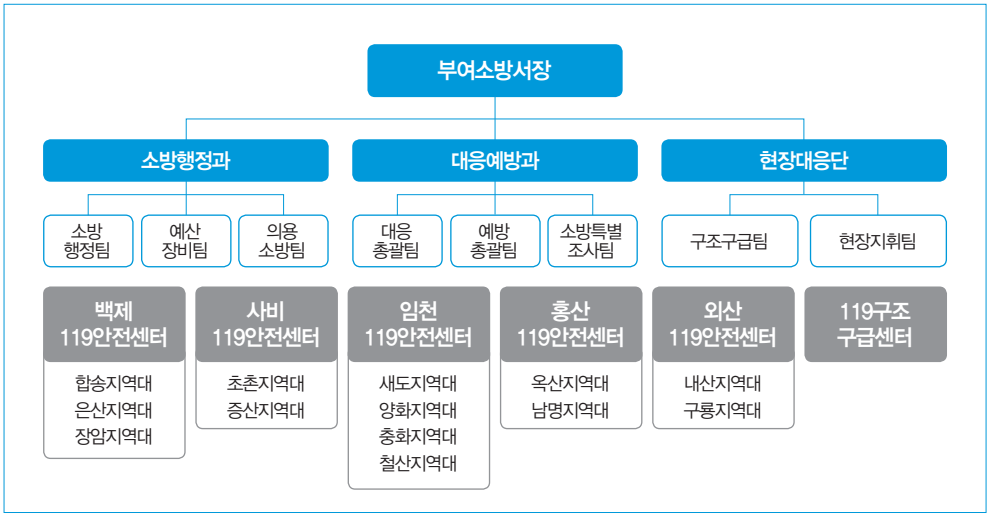
부지면적
527㎡

청사면적
160.34㎡

관할지역
남일면, 남이면

13. 부여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부여소방서는 부여군 전 지역을 관할하고, 백제 · 사비 · 임천 · 홍산 · 외산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등 총 6개의 센터와 합송 · 초촌 · 새도 · 옥산 지역대 등 총 14개의 지역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부여소방서(본서, 백제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위 치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17

준공일자
2007.03.06.

부지면적
5,463.00㎡

청사면적
2,825.44㎡

관할지역
규암면, 장암면, 은산면

❷ 사비119안전센터



위 치
부여군 부여읍 북포로 29

준공일자
2013.12.30.

부지면적
1,500.00㎡

청사면적
595.5㎡

관할지역
부여읍, 석성면, 초촌면

❸ 임천119안전센터



위 치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79번길1

준공일자
1999.12.28.

부지면적
1,313㎡

청사면적
604.72㎡

관할지역
임천면, 양화면, 충화면, 세도면

❹ 홍산119안전센터



위 치
부여군 홍산면 북토로 89

준공일자
2012.11.19.

부지면적
1,878㎡

청사면적
561.9㎡

관할지역
홍산면, 옥산면, 남면

❺ 외산119안전센터



위 치
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235

준공일자
2010.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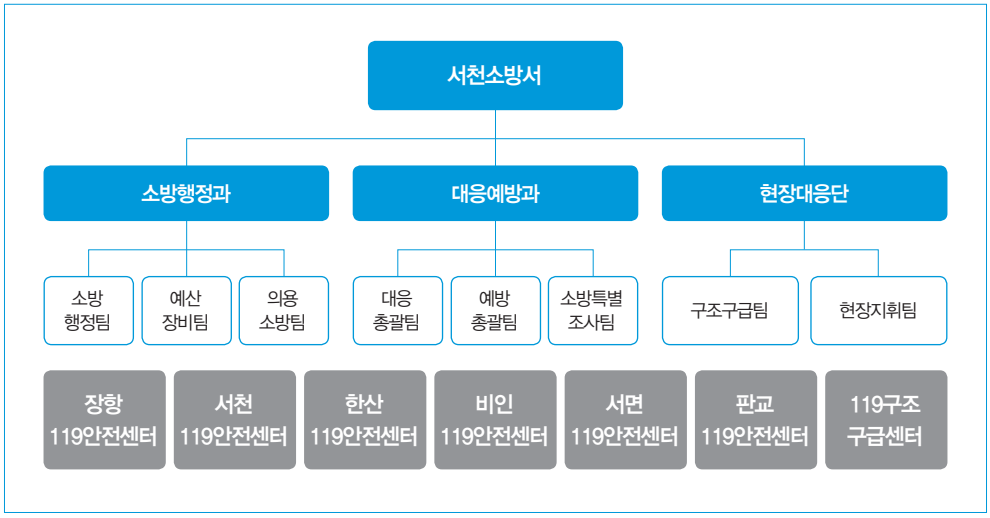
부지면적
1,340㎡

청사면적
531.62㎡

관할지역
구룡면, 내산면, 외산면

14. 서천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당진소방서는 당진 · 합덕 · 송악 · 석문 · 신평 · 기지시 · 구조구구급 센터 7개와 소방정대 1개 대호지 · 순성, 면천, 송산지역대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서천소방서(장항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위 치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37(화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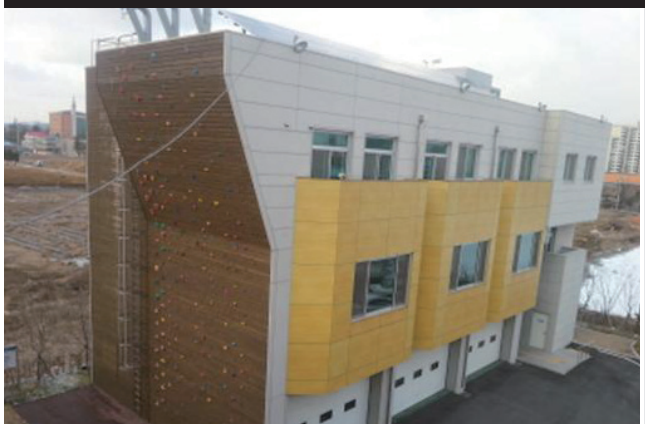
준공일자
2005.10.10.

부지면적
3,548㎡

청사면적
1,883㎡

관할지역
서천군 일원

❷ 서천소방서(별관)



위 치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37(화천리)
준공일자
2013.07.19.
부지면적
3,548㎡
청사면적
828.85㎡
관할지역
서천군

❸ 서천119안전센터



위 치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49번길 33-8
준공일자
2001.09.26.
부지면적
903.3㎡
청사면적
675㎡
관할지역
서천읍, 시초면

❹ 한산119안전센터



위 치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164
준공일자
2010.11.22.
부지면적
2,200㎡
청사면적
539.77㎡
관할지역
한산면,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

❺ 비인119안전센터



위 치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41

준공일자
2013.08.16.

부지면적
1,854㎡

청사면적
630.11㎡

관할지역
비인면, 종천면

❻ 서면119안전센터



위 치
서천군 서면 부사로 153

준공일자
2009.12.02.

부지면적
1,900㎡

청사면적
537.55㎡

관할지역
서면

❼ 판교119안전센터



위 치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21-5

준공일자
1995.0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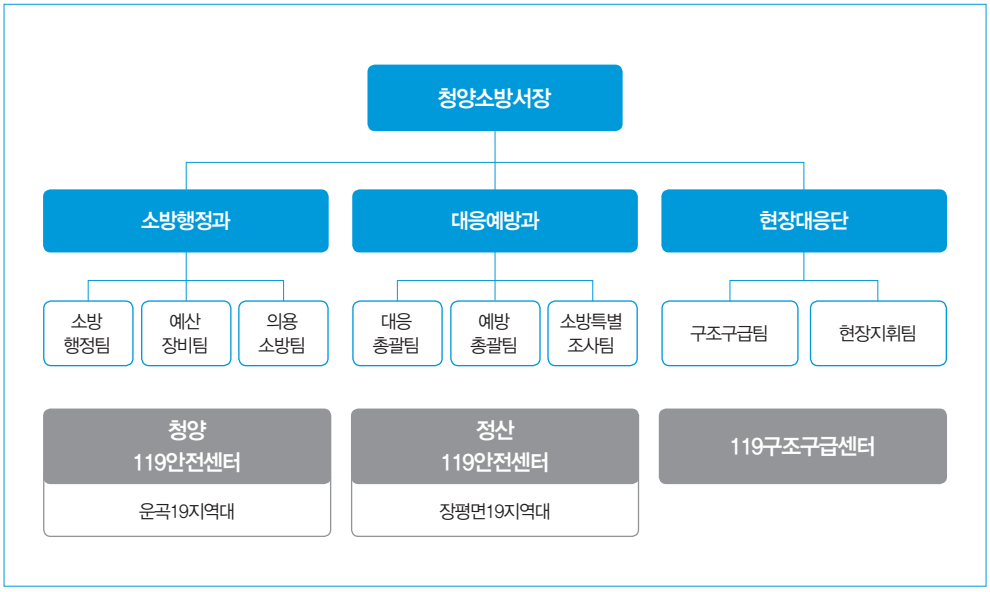
부지면적
639㎡

청사면적
183.1㎡

관할지역
판교면, 문산면

15. 청양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청양소방서는 청양군을 관할하고, 2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의 119구조구급센터, 2개의 지역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청양소방서(청양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위 치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187

준공일자
2017.09.27.

부지면적
6,485㎡

청사면적
3,426㎡

관할지역
청양읍, 대치면, 남양면, 비봉면, 화성면

❷ 정산119안전센터



위 치
청양군 정산면 서정4길 9

준공일자
2005.10.26.

부지면적
1,193㎡

청사면적
672.3㎡

관할지역
청산면, 목면, 청남면

❸ 운곡119지역대



위 치
청양군 운곡면 갈산길 9

준공일자
2006.11.09.

부지면적
1,532㎡

청사면적
219.18㎡

관할지역
운곡면

❹ 장평119지역대



위 치
청양군 장평면 까치내로 17

준공일자
2003.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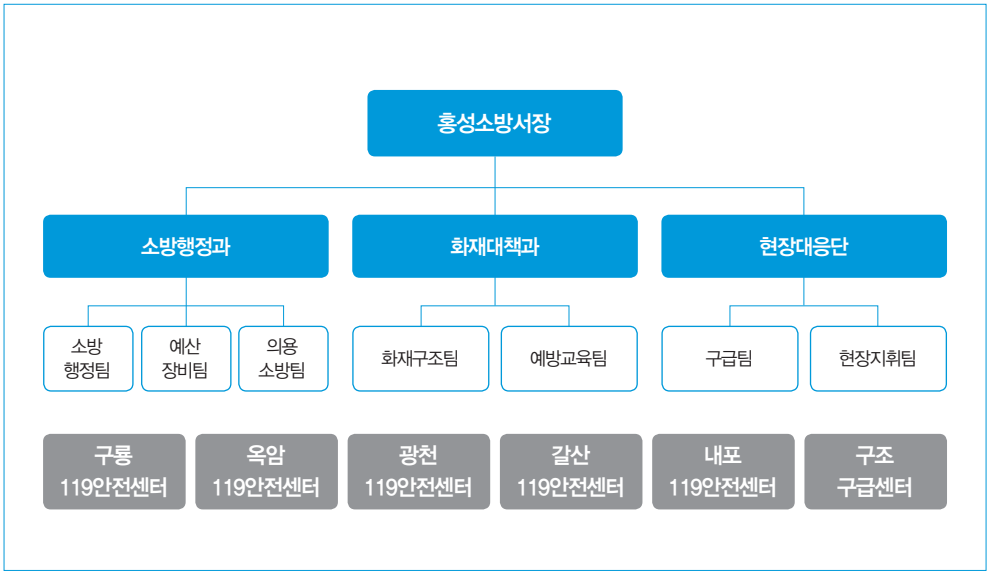
부지면적
954㎡

청사면적
197.05㎡

관할지역
장평면

16. 홍성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홍성소방서는 홍성 지역을 관할하고, 구룡 · 옥암 · 광천 · 갈산 · 내포, 구조구급 센터 6개와 장곡 · 서부지역대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홍성소방서(구룡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위 치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741

준공일자
2005.06.03.

부지면적
9,579㎡

청사면적
3,087.4㎡

관할지역
홍성읍, 홍동면, 금마면

❷ 옥암119안전센터



위 치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8

준공일자
2015.09.23.

부지면적
1,899㎡

청사면적
740.56㎡

관할지역
홍성읍

❸ 광천119안전센터



위 치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354

준공일자
2010.10.14.

부지면적
1,983㎡

청사면적
971.11㎡

관할지역
광천읍,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❹ 갈산119안전센터



위 치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50번길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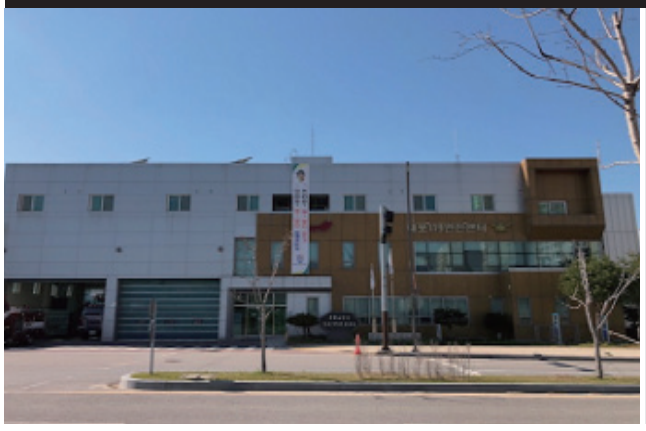
준공일자
2015.01.26.

부지면적
1,381㎡

청사면적
512.5㎡

관할지역
갈산면, 서부면, 구항면

❺ 내포119안전센터



위 치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133
준공일자
2013.05.01.
부지면적
1,500㎡
청사면적
981.35㎡
관할지역
홍북읍

❻ 서부119지역대



위 치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580
준공일자
2015.07.07.
부지면적
804㎡
청사면적
233.44㎡
관할지역
서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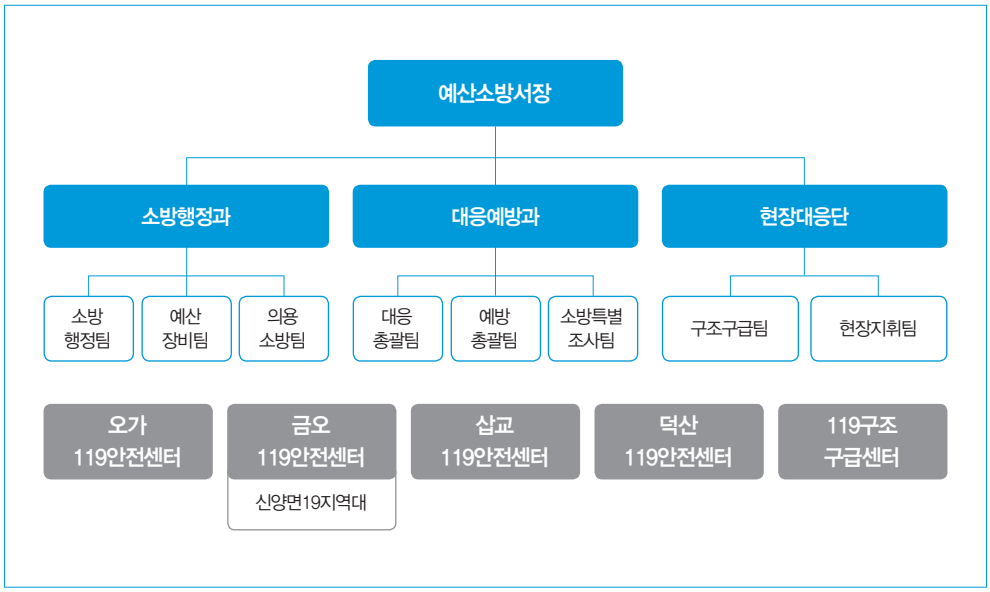
❼ 장곡119지역대



위 치
홍성군 홍성읍 홍남동로 501-13
준공일자
2017.12.15.
부지면적
995㎡
청사면적
219.4㎡
관할지역
장곡면

17. 예산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예산소방서는 예산군 전 지역을 관할하고, 오가 · 금오 · 삽교 · 덕산, 구조구급센터 5개와 신양지역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예산소방서(오가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위 치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111

준공일자
1979.04.20.

부지면적
5600㎡

청사면적
1559㎡

관할지역
오가면, 응봉면, 대흥면

❷ 금오119안전센터



위 치
예산군 예산읍 예당관광로 760

준공일자
1989.12.12.

부지면적
1,189㎡

청사면적
677㎡

관할지역
예산읍, 대술면, 대흥면

❸ 삽교119안전센터



위 치
예산군 삽교읍 삽교1길 34

준공일자
2014.09.29.

부지면적
1,558㎡

청사면적
799.2㎡

관할지역
삽교읍

❹ 덕산119안전센터



위 치
예산군 덕산면 도청대로 1160

준공일자
2008.09.08.

부지면적
660㎡

청사면적
468.93㎡

관할지역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❺ 신양119지역대



위 치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94

준공일자
2019.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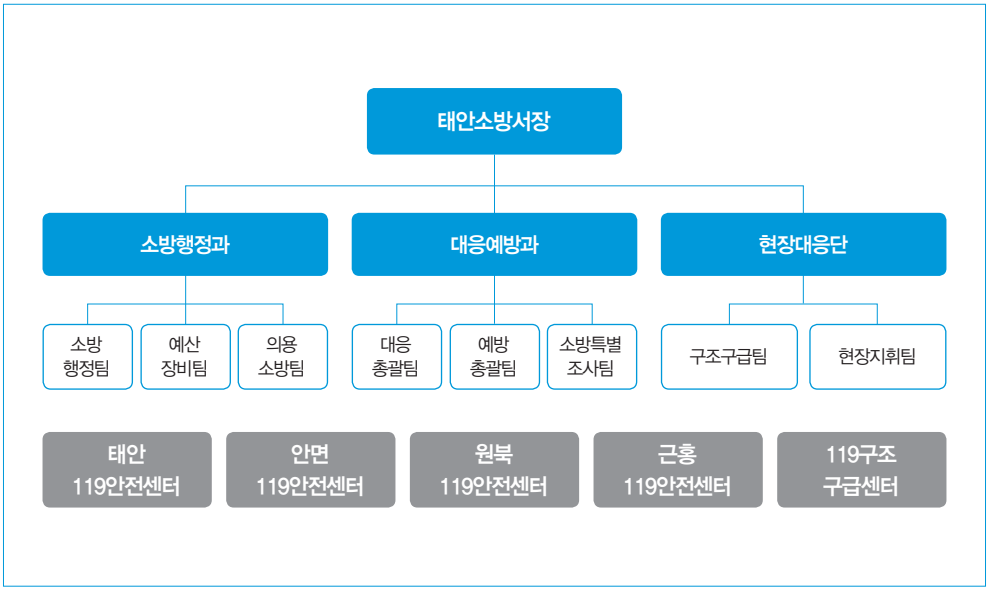
부지면적
621㎡

청사면적
257.82㎡

관할지역
신양면, 광시면

18. 태안소방서

① 조직도



② 청사 현황

태안소방서는 태안군 지역을 관할하고, 태안 · 안면 · 원북 · 근흥119안전센터 등 4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의 119구조구급센터로 총 5개의 센터와 남면 · 고남 · 소원면 등 3개소에 119지역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❶ 태안소방서(태안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위 치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00

준공일자
2015.01.07.

부지면적
10,582.00㎡

청사면적
3,522.46㎡

관할지역
태안읍, 남면

❷ 안면119안전센터



위 치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77
준공일자
2003.10.11.
부지면적
397.38㎡
청사면적
680.16㎡
관할지역
안면읍, 고남면

❸ 원북119안전센터



위 치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1031
준공일자
2016.12.28.
부지면적
1,958㎡
청사면적
996.77㎡
관할지역
원북면, 이원면

❹ 근흥119안전센터



위 치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201-8
준공일자
2017.12.20.
부지면적
3,000㎡
청사면적
824.35㎡
관할지역
근흥면, 소원면

❺ 남면119지역대



위 치
태안군 남면 달산포로 311
준공일자
2009.04.24.
부지면적
5,748㎡
청사면적
351.32㎡
관할지역
남면

❻ 고남면119지역대



위 치
태안군 고남면 빗독2길 38
준공일자
2003.11.10.
부지면적
349㎡
청사면적
280.26㎡
관할지역
고남면

❼ 소원면119지역대



위 치
태안군 소원면 소근로 132
준공일자
2001.12.14.
부지면적
826㎡
청사면적
314.64㎡
관할지역
소원면

부 록 6 역대 소방관서장

소방본부장

대수	계급	성명	재 임 기 간	비고
1	소방감	김 영 원	1992. 04. 08. ~ 1994. 03. 31.	
2	〃	황 신 야	1994. 04. 01. ~ 1995. 05. 02.	
3	〃	신 건 승	1995. 05. 03. ~ 1998. 09. 30.	
4	〃	김 철 종	1998. 10. 01. ~ 2001. 02. 12.	
5	〃	임 용 배	2001. 02. 13. ~ 2004. 01. 11.	
6	〃	조 택 희	2004. 01. 12. ~ 2005. 01. 23.	
7	소방준감	최 철 영	2005. 01. 24. ~ 2007. 07. 04.	
8	〃	장 석 화	2007. 07. 05. ~ 2010. 07. 05.	
9	〃	이 현 영	2010. 07. 06. ~ 2011. 03. 10.	
10	〃	김 영 석	2011. 03. 11. ~ 2012. 11. 15.	
11	소방감	정 문 호	2012. 11. 16. ~ 2014. 03. 31.	
12	〃	한 상 대	2014. 04. 01. ~ 2016. 05. 15.	
13	〃	이 창 섭	2016. 05. 16. ~ 2018. 10. 04.	
14	〃	윤 순 중	2018. 10. 05. ~ 2020. 01. 16.	
15	〃	손 정 호	2020. 01. 17. ~ 2020. 12. 31.	
16	〃	조 선 호	2021. 01. 01. ~ 현재	

충청소방학교장

대수	계급	성명	재 임 기 간	비고
1	소방감	이명웅	1993. 06. 10. ~ 1993. 12. 31.	
2	소방정	임용배	1994. 01. 07. ~ 1995. 05. 16.	
3	소방정	이남규	1995. 05. 17. ~ 1995. 11. 15.	
4	〃	장석화	1995. 11. 16. ~ 1997. 07. 28.	
5	〃	김정화	1997. 07. 29. ~ 1998. 06. 30.	
6	〃	정희철	1998. 08. 24. ~ 1999. 05. 17.	
7	〃	손은수	1999. 05. 18. ~ 2002. 08. 15.	
8	〃	서정식	2002. 08. 16. ~ 2004. 01. 11.	
9	〃	관세근	2004. 03. 25. ~ 2005. 10. 24.	
10	〃	이재화	2005. 11. 11. ~ 2007. 03. 05.	
11	〃	정완택	2007. 03. 06. ~ 2008. 10. 12.	
12	〃	이창섭	2008. 10. 13. ~ 2010. 02. 25.	
13	〃	김일수	2010. 02. 26. ~ 2011. 03. 22.	
14	〃	백동승	2011. 03. 23. ~ 2013. 12. 30.	
15	〃	홍상의	2014. 04. 16. ~ 2014. 12. 31.	
16	〃	진용만	2015. 02. 23. ~ 2016. 03. 22.	
17	〃	김연상	2016. 03. 23. ~ 2017. 10. 31.	
18	〃	성석열	2017. 11. 01. ~ 2019. 02. 19.	
19	〃	방장원	2019. 02. 20. ~ 2021. 04. 18.	
20	〃	방상천	2021. 04. 19. ~ 현재	

소방서장

구분	대수	계급	성명	재 임 기 간	비고
천안동남	1	소방경감	이종숙	1970. 04. 27. ~ 1970. 07. 11.	
	2	소방총경	박인규	1970. 07. 12. ~ 1975. 10. 08.	
	3	소방정	김흥길	1975. 10. 09. ~ 1978. 05. 10.	
	4	〃	최세관	1978. 05. 11. ~ 1980. 04. 07.	
	5	〃	김성환	1980. 04. 08. ~ 1982. 07. 01	
	6	〃	이영주	1982. 07. 02. ~ 1984. 06. 04.	
	7	〃	김성환	1984. 06. 05. ~ 1985. 12. 12.	
	8	〃	정환조	1985. 12. 13. ~ 1986. 12. 31.	
	9	〃	주길환	1987. 01. 01. ~ 1989. 09. 26.	
	10	〃	김영원	1989. 09. 27. ~ 1992. 04. 08.	
	11	〃	한명동	1992. 04. 09. ~ 1994. 10. 26.	
	12	〃	김정화	1994. 10. 27. ~ 1997. 07. 28.	
	13	〃	남상고	1997. 07. 12. ~ 1998. 09. 30.	
	14	〃	이현영	1998. 10. 01. ~ 2000. 09. 03.	
	15	〃	이재화	2000. 09. 04. ~ 2002. 09. 01.	
	16	〃	강대응	2002. 09. 02. ~ 2005. 01. 16.	
	17	〃	이종수	2005. 01. 17. ~ 2007. 07. 01.	
	18	〃	최경식	2007. 07. 02. ~ 2009. 02. 05.	
	19	〃	김재섭	2009. 02. 06. ~ 2010. 06. 30.	
	20	〃	홍상의	2010. 07. 01. ~ 2012. 07. 01.	
	21	〃	류충	2012. 07. 05. ~ 2013. 12. 31.	
	22	〃	김오식	2014. 01. 06. ~ 2016. 01. 04.	
	23	〃	송원규	2016. 01. 05. ~ 2017. 06. 30.	
	24	〃	김경호	2017. 07. 01. ~ 2018. 12. 31.	
	25	〃	구동철	2019. 01. 01. ~ 2020. 06. 30.	
	26	〃	노종복	2020. 07. 01. ~ 2021. 06. 30.	
	27	〃	박찬형	2021. 07. 01. ~ 현재	

구분	대수	계급	성명	재 임 기 간	비고
천안 서북	1	소방정	최경식	2011. 09. 26. ~ 2012. 06. 30.	
	2	〃	김득곤	2012. 07. 05. ~ 2014. 07 06.	
	3	〃	방상천	2014. 07. 07. ~ 2016. 06. 30.	
	4	〃	김봉식	2016. 07. 01. ~ 2017. 06. 30.	
	5	〃	김오식	2017. 07. 01. ~ 2018. 06. 30.	
	6	〃	노종복	2018. 07. 01. ~ 2020. 06. 30.	
	7	〃	박찬형	2020. 07. 01. ~ 2021. 06 .30.	
	8	〃	구동철	2021. 07. 01. ~ 현재	
공주	1	소방령	김영원	1985. 12. 13. ~ 1986. 12. 31.	
	2	〃	신건승	1987. 01. 01. ~ 1987. 07. 09.	
	3	〃	이남규	1987. 07. 10.. ~ 1989. 01. 17.	
	4	〃	임진철	1989. 01. 18. ~ 1992. 04. 30.	
	5	〃	임용배	1992. 05. 21. ~ 1993. 10. 03.	
	6	〃	임병용	1993. 10. 04. ~ 1994. 10. 26.	
	7	소방정	이상의	1994. 10. 27. ~ 1997. 04. 23.	
	8	〃	이승식	1997. 04. 24. ~ 1998. 08. 23.	
	9	〃	최웅길	1998. 10. 19. ~ 2000. 09. 05.	
	10	〃	강대웅	2000. 09. 08. ~ 2002. 09. 02.	
	11	〃	이종수	2002. 09. 03. ~ 2004 01. 05.	
	12	〃	정완택	2004. 01. 06. ~ 2007. 03. 05.	
	13	〃	신해철	2007. 03. 06. ~ 2008. 07. 24.	
	14	〃	정문호	2008. 07. 25. ~ 2009. 02. 21.	
	15	〃	오영환	2009. 02. 22. ~ 2011. 03. 22.	
	16	〃	채수철	2011. 03. 23. ~ 2013. 07. 04.	
	17	〃	이동우	2013. 07. 05. ~ 2015. 06. 30.	
	18	〃	손정호	2015. 07. 01. ~ 2016. 03. 22.	
	19	〃	오영환	2016. 03. 23. ~ 2018. 02. 20.	
	20	〃	조영학	2018. 02. 21.~ 2019. 06. 30.	
	21	〃	박찬형	2019. 07. 01. ~ 2020. 06. 30.	
	22	〃	류석윤	2020. 07. 01. ~ 현재	

구분	대수	계급	성명	재 임 기 간	비고
보령	1	소방령	김진길	1987. 11. 26. ~ 1988. 06. 30.	
	2	〃	정경식	1988. 07. 07. ~ 1991. 05. 15.	
	3	〃	임용배	1991. 05. 16. ~ 1992. 05. 21.	
	4	〃	박승옥	1992. 05. 22. ~ 1995. 05. 22.	
	5	소방정	이승식	1995. 05. 23. ~ 1997. 04. 23.	
	6	〃	강대웅	1997. 04. 24. ~ 1998. 11. 18.	
	7	〃	강호빈	1998. 11. 19. ~ 2000. 09. 05.	
	8	〃	이종수	2000. 09. 06. ~ 2002. 09. 02.	
	9	〃	임진철	2002. 09. 03. ~ 2003. 06. 30.	
	10	〃	신해철	2003. 07. 01. ~ 2005. 01. 16.	
	11	〃	최경식	2005. 01. 17. ~ 2007. 07. 01.	
	12	〃	오영환	2007. 07. 02. ~ 2009. 02. 05.	
	13	〃	손정호	2009. 02. 06. ~ 2011. 03. 22.	
	14	〃	김근제	2011. 03. 23. ~ 2013. 07. 05.	
	15	〃	채수철	2013. 07. 05. ~ 2015. 06. 30.	
	16	〃	김현묵	2015. 07. 01. ~ 2017. 06. 30.	
	17	〃	김봉식	2017. 07. 01. ~ 2018. 12. 31.	
	18	〃	김근제	2019. 01. 01. ~ 2019. 12. 31.	
	19	〃	방상천	2020. 01. 01. ~ 2021. 04. 18.	
	20	〃	방장원	2021. 04. 19. ~ 현재	
아산	1	소방령	김정화	1989. 01. 18. ~ 1991. 05. 14.	
	2	〃	정경식	1991. 05. 15. ~ 1993. 04. 05.	
	3	〃	김병목	1993. 04. 06. ~ 1995. 05. 16.	
	4	소방정	방승옥	1995. 05. 23. ~ 1995. 11. 11.	
	5	〃	이도준	1995. 11. 15. ~ 1996. 04. 27.	
	6	〃	정무희	1996. 05. 08. ~ 1997. 12. 14.	
	7	〃	이현영	1997. 12. 15. ~ 1998. 10. 18.	

구분	대수	계급	성명	재 임 기 간	비고
	8	〃	강대웅	1998. 10. 19. ~ 2000. 09. 04.	
	9	〃	신해철	2000. 09. 05. ~ 2002. 09. 01.	
	10	〃	이재화	2002. 09. 02. ~ 2004. 03. 24.	
	11	〃	정문호	2004. 03. 25. ~ 2005. 11. 11.	
	12	〃	이창섭	2005. 11. 12. ~ 2008. 07. 15.	
	13	〃	홍상의	2008. 07. 16. ~ 2010. 07. 07.	
	14	〃	김득곤	2010. 07. 08. ~ 2012. 07. 04.	
	15	〃	김봉식	2012. 07. 05. ~ 2014. 07. 06.	
	16	〃	이종하	2014. 07. 07. ~ 2016. 06. 30.	
	17	〃	김득곤	2016. 07. 01. ~ 2018. 12. 31.	
	18	〃	이규선	2018. 01. 01. ~ 2019. 06. 30.	
	19	〃	김성찬	2019. 07. 01. ~ 2020. 12. 31.	
	20	〃	김창석	2021. 01. 01. ~ 현재	
서산	1	소방령	정희철	1990. 03. 05. ~ 1992. 04. 30.	
	2	〃	김병목	1992. 05. 01. ~ 1993. 04. 05.	
	3	〃	남상호	1993. 04. 06. ~ 1995. 05. 23.	
	4	소방정	강대응	1995. 05. 24. ~ 1997. 04. 23.	
	5	〃	이상의	1997. 04. 24. ~ 1997. 12. 14.	
	6	〃	김관범	1997. 12. 15. ~ 1998. 09. 30.	
	7	〃	신해철	1998. 10. 01. ~ 2000. 09. 04.	
	8	〃	강호빈	2000. 09. 05. ~ 2002. 09. 01.	
	9	〃	이현영	2002. 09. 02. ~ 2003. 06. 30.	
	10	〃	김홍필	2003. 07. 01. ~ 2005. 11. 10.	
	11	〃	홍상의	2005. 11. 11. ~ 2008. 07. 15.	
	12	〃	김득곤	2008. 07. 16. ~ 2010. 07. 08.	
	13	〃	김봉식	2010. 07. 09. ~ 2012. 07. 05.	
	14	〃	정은수	2012. 07. 06. ~ 2013. 07. 04.	

구분	대수	계급	성명	재 임 기 간	비고
	15	〃	이일용	2013. 07. 05. ~ 2015. 06. 30.	
	16	〃	김경호	2015. 07. 01. ~ 2017. 06. 30.	
	17	〃	류석윤	2017. 07. 01. ~ 2018. 12. 31.	
	18	〃	권주태	2019. 01. 01. ~ 2019. 12. 31.	
	19	〃	강기원	2020. 01. 01. ~ 2020. 12. 31.	
	20	〃	김경호	2021. 01. 01. ~ 현재	
논산	1	소방정	이상의	1997. 12. 15. ~ 1998. 09. 30.	
	2	〃	임진철	1998. 10. 19. ~ 2000. 09. 04.	
	3	〃	이현영	2000. 09. 05. ~ 2002. 09. 01.	
	4	〃	강호빈	2002. 09. 02. ~ 2004. 09. 03.	
	5	〃	정무희	2004. 09. 04. ~ 2007. 06. 30.	
	6	〃	김재섭	2007. 07. 02. ~ 2009. 02. 05.	
	7	〃	강호빈	2009. 06. 02. ~ 2009. 12. 31.	
	8	〃	이종하	2010. 01. 07. ~ 2012. 07. 04.	
	9	〃	오영환	2012. 07. 05. ~ 2014. 07. 06.	
	10	〃	류봉희	2014. 07. 07. ~ 2015. 12. 31.	
	11	〃	권주태	2016. 01. 04. ~ 2017. 06. 30.	
	12	〃	진용만	2016. 01. 04. ~ 2017. 06. 30.	
	13	〃	이동우	2018. 07. 01. ~ 2020. 06. 30.	
	14	〃	김남석	2020. 07. 01. ~ 2021. 06. 30.	
	15	〃	이희선	2021. 07. 01. ~ 현재	
계룡	1	소방정	이규선	2016. 07. 01. ~ 2017. 12. 31.	
	2	〃	이종하	2018. 01. 01. ~ 2019. 06. 30.	
	3	〃	조영학	2019. 07. 01. ~ 2020. 06. 30.	
	4	〃	최장일	2020. 07. 01. ~ 2021. 06. 30.	
	5	〃	김경철	2021. 07. 01. ~ 현재	

구분	대수	계급	성명	재 임 기 간	비고
당진	1	소방정	최경식	2004. 01. 06. ~ 2005. 01. 16.	
	2	〃	강대웅	2005. 01. 17. ~ 2006. 07. 13.	
	3	〃	김득곤	2006. 07. 14. ~ 2008. 07. 15.	
	4	〃	신해철	2008. 07. 16. ~ 2009. 12. 31.	
	5	〃	박승희	2010. 07. 07. ~ 2012. 07. 04.	
	6	〃	류봉희	2012. 07. 05. ~ 2014. 07. 06.	
	7	〃	김득곤	2014. 07. 07. ~ 2016. 06. 30.	
	8	〃	방상천	2016. 07. 01. ~ 2017. 12. 31.	
	9	〃	박찬형	2018. 01. 01. ~ 2019. 06. 31.	
	10	〃	김오식	2019. 07. 01. ~ 2020. 12. 31.	
	11	〃	유현근	2021. 01. 01. ~ 현재	
금산	1	소방정	박승희	2008. 01. 25. ~ 2010. 01. 06.	
	2	〃	조석구	2010. 01. 07. ~ 2013. 06. 30.	
	3	〃	김현묵	2013. 07. 01. ~ 2015. 06. 30.	
	4	〃	조영학	2015. 07. 01. ~ 2016. 12. 31.	
	5	〃	이동우	2017. 01. 01. ~ 2018. 06. 30.	
	6	〃	채수철	2018. 07. 01. ~ 2019. 12. 31.	
	7	〃	권주태	2020. 01. 01. ~ 2020. 12. 31.	
	8	〃	강윤규	2021. 01. 01. ~ 현재	
부여	1	소방정	김대환	2005. 01. 10. ~ 2007. 07. 01.	
	2	〃	강호빈	2007. 07 .02. ~ 2009. 02. 05.	
	3	〃	김대환	2009. 02. 06. ~ 2010. 02. 28.	
	4	〃	김근제	2010. 03. 02. ~ 2011. 03. 22.	
	5	〃	김현묵	2011. 03. 23. ~ 2012. 07. 05.	
	6	〃	이종하	2012. 07. 06. ~ 2014. 07. 06.	
	7	〃	김봉식	2014. 07. 07. ~ 2016. 06. 30.	
	8	〃	박찬형	2016. 07. 01. ~ 2017. 12. 31.	

구분	대수	계급	성명	재 임 기 간	비고
	9	〃	유현근	2018. 01. 01. ~ 2019. 06. 30.	
	10	〃	김창석	2019. 07. 01. ~ 2020. 12. 31.	
	11	〃	김기록	2021. 01. 01. ~ 현재	
서천	1	소방정	이종하	2008. 01. 25. ~ 2010. 01. 06.	
	2	〃	류봉희	2010. 01. 07. ~ 2012. 07. 04.	
	3	〃	김연상	2012. 07. 05. ~ 2013. 11. 20.	
	4	〃	강대훈	2013. 11. 21. ~ 2015. 02. 23.	
	5	〃	이규선	2015. 02. 24. ~ 2016. 06. 30.	
	6	〃	이종하	2016. 07. 01. ~ 2017. 12. 31.	
	7	〃	김근제	2018. 01. 01. ~ 2018. 12. 31.	
	8	〃	최장일	2019. 01. 01. ~ 2020. 06. 30.	
	9	〃	구동철	2020. 07. 01. ~ 2021. 06. 30.	
	10	〃	최경수	2021. 07. 01. ~ 현재	
청양	1	소방정	이광성	2015. 01. 07. ~ 2015. 12. 31.	
	2	〃	류석윤	2016. 01. 01. ~ 2017. 06. 30.	
	3	〃	이일용	2017. 07. 01. ~ 2019. 06. 30.	
	4	〃	류일희	2019. 07. 01. ~ 2020. 06. 30.	
	5	〃	김경호	2020. 07. 01. ~ 2021. 06. 30.	
	6	〃	강기원	2021. 07. 01. ~ 현재	
홍성	1	소방정	정무희	2002. 04. 06. ~ 2004. 09. 05.	
	2	〃	강호빈	2004. 09. 05. ~ 2007. 07. 02.	
	3	〃	김대환	2007. 07. 03. ~ 2009. 02. 05.	
	4	〃	최경식	2009. 02. 06. ~ 2011. 09. 25.	
	5	〃	이동우	2011. 09. 26. ~ 2013. 07. 05.	
	6	〃	손정호	2013. 07. 05. ~ 2015. 06. 30.	
	7	〃	김근제	2015. 07. 01. ~ 2016. 12. 31.	
	8	〃	채수철	2017. 01. 01. ~ 2018. 06. 30.	

구분	대수	계급	성명	재 임 기 간	비고
	9	〃	송원규	2018. 07. 01. ~ 2019. 06. 30.	
	10	〃	유현근	2019. 07. 01.~ 2020. 12. 31.	
	11	〃	김성찬	2021. 01. ~ 현재	
예산	1	소방정	김대환	2003. 11. 24. ~ 2005. 01. 09.	
	2	〃	김재섭	2005. 01. 10. ~ 2007. 07. 01.	
	3	〃	이종수	2007. 07. 02. ~ 2009. 02. 06.	
	4	〃	채수철	2009. 02. 07. ~ 2011. 03. 22.	
	5	〃	김종근	2011. 03. 23. ~ 2013. 01. 01.	
	6	〃	김경호	2013. 01. 02. ~ 2015. 06. 30.	
	7	〃	이일용	2015. 07. 01. ~ 2017. 06. 30.	
	8	〃	권주태	2017. 07. 01. ~ 2018. 12. 31.	
	9	〃	강기원	2019. 01. 01. ~ 2019. 12. 31.	
	10	〃	채수철	2020. 01. 01. ~ 2020. 12. 31.	
	11	〃	김오식	2021. 01. 01. ~ 현재	
태안	1	소방정	송원규	2013. 11. 29. ~ 2015. 12. 31.	
	2	〃	김오식	2016. 01. 01. ~ 2017. 06. 30.	
	3	〃	구동철	2017. 07. 01. ~ 2018. 12. 31.	
	4	〃	김경호	2019. 01. 01. ~ 2020. 06. 30.	
	5	〃	이희선	2020. 07. 01. ~ 2021. 06. 30.	
	6	〃	김상식	2021. 07. 01. ~ 현재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 소방청.『한국소방행정사』.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실, 2019. 6.
- 천안소방서 의용소방대.『天安義勇消防隊 六十年史(1945~2005)』. 2005.
- 충남소방본부.『소방안전통계』. 2015~2019.

웹사이트 및 사진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생략)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생략)
- 충남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s://www.cn119.go.kr/
- e영상역사관. https://www.ehistory.go.kr/

충남소방행정사를 제작하며...

역사는 있는데 그 사실을 전해줄 기록물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행정사 발간 기획의 배경이자 출발이었다. 그러나 화재현장에 물이 없는 당혹감처럼 인용하고 검증할 사료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서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아마 과거에 어느 누군가도 충남 소방의 역사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격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와 당위성이 약해져 가는 마음을 다잡는 동력이 되었다.

탈고를 하면서 후련하기도 했고 뭔가 이루어냈다는 성취감도 맛보았다. 하지만 어깨를 누르는 아쉬움도 한가득이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했다. 몇 개월 간의 작업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분명 과욕이었을 것이다. 역사 앞에서 겸손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를 뒤지고 물으며 편집하다 보니 곳곳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충남 소방 첫 번째의 행정사 발간을 통해 역사기록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작은 깃발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 앞으로 후배들이 더욱 풍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제해서 새로운 개정판을 주기적으로 발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또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계절이 바뀌는 내내 우리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을 내포 가야산과 용봉산은 그 의지와 바램을 기억하고 전해 줄 것이다.

2021년 12월

내포 충남도청 7층 소방본부 사무실에서

편집위원 일동

忠南消防行政史 편집위원

위 원 장	소방본부	본부장	**조선호**
위　　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류일희**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강종범**
	소방본부	청렴조사과장	**김남석**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최장일**
	소방본부	특수구조단장	**조영학**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	**진종현**
자문위원			
실　　무	소방본부	기획예산팀장	**김종욱**
	소방본부	소방위	**허 철**
	홍성소방서	소방경	**박홍신**
	서산소방서	소방교	**정필호**(현. 경기도소방본부)
	당진소방서	소방사	**임종혁**
자료정리	소방본부	의용소방팀장	**고광종**
(사 진)	소방본부	소방위	**송보미**

충남소방행정사(초판)

The History of
Chungnam Fire Services

[非賣品]

인쇄일 2021. 12.

발행일 2021. 12.

발행인 충남소방본부장 **조선호**

발행처 충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기획예산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041-635-5569)